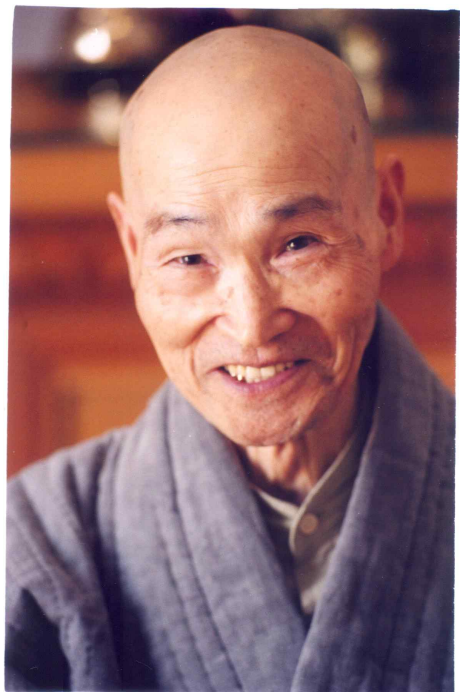
청화淸華 큰스님 법어집

마음의 고향 시리즈. 6

마음의 고향

화장세계華藏世界 법문



무주당無住堂 청화淸華 대종사大宗師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1947년 25세에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金陀 대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셔서 출가 이후 50여 년 동안 사성암, 벽송사, 백장암, 상견성암, 상원암, 남미륵암, 칠장사 등에서 수행정진 하셨다. 1985년 전남 곡성군 동리산 태안사에서 3년 결사를 시작으로 회상을 이뤄 대중교화의 인연을 지으시고 1995년까지 태안사를 중창 복원하여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인 동리산문桐裏山門을 재건하셨다.

미주교포를 위해 카멜 삼보사, 팜스프링스 금강선원 등을 건립하여 3년 결사를 지내시고 조계종 원로의원, 성륜사 조실을 지내셨다. 2002년 서울 도봉산 광륜사를 개원하시고 2003년 음력 10월 19일 법납 56세, 세수 81세에 곡성 성륜사 조선당에서 열반에 드셨다.

스승이신 금타金陀대화상의 유고遺稿를 정리하여 「금강심론」을 편저編著하셨으며, 법어집으로 「정통선의 향훈」, 「원통불법의 요체」, 「마음의 고향」, 「가장 행복한 공부」 등이 있고 역서譯書로 『정토삼부경』, 『약사경』, 『육조단경』 등이 있다.

마음의 고향 6권

화장세계華藏世界 법문法門

인연因緣

“「마음의 고향」 6권은 2012년 원적圓寂하신 태호泰昊스님께서 청화 큰스님의 태안사 3년 결사 시절(1985~1988) 법문을 녹취, 노트에 기록하여 놓은 것을 원적 전에 본정本淨거사님께 전하였고 거사께서는 워드 작업하여 한글파일로 만들어 무주선원에 제공하였습니다. 무주선원에서는 녹취를 확인, 교정보아 「마음의 고향」 6권으로 엮어서 법공양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자료를 인연 맺어주신 원적하신 태호泰昊 사형스님, 본정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차

Ⅰ. 오늘은 결제結制 날, 부처님의 환희일歡喜日입니다

1. 오늘은 결제結制 날, 부처님의 환희일歡喜日입니다 · · 7
2. 먼저 정견正見, 정념正念를 세워야 · · · · · · · · 26
3.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 마음이 부처 · · · · · · · · 42
4. 모두가 다 부처님뿐입니다 · · · · · · · · · · 64
5. 대수행인大修行人. · · · · · · · · · · · · · · · · · 87

Ⅱ. 시라불청정尸羅不淸淨이면 삼매불현전三昧不現前이라

1. 갈앙심渴仰心이 극락세계. · · · · · · · · · · · 120
2. 천지 우주는 바로 무량광불無量光佛입니다. · · · · 148
3. 본래가 부처라! · · · · · · · · · · · · · · · · · 175
4. 참선! 감격스런 말입니다 · · · · · · · · · · · · · 194
5. 내 본 성품이 부처입니다 · · · · · · · · · · 211

Ⅲ. 사람 근원은 보신報身 · 법신法身입니다.

1. 가장 행복한 세계가 화장세계華藏世界입니다 · · · 236
2. 천지 우주가 부처님 하나의 몸입니다 · · · · · · · 256
3. 통달무아법자通達無我法者 진시보살眞是菩薩이라 · · · 278
4. 천상천하天上天下 무여불無如佛 · · · · · · · · · · 302

Ⅴ. 소참법문小參法門

1. 화안애어和顔愛語 ・・・・・・・・ ・・・・・・・・317
2. 청정 무량한 부처님의 생명뿐입니다 ・・・・・・・ 328
3. 영가靈駕 소참법문 ・・・・・・・・ ・・・・・・・・ 339
4. 참선參禪의 선결조건先決條件・・・・・・・・・・・・ 348
5. 우리의 주인공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352
6. 육화경六和敬과 입중오사入衆五事 ・・・・・・・・ 362

Ⅰ.

오늘은 결제結制 날, 부처님의 환희일歡喜日입니다

"결제해서 우리 몸의 행동을 부처님 계율戒律에 맞게 하고, 우리 언어생활을 부처님 진리에 맞게 하고 우리 생각을 부처님한테서 안 여의는 그런 결제를 안 하면은 성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환희일佛歡喜日이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날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제結制 날, 해제解制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성불을 가장 반기십니다. 따라서 성불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러한 청규淸規·규범規範, 이것이 결제니까 응당 부처님께서는 결제날 또는 결제하고서 공부가 끝나는 그날을 반기시는 것입니다."

1. 오늘은 결제結制 날,
부처님의 환희일歡喜日입니다

* 1985년 4월 15일(음력) 태안사 하안거 결제 천등千燈, 인등引燈 점안點眼법회 법문입니다.

출가하지 않고서 집안에 계시면서 불법을 탐구하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나 또는 불법 외 딴 종교도 믿고 종교를 또 안 믿고 하는 그런 분들이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허나 그러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성이 어떠한 것에 얽매임을 받으면서 참다운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라는 자유자재라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사회가 아닌 공산사회까지도 자유나 평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또는 전쟁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당 여당 그런 문제, 이것도 역시 자유라 하는 행복이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긴요한 조건 되는 그런 자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한에는 참다운 자유는 못됩니다. 어떤 것이 참다운 자유인가? 우리는 지금 불교인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참다운 자유, 참다운 행복을 얻고자 하는 가장 확실한 길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수행하면은 지지리 좋은 최상의

그런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역시 거기에 알맞은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 차원 따라서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 믿을 신[信]자, 먼저 믿음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바른 믿음이 아닌가 하는, 또는 설사 바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검증檢證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에 따른 교리해석이 있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우리 몸소 행行하는 그런 행이 있습니다.

행行 따라서 우리가 정작 종교의 진수를 맛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증명證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해행증이라, 믿고 해석하고 또는 행하고 또한 증명證明한다 말씀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자유, 불교서 말하는 참다운 행복이라 하는 것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 증證까지 증명까지 못 가면은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각박하기도 하고 또는 소잡騷雜하고, 이런 번잡煩雜한 사회에서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록 소중하다 할지라도 더러는 믿음으로 끝나버립니다.

또는 믿음을 좀 더 깊이해서 좁은 교리해석으로 법신불法身佛이 무엇인가. 화신불化身佛이 무엇인가, 성불成佛의 방법은 무엇인가. 사제법문四諦法門이나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이나 그런 교리敎理로 끝나버리는 그런 종교 생활도 있습니다. 또는 조금 나아가서 조금 참선도 해보고, 염불도 해봐서 그때는 실천합니다. 허나 이것도 역시 하는 둥 마는 둥 해버립니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면은 참다운 우리 몸에 붙는 체험은 못됩니다.

헌데 참다운 종교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처럼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증명까지 가야 합니다. 믿기도 하고 또는 해석도 하고 또는 실천도 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 가운데 증명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증명까지 가기 위해서 정작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 우리 본래 생명이 그렇거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알맞은 우리 몸의 행동, 우리 말의 언어생활, 우리 생각으로 부처님을 여의지 않은 바른 생각, 하나의 청규淸規를 규범 삼아서 부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이것이 결제結制입니다. 오늘은 결제날입니다.

과거 전생에 선근善根을 많이 심고 금생에 사람이 진지해서 출가를 안 하고 또는 결제를 설사 안한다 하더라도 성불한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수준에서는 역시 결제해서 우리 몸의 행동을 부처님 계율戒律에 맞게 하고, 우리 언어생활을 부처님 진리에 맞게 하고 우리 생각을 부처님한테서 안 여의는 그런 결제를 안 하면은 성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환희일佛歡喜日이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날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제結制 날, 해제解制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성불을 가장 반기십니다. 따라서 성불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러한 청규淸規·규범規範, 이것이 결제니까 응당 부처님께서는 결제날 또는 결제하고서 공부가 끝나는 그날을 반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제에는 마음 결제, 몸 결제가 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출가한 몸이 되고, 또한 출가한 몸이 아니더라도 집안일을 조금 쉬고 이렇게 절에 오셔서 결제를 같이 하신다 하더라도, 마음이 딴 데로 가있으면 마음 결제는 못됩니다. 형식상 상相으로 해서, 형상적인 결제는 되어도 참다운 결제는 못됩니다.

역시 불교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양으로 제 아무리 가부좌跏趺坐를 틀고 오래 앉았고 또는 계戒를 잘 지키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마음이 딴대로 가 있으면 그때는 참다운 결제는 못됩니다. 사정 따라서 이렇게 절에도 못 오시고 가정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마음이 부처님과 더불어 있고 중생을 부처님같이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 부처님을 안 여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참다운 결제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몸과 마음을 아울러서 결제하는 몸도 결제, 마음도 결제, 결제라 하는 것은 맺을 결[結]자, 제도 제[制]자 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 따라서 성불하기 위한 그런 규범을 지키는 것이 결제인데 이 자리에는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다 결제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오늘 같이 결제하지만은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으로만 결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결제입니다.

우리 성불하는 수행 방법이 삼종행三種行이라, 삼종으로 수행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심상수행尋常修行이라, 일용심상간日用尋常間에 수행을 합니다. 남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하나의 장사를 하나, 또는 잠을 설치고서 비몽사몽非夢似夢간 이라든가, 밥을 먹을 때라든가, 어떤 때나 심상일용간에 부처님을 안 여의는 공부 이것이 심상尋常공부입니다.

재가불자님들은 보통 심상공부를 하십니다. 또한 출가한 우리 불자 역시 심상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일용간에 우리 마음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부처님과 더불어서 하는 생활, 이것이 심상공부라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별시別時공부라, 다를 별[別]자, 때 시[時]자, 말입니다. 심상공부로 해서는 우리 마음이 본래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부처건마는 부처까지 이렇게 심화深化되어서 못 들어갑니다. 공부를 했다 말았다, 또 자꾸만 우리 중생이라 하는 것이 견물생심見物生心으로 이것 보면 이것에 끄달리고, 저것 보면 저것에 끄달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저 밑에 가장 깊은 곳이 불심인데 불심까지 미처 못 들어가고 맙니다.

따라서 하루나 사흘이나 말입니다 또 할 수가 있으면 일주일이나, 더

할 수 있으면 삼칠일三七日, 21일 동안이나 더 가능하면 49일 동안,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결제 모양으로 90일 동안, 이렇게 오로지 공부하는 이러한 공부 이것을 가리켜서 별시공부라 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별시공부가 있고,

허나 우리 중생은 박복해서 심상일용간의 공부도 미처 못 하고, 또는 별시공부도 미처 못 한 분이 있습니다. 하려고 맘은 먹지마는 부처님이 옳다고 믿기도 믿지만 게으름 부리고 또는 여러 가지 업장業障이 무거워서 그때는 심상공부는 못하고 일주일이나 사흘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어언간 임종臨終 때가 이릅니다. 임종 때가 되면 허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앞에 나타난 것은 공포恐怖 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고? 악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냥 임종 때가 다가오면 무서운 것이 앞에 나와서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자使者가 나와서 그냥 악독한 길로, 저 삼악도의 지옥地獄이나 아귀餓鬼나 축생畜生의 길로 이끌어 갈려고 합니다. 죽을 때는 분명히 악독한 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평상平常에 심상공부도 못하고, 별시공부도 못했다 하더라도 임종에 이르러서 그런 악독한 것, 무서운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그 순간 마음 잘 먹으면 마음 잘 먹는 순간, 순간 마음 가지고서 좋은 데로 갑니다. 죽을 때 순간, 천상天上같은 그런 선량한 마음 가지면 그냥 천상으로 초승超勝해서 올라갑니다. 비록 자기가 지은 평소의 업장으로 봐서는 결정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역시, 죽을 때 마음 자세가 사람 같은 마음, 사람 같은 정도의 그 마음 가지면 그때는 사람으로 인도환생人道還生합니다.

일념종심一念從心이라, 일념이 딱 안정되어서 정말로 부처밖에 없다는 생각, 천지 우주가 바로 극락세계極樂世界요, 자기 마음 남의 마음 차이도 없고, 또는 범부와 성인 차이도 없고, 천지 우주를 모두가 다 부처같이 보는 마음, 그 마음이 결정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 가지고

바로 극락세계의 상품상생上品上生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임종臨終 공부입니다. 죽을 때 이르러서 공부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습니다. 평소에도 공부를 못했거든 어떻게 죽을 임시에 사대괴상四大壞相이라, 지수화풍 사대가 각 세포가 이렇게 허물어진다고 할 때 자기 마음을 수습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했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 단말마斷末魔의 고통이라, 고통 때문에 그냥 평소의 그런 선심善心도 어디로 간곳이 없는데, 하물며 평소에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죽을 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극락세계나 인간이나 천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심상공부를 하려고 애써도 일상생활이 하도 번잡하고, 하도 고난이 많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생은 고해苦海 아닙니까. 괴로울 고[苦]자, 바다 해[海]자, 인생은 고해입니다. 우리가 낳을 때의 고통, 한번 낳아 놓으면 그때는 살기 위해서 생활고 또는 기타 늙어서 고통, 우리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파서 고통 인생은 바로 고해입니다. 인생은 따지고 보면 고통뿐입니다.

안락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우리 몸들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늙어갑니다. 시시각각으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안락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미처 몰라서 순간에 집착해서 죽어가는 사실, 늙어가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안락스럽다고 하고서 향락享樂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만 깊이 보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죽어가는 우리 생명, 늙어가고 죽어가는 생명, 그런 생명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람들은 인간을 안락스럽게 안 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삼계유여화택三界猶如火宅이라, 지옥地獄부터 저 천상天上까지 올라가다 합쳐서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 아닙니까마는 욕계가 유여화택이라 오히려 모두가 다 불바다, 불집이나 같다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보면 불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산소가 연소해서 지금 불

타고 있습니다. 바로 보는 사람들은 따라서 안락스럽게 안 보고 삼계유여화택이라, 삼계三界가 모두가 다 불바다라고 불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집을 떠나는 길은 오직 하나 성불의 길입니다. 깊이 느끼는 사람은 느끼려니와, 일반생활에 얽매인 사람은 미처 못 느낍니다. 조금 안락스러운 것 같이 보이는 거기에다 딱 집착합니다. 그리고 삼계의 그러한 불집을 떠나는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엉뚱한 방법으로 삼계의 고통을 떠나려 합니다. 재물로 떠나려 하고, 감투로 떠나려 하고, 이성異姓으로 떠나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삼계를 떠나는 방법이 못됩니다.

따라서 별시수행別時修行이라, 성불하는 그런 수행 방법 가운데 심상수행尋常修行,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닦는 별시수행, 죽을 때 하는 임종수행臨終修行, 이것 가운데 심상수행과 임종수행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별시수행은 해보면 좀 하기가 쉽다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떠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우선 쉬고서 공부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맑아져서 불심하고 가까워집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공부, 심상공부는 좀처럼 불심과 가까이 못됩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가운데 항시 이제 죽음에 이르고 만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출가승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재가불자라도 역시 심상공부는 물론 하시지만 별시공부 하루나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또는 한 달이나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세속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대사大事가 아닙니다. 죽고 살고 하는 생사문제生死問題가 대사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작은 일로 해서 우리가 뛰고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1년 내내는 못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에 다만 1주일 동안, 다만 한 달 동안 정도는 세속일, 대사가 아닌 작은 일을 조금 쉬고 별시수행別時修行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오로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제법회結制法會와 아울러서 천등千燈 인등불사引燈佛事 점안식

點眼式입니다. 인등引燈이란 무엇인가? 생소한 분들도 있고, 더러는 불교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법당에다 인등불사로 해서 천불을 모셨습니다. 인등이라 하는 것, 이것은 한문으로 하면은 이끌 인[引]자, 등잔 등[燈]자, 등불 등 말입니다. 등불을 켜는 것, 등불을 당겨서 켜는 것 보고 인등 그러합니다. 딴 뜻이 아니라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등불을 켜는 것이 곧 인등입니다.

왜 등불을 켜는가? 우리는 얼마 안 된 과거에 부처님오신날에 연등燃燈을 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참 정성을 다해서 서울 여의도나, 또는 각 절마다, 또는 더러는 자기 가정에도 등을 만들어서 켜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등불을 켜는 것인가? 보통은 등을 켤 때는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액운소멸厄運消滅, 또는 자기 가족의 여러 가지 운수대통, 이것을 바라고 켭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등을 켜는 것은 그러한 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물론 생활인 가운데서 재수가 대통하고 또는 수명도 장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액운을 소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중요한 본질의 문제 이것은 대사大事입니다. 보다 큰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보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 인등은 원칙은 켜야 하는 것입니다. 큰일만 하면 작은 일은 거기에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왜 하필이면 인등으로 해서 우리가 큰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진리라는 것, 이것은 하나의 지혜광명智慧光明입니다. 진리는 바로 광명입니다. 진리가 아닌 어두움, 진리가 아닌 나쁜 것 이것은 바로 암흑暗黑입니다.

인간사회는 음陰과 양陽이 있고, 또는 같은 전기電氣도 음전기陰電氣와 양전기陽電氣가 있고, 모두가 이렇게 상대相對가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광명이 있으면 광명이 아닌 그림자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참말로 있는 것인가? 어두움은 참말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밤 되면 어둡기도 하고, 또는 우리 마음의 번뇌煩惱에 얽매일 때는 우리 마

음도 어둡기도 합니다. 그런 어둠은 본래는 있지가 않습니다. 중생이 미처 진리를 몰라서 중생이 바로 보지 못해서 어두움이 깔립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공동이름이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 또는 청정광불淸淨光佛이라, 한없는 광명의 부처라 말입니다. 부처란 말은 바로 근본생명根本生命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의 공덕功德이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고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 이 말은 무량광명인 생명이란 뜻입니다. 청정광불淸淨光佛이라, 조금도 오염汚染되지 않은 청정 빛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생명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바로 생명 광명입니다. 우리는 본래 생명인 우리 본래 본 자성本自性이 부처님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동물이나 또는 무기물이나, 하늘에 있는 각 성수星宿나, 모두가 다 본 생명, 근본 본질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부터 물리적物理的 원칙原則, 화학적化學的 변칙變則, 이러한 인연 따라서 각 존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바탕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바다에서 바람 따라서 파도가 이루어지면 파도가 비록 천파만파千波萬波가 되고, 거품이 몇 수억의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물이듯이, 부처님으로 부터 사람이 되고 또는 일반 동물이 되고 무기물이 되고 각 별이 됐는지라 비록 개별적으로 사람이 되고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별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내내야 본질에서 보면 똑같은 부처님입니다.

이와 같이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의 어두움은 그때는 차근차근 거두어 갑니다. 천지 우주는 바로 부처님이고, 그런 부처님의 광명 그 광명으로부터 이루어져 있어, 비록 사람이 되고 소가 되고 개가 되고 독사가 되고 했다 하더라도 내내야 똑같은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천지 우주는 바로 광명뿐인 것인데, 중생이 바로 못 봐서 그때는 어두움이 깔립니다. 우리 중생이 성자가 되어서 그때는 가슴이 툭 틔어서 저 우리 시야의 지평이 열려서 천지 우주를 바로 통관한다 하면은 그때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왜 염불念佛을 하는가? 왜 참선參禪을 하는가? 왜 주문呪文을 외우는가? 우리 마음의 어둠을 헤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만치 어둠이 적습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그만치 어둠이 많습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참말로 개이게 하려면 '나'라 하는 아상我相이 끊어져야 합니다. '나'라 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벌써 어두움의 시초입니다.

비록 박사학위를 몇 십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 하는 그러한 아상을 못 끊으면 그 사람은 벌써 가슴에 어둠이 있습니다. 범부입니다. 일자무식一字無識이라 하더라도 가슴에 '나'라 하는 어둠이 없으면 그때는 성인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광명이고 광명의 반대는 바로 어둠입니다. 어두움 이것은 바로 번뇌입니다. 등은 왜 켜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가슴에 어두움, 무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등을 켜는 것입니다. 본래 광명으로 회귀回歸하기 위해서, 본래 광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등을 켜는 것입니다. 광명은 바로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참다운 의미인 것입니다.

중생이 무식해서 의의意義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등을 한번 켤 때 광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의 광명은 그만치 그 정도가 더 빛나는 것입니다. 등을 두 번 켜면 켠 만치 그때는 우리 마음의 광명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광명만 빛나버리면 그때는 재수나 운수 같은 것은 절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춘대길立春大吉 쓸 때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소문만복래라, 웃음을 머금은 문에는 만복萬福이 온다 말입니다. 항시 미소를 띤 사람들은 그때는 복이 오지 마라 해도 복이 옵니다. 찌푸린 사람은 아무리 시주施主를 많이 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때는 큰 복이 못 옵니다. 그 밝은 표정, 남을 부처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 남한테 자비심을 항시 베푸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설사 남한테 물질로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가 아니더라도 역시 복

은 오게 마련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거니 부처의 속성인 그런 평화, 건강, 우리 집안사람의 그런 풍요 이것을 안 바란다 하더라도 마음의 광명만 보다 더 증가를 시키고 마음이 훤히 트이면 그때는 복은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마음 광명을 보다 더 키워 드리고, 근본적인 복을 더 증장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인등 불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인등 불사의 시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사佛事라는 것은 모두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공덕이 있습니다만, 인등 불사는 그와 같이 첫째는 우리 마음의 광명을 빛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번뇌로부터 해방시킨다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방 당하면 당한 만치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가정도 화평은 가증이 됩니다.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국가 민족 세계인류 내 마음 밝히는 그 문제가 벌써 세계 인류의 평화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절이라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큰절이 되어서 관광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또는 아주 큰스님이 되어서 훌륭한 부자 신도님들이 많이 도와주는 그런 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태안사泰安寺 같이 궁벽지고 또는 관광 수입도 안 받아서 운영하려면 조금 곤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지聖地가 그대로 말수는 없습니다. 여기 태안사는 신라新羅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입니다. 혜철(惠哲寂忍, 785~861)국사, 도선(道詵, 827~898)국사가 여기서 공부해서 성취成就한 성지입니다.

이런 성지가 현대와 같이 살벌하기도 하고 혼탁한 때에 모범적인 선방禪房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너무나 애석한 일이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성지를 성지답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그런, 또는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순수한 수행자修行者, 이런 분들만으로 해서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등 불사, 천등 인등 불사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가장 제일의적第一義的 인 공덕은 우리들 각기 마음의

광명을 밝혀서 번뇌를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번뇌 무명을 우리가 없앱니다. 이런 것에다가 가장 큰 제일의적第一義的인 목적이 있고, 그다음으로 부차적인 공덕으로 해서는 그걸로 해서 우리의 선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등 켜면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의 무명 번뇌가 녹아지고 동시에 모범적인 선방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사도邪道로부터 불법을 지키고 정통불교正統佛教가 선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보람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천등 인등 불사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천등千燈을 모시는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은 좀 지루하실 것입니다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법문을 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천등을 켜는 것인가? 부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천불명경三千佛名經』이라, 삼천이나 되는 부처님의 이름이 계십니다. 그럼 부처님이 삼천불 계시는 것인가?

기독교는 오, 주여! 하고 하나님 한 분 믿으면 그만인데, 우리 불교는 그냥 약사여래藥師如來, 지장보살地藏菩薩, 또는 동방일광불東方日光佛 등 그와 같이 부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많으니까 더러는 지금 현대인들은 마치 불교를 다신교多神教, 원시 미개未開한 때 다신교 모양으로 그와 같이 불교는 신이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부처님 이름이 많은 것인가?

또는 불교를 꽤 오랫동안 믿으신 분이고 절에 많이 다니신 분도 역시 지장보살 따로 있고 관음보살 따로 있고 이와 같이 부처님이 모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이름이 『삼천불명경』이라, 삼천불三千佛의 이름이 각기 다 있습니다만, 각기 따로 있는가 하면 부처님은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님들, 이것을 명확히 아셔서 바른 정견正見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주宇宙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틈이 있고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부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틈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 범현스님과 저와의 이런 사이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지요. 그것은 이렇게 사람 모양 된, 응집된 존재의 거리가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광명은 이 사이도 꽉 메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 몸이나, 범현스님 몸이나 광명으로 충만 되어있습니다. 우주는 바늘 구멍만한 틈도 없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계가 없는, 즉 말하자면 이와 같이 제반이 없는 그런데 다가 이 부처, 저 부처, 부처의 한계가 있겠습니까?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구분 지어야 따로 부처의 이름을 붙일 것인데 딱 붙어있는 광명, 하나의 광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따로 붙이겠습니까. 그것을 불교에서는 원융무애圓融無碍라, 하나의 순수한 부처님의 영롱한 광명뿐이란 말입니다.

헌데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공덕無量功德이 있습니다. 불경에 보면 아라한도阿羅漢道를 성취한, 아라한도를 성취하면 소위 무학도無學道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대도인大道人이 아라한 아닙니까? 아라한 도를 성취한 그런 대도인들이 몇 억 사람, 항하사수恒河沙數, 중국의 양자강이나 인도의 갠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아라한도를 성취한 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몇 억 년을 두고서 부처님의 공덕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은 많은 것입니다. 자비로운 것도 한도 끝도 없고, 지혜도 한도 끝도 없고, 행복스러운 것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튼 어떤 면으로 보나 완벽 무결한 것이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간격이 없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광명은 그런 완벽한 행복, 지혜, 자비慈悲 모두가 거기에 딱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한정限定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로운 의미에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라, 이렇게 되면 또 역시 자비로운

면을 우리가 표현을 했지마는 또 지혜로운 면은 표현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때는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또는 문수보살文殊菩薩 이와 같이 지혜로운 면을 표현한다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 중생의 병고病苦를 우리가 아프면 아픔을 다스리는 또 그런 공덕도 완벽히 있습니다. 그러나 관음보살이나, 또는 지혜만 표현해 있는 문수보살이나 그런 보살로 해서는 우리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그런 이름까지 다 표현 못 합니다.

그런 때는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이라, 약藥으로 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라 이름을 붙인다 말입니다. 또는 중생이 금생에 살다가 죽어서 이 몸뚱이는 버리고서, 헌옷 벗듯이 몸뚱이는 버리고서 그때는 영혼靈魂만 가지고 저승길에 들어갑니다. 저승길에는 누가 인도引導를 하는 것인가?

부처님 힘은 충만해 있고 모든 중생을 다 구제救濟하는지라, 또 저승길을 인도하는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부처님 힘이 공덕이 계십니다. 부처님 공덕 가운데서 우리 중생의 저승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라, 또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이라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공덕의 이름뿐입니다. 공덕이 하도 끝도 없이 많아서 자비로운 공덕을 표현할 때는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공덕을 표현할 때는 대세지보살 또는 문수보살, 우리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그런 공덕을 표현할 때는 약사여래, 우리 중생의 영혼을 구제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장보살 또는 인로왕보살이라 말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삼천불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의 원융은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 따라서 청정광불淸淨光佛이라, 또는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 상대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대광불無對光佛이라, 행복이 충만하다는 의미에서 환희광불歡喜光佛이라, 이와 같이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원융圓融한 부처님입니다. 중생들은 하나를 못 봅니다. 중생은 겉만 보고서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일어나는 그런 거품이나 물살밖에 못 봅니다. 물자체는 못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생은 자꾸만 시비하고 갈라버립니다.

그러나 도인들이나 부처님은 하나로 봅니다. 불성 하나 뿐이구나! 따라서 불성을 딱 본분들은, 그때야 시야비야 할 필요가 없고 시비를 잘 안 가립니다. 허나 불성을 못 본 사람은 비록 박사라 하더라도 역시 아직 범부니까, 하나의 것을 못 보니까 자꾸만 갈라서 시비분별是非分別 한다 말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부처님은 여러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런 오직 하나의 부처님, 하나의 부처님의 각기 공덕 따라서 표현된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그렇고 현상으로 봐서는 천체天體가 이루어져서 천체가 괴멸壞滅할 때까지 삼천三千 부처님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보면 다 부처일망정, 하나의 모양으로 해서 성불을 한 부처님 말입니다. 물론 도인들은 성불로 봅니다만 같은 도인도 역시 완벽한 부처님, 완벽한 성자, 이것은 부처님이죠.

즉 말하자면 견성오도見性悟道 하면은 완벽은 미처 못 해도 부처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것은 존재에서 말한 것이고, 참다운 부처님은 견성오도를 해 완전무결한 번뇌의 뿌리까지 다 뽑아서 삼명육통三明六通을 다 하고, 석가모니釋迦牟尼 같이 무불통지無不通知하는 그러한 부처님, 그런 도인이 그때는 참말로 부처님이죠.

원리에서 보면 다 부처고 견성오도를 막 해도 그때는 부처입니다만, 허나 참다운 완벽한 부처님, 우주와 딱 하나가 되어 부처님의 공덕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분이 그때는 참다운 화신化身 부처님입니다. 그런 분이 천지 우주가 형성되어 다시 괴멸될 때 천지 우주가 이루어지는 성겁成劫이라, 중생이 사는 주겁住劫이라, 다시 괴멸되는 괴겁壞劫이라, 다시 텅 비는 공겁空劫이라, 이와 같이 사겁四劫 될 때까지, 화신 부처님으로 완벽하게 나오신 분들이 삼천불이 된다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삼천三千 부처님 가운데서 과거過去 천불, 미래未來 천불, 현재現在 천불이라, 우리 중생들이 살 수 있게 된 이 마당, 이런 경계에서 천불이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 천 불 가운데 네 번째 분입니다.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이 천지 우주 모든 부처님을 다 대변합니다. 내내야 내용은 다 광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불로 해서 삼천불도 대변하고 또한 일체 만 불, 천지 우주 부처님 덩어리를 바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 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천불千佛의 점안식點眼式, 점안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냥 천지 우주가 부처가 아님이 없는지라, 부처님의 신령기운神靈氣運이 거기에 깃드는 것입니다만 보다 더 우리가 하나의 법식을 갖추고서 지금 법당에 모신 부처님한테 “천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의 신령 기운이 거기에 갈마羯磨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점안식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미 우리는 더 구체적인 것은 했고 오늘은 마무리만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의의 깊은 여름 결제結制 날입니다. 앞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듣는 걸로 해서는 교리를 많이 듣는 것도 역시 우리 잠재의식潛在意識에다가 문종聞種이라, 부처님 종자種子를 심습니다. 허나 부처님 종자 그것이 익어서 성불로 가려면 실제로 행行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참선參禪 염불念佛도 해서 그것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불이 될 것인데 그냥 들어만 가지고는 성불이 못됩니다.

물론 그도 근기根機가 수승殊勝해서 선근善根이 높은 분들은 ‘일문십지一聞十地라,’ 또는 ‘일문一聞에 돈오頓悟한다.’ 이렇게 해서 깨달은 분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단번에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 말씀처럼 결제해서 몸도 부처님 법문에 맞는 그러한 행동, 말도 부처님 법문에 맞는 그런 바른 말, 우리 생각은 천지가 바로 부처님인 것이니까 부처님 생각을 떠나지 않는, 나나 너나 또는 일체중생의 모두가 다 부처님의 광명무량光明無量한 다 한 가지 신령스러운 기운이구

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조국사普照國師 「어록語錄」을 본다 하더라도 선오후수先悟後修라, 참선할 때는 꼭 선오후수를 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은 아직 증명證明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풀이로 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 말입니다. 선오후수 먼저 깨닫고 닦지 못하면 참선이라 말을 못 붙입니다.

불자님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반공부와 참선공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것은 일반 공부는 미처 먼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부처님이나 도인들 법문 따라서 우리가 애쓰고 합니다. 부처님이 무엇인가도 모르면서도 우리가 염주念珠를 헤아리면서 염불念佛을 한다 말입니다. 가령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부른다 하더라도, 아미타불阿彌陀佛은 저 극락세계極樂世界에 계신다, 나하고 떨어져서 저 멀리 계신다, 극락세계는 저만치 십 만 억 국토 밖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공부입니다. 이것도 부처님 공부입니다. 그것도 애쓰고 하다보면, 순수하게 하다보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원래 부처인지라 차근차근 깨달아 옵니다. 어느 분들은 그런 방편 공부,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는 공부 이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함부로 비방합니다만, 부처님이나 도인들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방편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방편을 하다 보면 그때는 그냥 진리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런데서 부처님의 심심미묘甚深微妙한 지혜智慧가 있습니다.

비록 극락세계를 저 밖에서 구하고 아미타불을 저 밖에서 구한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그때는 자기 업장業障이 녹아지면 원래 우리가 부처인지라 그때는 “부처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선이라 하는 것은 그냥 바로 자성미타自性彌陀라, 모든 부처님이 바로 내 본질이구나 말입니다. 우주가 바로 부처님 덩

어리구나, 우주는 부처님의 공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와 같이 바른 견해 이것 보고 정견正見이라,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팔정도八正道를 외고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을 외고,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왼다 하더라도 내 본질, 천지 우주의 본질이 바로 부처임을 못 느끼면 정견은 못 됩니다. 무無자를 들고, 또는 '이뭣고'를 들고 판치생모板齒生毛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내 본질本質과 우주의 본바탕이 부처임을 못 느끼면 그때는 참선이 못됩니다. 선방에서 아무리 가부좌跏趺坐를 틀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 본 생명이 바로 부처임을 못 느끼면 그때는 참선이 못됩니다.

비록 자기 입으로는 '똥마른 막대기 간시궐乾屎橛' 화두話頭를 하건, 또는 아미타불을 부르던, 하나님을 부르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문제가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임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고 하면 형상적形相的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똥마른 막대기'라는 화두도 있듯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부르나, 관음보살을 부르나 그때는 그것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선參禪이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어느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순간 찰나에도 부처님의 본체本體를 안 여의여야 한다 말입니다.

'내 본바탕이 일체 공덕을 갖춘 부처다. 천지 우주는 바로 부처덩어리다. 천지 우주는 부처의 광명으로 충만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 하나의 생각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어려운 말로 일상삼매一相三昧라, 천지 우주를 하나의 부처님으로 보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잡념雜念이 안 끼고 그 생각이 쭉 이어가는 공부, 이것이 일행삼매一行三昧입니다. 이것이 참선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육조단경六祖壇經』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본체本體를 안 여읜다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성佛性을 안 여읜다 말입니다. 장사를 하건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불성을 안 여의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은 앉아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워서나 또는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불성을 안 여의면 됩니다.

오늘은 결제結制 날, 부처님의 환희일歡喜日입니다. 우리 출가하신 분들 또는 다행히 동참되어서 공부하시는 우리 처사님들, 또는 보살님들 꼭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 본래 생명인 내 마음과 바로 직결되어있는 그런 부처, 부처와 내 마음과 거리가 없습니다. 바로 맞닿아 있는 부처, 그 부처를 꼭 증명證明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참하신 우리 사부대중四部大衆들, 꼭 집에 가셔서 아까 말씀처럼 심상수행尋常修行, 일용日用 심상수행을 해서 부처님을 순간도 안 여의도록 남하고 대화할 때도 저 사람이 바로 부처구나, 물건을 팔 때도 바로 부처님의 화신化身이구나, 순간 찰나도 부처라는 생각을 안 여의시고서 심상수행 가운데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2. 먼저 정견正見, 정념正念를 세워야

* 1987년 8월 9일 태안사 하안거 해제 법문입니다.

여름 하안거 결제 한지가 어제 같습니다만 어언간 삼 개월이 지나가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모양이 없으면 따라서 모양의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모양 변동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어느 모양을 우리가 설정하고 모양을 주체화시켜서 모양을 실제화시키는 한에서는 변화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변동이 있으니 따라서 필연적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즉, 모양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모양의 변화가 있으니까 경과에 따라서 시간이 거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허나 모양이 없으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을 그냥 하나의 실존화시켜서 있다고 고집한다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너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부의 안목에서는 분명히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허나 바른 안목 범부의 번뇌를 떠나 버린 청정한 안목에서는 그때는 다만 과정만 보는 것이지 순간 찰나도 변치 않는 무상한 그런 과정만 보는 것이지, 실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변화가 되어가는 무상無常만 보는 것이지 실존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범부의 견해에서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삼세불가득三世不可得이라.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이라, 과거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 오는 마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란 이것은 이미 사태가 지나가버린 지금은 흔적도 없는 지금 현재는 있을 수 없는 하나의 기억에 불과한 것이고 미래는 어디 있는 것인가. 미래 역시 아직 오지 않은 하나의 희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무엇인가 현재도, 순간순간 찰나도 멈추지 않고 변화가 되어가는 하나의 사실이 있지 않는 하나의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초의 몇 천분의 일도 어떠한 공간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현재 역시 머물지 않으니 삼세심三世心이라, 과거・현재・미래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 못 봐서 중생의 어두운 안목이 변화를 못 보니까 무상을 못 보니까 있다고 한다 말입니다. 제법이 본공本空하니 무아無我・무소유無所有라, 일체 제법은 공한 것이니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법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도 많이 외우고 그야말로 남이 한 법문도 새기고 합니다. 허나 그러한 무수무량의 그런 소중한 법문을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반야지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법이 공했다 하는 것인 공空 지혜입니다.

반야지혜를 우리가 터득 못하면 불법佛法을 사실은 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또는 음란한 짓 말고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는 유교儒敎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도 있습니다. 불교가 불교인 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방금 말씀처럼 반야般若지혜, 공空지혜가 우리 마음의 무명無明을 깨뜨려야 만이 비로소 참다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선하는 법문도 '부달성공不達性空하면 좌선무익坐禪無益이라.' 우리는 애쓰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법이 공한 자리를 못 느끼면 우리는 공부한 별 보람이 없단 말입니다. 부달성공不達性空이라 모든 법이 나나 너나 또는 우리 대상에 보이는 일체 만법이 텅 비었다는 우리가 거기에 달하지 못하면 좌선무익이라, 좌선해도 별로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너무 규격적인 생경한 법문은 뒤로 미루고서 우선 같이 쉬운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토굴 생활에서 하다 보면 매일 아침 이렇게 자기

가 좀 먹다가 생반生飯 그래요 생반이란 것은 자기가 먹는 공양하는 음식을 조금 내어서 아귀餓鬼나 짐승한테 준다 말입니다. 생반生飯 출반出飯 그래요, 조금 음식을 나누어서 아귀들이나 중생이 안 보이는 안목에도 아귀도 역시 우리 사람 수 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아귀들이나 일반 짐승들한테 베풀어준다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군데서 한 일 년이나 머물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짐승과도 친구가 됩니다. 그 생반生飯할 때 시간이 되면 까치도 지저귀고 짐승도 이렇게 마당에 와서 놉니다. 그러면 귀여워서 조금 주고 주고하면 그것이 길이 들어서 어떤 일로 어디 가서 조금 있다 오면 그냥 그 산중에 막 들어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까치 같은 것이 먼저 알아 가지고 지저귀고 숙소로 온다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이 미물이 별나다 했더만 나중에는 그것이 몇 번 겪어 보니까 이렇게 산 보통 토굴이란 것은 산 높은데 있기 때문에 산턱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사뭇 따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 옛날 도인들이 산중에 오래 머물면 손바닥에도 새 같은 것이 와서 노닐고 한다더니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법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이 길들여서 또는 마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저 짐승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딴 신통한 법력은 없다 말입니다. 헌데 인도를 순례 갔다 온 어느 불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이가 어느 숲가로 걸어가니까 그 마을 애들이 놀고 있는데 까치나 여러 가지 산새들이 와서 어린애들하고 같이 희롱한다 말입니다. 머리에도 앉고, 또 곁에 와서 어린애들하고 같이 재롱하는 것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 미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미물이지만 역시 그것이 미물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려고 할 때에 쥐나 그런 것이 자취 없이 쥐구멍에 다 숨어버리고 기타 여러 가지 미물들로 해서 예조預措[미리보여

줌]를 우리한테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본다 하더라도 역시 미물은 미물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다만 식識 정도가 우리 불법에서는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 만법이 모두가 오직 식 뿐이라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식, 의식이란 것은 알 식[識]자, 나무가 있고 또는 돌이 있고 하거니 어떻게 그런 것이 식일 것인가 우리 중생은 그럽니다. 허나 중생은 현상만 보니까 겉만 보지 내용의 에너지는 못 봅니다. 내용의 순수성은 못 봅니다. 일반 동물은 그런 식 정도가 우리 사람같이 의식은 미처 발동이 못 되서 의식까지는 미처 진화가 못 되서 분별 시비하는 판단은 못한다 하더라도 오관은 즉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촉각하고 그런 정도의 것은 일반 동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비분별하는 의식만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 중생이 사실은 중생 그러면 우리 불법에서는 일체중생을 다 말합니다. 무정無情・유정有情 또는 그야말로 무상중생無相衆生 또는 유상중생有相衆生 말입니다. 눈에 보이나 안보이나 간에 일체 존재는 모두 다 중생 그럽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성불하지 못한 일체가 모두가 다 만법유식이라 식 뿐인 것이고 바로 보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마음뿐이지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수한 세월 동안 인연적으로 해서 마음의 본체를 못 보고서 윤회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중생입니다. 즉 성자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면 이것은 다 중생입니다. 헌데 이러한 중생들이 아까도 말씀처럼 비록 의식 정도는 사람만치 갖추어져 있지 않다하더라도 역시 오식五識은 다 있다 말입니다. 일반 돌이나 그런 것은 오식도 없겠지요.

다만 그것은 완전히 식별이 잠재해가지고서 모양 즉, 질료만 보이는 것입니다. 질량만 보이는 것이지 그것은 아무런 그런 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식물은 그런 무생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헌데 우리 인간은 오식五識보다도 한 식識이 더 거

기에 가산되어서 육식六識이 있어 가지고서 분별시비한다 말입니다.

분별시비하는 것은 않은 것 보다는 좋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지혜나무 사과를 따먹어 가지고서 지혜가 발동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차라리 일반 동물 모양으로 아담과 이브가 의식 활동을 못 했으면 좋다, 궂다, 밉다, 예쁘다 그런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의식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은 좋다 궂다 밉다 그러한 시비분별하는 그런 판단이 나와 버리면 그것은 곤란스러운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자기가 구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좋은데 구부득고求不得苦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못 구하면 그때는 고민이 생깁니다. 권력을 바라고 또는 이성만을 느끼는 이성을 바라고 또는 돈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원래 이것이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적인 존재에 불과 하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얻어도 우리 지혜는 유한 상대의 지혜, 지혜도 역시 오래 못 가는 진리, 우리 생명도 역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오래 못 간다 말입니다. 순간 동안 사라지고 맙니다. 병불가피病不可避라, 병도 피할 수가 없고 사불가피死不可避라, 죽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우리가 무의식이 되어서 바보같이 저런 일반 동물이나 나무같이 돼버렸으면 좋을 것인데 의식 활동이 한번 된 것은 분별시비한 것까지는 좋은데 분별시비함으로 해서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고가 발생합니다. 인생고가 한번 발생해 놓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더 얻고 덜 얻고 또는 영원적인 지혜, 윤회하지 않는 참다운 영원적인 지혜를 얼마만치 많이 얻고 적게 얻고에 따라서 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윤회가 있습니다.

불교말로 해서 십선十善이라, 열 가지 선심을 닦으면 그때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고 의식 활동을 좀 해가지고 사람 정도로 닦으면 그때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생명을 죽여가지고서 잔인한 마음 자비심도 없이, 소중한 자비심을 다 끊어 버리면 그때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 활동을 한번 한 이상에는 아까 말씀처럼 자기가 의식 활동에 따라서 자기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그런 업장 따라서 우리가 보報를 받습니다. 따라서 윤회는 필연적으로 부수가 됩니다.

허나 비록 윤회를 하고 인생고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각양각색의 천차만별의 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일체 존재의 근원은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순수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의식 활동이 조금 더 진화가 되어서 우리 인간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잠재의식 또는 심층의식이라, 파고 들어가서 깊이 들어간 생명들은 차근차근 우주의 근본에 있는 그런 참다운 영원적인 생명을 맛을 보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깊이 맛을 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보면 부처님 법문을 한번 듣고서 환희용약歡喜踊躍이라 머리끝이 쭈뼛하고 가슴이 개운하고 몸이 부르르 떨리고 그와 같이 감격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나 부처님 법문 듣고서 그냥 덤덤하니 아무런 감명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명이 얼마만치 우리 근본 생명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불성佛性 아닙니, 불성을 인격화 시키면 그때는 부처님 아닙니까, 법신法身 부처님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이 얼마만치 우주의 근본 생명인 불성과 가까이 돼 있는가, 가까이 돼 있으면 있을수록 환희심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이고 환희용약이라, 마치 부처님 법문 들으면 하늘에 올라갈 듯이 기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법문만 딱 듣고서, 그냥 그 즉석에서 수다원과須陀洹果라, 벌써 범부의 망상을 녹여서 초견성 하는, 불성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허나 지금은 부처님 법문같이 그런 여실한 법문을 잘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보

통은 덤덤하지마는 역시 업장이 가벼운 분들과 설사, 서투른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부처님 법문을 누가 하나 내내야 무상법문無常法門인지라, 영원의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그리움과 환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순중생隨順衆生이라 또는 수순성자隨順聖者라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마는 우리가 조금도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고서 거기에 딱 떠나 버린다 말입니다. 수순隨順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에 대해서 위대한 진리나 위대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않고서 이렇게 따라 버린다 말입니다. 그게 수순인데 업장이 많은 분들은 수순을 잘못합니다.

물론 나쁜 것에 수순하면 곤란스럽습니다마는 진리에 수순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진리에 수순을 못하는 것은 그마만치 자기 업장이 무거운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성 고정 관념이 우리한테 꽉 박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구적인 사고방식이나 또는 이원적二元的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말을 쓰고서 우리 불교와 대립해서 그런 말씀들 합니다. 확실히 서구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이원적인 사고방식이 주가 돼있습니다.

사물을 사태를 둘로 봅니다. 선과 악, 또는 나와 너, 하나님과 나 이와 같이 대립해서 봅니다. 대립해서 보는 그런 의견들은 필연적으로 흑백논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궂고 하나가 성盛하면 하나가 쇠衰합니다. 이런 이원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는 남을 용서하기가 참 곤란스러운 것입니다. 꼭 남의 흠만 잡기가 쉽습니다. 또 서구적인 한 가지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유물주의唯物主義라, 모두를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물론 물질의 근원인, 물질을 구성한 순수한 생명이 안 보이니까 물질로 보겠지요. 허나 순수한 생명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고 마호메트(Mahomet Mohammed, 570~632) 도 했습니다.

또는 위대한 철인들은 대체로 다 관념론적인 철학적인 견해였습니다.

허나, 모양만 주로 한 그런 사람들은 유물주의라 모두는 물질뿐이다. 물질 뿐이니까 물질 생산을 많이 하고 물질이 풍요하면 좋고 물질이 빈곤하면 나쁘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좋고 남이 좋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시기심이 나서 꼭 같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사실은 물질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것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생명이 얼마만치 본바탕인 부처님한테 접근돼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상無常은 바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바로 보면 실제가 아닌 물질이 조금 더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유물주의자는 물질의 공평이나 생산이나 그것만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단체를 모아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한다 말입니다. 물론 일반 중생을 위해서 남을 지도하는 분들은 응당 물질의 평등을 딱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그야말로 경쟁력의 균등을 도모해야 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차할 때 가난할 때 인생을 더 많이 배웁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소녀, 라면 먹고 달려가지고서 우승한 사람 있지요. 라면을 먹고 달리고 달려서 그와 같이 단련된 마음, 꺾이지 않는 정신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만일 부잣집 딸이어 보십시오. 아마 상을 타고 나중에 몸이 비대하게 되어 놓으면 그때는 달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적고 많고에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공권력은 반드시 물질의 평등과 정치의 자유를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근중생이 불편이 없습니다. 너무 말이 이리저리 빗나가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의식이 한번 발동이 되어 놓으면 시비한다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시비가 멈추지 않으면 이것은 인간의 본래면목 자리에

못 갑니다. 과거 전생에도 우리가 무수생 동안에 사람 되었다가 개 되었다가 우리가 짓고 내려온 업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식 가운데는 잠재해 있다 하더라도 분별시비하는 마음이 원래 본능에 갖추고 있어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것을 부정하고 영원적인 길로 가면 좋은데 금생에 나와서 대학까지 나왔다고 생각할 때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뭇 그 과정이 이원적인 사고방식 물질이 좋다 물질이 있다 그것만 주로 배웁니다. 따라서 그것의 고정관념을 그런 기성관념을 우리가 부정하려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화두도 한번 척 들어서 그걸로 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유한有限 상대相對의 관념 유한적인 관념과 대치되는 관념을 씻어버리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이 하도 깊으니까 우리 잠재의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의 고생을 느낍니까. 모순을 느낍니까. 우리가 의식은 미처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 무의식중에도 잠재의식 즉 부정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염불은 그냥 입으로 하고 속에는 그냥 자꾸만 그런 고정관념이 망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데서 우리 수행도 역시 별시수행이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고 책도 보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은 모두가 다 이렇게 형체가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유한상대의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에서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해서는 좀체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자리 영원적인 그런 불성자리는 잘못 갑니다.

그러기에 일주일이나 또는 사흘이나 한 달이나 백 일이나 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소위 말하는 별시수행別時修行 오로지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싸울 때도 적이 강한데 적을 치다 말다 하면은 결국은 승리를 못 합니다. 파산공격으로 그야말로 집중해서 공격을 해버려야만 굴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번뇌 역시 염불 하다 말다 화두를 들다 말다 우리가 선방에서도 보면 죽비 칠 때나 좀하고 방선하면 그냥 또 잔소리나 하고 그래버

리면 공부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놀면서 안 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과거 전생부터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구생번뇌俱生煩惱, 우리 금생에 생과 더불어서 나온 그런 번뇌, 금생에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한 분별기번뇌分別期煩惱, 이런 번뇌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서 여름결제, 겨울결제 같은 그런 결제가 있습니다. 헌데 우리 공부인들의 중요한 요체는 무엇인가 하면 비록 몇 백일 동안 공부하고 몇 십일 동안 공부한다 하더라도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마음 자세가 바로 안 서면 즉, 바꾸어서 말하면 정견正見·정념正念이 안서면 우리 공부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정견·정념이라,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법의 바른 길은 팔정도八正道 아닙니까. 팔정도라, 그냥 길이 아니라 정도란 말입니다. 팔정도 가운데서 일곱 가지는 거기에 부수한 것이고 맨 처음에 있는 정견, 바른 견해 이것은 주체입니다. 팔정도의 주체인 정견이 안 서면은 바른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 가서 공부하던지 간에 비록 출가하나 집안에 있으나 간에 정견만은 이것만은 우리가 꼭 확립을 시켜야 합니다.

정견正見을 확립을 못 시키면 바른 공부가 못되는 것입니다. 노이무공勞而無功이라, 힘만 쓰지 우리한테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법문 할 때마다 정견 말씀을 역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알기는 쉽지만은 그냥 흘려버리면 다시 우리 고정관념이 회생 되어서 정견이 흐려집니다. 우리 공부란 것은 자꾸만 바른 생각을 되풀이 해야지 그냥 하다 말다 듣다 말다 하면은 그것이 잠재의식에 박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도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법문이나 사제법문四諦法門이 항시 들어 있습니다.

표현만 차이가 있지 고집멸도苦集滅道라, 인생은 다 고苦요 인생고의 원인은 집集이요 집은 이것은 내내야 탐심貪心・진심瞋心・치심癡心 아닙니까. 거기 따른 행동 이것이 집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생고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만 고만 있고 또는 고의 원인만 있다 그러면 인생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당시에도 너무나 무상관無常觀이라, 즉 말하자면 인생고라 하니까 고苦만 생각하는 행법을 취한 사람들은 몇 십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나 그런 인생고를 주장 않는,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법문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인생에 고苦만 있다고 하면 인생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인생 고를 떠나서 영원적인 그런 영생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멸滅 아닙니까. 즉, 번뇌를 멸해서 생사를 떠나버린 참다운 영원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극락極樂・도道・열반涅槃 또는 실상實相・진여眞如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영원적인 행복 자리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여래장如來藏・부처님・도・열반・보리・극락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번뇌를 떠나버린 영원적인 경계, 영원적인 생사를 떠나버린 참다운 행복 경계 이것이 소위 멸滅입니다. 이런 멸을 영원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한 방법 수단 이것이 팔정도 아닙니까. 팔정도 가운데서 정견 이것이 가장 주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정견만 잘 서 놓으면 끄트머리에 가서 더디 가고 빨리 가는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멸이라 하는 영원적인 행복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견이 못서 놓으면 고행도 하고 또는 염불도 많이 하고 또는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공이 없습니다.

정견은 무엇인가 항시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와 모든 존재 일체중생의 또는 일체 만유의 본바탕이 바로 순수한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같은 하나의 유물변증법 같은 체계는 유물론이라 하는 물질이라 하는, 모든 것은 물질뿐이다 우주의 본질은 물질이다 이 위에서 막시즘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의 근원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마르크스주의가 거기에 붙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무수한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만유의 근본 이것은 하나의 순수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인 것이 아니라 일체 공덕을 다 갖춘 생명인 것입니다. 자비 지혜 또는 공덕 행복 어떤 것도 역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순수한 생명 이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나, 그런 때는 불성 그러면 아, 사람의 본성은 부처거니 이렇게만 보통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는 사람만이 아닌, 소나 개나 동물의 본성만 부처거니 이와 같이 했으나 현대과학 같이 원자가 생기고, 소립자가 생기고 이런 때 와서는 사람의 본성만이 부처거니 또는 동물의 본성만 부처거니 이런 걸로 해서는 불성관이 확립이 안 됩니다. 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와 같이 좁은 범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중생, 이것은 다만 일반 동물뿐만 아니라 생물이나 무생물, 어떤 것이나 간에 유정有情・무정無情・유상有相・무상無相 우리 인간이 보이나 안보이나 간에 일체 만유의 근본 순수한 생명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비록 겉에는 천차만별로 만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 생명인 불성 자리에서는 평등무차별이라, 그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그때는 무장무애無障無礙라, 조금도 거리낌도 없고 순수한 생명은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돼서 질량이 돼야 분석이 되고 막힘이 되는 것이지 질량이 아닌 순수한 에너지는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공간 속에나 그야말로 또는 하나의 돌 속에나 머리카락 속에나 어떠한 것이나 소위 양성자・중성자 그런 원자의 구성체가 아님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떠한 것이나 물질이다 하면 각 원소의 결합체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소, 또는 더 들어가서 전자, 또는 양자 말입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가장 미세한 중성자나 중성 미립자나 그런 소립자, 그런

것도 역시 하나의 불성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 생명의 본바탕인 동시에 일체 존재의 본바탕인 불성을 인격화 시키면 부처님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결국은 공부해도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믿고서 우리는 순간 찰나도 그 자리를 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는 뭐 때문에 있는 것인가, 모든 존재의 근원 자리가 불성임을 안 놓치기 위해서 화두가 있는 것입니다. 염불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염불 역시 우리가 그런 자리 안 놓치기 위해서 염불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불리불不離佛 이라 부처님을 안 떠나고 또는 치우불置遇佛이라 부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두가 있고 염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견을 갖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행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는 벌써 자명한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부처님이라고 딱 믿어버리고 우리가 번뇌에 따라서 아직은 못 느낀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바로 보신 사실은 부처님만이 실상實相을 보는 것입니다. 성자만이 실상을 봅니다. 우리 중생은 실상을 못 봅니다. 고정 관념이나 분별 시비나 그런 산심散心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른 사태를 못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 정도만큼 인간의 의식 정도만큼 우리는 사태를 봅니다. 마치 누런 안경 쓰고 보면 누렇게 보이고 푸른 안경 쓰고 보면 푸르게 보이듯이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의식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물의 본 바탕을 못 봅니다. 성자만이 비로소 번뇌를 녹여 버린 청정한 안목에서만이 비로소 사물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假相만 봅니다.

실상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천지 만유가 평등무차별이라, 차별이 없이 모두가 그때는 불성뿐입니다. 어떠한 것이나 다 불성위에서 이루어

진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버려야 비로소 불교의 정견입니다. 이렇게 믿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불성을 온전히 표현하는 그런 화두, 불성을 온전히 표현하는 염불, 불성을 온전히 표현하는 주문, 그 외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어느 스님네가 편지가 왔는데 그분은 기도 모시는 분인데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제 한평생 관세음보살 하기에도 너무나 짧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이 우리 인생 따지고 보면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허망합니다. 바로 보면 결국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하나의 옮아가는 과정에 불과 한 것이고 무상한 존재에 불과한데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심심미묘甚深微妙한 법문을 딱 알았으면 그대로 우리 마음 집중하고서 그 외에는 사실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하기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방에서는 부처님 경經도 사실은 못 보게 합니다. 천지 우주가 전부 부처거니 그걸 알아 버리면 되는 거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자꾸 흔들어 대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불심에 가는 그 자리 즉, 우리 마음의 산심을 녹이기가 쉽지 않다 말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우리 마음의 산심에 흐트러지는 그런 분별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가 부처거니 딱 믿고서 그대로 딱 집중해서 화두・염불・주문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때는 우리 산심은 녹아지고 우리 마음은 차근차근 걸음걸음 불심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부처님 법문을 딴 법문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법문 내에 '옴 마니 반메 훔' 하면 그 가운데 우주가 몽땅 들어 있으면 됩니다. '무無'자 하면은 무자 화두 중에 우주가 몽땅 들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유한적인 데서만 차별이 있는 것이지 절대를 표현한 그런 말에는 별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개선箇箇禪이라, 격식을 떠나버린 영원적인 차원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만 들으면 소동파(蘇東坡, 1037~1101)가 말한 바와 같이 산색기비청정신山色豈非淸淨身이요, 산의 모양, 산에서 푸른색 누런색 여러 가지 그런 화초나 그런 모두가 다 이것은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고, 계성변시광장설溪聲便是廣長舌이라, 시냇물 역시 이것이 부처님의 팔만사천의 청정한 법문에 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바로 못 듣는다 말입니다.

바로만 들으면 자연스러운 것이 그와 같이 하나의 법문 가운데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자꾸만 변동하고 분별 시비로 해서 꼬아 붙이니까 사실은 복잡하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본래 자리 본래 실상인 우리 불성을 딱 믿고서 그 불성에 안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닦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잘못 믿는데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것, 이것이 부처님 법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은 아까도 말씀처럼 사실은 시간 가운데도 없습니다. 또는 모양 가운데도 없습니다. 자기라 하는 일정한 모양이 고정된 모양이 일 초도 없습니다. 순간, 찰나 변동해서 마지않는 이러한 세포 이건만은 우리 중생은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법공이라 결국은 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이라 하는 지혜, 반야지혜 즉 말하자면, 공지혜가 반야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모든 만유가 텅 비어있다는 반야지혜를 바로 딱 못 가지면 공부해도 별로 실속이 없습니다. 반야지혜를 가져야만 정견입니다. 인생의 목숨은 역시 이것은 소수지어小水之魚라, 조금 더 에누리해서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 햇볕에 말라가는 물에 있는 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보면 결국은 이것은 텅 비어있고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조금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역시 인간의 생명은 지금 햇볕에 밭아지는 물 가운데 있는 고기나 같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이나 같습니다.

아까 어느 스님 말씀처럼 우리 인생 이것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또는 화두 하기도 역시 너무나 짧습니다.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동물 수가, 동물학자 말을 들으면 백 만종 이상 되는 그런 종이 있다 합니다. 우리 사람은 백 만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구렁이 독사, 악어 그것도 똑같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진화의 정도가 우리 인간이 좀 앞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악어가 안 되고 범이 안 되고 개가 안 되고 다행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것이 눈물겹게 고마울 때가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 인간 몸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수무량의 종교 그런 종교 가운데서 하필이면 우리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만이 물질의 근원, 우리 마음의 근원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내생까지 미루지 말고서 금생에 한사코 무상대도無上大道를 증명證明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3.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 마음이 부처

* 1987년 8월 2일 태안사 용맹정진 회향 법문입니다.

만다라曼荼羅를 풀이하면은 여러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간명簡明한 적합한 풀이는 성중聖衆이, 즉 여러 성현의 무리들이 성중이 법계로 모여 있는 그런 도량 그것이 만다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상 모시고 있으면 불상 뒤에 탱화를 봅니다. 불상 뒤에 탱화에는 보통, 부처님이 한 가운데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양편에는 문수文殊·보현普賢입니다. 그러한 보살님이 시위해 계시고 또 아미타불이 계시면 그 양편에는 관음觀音, 세지勢至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분이 이렇게 시위해 계십니다.

그런 영상회상의 탱화를 보면 그때는 마하가섭, 아난존자, 목건련, 사리불 그런 분들이 같이 위호衛護해 계십니다. 아무튼 성중들이 여법히 모여 있는 그 자리가 만다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여러분들 모습을 저는 만다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사심도 없어 보이고 다 불심에 사무쳐 보입니다. 우리는 4박 5일 동안 여러모로 우리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동안에 법사님들 법문을 사정 따라서 몇 번을 놓치고서 어제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참 경탄해 마지않습니다.

이것 참 잘못하다가는 우리 스님 노릇 못하겠구나! 이럴 정도로 아주 훌륭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만다라 법이 여실한 부처님 회상을 말씀한 것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만다라같이 보인다는 것은 제가 느낌으로 얼핏 보는 것이지 여실히는 저는 못 봅니다. 불성을 제대로 못 보고 또는 비로자나불을 우주에 충만한 무량광명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것은 제 나름대로 보는 것이지 실은

실實답게 못 봅니다.

어떻게 해서 만다라를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결국은 만다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 하나의 존재도 바로 보면 결국은 이것이 부처님 법 아님이 없습니다. 내 동생도 역시 의미를 깊이 새겨서 바로 보고 바로 느끼면 역시 그도 부처님이고 자기 아내 역시 바로 보고 바로 느끼면 부처님입니다. 어떠한 것이나 일목일초一木一草 모두가 다 바로 느끼고 바로 새기면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봐야 아까 말씀처럼 만다라를 제대로 봅니다. 즉 뭇 성중들이 모여 있다 말입니다. 우주라 하는 것은 뭇 성중이 모인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법본묘추유물정法本妙醜由物情이라, 일체 만법은 원래 묘하니 신묘하니 조금도 오염도 없고 조금도 부정적인 것도 없이 다 긍정적이고 또는 초월적이고 상을 다 떠난 그런 것이지마는 추유물정이라, 우리 중생의 망정 따라서 우리가 더럽게 본다 말입니다.

불교를 몇 십 년 믿었다, 공부를 몇 십 년 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한만큼은 그마만치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문제라던가 어떤 문제에 당해서 해석하는 생활태도 그걸 보면 그냥 불교의 참다운 진리와는 엉뚱한 해석도 하고 판단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가. 사태를 바로 자기가 증명을 못했습니다. 이치로는 알 듯 말 듯 하지만 자기 생리도 정화가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습기가 아직 못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4박 5일 동안이나 또는 한 달이나, 삼 개월 동안이나 그와 같이 별스레 공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우리는 구두선口頭禪으로 말로만 해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사물을 바로 여실히 본다 말입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이라. 여실히 실답게 진리 그대

로 자기 마음을 본다 말입니다. 자기 마음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은 바로 부처입니다. 비록 나한테 있는 마음은 제한돼 있고 옹졸하고 좁다 하더라도 마음 본성은 바로 우주에 감싸 있습니다. 김가의 마음이나 박가의 마음이나 저 저변은 똑같습니다. 우주가 원래 무량무변한지라 도처가 다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만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 하면 이것은 불교만이 도인만이 할 수 있는 소리다. 이와 같이 말씀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상천하 어디에나 누구나가 다 유아독존입니다. 법본묘추유물정法本妙醜由物情이라, 법이 원래 묘하거든 다만 중생의 망정으로 오염시켜서 본다 말입니다. 따라서 오염시켜서 안 보면 도처가 중심이고 도처가 유아독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무한의 길이를 반경으로 하는 하나의 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원의 반경이 무한하다 그러면 역시 원 크기가 무한하겠지요. 무한히 큰 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도처가 중심입니다. 석가모니만 중심이고 예수만 중심이고 한 것이 아니라 도처 어느 곳에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도 우리가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니 우리 역시 부처님의 모든 지혜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아까 말한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이라, 여실히 내 마음을 못 본다 말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여실히 보기 위해서 모두 우리가 며칠이고 공부도 하고 또는 삼매에도 들고 하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 마음이 부처 아닙니까마는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면 도저히 깊이 공부 않는 분들은 감이 안 잡힙니다.

어째서 마음이 부처인가. 마음 이것은 자취가 없습니다. 마음은 본래 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타나 시비나 모든 것을 떠난 순수한 생명 이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이다, 남을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는 내 마음이다, 물론 그도 마음입니다마는 그 마음 이것은 현상적인 색에 오염된 즉 말하자면 상대 대상에 오염된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 그것이 초점은 될망정 마음 전부는 아닙니다. 마음의 본성은 아까 말씀처럼 상을 여읜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또는 중생이란 상 또는 생명이 길고 짧다는 그런 상을 여읜 그 자리면서 많은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사님들 법문에서 우리가 갈앙심渴仰心을 가져야 한다, 아주 훌륭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헌데 우리가 갈앙심渴仰心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의 공덕을 여실히 못 느끼면 갈앙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현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을 느끼고 허망 무상을 느끼고 실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하는 간절한 그런 추구심을 못 느끼면 갈앙심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는 현상적인 문제에 관해서 집착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삼차원 밖에는 못 봅니다. 어떤 존재나 내 생명이나 또는 앞에 있는 모두가 다 시간 공간이 밀접해서 결합돼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시간은 저만치 떼어 버리고 공간성만 가지고 봅니다.

시간을 거기다 도입을 시켜 생각해보십시오. 어떠한 존재나 존재라는 것은 시간 공간이 결합이 안 되면 그것은 존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헌데 우리 중생은 시간은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냥 공간성만 가지고 있다, 없다, 밉다, 곱다 합니다. 한번 시간을 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시간은 순간 찰나도 머물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절대 정지는 없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정지는 없습니다. 만법유종萬法有終이라, 그냥 시시각각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중생이 어느 질료, 물질 따라서 지나간 것은 과거요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현재요 아직 안 오는 것은 미래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설정한 것이지 따지고 보면 사실은 과거 현재도 미래도 공간성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못 본단 말입니다.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무상無常을 잘 못 느낍니다. 그저 몇 십 년 가서 센머리가 나오면 그때는 겨우 좀 느낍니다만 그냥 시시각각으로 일분일초로 변해가는 그런 자기 존재는 못 느낀다 말입니다. 숨 한번 내 뱉었다가 못 들이쉬면 바로 죽음인데 말입니다. 시간성을 도입할 때는 바로 무상無常입니다. 항상이 없습니다. 시간성을 도입할 때는 바로 무상입니다. 어떠한 순간도 우리 생명은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도 우리 존재가 공간성을 뗄 수 없으니 사실은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시간성을 생각할 때 어떠한 존재도 바로 즉 공空이라, 색즉공色卽空이라, 바로 색 바로 그것이 공인 것입니다.

허나 중생은 그냥 시간성을 떼어서 공간성만 두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비약적으로 우리 본래면목을 딱 봐 버리고 불성을 봐 버리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란 것이 한번 흘러 내려오면 그 근원 자리는 가사 독사가 됐던 또는 어떤 것이 되었던 근원 자리는 변치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성은 조금도 변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되나 개가 되나 하늘에 별이 되나 변치가 않습니다마는 한번 각 원소 각 성분으로 물질화돼서 굳어 버리면 그대로 순수해지는 발동을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자핵 하나 파괴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을 많이 들여서 중성자나 뭐나 쏘아붙여서 원자핵을 파괴합니다. 원자핵을 파괴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원자폭탄 같은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그와 같이 한번 굳어 버리면 우리 염파念波가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서 굳어버리면 그때는 파괴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굳어 버렸다 하더라도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또는 뭣이 되고 이렇게 굳어 버렸다 하더라도 역시 불성 자체는 조금도 변치가 않습니다. 성자

란 것은 그런 불성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한번 물화物化된 그것밖에는 못 봅니다. 순수생명은 못 봅니다. 우리가 다 흔히 아는바와 같이 『반야심경』에 항시 예를 듭니다마는 역시 그 공사상空思想 부처님 법문도 보면 어떠한 법문이나 부처님께서 공사상 즉 말하자면 반야지혜를 말씀 안 하신 데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반야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란 것은 인생고人生苦 해탈解脫인데 인생고를 해탈하고자 한다고 할 때는 반야공般若空, 반야지혜가 없으면 해탈은 못 합니다.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하여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라' 인생 고액苦厄을 제도하려면 싫으나 좋으나 간에 우리가 오온이 비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가 이렇게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내 앞에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내가 아끼는 내 재산과 내 소유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한에는 인생고는 못 떠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처럼 오온법이란 것은 그것은 물질에 오염된 우리 상념想念 이것이 오온법입니다.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라, 또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라, 한 번에 말하면 오온이란 것은 색色 즉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수受 이것은 우리가 감수하는 작용, 상想은 상상하는 작용, 행行 이것은 우리 의지 작용, 식識 이것은 분별작용, 물질에 대해서 바로 보면 우리가 분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훤히 트인 원융무애圓融無碍한 불성이라고 생각할 때는 분별시비가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황홀찬란한 그런 불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좋다 궂다 또는 무슨 물질이다 산이다 냇이다 하는 분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헌데 우리가 물질을 바로 못 보니까 분별시비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시비가 한번 나와서 굳어 버리면 우리 마음이 물질이 비었다 하는 것을 되새기고 느끼고 느껴야만 우리 마음에 절어있는 물질이 있다 또는 네가 있고 내가 있다하는 습

기가 차근차근 뽑아진다 말입니다. 업장 따라서 업장이 가벼운 분은 단박에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그야말로 참 수다원과須陀洹果라, 법성을 증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證 합니다마는 보통 중생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한번 우리가 물질에 따라서 절어버리면 오랫동안 닦고 닦아 되풀이해야 합니다. 『구사론俱舍論』 같은 데 보면 우리 마음 인간이 청정한 마음이 물질에 오염돼 가지고서, 물질도 사실은 근원은 불성인 것인데 불성 그것이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 우주가 이와 같이 성겁成劫이 되고 주겁住劫이 되고 이와 같이 하나의 형체가 되어 놓으면 우리 마음의 형체를 바로 못 보면 여기에서 차별 분별시비가 생긴다 말입니다. 차별 분별시비가 생긴 그것이 몇 생을 두고 익혀 온지라 또는 금생에 교육도 있다 없다 하는 그러한 유물주의적인 교육만 받아놔서 좀처럼 우리 마음이 그냥 단박에 그런 물질을 벗어나서 해탈의 청정불심淸淨佛心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아까 말씀처럼 그러한 물질계를 떠나서 순수한 불성계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혜충국사(慧忠國師 ?~775)라 하면 이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혜충국사는 육조 혜능스님 밑에 오대五大 도인이 계시는데 오대 도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과묵해서 말씀도 별로 않고 말입니다. 40년 동안 하산도 안한 분입니다. 왕자가 만나러 와도 그냥 합장하고 말아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출가법이란 것은 불경군주不敬君主라, 군주를 공경을 않습니다. 원칙은 삼보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군주한테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임금이 만나러 와도 그냥 합장하고 말아버린다 말입니다. 나가서 마중도 않고서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되니까 한번은 그 당시 당나라 임금이 와서 “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도력이 있다 한들 그와 같이 불경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하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체體가 움직이면 나라가 소란스러우니라.” 영원적인 차원에

서 항시 움직여서 영원적인 차원을 여의지 않는 그런 도인들이 함부로 행동하면 도리어 그것이 망동이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일반 중생들이 본체를 여의어서 상만 가지고 왔다 갔다 좋다 궂다 해대면 그때는 그냥 나라가 소란스럽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체가 움직이면 나라가 소란스럽다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수행도 체를 여의면 그때는 수행이 바로 못 됩니다. 단체나 어떤 것이나 영원적인 차원, 근원적인 불성에서 비춰봐서 여실히 행동 해야지 체를 떠나고 상으로만 따지면 역시 십인십색十人十色이라, 각기 자기 개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화합을 못하는 것입니다. 헌데 한 스님이 혜충 국사한테 가서 그 『정토삼부경』, 『대무량수경大無量壽經』을 보면 삼인三忍이라, 어제 우리 법사님들 가운데서 오인법을 아주 훌륭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삼인법이라, 극락세계는 세 가지 인忍 삼인법이 무엇입니까? 『대무량수경』에 보면 삼인법이 있는데 삼인법에 보면 무정설법無情說法이라, 사람이 있고 또 유정중생이 소리도 내고 하면 설사 공부를 못해서 확실히는 몰라도 좀 이해할런가 모르지만 무정설법이라 유정 중생이 아닌 나무나 돌 그런 것도 설법한다 말입니다. 그 무정설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 『대무량수경大無量壽經』에 보면 극락세계의 칠보 순임이라, 칠보로 이루어진 나무에다가 그 미풍이 그야말로 간드러지는 바람이 불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미묘청정한 소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극락세계의 감로수 같은 물이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 역시 어떻게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중생이 사람이나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유정이 아닌 그런 나무나 시냇물이나 이런 것이 그와 같이 아주 간드러지고 그런 멜로디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런 내는 소리가 마치 염불念佛·염법念法·염승念僧이란 말입니다. 마치 부처를 염하고 진리를 염하고 또는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승을 염하고 이와 같이 시냇물소리나 바람소리나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무정설법인데 과연 이 뜻이 무엇

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혜충국사 답이 "그대가 먼저 무정無情이 돼야 아느니라." 우리 중생은 그런 기성관념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더 오염돼 갑니다. 좋다 궂다 있다 없다 말입니다. 나다 너다 좋다 궂다 하는 관념 이것은 재주가 있어가지고 분별시비도 많이 하고 남도 책망도 하고 똑똑해서 남 흠도 잘 꼬집고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자성을 차근차근 오염시켜 갑니다. 불성은 원래 평등무차별의 청정미묘한 것이 불성인데 좋다, 궂다, 밉다, 곱다,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분별시비 같은 것은 이런 사바세계에서는 그것 잘하면 똑똑할지 몰라도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 같이 큰 마구니가 없습니다. 무정이라 무정이 돼야만이 비로소 무정설법을 아느니라.

우리 중생 마음이 깊은 선정에 들어서 즉 말하자면 파동이 쳐서 우리 마음은 지금 파동치고 있습니다. 좋다는 파동, 궂다는 파동이 치고 있습니다. 공겁이 되어서 성겁이 될 적에 우리 중생이 이렇게 사바세계에 내려옵니다마는 맨 처음에 내려 올 때는 광명신光明身이라, 몸도 광명이고 또는 비행자재라, 마음대로 자재했습니다. 이것도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은 다 믿으셔야 합니다.

태초 인간은 결국은 광명신이라,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에덴동산에서 행복만 누렸겠지요. 정말 에덴동산의 훌륭한 그런 세계는 음식도 먹고 싶으면 그냥 생각하면 먹어지고 몸이 광명뿐이기 때문에 몸이 무게가 없습니다. 모든 공덕을 갖춘 광명뿐이기 때문에 삼명육통三明六通이라, 신통자재를 못하려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딱 먹으면 그때는 광명이 갔다 왔다 해서 텔레파시로 해서 같이 알아버립니다. 이것이 태초에 인간이 나올 때입니다.

광음천光音天이라, 우주가 성립되는 광음천에서 태초에 인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이런 유전공학이나 또는 원자력이나 그런 기기묘묘한 괴상스런 힘이 안 나올 때는 잘 안 느꼈지마는 지금 물리학은

그야말로 참 기기묘묘한 힘을 냅니다. 하나의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미세 힘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는 그러한 것의 근본 힘, 그러한 것의 순수한 힘, 이것이 결국은 불성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불성과 하나가 될 때에 무슨 힘을 못 내겠습니까. 그러기에 부처님 불경 가운데서 그렇게 고구정녕히 불공덕佛功德은 불가설不可說 불가설不可說이라, 부처님의 공덕을 어떻게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방광동기放光動氣라, 단壇 위에 척 들어 올라서면 벌써 광명이 훤히 비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눈부신 광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 정광靜光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번뇌를 녹이는 그런 광명이 비치는 것입니다. 방광동기放光動氣라, 천지 우주가 은은히 진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 해서 삼매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천지 우주의 신비로운 리듬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락세계의 삼인三忍은 세 가지 인忍인데 그것은 음향인音響忍이라, 유순인柔順忍이라, 또는 무생인無生忍이라, 원래 불생불멸하는 그런 인忍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명곡이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얼마만치 우리 마음이 개운해지고 합니까. 헌데 삼매에 들어서 영원성에서 오는 그런 순수한 리듬을 맛 볼 때는 우리 몸도 뼈도 가슴도 상쾌하고 또한 그런 경계는 자기 몸에 대해서 하등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합니다만 우리 공부를 '인후개통획감로미咽喉開通獲甘露味라' 인후는 목구멍 아닙니까. 개통이라 목구멍이 툭 틔어서 감로미라 감로의 맛을 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가슴이 툭 틔어서 천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을 그때는 느끼는 것입니다. 공부가 부족할 때는 항시 목에서 뭣

이 있어가지고서 상하가 잘 순환이 안 됩니다. 갑갑하고 다리도 아프고 한다 말입니다. 허나 한번 조화가 잘 돼서 상하가 회통할 때는 그때는 어디가 아픈데도 없는 것입니다. 몸이 피로해도 순간 순식간에 피로가 가셔버린다 말입니다.

영원의 힘이 우리한테 이렇게 차근차근 비춰온다고 할 때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향인音響忍이라, 따라서 우리 마음의 파동이 고요하지 않으면 음향인은 맛을 못 봅니다. 같은 경계에서 있다하더라도 역시 마음이 거칠면 그냥 바람소리나 듣고 말지만 같은 바람소리도 선풍기를 틀어 놓는다 하더라도 역시 그냥 거칠 때는 선풍기가 선풍기거니 하고 보통 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밖에 못 듣지마는 마음이 정화되면 선풍기 소리 역시 그런 하나의 간드러진 멜로디로 들립니다.

즉 따라서 극락세계에서 음향인音響忍을 느끼는 이것은 마음이 그만치 정화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파동이 그만치 자서 말입니다. 잔잔해가지고서 우주의 그런 리듬, 우주에 갖춰 있는 순수한 리듬, 그것이 우리한테 배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마음이 밉다, 좋다, 돈 벌고 싶다, 그런 것이 그때는 싹 가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도인도 파계破戒할 수 있다, 계율이란 것은 일반 범부가 지키는 것이지 도인은 무애행無碍行이다, 도인은 술 먹고 고기 먹고 도인은 이성간에 관계하고 이것은 다 도인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망탄妄嘆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성자의 경계를 모독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따라서 우리 생명도 정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되어서 욕계 번뇌를 여의었거니 욕계 번뇌를 여읜 사람들이 음욕·잠욕·식욕 이런 욕심이 붙어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서 우리가 몸뚱이를 한번 가지는 한에는 한계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 참다운 신信에 있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청정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조화가 되어서 음향인이라, 그런 영원적인 리듬을 들으면 그와 동시에 유순인柔順忍이라, 우리 마음이 유연선심柔軟善心이라, 그야말로 풀포기 하나와도 대화하고, 싶고 인정 많고 마음이 고운 사람들은 그만치 우리 마음의 파동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즉 업장이 가볍다 말입니다.

업장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 마음의 파동이 거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순한 마음 유순한 마음이 차근차근 깊어지면 자타의 구분이 없습니다. 생生도 없고 멸滅도 없는 즉 말하자면 생과 멸을 떠나버린 영생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무생인無生忍이 되어야 불퇴지不退地라, 우리가 후퇴가 없습니다. 무생인이 돼야 비로소 그때는 성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혜충국사가 말씀한 바와 같이 무정이 돼야 무정설법無情說法을 아느니라, 꼭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분별이 없고 우리 마음이 상相을 여의어 버려야만 비로소 그때는 무정중생의 산도 냇도 나무도 돌도 천지 우주가 같이 설법하고 같이 서로 듣고 있단 말입니다. 구설구청俱說俱聽이라, 시냇물이 설법하면 나무가 듣고 나무가 설법하면 시냇물이 듣고 말입니다. 우리 법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어떤 누구나 간에 내 동생이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간에 바로 보면 의미를 깊이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다 부처가 되고 만다 말입니다.

마치 원자를 하나의 원소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소립자가 되고 또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공이 되어서 무엇인가 몰라버리듯이 무엇인가 몰라버린 그 자리, 물질이 아닌 그 자리 순수한 그런 생명, 불교에서는 그러한 자연 과학적인 그러한 시도를 벌써 부처님 당시부터 했습니다. 다만 술어가 지금 술어와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뿐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제 밤에 어느 법사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야말로 참 서구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불신을 당했는가, 기독교

는 현대적인 고도산업사회를 제대로 변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포섭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원자력시대에 무시무시한 힘을 어떻게 변경을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나 또는 「사복음서四福音書」나 그런 걸로 해서는 물론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성자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허나 존중은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나 있는 것이지 그 교리로 해서는 유물주의로 팽배한 이러한 억센 주의나 그런 것을 조복할 힘이 없습니다. 극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적들을 많이 하신 바와 같이 서구적인 이원적인 사고방식 이걸로 해서는 또 역시 현대적인 문명병을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이 나와서 너무나 거칠게 날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물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순수한 젊은이들한테 바른 길을 제시해줄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물질은 대체로 무엇인가, 유물주의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유물변증법이 되면 마르크스주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물주의를 최파摧破해야 될 것인가. 불교에서는 그야말로 만법유식이라, 만법이 오직 식識뿐이요 또는 일체가 유심조唯心造라,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이와 같이 단순 소박한 이런 말로 해서는 극복이 안 됩니다. 과연 물질이란 것은 어떻게 되어서 끄트머리에 가서는 마음인가. 물질이 왜 어떻게 해서 마음인가, 이것을 지금은 변증辨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는 신信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대적인 술어로는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불교에서는 이것이 다 돼있는 것입니다. 되어있는데 다만 우리 같은 출가승이 부처님의 불성을 제대로 증명을 못하고, 제대로 증명을 다 했으면 그야말로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인데 제대로 못했으니, 그와 같이 현대인들이 납득 가게끔 변증을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라빈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가 우리 한국을 동방의 광명이라고 했고 또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가 동방을 상당히 좋게 말했고 또한 어네스트 겔너(Ernest André Gellner, 1925~1995)도 우리 한국을 좋게 말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다만 우리한테 영합적迎合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맑은 감성들, 맑은 지성들이 바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불교로 해서 제대로 변증을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저는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서는 이것은 틀림없이 유물주의가 설 땅이 없습니다. 유물주의가 설 땅이 없으면 따라서 딴 것도 역시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래 생명이 무엇인가, 우주의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 물物자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풀이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뿐입니다. 변증은 제대로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소박하니 과거 술어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다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 현대인들이 공부를 잘못해서 부처님의 그런 진리 불성을 제대로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로 삼매에 들어서 불성을 증證해서 현대 우리 귀중한 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처럼 비록 우리는 아는 것을 그냥 인식적인 개념적인 걸로 거쳐버리면 그것만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그것을 증명 못 하면 신信이 못 된다 말입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 종교의 그런 여러 형태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완벽한 형태는 역시 신해행증信解行證입니다. 믿고 해석하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증명하고, 믿고 내용을 체계를 세워서 해석하고 또는 행으로 해서 실천하고 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이와 같이 신해행증을 갖춰야만 참다운 완벽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데 여기에서 본다 하더라도 역시 불교 외에는 신해행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는 없다고 봐

집니다. 물론 믿는 거야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겠지요.

허나 그 믿음 역시 제일의적第一義的인 문제, 자타를 초월하고 우주의 가장 보편타당한 그런 어떠한 대상 이런 대상을 믿지를 못합니다. 어제도 아주 고구정녕苦口叮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상을 나와 대립해서 본다 말입니다. 나와 대립해서 보는 이상에는 이원론을 우리가 극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포섭한 자리, 나까지도 포함해서 어느 한 가지도 버릴 것 없이 다 포함한 자리, 그런 자리를 믿는 것은 사실은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신해라 또는 해석이라 말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창세기」나 또는 「사복음서」나 그런 걸로는 종교철학을 제대로 체계를 못 세우는 것입니다. 어찌 세울 것입니까. 신학에서 각 철학을 도입시켜가지고 한다지만 역시 그도 미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아닙니다. 불교만이 비로소 종교철학을 제대로 체계를 세웠습니다. 또는 행이라, 행도 역시 우리 신信과 행行이 신信과 해解가 바로 돼야 행이 바를 것인데 바른 믿음 또는 바른 해석이 못되면 우리 실천도 역시 바른 실천이 못되는 것입니다.

바른 실천이 못되거니 바른 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딴 종교는 우리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가장 좋은 정신도 못 되는 것이고 또는 바른 체계도 못 세우는 것이고 또는 바른 행도 못되고 바른 증명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인들의 슬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인들이 나오면 어떤 도인이든 간에 꼭 그 시대 문명을 한번 비판합니다. 교상판석敎相判釋이라, 가사 원효元曉스님이 자기가 깨달은 데서 일대시교一代時敎 그 당시에 부처님 교리를 비롯해서 모든 학문을 다 비판한다 말입니다. 천태天台(지의智顗, 538~597)스님이 나오면 그 당시에 불교 일반을 비롯해서 모든 교학을 총 망라해서 비판한다 말입니다. 그런 교상판석敎相判釋이라, 이래 가지고서 그 시대에 맞는 교리를 딱 세웁니다.

어느 것 하나를 이렇게 소외를 시켜가지고서 무시를 합니다. 어제도 어느 법사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산대사西山大師께서도 「유가귀감儒家龜鑑」, 「선가귀감禪家龜鑑」 또는 「불가귀감佛家龜鑑」을 다 내세웁니다.

다만 불교뿐만 아니라 딴 종교 역시 다 포섭해서 하나의 진리에다 딱 묶어버립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는 그런 도인들의 원융무애한 광대무변한 그런 자리에서 내가 있고 니가 없거니 내 종교, 니 종교 어디가 구분이 있습니까. 다만 딴 종교는 불교에 비해서 여실히 못 본다 말입니다. 가까이는 가 있지만 여실히는 못 보고 궁극적인 것은 못 본다 말입니다.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깊고 얕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현대는 다종교사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우리 선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역시 자시비타自是非他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를 통 털어서 통불교通佛敎를 신봉함과 동시에 딴 종교 역시 우리 품 안에 다 품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벌써 수가 몇 명입니까. 천만 인구가 우리가 믿지마라, 하면 안 믿겠습니까. 그네들이 부족한 점, 소위 그네들 지성 가운데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점, 미흡을 느끼는 점 그 점을 우리가 보완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뭣인가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천지 우주에가 다 있는 것이고 천지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통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통이라, 어떠한 도인들이나 그 시대에 문명 비평을 다 해가지고서 그와 같이 회통을 시켰던 것입니다.

헌데 지금 불가에서는 같은 불교 내에서도 니 공부 옳고 내 공부 그르고 또는 그 반대로 말하고 말입니다. 이래 버리면 참 따분한 일입니다. 이러면 결국은 우리 불교도 빛을 못 내고 딴 종교와 같이 화합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 공부는 대체 무엇인가, 결국은 본래 청정한 우리 자성自性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

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까운 길인가. 헌데 우리 중생들은 역시 근기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리학으로 보더라도 의지가 강한 분, 또 지성이 강한 분, 또 감성이 풍부한 분 그와 같이 차이가 있겠지요.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 보면 그러한 인간적인 개성 차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처님의 제도 방편이 선교善巧로 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의지가 강한 분들은 고행도 시키고 명상도 하고, 또는 지성이 풍부한 분들은 관觀도 시키고 화두도 들고, 또는 감성이 풍부한 분들은 그야말로 참 부처님을 인격적으로 흠모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제시를 하고, 이와 같이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나 같은 사람도 역시 다만 우리 심성에 있어서 감성이 더 풍부한가 지성이 더 풍부한가 약간의 차이 뿐인 것이지 어떤 누구나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불성 가운데는 원만구족이라, 불성 가운데는 감성도 지성도 또는 지혜도 다 들어 있듯이 지智·정情·혜慧가 우리 불성 가운데는 원만구족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비록 지금 업장에 가려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원만구족한 지혜와 정情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인연 따라서 업 따라서 어디가 비중이 더 큰가 그것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사 감성적인 면만 주로 해가다가는 또 역시 지성적인 것이 소외를 받으니까 그때는 싫증난다 말입니다. 또는 따지기 좋아하는 그 점만을 공부하면 우리 감성이 소외받아 불만을 품습니다. 공부를 오랫동안 애쓰고 한 사람들은 아, 내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하겠구나 감이 잡히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가지고 애를 씁니다. 하나만 가지고 애쓴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처럼 내내야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아져서 어느 고비만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똥 마른 막대기를 화두로 들으나 또 '옴 마니 반메 훔'을 부르나 뭣을

부르나 간에 내내야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됩니다. 음률을 주로 하는 영원적인 순수한 리듬 진언을 주로 하는 그런 쪽에서는 '옴 마니 반메 훔'이 가장 좋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생명은 바로 인격인지라 인격적으로 숭앙하고 싶구나! 내가 인격이니까 우리가 화석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그야말로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인지라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을 우리가 인격으로 숭앙해야 하겠구나, 그와 같이 인격적으로 숭앙할 때는 갈앙과 흠모로 해서 부처님을 외우고 부르면 되겠지요.

그러나 분별시비를 많이 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시 본래 내가 부처거니 뭣 하러 그렇게 인격으로 불러야! 거기에서 약간 거부를 느껴가지고서 있는 그런 분들은 그냥 내 본질이 무엇인가 내 본 바탕이 무엇인가 그와 같이 자기를 참구하는 쪽으로 해도 무방하겠지요. 또는 원래 부처거니 새삼스럽게 우리가 구할 필요가 무엇이냐 가만있으면 그야말로 흐린 탁수가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이듯이 가만히 있으면 본래 부처인지라 마음이 번뇌가 사라지며 그때는 불성이 나타나겠지 이와 같이 묵조하는 명상만 주로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성불의 법입니다.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해도 그때는 무방할 것이고 어떻게 해도 무방합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부른다 하더라도 근본불성 자리는 하나구나 이와 같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못 느끼면 결국은 그것이 집착이 되어 가지고서 자꾸만 상이 생긴다 말입니다. 어느 분들 보면 '관세음보살'을 몇십 년 한 분을 가르쳐서 억지로 아미타불하라고 한다 말입니다. 억지로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이나 내내야 같은 것인데 다만 의미 부여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인데 몇십 년 관음보살해서 힘이 난 분한테 해서 억지로 바꾸어서 아미타불 하라고 합니다. 또 관음보살을 애쓰고 한 분한테 억지로 벌써 공부가 되어가지고서 거의 안심입명安心立命에 될 만한 사람들한테 그것은 방편이다, 화두해야 된다 억지로 의심을 시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리불不離佛 치우불置遇佛이라, 내 자성인 부처한테서 안 떠나고 또는 치우불이라 부처와 만나는 즉 말하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를 의심하고 않고 또는 염불로 부르고 주문을 부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한테 맞으면 좋지요. 리듬으로 구하는 분들은 '옴 마니 반메 훔'이 그때는 좋을 것이고 허나 자기한테 안 맞는다 하더라도 본래 불성이 우리 본성이거니 하고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끄트머리에 안 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안 맞으면 조금 더 더디고 할뿐이라 말입니다. 헌데 저는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융합적인 방법 기왕이면 불법을 통 털어서 하나로 뭉치고 싶다, 기왕이면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각 종교를 다 하나로 뭉치고 싶다, 지금 지성인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지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젊은이들은 그와 같이 안 느끼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의 종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시 앞서 말씀처럼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이라, 즉 말하자면은 여실히 진리를 우리가 봐야 한다 말입니다.

먼저 이러한 개념적인 자기이해가 앞서야 합니다. 개념적인 이해가 앞서지 않으면 꼭 자타시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로 뭉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체만유를 하나로 딱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불교 말로 하면은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 천지우주가 오직 하나의 진리로 딱 되 버려야 한다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로 딱 되어 버려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개운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체증이 딱 내려간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바와 같이 인후개통咽喉開通이라, 목구멍이 확 트입니다. 역시 그러한 진리를 하나로서 해결을 다시켜버려야 우리 마음이 개운합니다. 조사 스님들 법문에 가서 구구순숙久久純熟이라 하나의 방법 따라서 화두나 '옴 마니 반메 훔' 그런 주문이나 '관음보살' '아미타불'이다 말입니다. 오랫동안 하다보면 결국은 업장이 녹습니다.

탁수라도 물이 흘러가고 흘러가면 물이 자정작용을 해서 맑아집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공부도 역시 하나의 방법 따라서 하다 보면 결국은 염념지중念念之中 죄멸심정罪滅心淨이라, 생각하고 생각하면 죄는 멸하고 그때는 이제 우리 마음이 정화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본래 자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모두가 부처인 것을 알면 되겠지 거기 따라서 도덕적인 우리 생활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역시 불교라는 것은 뭐라 해도 성불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불을 못 하면 자기가 깊이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런가 모르지마는 부처님의 참다운 실상은 못 봅니다. 참다운 실상을 못 보면 역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불경에서 병도사病導師라, 남을 바로 이끌지 못하는 도사라 공부를 좀 해서 이론적으로 내가 옳다 내가 이만하면 행동에 별 하자가 없다 이와 같이 도덕적인 면에서 자기 스스로 하자를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불성을 미처 못 정해놓으면 범부입니다.

어느 고비 어느 경계에 부딪치면 역시 마음의 동요가 옵니다. 마음의 동요가 오면 역시 무슨 판단에서 바른 판단을 못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 불생불멸의 자리를 딱 정해야만이 바른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판단을 못 할 때는 사실은 결국은 병도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런 멸진정滅盡定을 통해 아我라 하는 나의 근본 아상我相의 근본을 딱 뽑아 버리면 모르지만 못 뽑을 때는 아직 범부지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항시 겸허하니 부처님 말씀을 여실히 증證하려고 애쓰고 또는 부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 구구순숙久久純熟, 오랫동안 익히고 익혀갑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고양이가 쥐를 앞에 놓고서 한 눈 팔면 쥐는 도망가고 맙니다.

그렇게 노려보듯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응심凝心이라, 또는 여계포란

如鷄抱卵이라, 마치 어미 닭이 계란을 품듯이 경망해서 계란을 품다가 혹 떠나버리면 계란은 부화를 못 합니다. 진득이 그와 같이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구순숙久久純熟이라' 오랫동안 익혀가면 그때는 '자연내외自然內外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 내 마음 내 밖이 하나가 딱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가 딱 되어 버립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팍팍한 길입니다. 험준한 산길이지만 가면 갈수록 차근차근 더 쉬운 것입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상相이 떨어지면 질수록 우리 환희심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원의 리듬, 영원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 역시 분명히 있듯이 우리 기분 나쁘면 지옥이고 하는 단순한 지옥이 아니라 실제의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실제 극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극락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세계가 그대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법본묘추유물정法本妙醜由物情이라, 원래 이대로 광명세계고 이대로 다 금·은·유리가 박힌 세계인데 다만 삼독심에 가려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다만 망념에 가려서 그걸 미처 못 본다 말입니다. 있는 것은 결국 극락세계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보면 이 자리가 바로 만다라의 화장세계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염불이나 또는 화두나 주문이나 인연 따라서 애써서 하십시오.

내가 생명인지라, 내 생명이 우선 불안스러우니까 부처님을 갈앙하는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비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념왕생이라, 열 번만 잘 부르면 그걸로 해서 비약되어 아까 말한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 무생법인을 증證한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4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삼차원에서 보는 공간에다 시간을 도입한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무상無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있지가 않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다 공이란 말입니다. 오온이 바로 텅 비어 있습니다. 오온이 공이거니 나요 너요 내 것이요 이것이 모두 무상無常한 것입니다. 무상하니까 무상하지 않은 영원적인 것을 우리가 갈망渴望 합니다. 무상을 느껴야 비로소 갈망이 오고 갈앙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구순숙하니 익히고 익혀서 그야말로 참 타성일편이라, 오직 하나의 진리로 딱 되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네가 부처가 돼서 우리 현세 이대로 극락세계지만 역시 우리 중생의 업장은 두터운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될수록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한 민주화, 철저한 평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불자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서 촉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부처님이 되기 쉽고 내가 공부하기 쉽고 남도 공부하기 쉬어서 '자타일시自他一時 성불도成佛道'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인연 공부에 따라서 정진하셔서 성불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4. 모두가 다 부처님뿐입니다.

* 1987년 1월 3일 태안사 용맹정진 입재법문입니다.

‘무량수행중無量修行中, 참선최제일參禪最第一이라.’ 우리의 수행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량수행無量修行 중 참선이 최제일最第一이라. 참선이 제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경론經論에 있습니다. 참선 이것은 우리 마음을 증폭시킨다고 해서 즉 말하자면 마음의 볼륨을 증강增强시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증상심학增上心學 더할 증[增], 윗 상[上], 마음 심[心], 배울 학[學,] 증상심학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타고 나온 그런 마음을 좋은 쪽의 것으로 해서는 마음의 국면이 더 증폭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도 외우고 또 여러 가지 명상법도 하고 하지만 참선법이 아니고선 우리의 타고난 마음의 국면을 넓힐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평을 더 확장 시킬 수가 없다 말입니다. 헌대 참선 이것은 무량수행 중 참선 최제일이라. 이것저것 모든 행법行法이 많지만 참선 이것이 최제일, 가장 으뜸가는 수행법이라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복이 많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제일 가장 수승한 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우리가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마만치 거기에 이르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참선해야 할 것인가. 참선은 먼저 바른 정견正見이 앞서지 않고서는 참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정견이 선행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것이 정견正見 인가. 여러 가지로 참선한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또 지금은 서구지방에서도 참선 흉내를 많이 냅니다. 마인드 컨트롤, 초월적 명상법이다 해서 명상법의 가지가지 형태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참선법을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어째서 못 되는가. 정견正見,

바른 견해가 아니고서는 참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정견이 확립이 돼야만 비로소 참선이란 말을 붙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이 만 사람이 있으면 만 사람 각각 얼굴이 차이가 있듯이 마음도 역시 그 업장의 차이 때문에 가지각색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만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불교도 수와 기독교도 수가 어디가 더 많은지 모를 정도로 백중세입니다. 그 양편 다 거의가 약 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아주 굉장히 총명한 민족입니다만 또 굉장히 귀가 얇은 민족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제가 비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만,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이원적二元的인 사고방식이 되어있습니다. 사물을 항시 분별로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과 대립對立하는 사탄satan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선善이 있으면 악惡이 있고 또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관에서 보면 모두가 이와 같이 분열시켜서 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소위 말하는 흑백논리黑白論理입니다. 백白이 아니면 흑黑이다 하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같이 요원의 불같이 교도 수가 증가 된 곳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한국같이 배타적인, 자기가 믿는 종교가 아니면 그것은 아니다 삿된 짓이다 하는, 한국같이 첨예하게 가장 치열하게 배타적인 균형을 깬 기독교는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귀가 얇기도 하고 총명하지만 얄팍한 점이 있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명색이 과격적인 그런 분들 말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해 가지고 그런 흉내를 내는 그 사람들,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소비에트나 중공이나 쿠바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이북같이 극렬하고 소아적小我的이고 독단적인 예는 없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종

교 무슨 교敎, 무슨 교敎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신년호에 나와 있는 각 종교 교주들의 말씀들을 얼핏 보았습니다만, 다 자기들 교파만 옳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은 바른 정견正見, 바른 정견을 갖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한 바른 정견을 갖지 못하면, 설사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도 선禪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禪이 못 되는 것입니다. 정견正見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정견인가 정견은 부처와 나와 구분을 않습니다. 일반중생과 나를 구분을 않습니다. 천지 우주를 모두 일원적一元的으로 하나로 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기가 납득을 못 해서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억지를 써서라도 하나로 보고 참선을 해야지 하나로 못 보고 참선을 하면 그것은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보조국사普照國師 「어록語錄」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선지식을 만나서도 우리 중생은 다 어두우니까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중생의 차원으로 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선善으로 보이고 악惡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밖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지식을 만나서 말입니다. 본래시불本來是佛이라,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제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안목은 저 몇 백 미터만 벗어나도 잘 안 보입니다. 어른거립니다. 우리 중생의 안목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비단 그런 시야뿐만 아니라 우리 아는 것이나 모두가 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무슨 주의主義 무슨 학설學說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 모두 다 상대 유한적有限的인 가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슨 경지에서 말한 것이나, 또한 학술에서 말한 것이나 그러한 것은 상대 유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처님 가르침 같은 그러한 하나의 생명, 하나의 부처님, 그와 같이 보지 않으면 모두 다 상대 유한적인 참다운 정견正見이 못 됩니다. 본래시불本來是佛이라,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또한 부처 이것이 비록 부처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것도 아니면 우리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 그 안에는 어려운 말로 보조국사 「어록」에서 무루지성無漏智性 본자구족本自具足이라, 없을 무[無]자, 셀 누[漏]자, 누漏자는 번뇌란 뜻으로 쓰입니다. 번뇌가 없는 지성이라. 번뇌가 없는 그 지혜로운 성품이 본자구족本自具足이라, 본래 갖추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제아무리 못나고 어리석고 옹졸해서 남을 미워하고 또는 강도짓을 한다 하더라도 본래 부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말입니다.

사람만이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돼지・소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잠재되어 있어 가지고 다 발로發露를 못 해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동물한테서 뿐만 아니라 각 식물도 갖추고 있습니다. 불교말로 하면 유정有情・무정無情이란 말입니다. 의식이 있는 것, 의식이 없는 것, 또는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하여튼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부처님 성품을 모두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제한이 있고, 적고 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부처님 성품 그것은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에서 배우신 바와 같이 불생불멸不生不滅 하고 불구부정不垢不淨이라, 부증불감不增不減이라, 더하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항시 영원히 존재한다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면서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단 내 마음의 본질뿐만 아니라, 네 마음의 본질이나 각 도인道人들의 본질이나 어떠한 존재 각각 두두물물의 존재가 다, 모두가 다 부처님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말입니다.

내 부처님 네 부처님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겉은 너요, 나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불성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구더기 부처님이나 도깨비 부처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파도가 천파만파 일어나도 똑같은 물이지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한 불교말로 해서 일미평등一味平等이라, 하나의 원융한 진리이기 때문에 시심시불是心是佛, 시심작불是心作佛, 이 시[是]자, 마음 심[心]자, 시심이라. 이 마음이 시불 이

시[是]자, 부처 불[佛]자, 이 시[是]자는 바로, 또는 이것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시심是心이라 이 마음이, 시불是佛이라, 바로 이 마음이 부처란 말입니다. 똑같이 앞이나 뒤에나 이 시[是]자 입니다만 달리 쓰입니다. 시심시불是心是佛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란 말입니다. 시심작불是心作佛, 이 시[是]자, 마음 심[心]자, 지을 작[作]자, 부처 불[佛]자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바른 견해, 지금 내가 아직 못 보고 또 금생 내내라도 체험도 못 하고 말런지 모르지만, 선지식이나 그런 도인들 말씀 따라서 그와 같이 그러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고서 나의 참 생명 나의 본바탕을 찾고자 공부해야지 비로소 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비 참선, 그 사이비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젊은이들은 경험도 해보고 많이 연구해서 아십니다만, '라즈니쉬의 가르침'이 나와서 사회에서 혼동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정말 하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또 그 사람도 보고서 저한테 한 권을 주어요. 사실 저는 볼 틈이 없지만, 젊은이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대충 알아야겠다 해서, 좀 봤더니 몇 장 보고서 더 못 봤습니다. 어째서 못 봤는가 하면 우선 남녀男女간의 성性 개방적인 그런 말을 너무나 지나치게 한다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人間의 윤리倫理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향락을 위해서 향락을 초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인간이 좋아하는 성욕을 위해서 또 성욕을 충족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데로 출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큰 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준 사람 그분도 스님입니다. 스님은 그 책을 아주 굉장한 책으로 안다 말입니다. 또한 라즈니쉬(Rajneesh Chandra Mohan Jain, 1931~1990)가 저술한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분도 대체로 스님입니다. 또 그분들 말 들어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20세기의 석존釋尊이라, 현대의 석가모니다 말입니다. 물론 대학교수도 지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얼굴도 아주 미남이고 또 말을 잘해서 말도 그냥 음악적이고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는 바른 정견正見인가 아

닌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 말이 어떤 대목은 부처님 말씀과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어떤 대목은 부처님 말씀을 굉장히 쉽게 풀이해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윤리 문제, 인간의 용상庸常이 확립이 안 되면, 참다운 가르침이 못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해서 참선에 못 들어갑니다.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성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참선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자기 사기詐欺 일뿐입니다. 자기 기만欺瞞일 뿐입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예수님이나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어떠한 가르침이나 철저한 계율을 말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도,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어떠한 법문에 의지하오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계의사以戒依師라!' 계율로 해서 스승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율戒律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범부는 애써서 행함으로써 성자聖者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성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도 그때는 계율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공자님 말씀도 나는 70이 돼서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내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말입니다. 마음이 그와 같이 인격人格이 딱 되어 버리면 그때는 한마디의 말, 일거수일투족도 다 계율에 맞습니다만, 우리 범부는 번뇌에 가려 있어 우리 행동 하나 하나가 계율에 못 맞습니다. 못 맞지만 우리가 지키다 보면 성자가 되기 위한 그런 행동, 또는 성자가 우리에게 보이는 행동, 그 행동 이것이 계율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인들은 맘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성인들은 바로 진리의 순리에 따라서 진리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중생은 나쁜 버릇 때문에 벌써 순리에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그런 것이 법도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다 보면 그때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지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정화가 되어옵니다.

그러기에 계율종戒律宗이라. 율종律宗이란 종파가 있습니다. 같은 불교 가운데도 계율만 지키는 종파가 있는데, 그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행동 바른 말만 골라서 한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마음도 정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즈니쉬 이 사람은 별로 오래 못 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벌써 성자聖者의 천지天地 용상庸常의 법도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오리건주에 건너가서 무슨 6만 에이커 땅을 사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개방주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유교儒敎 도덕률에 얽매고 불교 도덕률에 얽매고 그렇게 얽매였다가, 성 개방을 부르짖으니까 좋아서 거기에 합류한단 말입니다. 또 거기 가서도 그냥 그렇게 또 더구나 개방적인 미국 사람들 오직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요원燎原의 불같이 일어나서 거기다 육만 에이커의 땅을 샀단 말입니다. 육만 에이커 같으면 곡성군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 거기다 대학 세우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예쁜 여대생을 배신해 가지고 이제 성 개방을 시켜 놨으니 내용이야 보나 안 보나 그것이 뭣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민법에 걸려서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저 네팔로 가서 카트만두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도 추방당하니까, 그리스로 갔다가 다른 곳에 가려 해도 이젠 여권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방랑자가 됐지요. 사람 잘 되는 것을 바랍니다만 이와 같이 천지天地 용상庸常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정견正見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 걸로 해서는 절대로 성불을 못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상대 유한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옳다 그르다 함부로 말해선 안 됩니다. 자기가 바로 못 보면서 이것이 도인이다, 이것이 제2의 석존釋尊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빗나가서 본론에서 좀 어긋났습니다만, 하여튼 바른 정견正見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선한다고 모양은 좌선 모양을 취한다고 하

더라도, 자기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머리도 시원하고 가슴도 시원해지기 위해서 한다든가, 또는 자기 집안의 복을 빌기 위하여 한다든가, 또는 무슨 신통을 얻어서 자기가 예언자가 돼서 한번 그렇게 일확천금을 번다든가, 이런 등등의 공리적功利的인 마음에서 한다면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즉 상相이 없어야 참선參禪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양에 안 걸리고 문자에 안 걸리고 또는 자기 생각 헤아림에 걸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양[相]에 안 걸린다는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인은 꼭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못 깨달으면 참다운 참선이 못 됩니다. 모양에 우리는 집착하니까 집착하는 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번뇌가 발생하여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더러 스님은 아주 쉬운 법문 않고서 난삽한 법문만 하니까 무슨 말씀한지 서툴러서 잘 못 알아듣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그런 일은 다분히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야말로 그 큰 바른 청정淸淨 음성으로 어려운 말씀을 쉽게 하십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못 합니다. 허나 역시 모양이 없다는, 모양이 없고 또는 형상에 걸리지 않고 말입니다. 상相 없다는 그런 문제는 누가 말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 꼬집어 봐도 내가 아프고 좋고 그르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있는데 또는 네가 있는데, 없다니까 그야말로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도 보면 맨 초기에는 유교有敎라, 중생 차원에서 있다, 없다 그냥 선善도 있고, 악惡도 있고 또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와 같이 중생 차원에서 하는 가르침은 유교有敎라, 있을 유[有]자, 가르칠 교[敎]자, 유교有敎라 합니다. 유교를 말하면 그땐 다 알아듣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초기에는, 지금도 무식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옛날 더구나 2500년 전에야 거의 다 문맹인데 말입니다. 공空이요 중도中道 그런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낮은 차원에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하는 유교有敎적인 낮은 법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

를 좀 시켜가지고서, 사실 어떤 공부나 참선이나 염불이나 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때는 마치 파도가 잔잔해야 달이 뜨면 훤히 비춰 오듯이 말입니다. 파도가 파동을 치면 그땐 빛이 안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 마음은 지금 파동 치고 있습니다. 욕심의 파동, 미움 파동, 사랑 파동 이렇게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파동을 치고 있는 마음에서는 진리와 빛이 안 옵니다. 제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때는 진리가 쑥 안 들어옵니다. 허나 이제 참선도 해보고 염불도 해보고 하다 보면 그때는 아까 말씀대로 마음도 가라앉으니까 말입니다.

잔잔한 물위에 달이 비추어 오듯이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원래 부처건만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진리가 안 비추어 오다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는 아 그렇구나, 이와 같이 비추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좀 안 다음에는 그때는 부처님께서 공교空敎라 말입니다. 사실은 있다고 한 것이 모두 다 비어 있느니라. 어째서 비어있는가? 부처님 법문은 언제 어디서나 공空, 중도中道, 사제법문四諦法門 그런 법문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만 좀 붙여놓은 것이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苦의 원인 역시 인생의 번뇌인 집集이고 말입니다. 탐·진·치 삼독심과 거기에 따른 행行 이것이 인생고의 원인인 것이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때는 팔정도八正道, 삼학도三學道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는 이상적인 그런 경계는 멸滅하면 영생불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법문은 언제나 사제법문四諦法門의 범주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공空인가 하면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했기 때문에 공空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야심경般若心經』 한편만 잘 해석해버리고 그대로 공부하면 깨닫는 것입니다. 『반야심경』 다 아는 바와 같이 서두에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이라.' 오온이 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오온이 어렵기도 하고 알고 보면 또한 쉬운 법문입니다. 온통 비어있습니다. 조견오온개공이라, 오온이 텅 비어 있음

을 비추어 보아야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라.' 이것은 고액苦厄을 떠난다 말입니다. 오온이 텅 비어있지 않으면 모두 인생 고액을 못 떠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오온五蘊이 비었다 하는 공사상空思想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 때는 인생고人生苦를 여의고 행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단 순간적인 찰라밖에는 못 누리는 것입니다.

내 몸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원소와 잠시간 합해있습니다. 내 마음은 또 무엇인가. 마음도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분별하고 하는 것이 그런 부스러기가 모여서 이 마음이 됐습니다. 비록 내 마음의 본질이 부처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내 몸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내 몸 이것도 각 원소가 합해있습니다. 평생을 죽지 않고 자기 몸을 붙들고서 사랑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죽어버리면 뭣이 남습니까. 화장하면 결국 재 되는 것이고 땅에 묻으면 벌레들이 먹어서 나중에 흙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피는 수분이 되어 땅에 스며들고 마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때는 없습니다. 각 원소가 합해져서 잠시도 그때는 머물지가 않습니다.

순간 찰나도 조금도 그대로 항상 없이 변화가 옵니다. 우리 중생은 그런 변화 과정을 못 봅니다. 현미경으로 본다면 1초 전과 1초 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중생 눈은 흐려서 그 과정을 못 봅니다. 원소가 합해져서 하나의 현상이 됐으면 내 것이다, 딱 이렇게 보고서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몸을 다듬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법문은 그야말로 참다운 과학적입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가 불교말로는 지수화풍 4대인 것이고 지금 현대 술어로는 산소·수소·질소·탄소를 가져다 임의로 각 제반 원소가 되겠지요. 이것이 합해서 잠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내장內臟이나 또는 우리 눈이나 코나 결국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두워서 큰 변화만 봅니다. 10년이나 몇 년이 지나면 그때는 늙고 모두 젊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변화는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변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 중생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면 그때는 나라고 고집은 못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무엇인가. 초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에서 배우고 책을 두고 배우고 박사학위 때 배우고 무척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또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를 다 아는 것입니까? 역시 상대유한적으로 어느 만치 책 몇 권 읽고 학교 어디 만큼 나오고 말입니다. 생각을 얼마나 했고 사색을 얼마나 깊이 했고 그런 것 저런 것 모아서 내 마음이 구성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제 한 논문을 쓴다고 합시다. 논문을 쓴다면 절대절명絶對絶命으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상대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그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몸을 바치고 분신焚身하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마르크스, 레닌 정도의 지식 정도에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가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도 바로 보면 정正 다운 진리는 못 되는 것입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때문에 사회역사의 추진력이 된다는 그런 견해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그 전체가 못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누구 학설이나 범부가 모든 사물의 전부를 못 보고 말입니다. 다 그 상대 유한적인 것이고 나름대로 그것이 어느 부분에 가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못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못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소중한 생명을 불태우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아니요,' '예'를 확실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또는 '예'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수긍하고 나쁜 것은 우리가 부인 해야죠. 그런 도덕적인 문제는 엄격히 우리가 한계를 세운다 하더라도 상대유한적인 데서 이럴까 저럴까 헤매온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섣불리 규정을 세워서 남을 이끌다가는 그때는 큰일입니다. 이것은 소경이 한 소경을 이끌다 같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상대 유한적인 진리 아닌 것은 사경邪徑이지요. 우리 사경에 머물지 않고서 우리가 정도正道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바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최선의 길입니다. 비록 더디다 하더라도 그 길이 제일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시간을 더 오래 끌 수가 없습니다.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선, 딱 그것만 집어서 얘기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바른 정견正見, 바른 견해가 서야 비로소 참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도선外道禪이라. 외도 역시 이런 모양은 똑같습니다만 하나의 공리公利나 명리名利나 무슨 재수를 구합니다. 또한 자기 집안의 어떤 재수를 위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모양만 참선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 집안을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사실은 참다운 참선이 돼야 바른 공덕을 입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바른 참선하면 집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집안은 공덕을 못 구하구나 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참선이 돼야만 자기 생명을 위해서나, 자기 권속을 위해서나, 어느 것을 위해서나 가장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도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효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참다운 효자라고 하듯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그것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나 제일 좋은 길입니다. 바른 견해는 일원적一元的인 사고입니다. 모두 하나로 봅니다. 중생이 천차만별로 본다 하더라도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명색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인데 어떻게 하나인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운문(雲門文偃, 865~949)스님한테 가서 중국 운문스님은 중국달마達磨라 부릅니다. 여하시불如何是佛 잇고! 부처가 무엇인가 물었다 말입니다. 간시궐乾屎橛이라, 똥 마른 막대기라. 그 소중한 부처님, 우리 생명을 바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을 부처가 무엇인지 물으니까 좋은 개념의 답변을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제일 더러운 똥 마른 막대기란 말이냐.... 똥 마른 막대기가 어찌 부처겠습니까?

이것은 어째서 그러한 답변이 나왔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그야말로 법당에나 장엄하게 모셔놓고서, 또는 영원적인 것이고 부처님은 그와 같이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다 써야 된다고 생각되었겠지요. 부처란 그와 같이 특별한 것이고 아주 적은 것은 부처가 아니라는 관념에서 물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총명한 도인이 보니까 이 사람 차별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 차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똥 마른 막대기니라. 똥 마른 막대기가 부처거니, 너는 부처 아닌 것이고 개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똥 마른 막대기같이 제일 더러운 것이 부처거니,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모두 하나인줄 모르는 사람은 어째서 그걸 부처라 했는가, 어째서 부처가 무엇인지 물으니까 부처를 똥 마른 막대기라 했는가! 그와 같이 의심을 죽도록 해도 무방합니다. 하다보면 결국은 하나에다가 마음을 딱 이렇게 모우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인지라 하나로 딱 모아지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맑아 온단 말입니다. 맑아오면 그때는 정말로 똥 마른 막대기도 부처니까 천지가 다 부처구나, 이와 같이 느껴온다 말입니다. 이런데서 화두를 들어서 의심하는 선禪의 근거가 있습니다.

조주(趙州, 778~897)스님한테 가서 '여하시如何是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잇고?' 달마達磨스님께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이니라.'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올 때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골수骨髓를 전부 포교하고 전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달마스님은 부처님의 그야말로 부처님의 정통을 깨치신 분이라 정법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까 결국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특별히 생각한 사람은 역시 그도 억장이 무너지겠지요. 하필이면 이것저것 많은데 어

째서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그랬는가 하고 의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인지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처한테 가까이 갑니다. 마음이 딱 모아지면 우물을 파다 보면 지하수가 나오듯이 마음 이것도 파다 보면 결국 부처한테 접근되어 갑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 그렇구나, 학문을 안 배운다 하더라도 참 정말 이것저것 다 부처겠구나, 그때 느낍니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들은 업장이 가벼운 사람들은 정말로 결국은 참 의심할 필요도 없이 다 부처로구나, 이와 같이 느낀다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는 것인데, 무수한 도인들이 다 증명한 말씀인데, 또는 우리가 현대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소립자 저쪽에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데 말입니다. 순수에너지란 그야말로 참 말할 수 없이 위대한 힘인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 생각할 때도 업장이 가벼운 사람은 정말로 의심할 필요가 따로 없구나,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지 않고서 딱 믿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화두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공부하신 여러 법우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스님들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 내 공부방식은 어떤 것인가. '불식정법不識正法 고행무익苦行無益이라.' 바른 개념이 안 서 있으면 또 고행무익이라. 애쓰고 해도 그때는 별로 이익이 없다 말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제아무리 해도 그때는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참 별것 다합니다. 서로 같이 앉아서 네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해하려고 하는 법도 있고 말입니다. 별것 다 있습니다만 그런 법으로 해서는 우리 마음의 뿌리에 못 갑니다. '잡수행자雜修行者 만불성萬不成이라.' 잡식 이것저것 갖다가 잡탕을 시키면 만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못 간다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 무수생으로 지어 온 업장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성불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저것 넘어다보고 그런 행법行法을 해서는 정말로 참 만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못 갑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우물도 한 우물만 파야 되겠지요. 꼭 골수법문 말입니다. 가장 최상법문을 딱 치켜들면 거기다 우리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거니 부처님을 총대명사로 말할 때는 나무아미타불이고 말입니다. 그 부처님을 자비慈悲로 볼 것 같으면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고, 지혜智慧로 보면 그때는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요 문수보살文殊菩薩이요,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인도하면 그때는 지장보살이고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또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보면 '옴마니반메훔' 입니다. '옴 마니 반메 훔'을 우리 말로 풀이하면 그때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풀이가 많이 있으나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입니다. 영원한 광명이란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심미묘한 진언, 엄밀한 그것은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다종교사회라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지금 천만을 넘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추기경樞機卿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것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못 따라 오고서 서로 옥신각신하면 결국은 또 그것은 월남 재판입니다. 종교전쟁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영국계 웨일스사태 보십시오. 그 같은 기독교이지만 신교新教·구교舊教 대결 보십시오. 또는 중동 보십시오. 이란 보십시오. 5년 이상 동안 싸운다 말입니다. 같은 종족 같은 이슬람 민족인데도 그와 같이 조금의 견해 차이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배워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군전쟁 보십시오. 백년전쟁이란 말입니다. 종교란 것이 각기 신념만 중시하기 때문에 한 번 싸움이 붙으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거의 저쪽이 천만, 우리 불교인들이 거의 천만, 천만 수가 같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뭣 되겠는가, 따라서 바른 견해 바른 정견을 못 가지면 종교란 차라리 없음만 같지 못한 것입니다. 그

러기에 불교도 통불교적으로 말한 것이고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처님을 믿어도 진짜 부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부처님은 무엇인가. 진짜 부처님은 어디 한군데 국한되어 있지 않고서 어느 공간 어디에나 머물러 있지 않고서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밖에 우주에 어디나 다 부처님뿐인 것이고 우주에 조그마한 틈도 없이 다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 있으면 산신山神이요, 물에 있으면 용왕龍王이고 말입니다. 집에 있으면 택신宅神이요, 땅에 있으면 지신地神이고 말입니다. 자비로운 기운 총 대명사는 아까 말씀대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고, 한 번에 말하면 그것은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요,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면에서는 지장보살地藏菩薩 니다.

하나의 원융무애圓融無礙한 부처님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진짜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주의 근본원리, 우주의 근본생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유태민족의 예수님은 더구나 젊을 때고, 유태민족이 그때는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리문제를 따지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상징과 방편을 가지고 말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더 갖다 보태 가지고서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나님은 밖에 내팽개쳐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고 나는 결국 하나님을 상대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러면 절대가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에 있으면 절대가 되겠습니까. 절대가 못 되면 영원적인 것도 못 되지요.

따라서 기독교인도 역시 참다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는데 밖에도 하나님 말입니다. 천지 우주에 하나님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심판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말만 다른 것이지 결국은 하나라 말입니다. 이렇게 믿어

야만 우리 불교인도 불교를 바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도 저렇게 바르게 해석해서 예수님의 본시 뜻을 따르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역시 우리 한국보다는 문화면에서 상당히 앞선 사람들입니다.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서는 참선 그러면 의례상 어느 스님한테 화두 하나 받으면 의심을 자기 평생토록 합니다. 화두를 안 들면 그것은 참선이 아니다, 화두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참선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만 법집法執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와 같이 협소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이나 산을 올라갈 때도 남쪽으로 올라가나 서쪽으로 올라가나 다 올라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쪽에서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허나 지금 대만이나 그런 불교를 보면 참선하는 법도 역시 화두를 받으면 의심하는 그런 법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 본래 부처거니 위대한 도인들이 다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거니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천지 우주가 그대로 다 부처뿐이구나, 이와 같이 확신한 사람들은 그때는 그냥 묵조선默照禪 이라 잠자코 그냥 마음으로 부처님을 비추어 보고 하는 참선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만이나 그런 데는 두 파가 백중세伯仲勢입니다. 두 파가 딱 정립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한국 조계종이나 지금 태고종은 어느 선지식한테 화두를 딱 타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의심해 화두가 타파打破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선禪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다 더 합리적이어서 일본은 세 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화두를 의심하는 그런 참선법이 있고 말입니다. 한 가지는 또 역시 화두를 안 들고서 그냥 부처님을 그대로 온전히 믿어버리고 앉아서 참선하는 법이 있고, 그것이 묵조선默照禪이고, 잠자코 묵[默]자, 비칠 조[照]자, 묵조선입니다. 아까 화두를 드는 것은, 그것은 간화선看話禪이라, 볼 간[看]자, 말씀 화[話]자, 간화선입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서 염불선念佛禪이라, 기왕이면 가만히 있어도 그야말로 우리 중생이 업장이 많거니 마음이 정화가 잘 안 되는 것이니까, 무엇인가 마음의 줏대를 들

어야 쓰겠구나, 이래서 그때는 화두를 염불로 화두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명호를 그때는 화두로 합니다. 의심하는 화두를 부처님 명호로부터 대신한다 말입니다. 가사 아미타불을 든다든가, 관음보살을 든다든가, 그와 같이 일본은 화두를 의심하는 선법, 또는 아무것도 안 들고서 그냥 잠자코 비추어 보는 선법, 또는 화두를 의심하는 어떤 문제를 안 들고서 그냥 부처님의 명호 이름으로서 화두를 삼고서 공부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세 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그럼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도인들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불 화두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무자無字 화두'나 '이 뭣고'나 또는 '뜰 앞의 잣나무'나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똥 마른 막대기'나, 화두 이것은 중국 당나라 때 각 도인道人들이 들던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라서 우리가 좋다, 궂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제가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심리는 지知와 정情과 의意의 3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적知的 요소 또는 감성적인 정적情的 요소 그리고 의지意志적인 그런 의적意的 요소 말입니다. 그와 같이 지知·정情·의意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활동이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들보다 훨씬 깊이 아시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교육도 없이 이와 같이 지정의가 다 조화가 되어야지 시험만 치우치고 또는 예술적인 감성에만 치우치면 그때는 안 됩니다. 마땅히 지성적知性的인 면도 있어야 되고 감성적感性的인 면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意志的인 면도 있어야 되고 말입니다. 체육은 의지意志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음악이나 미술은 감성적인 것을 훈련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양하고 도약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도 좋아지는 것인데 우리의 수행도 그런 범주를 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 감성도 만족하고 말입니다. 지성도 만족하고 또는 애쓰고

밀어붙이는 그런 의지도 만족하고 말입니다. 진리가 다 만족해야만 우리 공부가 빠른 것입니다. 우리 불성 가운데는 우리 부처님 성품, 내 본성이 바로 불성인데 불성 가운데는 지혜나 또는 감성이나 우리 의지나 어떠한 것이나 다 원만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 있어놔서 우리의 목적은 결국 원만히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우리가 계발啓發해야 할 것인데 또는 계발 하려면 계발할 작업 역시 거기에 걸맞은 방법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선 책을 보십시오. 정혜쌍수定慧雙修라, 정定과 혜慧 쌍수雙修라, 정과 혜를 아울러 닦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왜 있는가 하면 따지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고요히 비추는 정定과 같이 어우러져야 만이 우리 심리가 조화가 돼서 우리 불성과 빨리 계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가 좀 혼란스럽우니까 살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비좁고 더운데 제 말씀이 재미도 없고 하지만 참선 하실 때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셔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으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승복을 입고서 승방에 있는 사람은 모르거니와 집안에서 아귀다툼하고 그야말로 참 탐욕이나 가지고서 싸우고 모두 그런 판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과민해져서 그야말로 참 신경쇠약 되고 몸도 상하게 되고 피로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명색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 훈훈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딱 주어야 쓰거든요. 그러나 화두를 참구해서 의심하는 그런 행법行法은 이것도 역시 도인道人이 제시한 훌륭한 효과를 거두지만 이와 같이 불안스러울 때는 그렇지 안 해도 우리 마음이 불안스러운데 말입니다. 그 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애쓰는 그런 행법은 자칫하면 우리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하고 얘기도 해야 하고 또 어디에 가서 대화도 해야 하고 TV도 봐야 하고 그런 가

운데 의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선방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특수한 재질이 있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불안의식 때문에 감당을 못하면 그런 문제는 역시 부처님을 생명으로 구하는, 부처님을 자기 고향같이 마치 님 같이 구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처님의 이름을 화두로 하는 선법이 더 어울립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이 사람 근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공부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했고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거니 부처님을 외우면서 내가 부처님이 되어가는 그런 공부 그런 공부가 염불선念佛禪이기 때문에 안심입명安心立命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또는 하도 바빠서 부처님 외우기도 싫다, 부처님은 내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외우겠는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이와 같이 확신이 잘 안가도 또는 바로 내가 부처님인데 새삼스럽게 부처님 이름을 뭐 하러 욀 것이냐. 이와 같이 자기 성불成佛을 당당하게 내세울 그런 성품의 사람들은 성품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내가 부처거니 가만있으면 본래 부처거니 들어가겠지 하는 묵조선默照禪 형식 말입니다. 그것도 무방합니다. 나까소네 일본 수상같은 이는 묵조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네가 문제를 주면 그것을 쥐고서 열심히 하다 보면 본래 부처인지라 우리가 차근차근 부처가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많이 모아지면 알아집니다. 우리 중생 마음은 산심정심散心靜心이라, 지금 우리 마음은 이와 같이 흐트러져 있어서 산심散心이지만은 우리 본래 마음은 고요한 정심靜心인 것입니다. 헌데 참다운 진리를 아는 것은 고요한 정신이 아니면 잘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해서, 즉 말하자면 응집凝集을 시키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몰랐던 것이 알아진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같은 『반야심경』 한 편도 참선을 한 철 공부할 때와 두 철을 공부한 뒤와는 해석이 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선 방법이 먼저 선행적으로 정견正見, 바른 견해, 나나 너나 천지 우주가 청정 미묘한 모든 공덕을 다 갖춘 부처뿐이구나. 이 말 이것을 우리가 천 번 만 번 되뇌어야 합니다. 되뇌이고서 부처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뭇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선이 됩니다. 부처뿐이구나 그냥 그랬으면 뭐 단순한 하나의 개념적인 이해에 불과하지요.

그것은 참선이라고 못 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나와 네가 더불어서 둘이 없고, 천지 우주가 하나의 청정미묘淸淨微妙한 생명生命 부처뿐이구나, 이 생각을 애쓰고 해야 합니다. 애쓰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도 참선도 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할 때는 아미타불이시여 빨리 와서 구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중생이 모르니까 그것을 붙여놓은 것이지 모두가 다 부처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뿐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도 역시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음보살을 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 생각을 순간 찰나도 놓치지 않고서 즉 불교 말로 하면 염념상속念念相續이라.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우리 중생의 그 섣부른 상대유한적인 생각이 못 끼도록 항시 이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염불도 하고 또는 주문도 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되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이름도 외우기 싫고 묵조默照도 하기 싫은 이런 사람들은 '옴 마니 반메 훔'이란 말입니다. 옴 마니 반메 훔 하고 있으면 그것이 벌써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심심미묘한 믿음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 버립니다.

원래 부처님의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기운에서 그대로 따온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 가면 머리가 맑아오고 생리가 맑아온단 말입니다. 참선 방법은 이상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화두를 의심해

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두를 어느 큰스님한테 받아 가지고서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란 것이 나가다 보면 그때는 하나가 딱 되어 버립니다. 지금 들어갈 때뿐인 것이지 올라가면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그때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가다가 자기 마음이 시원하고 눈이 시원하고 그야말로 참 딱 한 뭉치로 해서 화두 타파打破라,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바꾸려야 바꿔지지도 않는 것이고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출발 과정에서 이럴까 저럴까 헤매는 분들은 염불선이나, 염불선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제일 많이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옴 마니 반메 훔' 이나 그렇게 하십시오. 하기가 쉽고 어느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옴 마니 반메 훔'도 우리 호흡과 꼭 들어맞아서 굉장히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만 제가 선행적으로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만 꼭 천지 우주 하나의 부처님 말입니다. 청정미묘淸淨微妙한 조금도 차이가 없이 지금 이 스님과 저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요, 공간이 있으나 현미경으로 보면 그때는 공간이 없습니다. 산소나 수소나 그것이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공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만 중생이 우리 인간의 흐린 눈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못 봅니다. 못 보니까 인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체生命體 뿐입니다. 그렇게 딱 느끼고서 화두 공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내가 부처거니, 나까소네 수상처럼 그와 같이 묵조선默照禪도 무방하고 또는 그것도 무미하고 생리나 심리를 그대로 정화 시켜야겠다고 하시면 '옴 마니 반메 훔' 하시고 말입니다. 또는 동시에 이것저것 다 한번에 해도 무방합니다. 한번에 해도 무방한데 다만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끄트머리가 근본이 하나인 줄 알고 해야 합니다.

관음보살 따로 있고 아미타불 따로 있고 '옴 마니 반메훔' 따로 있고 그러면 그때는 공부가 잡탕이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인 그것을 딱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낀 다음에는 관음보살을 부르다가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옴 마니 반메 훔'을 부르다가 그것은 무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불안스러울 때는 그때는 관음보살을 주로 부르고, 덜 불안스러우면 '이 뭣고'로 부처가 무엇인가 의심도 해보았다가 말입니다,

들뜨면 가만있어 보고, 마음이 너무 들뜨면 그때는 맘 편히 다 집어던지고서 가만히 있어 보고 말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는 맹렬히 '옴 마니 반메 훔' 해보고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요령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혜쌍수定慧雙修라, 지혜와 감성과 의지와 조화가 됩니다. 지금 분들은 그냥 고도한 법문만 다 들어 보려고 하지 부처님의 기본 법문을 보통 무시합니다. 사실은 사제법문四諦法門, 팔정도八正道,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 또 칠각지七覺支 그런 법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법문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5. 대수행인大修行人

* 1986년 12월 2일 태안사 정기법회 법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이 한번 발달된 뒤에는 인간은 언제나 불만을 면치 못합니다. 따라서 지난 과거는 항상 좋고, 지나간 일은 추억의 대상이 되어서 ..... <녹음불량> 그러나 지나간 과거도 역시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불만이 많았던 것이고 미래 역시 인간의 번뇌가 사라지기 전에는 기대하던 미래도 똑같이 현재와 같이 불만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충만해 있습니다.

더러는 과거 원시 공산체共産體 그런 때는 인간이 아주 행복스러웠을 것이다 인간 사회는 별로 모순이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워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적 위기, 인간사人間史의 위기라 하는 것은 언제나 면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특히 현대같이 위험하고 술렁거리고 가치문제가 혼란스러운 때는 과거에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 분은 다 압니다마는 중국의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時代, 춘추전국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쯤 전입니다. 즉 중국의 주周나라가 세력이 쇠미衰微해서 각 지방마다 군웅들이 할거해서 싸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즉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고 또 인민의 고통도 도탄에 빠진 것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가 춘추전국 시대인데 이런 때는 선악善惡의 기준, 정사正邪의 기준을 세우기가 곤란했습니다.

제자백가諸子百家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善이다, 어떤 사람들은 악惡이다, 어떤 사람들은 중도다. 이와 같이 가지각색의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바른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세운 분이 없으면

참 곤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럴 때 공자가 『춘추春秋』라, 이것은 오경五經의 책 이름입니다.

『춘추』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가 하면 이러한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스런 가치관, 혼란스런 사회상, 이런 사회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가 인간의 행복에 알맞은 것인가, 이런 정사正邪를 분명히 가려서 비판한 책이 춘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추필법春秋筆法하면, 조금도 가차없이 그 시대를 비판해서 옳은 정론正論을 전개한 이론을 가리켜서 춘추필법春秋筆法 그럽니다.

그런 사학史學을 가리켜 춘추필법 그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서로 만나면 여당 야당 서로 욕하고 헐뜯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학생들은 학생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각기 옳다고 자기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때는 역시 공자가 말한 대로 춘추필법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인간의 가장 공변적共變的인 도덕관에 입각한 가치판단을 해가지고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소위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이나 이론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춘추필법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96종 외도外道, 부처님 정법 외에도 복잡한 외도, 부처님 가르침 아닌 가르침이 96종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허나 현대는 그보다도 훨씬 혼란합니다. 같은 종교도 역시 신구의 대립 때문에 서로 전쟁도 하고 불교와 같이 평화스러운 것을 위주로 하는 최상의 진리도 역시 각 종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따라서 부처님 당시 96종의 외도 이상으로 지금은 보다 더 갈래가 많은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옳게 믿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대강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이 가장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자가 비판한 바 그런 엄정한 비판, 어떻게 비판을 내려야 만이 현 사회에 대한 옳은 비판이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혼란한 가운데 자기 자신도 안심입명安心立命 할 수 있고, 자기 자녀, 아끼는 사람들을 바른길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른 견해로 공부하는 분을 가리켜서 대수행인大修行人이라, 대수행인大修行人 이것은 바른 견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수행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승·소승을 가릴 때 소승小乘은 자기 혼자만 닦고 대승大乘은 남과 더불어 한다. 이와 같이 간단히 구분을 합니다만 원래 대승은 소승, 그보다도 더 심심미묘합니다. 대승은 법法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어느 법 진리를 탐구할 때 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금도 남김이 없는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무결한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대승이고 미처 거기까지 못 가서 어느 중간쯤 되는 그런 좁은 가르침이 소승입니다. 다시 법리론法理論으로 말하면 대승 이것은 중도실상中道實相입니다.

중도中道의 그런 정도正道를 말하는 것이 대승이고, 소승은 그냥 모든 법이 우리가 보는 것은 허망하다, 무상無常하다, 이와 같이 제법공諸法空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허망무상虛妄無常 하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모두를 다 부정해버리는 정도 이런 정도는 아직은 소승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법으로 해서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대수행인大修行人이 대승적으로 법의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것이 대수행인인가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우선 네 가지로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만법萬法이 자심自心의 소행所行임을 관찰한다. 불교에서 만법萬法하면 일체一切의 만유萬有를 말합니다. 법적인 좁은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一切衆生 일체만물一切萬物 모두를 가리켜서 만법 그럽니다. 우리가 만법을 본다 할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자심自心의 소행이라,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보통 주체主體와 객체客體를 따로 봅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우리 대상은 저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과 자기 주관을 나누어보는 것이 소승입니다. 대승은 대상과 자기 주관을 나누어보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로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관主觀과 객관客觀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불법의 요체를 아는가 모르는가, 대승인가 소승인가 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교를 좀 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있고 대상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나'라는 존재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즉 주관과 객관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승적으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만법이 유정有情·무정無情·유상有相·무상無相 일체 존재가 다 자심소행이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아닙니까. 내 마음이 별것도 아닌데 남도 미워하고 사랑하고 옹졸하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만물萬物을 만들었는가 하는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시비하는 마음은 겉에 뜬 부동된 망령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참 마음은 어느 누구 마음이나 우주의 마음입니다. 갑의 마음이나 박가의 마음이나 모두 다 마음 저변에는 천지 우주를 감싸 있습니다. 천지 우주와 더불어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자심自心은 지금 내가 쓰는 이 마음도 포함해서 내 마음의 본질을 다 통 털어서 말한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각기 겉에 뜬 마음은 다 다릅니다. 김 아무개 박 아무개 다 달라도 본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천지 우주 모든 존재가 근본 마음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자심自心 이것은 내가 쓰는 옹졸한 좁은 마음이 아니라 천지 우주를 창조도 하고 모든 존재를 일으키는 근본 제일원인第一原因, 근본 순수한 생명체 이것을 말합니다. 만법 이것은 내 마음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를 구성한 순수한 생명체가 나타난 것이 만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주를 구성한 순수한 생명체 내 마음의 본질인 동시에 순수한 생명체로부터 나타난 것 이것이 만법이라고 생각해야만 비로소 대수행인 또는 대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승은 중간쯤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대승은 역시의 근본 뿌리인 진리를 들어서 일체 만유를 근본 뿌리에서 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하나를 실상에서 봅니다. 하나하나를 도道에서 봅니다. 하나하나를 부처에서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대수행인입니다.

둘째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견해見解를 멀리 여읩니다. 우리 중생은 뿌리를 못 봅니다. 참다운 실제를 못 봅니다. 따라서 겉만 보기 때문에 일체 존재는 존재가 일으키는 이런 생生이 있고 또는 존재가 우선 머무르는 주住가 있고 변천하는 이異가 있고, 또는 없어져 버리는 멸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은 실상을 못 보기 때문에 겉만 보기 때문에 생겨나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바닥을 못 보니까 겉만 보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허나 대승인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대승인들은 바닥을 보기 때문에 겉에는 천번 만번 변화가 있더라도 근본 본체 바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행인들은 대승인지라 생生하고 머물고[住], 변화되고[異], 없어지고[滅] 하는 견해를 없애 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대승입

니다. 죽었다 살았다 생물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것에 집착할 때는 아직 대 수행인 대승은 못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삼三에 만법무생萬法無生을 안다는 말입니다. 만법萬法은 일체 존재가 만법입니다. 만법이 일체 존재가 무생無生을 본래 낳지 않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낳고 풀도 생기고 나무도 싹이 터서 나무가 되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겉은 그러하나 나무 존재의 본질本質 내 생명의 본질 이러한 것은 원래 낳음이 없습니다, 원래 생生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生을 보고 또는 사死를 보는 인간들로서는 납득이 곤란합니다. 제가 굳이 납득이 곤란한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춘추필법春秋筆法 입니다.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을 세우려면 조금 어렵더라도 모든 만법을 포함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소승같이 법이 좁으면 만법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르크스주의나 기독교나 모든 것을 포함하려면 대승 같은 광대무변한 외연적인 범위가 되어야 포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중생 견해로 해서는 분명히 낳음이 있고 변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본체 바닥에서 보는 본질 그것을 딱 파악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믿어라, 물론 믿으면 믿은 것만큼, 어떻게 믿으나 본질을 아나 모르나 간에 관음보살을 외우고 아미타불을 많이 외우면 공덕을 받습니다. 허나 이렇게만 믿는 것은 아직은 대승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중생이 안목이 짧아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나 그 후 도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체體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만 바른 인생관人生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안 보이고 납득이 곤란하지만 대승들이 하는 법을 우리 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인생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분명히 인간은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고 일체 만물은 생주이멸生住異滅 이라 낳고 변하고 멸함이 있다 하더라도, 본바탕은 낳음이 없습니다. 본바탕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상주常住합니다. 낳음이 없거니 죽음이 없습니다. 한번 생겨나야 죽음이 있는 것이지 다시 생겨나지 않는 것이 무슨 죽음이 있겠습니까? 즉 불생불멸不生不滅이란 말입니다. 불생불멸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허두에 말한 대 수행인 입니다.

지금 안 보이고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역시 꼭 우리는 대 수행인 대승법을 머리에 두어야 우리 고난도 우리 가정적인 불평도 사회갈등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모순뿐이라서 서로 상충이 되고 반복되고 인간사회의 모든 위기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四에 오로지 자증自證의 성지聖智를 구한다 말입니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원래 생生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서 나왔다. 또는 우리가 바로 본다 할 때에는 본체本體에서 본다 할 때는 생生하고 멸滅하고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생사生死를 면치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 합니다. 우선 이치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치로 안 다음에는 이치의 참다운 생명을 구합니다. 그럴 때는 자증自證 스스로 증명합니다.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해서 증명합니다.

참선・염불・주문은 둘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목합니다. 내 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 하지만 본체本體 근본을 전부 파악한 뒤에는 주문을 외우나, 염불을 하나, 화두를 드나 똑같은 것입니다. 본체를 파악하지 못할 때는 주문・염불・참선이 바른 대승공부가 아닙니다. 대수행인大修行人의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모두가 선禪이고 모두가 염불이고 모두가 다 바른 공부입니다. 문제는 본체 근본을 딱 들어서 근본에다 우리의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한 번 심으면 그때는 '옴 마니 반메 훔'이나 '아미타불'이나 '무無'자 화두를 하나 다 그것이 모두가 선이고 모두 참다운 일승적 대승大乘 공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성지聖智, 성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타自他가 없다, 주객主客이 없다, 이와 같이 아는 정도 이것만 가지고는 성지가 못 됩니다. 성자의 지혜라는 것은 이론과 더불어 본 체성體性 본 근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영원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영원의 생명은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실감을 못 합니다. 참다운 힘이 못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떠나서 시공時空을 떠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불성佛性을 파악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증명해서 참선・염불・주문・기도를 공부해서 증명하고 그러한 생명을 체험해서 자기 생명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성지聖智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대수행인 대승의 공부 방법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대수행인이 되어야 만이 현대인의 갈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간혜乾慧입니다. 간혜하고 성지聖智는 서로 대척적對蹠的인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성지聖智는 영원적인, 생生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불생불멸不生不滅하고 불구부정不垢不淨한 더럽혀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니 정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더러워져야 맑히고 할 것인데 더러워지지 않은 것은 맑힐 필요가 없으니 불구부정입니다. 이러한 영생永生의 존재存在, 영생永生의 생명生命, 불성佛性자리, 이런 것을 증명할 때는 성지聖智인 것이고 증명을 미처 못 하나 이론적으로는 아는 지혜는 간혜乾慧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약적으로 성지聖智는 될 수 없습니다.

성지는 오랫동안 닦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간혜만은 신심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비약적으로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간혜乾慧만은 파악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 가장 근원적인 실상 지혜, 중도 지혜 이것만은 꼭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문도 참다운 주문이고 염불도 참다운 염불이고 참선도 참다운 참선입니다.

간혜乾慧로 해서 중도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면 선도 참다운 선이 못 되고 염불도 참다운 염불이 못 되고 주문도 참다운 주문이 못 됩니다. 그럴 때는 방편공부입니다. 수유지혜雖有智慧라, 비록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미득정수未得定水 아직 선정의 물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참선이 선정인데 염불로 하나 주문으로 하나 화두로 하나 똑 같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혼침과 분별시비를 떠나서 성성적적惺惺寂寂해서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려는 그 마음 한 마음도 역시 나쁜데 얽매이는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 불성만 지향해서 바른 마음이 혼침하지 않고 또는 분별시비 않고 오로지 그 마음이 바로 선정입니다.

그런데 간혜乾慧 이것은 아직 그와 같은 그 마음이 못 됩니다. 한 마음이 못 되어서 분별시비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혜乾慧인데 비록 천지 우주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아직 선정의 물을 맛보지 못 합니다.

선정禪定이 오랫동안 삼매에 잠겨서 우리 번뇌가 녹고 생리가 정화되고 우리 심신心身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서 그런 심신 정화의 물로 닦아내야만 비로소 간혜가 참다운 성지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간혜만을 확립시켜 놓아야 합니다. 간혜가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참선·염불·기도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확 트입니다. 확 트여서 구경지究竟地 가장 끝까지 올라가서 조금도 번뇌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허나 우리 중생은 그런 성지聖智는 커녕 아직 간혜도 못 가니까 분별시비하고 고통이 많습니다. 간혜만 되어도 별로 고통이 없습니다. 경계에 부딪히면 진심瞋心도 내고 탐심貪心도 낼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간혜 마저 없다면 거기에 휘말려 환경이나 경계에 부딪혀서 삿된 일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범합니다마는 비록 성지까지는 미처 못 간다 하

더라도 간혜로 해서 이치를 바로 알면 나쁜 일을 오래할 수 없습니다. 업장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릇된 일을 하더라도 그냥 다시 바른 길로 회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가치관이 혼란 전도되어 선善인지 악惡인지 모를 때에는 꼭 무엇보다도 간혜지乾慧智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간혜를 구해야 만이 바른 정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간혜지라도 얻어서 믿는 신앙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따라서 간혜지가 못 되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참다운 믿음이 못 됩니다. 가령 옴 마니 반메 훔을 일심一心으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공덕이 큽니다. 안 쉬고 한다고 하면 선근에 따라 성불成佛을 할 수 있겠지요. 허나 그것은 더딥니다. 따라서 마땅히 간혜지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염불도 역시 염불만 애쓰고 하면 성불成佛이 됩니다. 허나 간혜지를 얻지 못해가지고 법의 실상實相을 모르면 그것 역시 더딥니다. 참선도 역시 화두를 들어서 애쓰면 애쓴 만큼 공부가 됩니다마는, 간혜지가 미처 확립이 못되어 있으면 공부가 더딥니다. 그러면 간혜지란 무엇인가. 법法이 원래 둘이 아닙니다. 천지天地 우주宇宙를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하나의 동일률同一律 이라, 천지天地 우주宇宙를 오직 자기와 동일同一한 하나로 봅니다. 다만, 체용성상體用性相이라. 체와 용이 있고, 성과 상이 있습니다.

본체에 갖추어 있는 공덕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연緣 따라 용用으로 활용합니다. 현상과 실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체體와 용用 성품性品과 상相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둘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듯이 이와 같이 간혜라는 것은 본체本體를 보는 것이고 동시에 본체本體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하나로 본다는 말입니다.

범부어신인중凡夫於信因中이라, 범부凡夫하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범부입니다. 범부凡夫는 성자聖者와 대립적으로 쓰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증

명한 사람을 성자聖者,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범부凡夫입니다. 범부凡夫가 신인信因 즉, 먼저 믿음을 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과불공덕契果佛功德이라, 과불 이것은 부처님의 지위를 성취한 원만 성취한 것이 과불果佛 입니다.

바로 본다고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그런 차원의 부처가 아니라 닦고 닦아서 애를 써서 정말로 성불成佛해서 일체공덕一切功德을 불교佛教말로 삼명육통을 다 갖추고 하는 일체공덕을 갖춘 부처, 그런 부처가 과불果佛입니다. 그런 일체공덕을 갖춘 부처하고 우리가 딱 맞아서 계합됩니다. 부처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갖는가 하면, 그냥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은 저만치 극락세계에 계신다. 이와 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위대한 도인들이 성불成佛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지天地 우주宇宙를 둘로 안보고 모든 공덕을 갖춘 부처자리, 일체 공덕과 일체 지혜를 갖춘 그 자리, 그 자리하고 조금도 내가 다름이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는 보통 신앙은 참다운 바른 정신正信이 못 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백 퍼센트 다 믿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즉 자기 밖의 도를 구하고 자기 마음 밖의 부처를 구하고 이런 것은 정신正信이 못 됩니다. 천지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서, 모두를 자기 마음의 표현으로 보는 신앙, 또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삼세제불이 갖는 무량한 공덕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도 역시 어려운 일에 처하면 마음이 비굴해지고 비하되어서 자기를 과소평가 합니다. 허나 그렇게 하면 그때는 정신正信이 못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생명이 당장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 한테는 석가모니와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는 무량 공덕이 있다고 확

실히 믿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죽고, 생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 그것은 나한테 무량공덕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못났다, 내가 많이 닦아서 올라가야 한다, 나는 업장이 많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참다운 신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회할 때는 업장 많은 것도 참회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신앙, 근본 적인 우리 마음의 줏대만은 부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바른 정신正信이 못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정신이라, 바른 신앙을 이루는 것입니다. 차의식此意識, 이러한 뜻을 안다면 불자굴不自屈 불자고不自高라, 스스로 비굴하지 않고 스스로 높다고 아만심我慢心을 안 부립니다. 우리 중생은 조금 곤란한 경우에 처하면 그냥 비굴卑屈해서 자기 비하卑下하고 비관悲觀을 합니다. 조금 잘 되면 우쭐해서 자기 아만심我慢心을 냅니다. 이런 것은 역시 나한테 있는 참다운 진리를 참다운 불성을 몰라서 그럽니다. 바른 정신이 학립되면 비굴도 않고 교만도 못 냅니다.

왜 못 내냐 하면 천지 우주가 나와 더불어 다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예수, 공자가 나와 똑같습니다. 본바탕은 똑같습니다 다만 현상적인 차이만 약간 있을 뿐입니다. 닦으면 내가 석가가 되고 예수가 됩니다. 나한테 내 실력의 개발 여하에 따라 다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못난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사람도 역시 닦으면 나 이상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아만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정신正信에 있어서는 교만심도 못 내고 비관이나 비굴도 못 내는 것입니다.

즉 차의식此意識, 이러한 부처님의 성공덕聖功德을 믿는다 할 때에는 불자굴不自屈 자기 스스로 비굴 하려야 할 필요도 없고 불자고不自高라 스스로 고만高滿해서 교만심을 못 냅니다. 바른 신앙을 못 한 사람들이 자칫하면 교만심을 내고 비굴합니다. 생명이란 원래 죽지 않는 것이고 모양만 바꾸는 것이지 죽음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별 두려움이 없습니

다.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눈물을 흘릴망정 별로 큰 슬픔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동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바탕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연하게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범부가 믿음을 가질 때는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무량 공덕에 딱 들어맞아서 분호불수分毫不殊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히 신앙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나, 부처님 법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하나 새롭게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아시는 정도의 것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추고 있으나 번뇌복고煩惱覆故라 번뇌에 가려있기 때문에 불능득견不能得見이라 능히 얻어 알지를 못합니다. 여래상주如來常住라 부처님께서는 항시 머물러 계시면서 무유변역無有變易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체 중생한테 불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 익히 들어서 모르는 불교인은 없을 겁니다. 허나 여래상주如來常住라, 부처님께서는 항시 머물러 계시고 바꾸어짐이 없다 이것은 믿기가 어렵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바꾸어짐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시 계십니다. 다만 중생이 어두워서 미처 못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기에 나 같은 몸뚱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 현대물리학에서는 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일체 물질이 각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사 하나의 산소를 볼 때 양자 중성자를 중심으로 8개의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핵과 그 주변에 도는 전자의 거리가 비율로 하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도 훨씬 멀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과의 사이는 얼마나 텅 비어있습니까? 헌데 일체 만물을 구성하는 각 원소・원자・립자를

구성하는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보다도 더 멀다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대부분 공간뿐입니다. 그러한 공간뿐인 것이 모여서 한 세포가 되고 우리 몸이나 일체 만유가 구성되었습니다. 저 뿌리에서 보면 사실 대부분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그런 걸 잘못 보니까 인간 정도 밖에는 안 보이니까 이런 몸이 있다. 희다, 검다, 예쁘다, 밉다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와 같이 비어있는 존재가 모여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양자는 무엇인가? 전자는 무엇인가? 이것도 에너지의 운동에 불과 한 것입니다. 이런 생명도 오래 못 갑니다. 단 몇 초에 불과합니다. 전자는 전자 그대로 항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몇 초만 지나면 변화 됩니다. 이와 같이 전변무상轉變無常한 것들이 모여서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물질이 된 것인데 우리 중생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다만 겉으로 된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있다 합니다.

현대물리학적인 지혜는 부처님의 예지叡智와 거의 들어맞습니다. 다만 그들의 척도가 짧아서 아직은 부처님의 지혜에 못 미칠 뿐이지 거의 들어맞습니다. 제법諸法이 공空이라,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공空을 현대물리학은 거의 증명했습니다.

『금강경金剛經』이나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볼 때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 오온이 다 비어있다. 오온五蘊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다 비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참 알기가 곤란합니다.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에서는 어렴풋이나마 짐작도 하고 증명도 하려고합니다. 2,500년 전 옛날에 부처님 또는 도인들께서는 이러한 것을 증명을 다하고 실상을 바로 본 것입니다.

천지天地 우주宇宙가 바로 보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습니

다.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집착이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있고 네가 이대로 있고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고 그것밖에 못 보면 집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금도 좋고, 은도 좋고, 좋은 것을 보면 집착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집착을 털려면 무상의 길 허망의 길을 알아야만 집착을 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無常하지 않고 무상을 경과해서 다 그와 같이 원자도 비어있고, 다 비어있다는 사실은 내 몸도 비어있고 우주가 텅텅 비어있는 것인데 바로 보면 그림자 같은 모양이 여기저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천지 우주는 다 비어만 있을 것인가? 비어있는 그 내용 다만 비어있지 않은 참다운 생명 이것이 불성佛性입니다.

물질은 없지만 천지 우주가 모두 마음뿐이지마는 천지우주가 생명뿐이지마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하면 알아듣기 곤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물질뿐인데,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왜 모두가 마음뿐이라고 하는가? 도인이 보면 마음뿐인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생명의 운동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헌데 비어있지 않은 참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불성佛性이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여래如來이고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여래상주如來常住라, 부처님은 항시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물질은 텅텅 비어있지마는 참다운 생명, 비어있지 않은 영원적인 생명은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가령 천지 우주가 파괴가 되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 허물어지고 텅텅 빈다 하더라도 참다운 생명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무유변역無有變易이라, 변화하고 바꾸어짐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여기까지 가서 여래상주如來常住라, 영원적인 생명의 존재 이것이 머물러 있는 이 자리를 보고 증명할 때가 바로 성지聖智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내가 공부가 되었구나! 몸은 몇 천 번 바뀌어 진다 하더라도,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不生不滅입니다. 그러기에 멸본무멸滅本無滅이라, 멸한다 할지라도 멸하지 않습니

다. 모양만 멸합니다.

따라서 하심下心할 때도 역시 중생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아만심我慢心 있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굽신굽신하고 겸허하면 누구나 좋아합니다만,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사람 사는 세상은 순탄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되어서 참 고통이 많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겸허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릴 것인데 만나면 서로 욕하고 헐뜯고 책임전가를 시키니 문제가 풀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심下心하려면 역시 법法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법의 본질을 모르면 하심下心도 잘못합니다. '법계진시비로불法界盡是毘盧佛이라' 법계란 천지 우주를 통틀어 말합니다. 즉 우주 만유가 바로 법계입니다. 법계나 만법萬法이나 거의 같은 뜻입니다. 법계 모두가 바로 비로불이라 비로불이라는 것은 대일여래大日如來 즉 법신불을 가리켜서 말입니다. 모양 나온 화신불化身佛이 아니라, 모양의 본질 되는 본래 부처님, 우리말로 풀이하면 대일여래 또는 법신 부처님 이것이 비로자나불입니다.

금강산에도 비로봉이 있는데 제일봉을 가리켜 비로봉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하여튼 모든 법法의 시초 법신 부처님 이것이 비로불입니다. 법계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수도誰道, 누가 말했던가? 현우귀여천賢愚貴與賤이라, 누가 현명하고 어리석고 귀하고 천하다고 말했든가? 이 글귀처럼 사실 바로 본다하면 다 법신 부처님이고 비로자나 부처님 아닌 것이 없는데 누가 구태여 잘 몰라서 귀하다, 천하다, 현명하다 말했든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법계法界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나가 현명하고 어리석고 귀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도다.

'애경노유개유불愛敬老幼皆有佛이라'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똑같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애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고 잘나고, 못나고, 이와 같이 귀천貴賤과 현우賢愚를 가리

면 사람을 차별대우하기가 쉽습니다. 허나 사실은 겉의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마땅히 본질을 볼 때는 똑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하고 어리석고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엄식적광전恒常嚴式寂光殿이라' 항상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장엄해서 참다운 부처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하심下心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겸허하니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 행동도 참다운 겸허한 마음을 못 냅니다. 억지로 내면 위선이 되어서 도리어 거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간혜지乾慧智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해서 부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본래적인 당위적 부처님이지만 공부를 차근차근 해 가야만 부처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불교적 술어로 해서 해행위解行位라 즉, 풀이하고 해석하고 행동한다 말입니다. 해행위를 거쳐서 참답게 법을 증명합니다. 아직은 증명을 못해서 성지聖智가 못 나올 때가 해행위입니다.

해행위解行位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순복분順福分이라, 미처 복이 부족하면 공부할 때 막힘이 많습니다. 공부하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남들의 방해가 있기도 하고 이와 같이 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장애가 많습니다. 허나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가 많은 사람도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보시도 하고 공덕도 베풀고 할 때는 자기도 모른 가운데 복이 많아집니다. 공부하려는데 방해가 많다 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다 하는 분들은 유감스럽지마는 역시 복이 좀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는 지혜 닦아 가지고 깨달으면 되지 복이 무슨 필요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는 복이 적은지 많은지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 많은 분들은 순탄하게 갑니다. 따라서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을 짓는 것은 보시도 필요하지만 계행戒行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오계五戒, 십선十善이라, 살생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삿된 음란한 짓 말고, 거짓말 욕설 또는 이간하는 말 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계행 지키는 것이 복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남한테 보시하고 계행 지키고 하는 것이 순복분順福分이란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순해탈분順解脫分이라, 해탈을 구합니다. 해탈은 곧 성불이 아니겠습니까. 해탈을 구한다 하더라도 구하는 정도가 미온적일 때는 우리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강할 때는 행동으로 옮아갑니다. 행동으로 옮아갈 때, 그때가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 꼭 내가 성불해야 되겠구나! 신명을 다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심을 낼 때가 순결택분順決擇分입니다. 우리 재가불자님들은 보통은 순해탈분에 머물러 버립니다.

즉 산현散賢이라, 아직은 성지의 경지에 못가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꼭 내가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먹고 가행정진으로 수행할 때가 순결택분順決擇分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결단간택決斷揀擇이라, 결단심決斷心을 내어 기어코 해야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소위 사가행四加行이라, 결재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보통 순결택분順決擇分에 해당합니다. 재가불자님들은 보통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순해탈분에 머무르고 말아 유감스럽지만, 그때그때 기회를 봐서 순결택분까지 가서 사가행四加行을 해가지고 성불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순서인 것이고 그분의 서원과 열의가 강하면 비약적으로 순복분에서 훌쩍 넘어서 순해탈분 넘어서, 견성오도 하는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돈오頓悟 아닙니까마는 그러나 일반적인 순서에서는 신심을 내고 복을 짓는 계행 지키고 보시도 해서 더욱 우리 마

음을 가다듬고 공부하면서 나중에 익어지면 꼭 내가 성불을 해야겠구나하고 결단적인 간택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갑니다마는 가행전의 자량資糧이라, 생활할 때 준비되는 물자가 자량입니다.

결단간택決斷揀擇이라, 꼭 공부해야지 성불해야지 하는 마음을 낸다고 해도 바른 준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먼 길을 갈 때에 충분한 노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듯이 성불을 목표로 해도 성불을 할 만큼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란 계체청정戒體淸淨・실상묘혜實相妙慧・참회멸죄懺悔滅罪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만 자량이 있어야 만이 비로소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자꾸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재차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체청정戒體淸淨이라, 성불하려 애를 써도 계행戒行이 청정하지 못하면 성불成佛을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뛰어넘어 부처님 지위에 갔다 할지라도 역시 그러한 것은 아직 자기 관념뿐이지 실지로 자기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처님 불성 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행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못하는가 하면, 계행이 바르지 못하면 삼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삼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산란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다 씻어내는 것인데 계행이 바르지 못하면 일념이 되지 못 합니다.

살생을 많이 하고 남하고 욕하고 싸우고 삿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계행이 발라서 살생, 욕, 음란도 않고 거짓말도 않고 술도 안 먹고, 그런 성성적적惺惺寂寂한 마음, 계행 지키는 마음이 앞서야만 오로지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삼매의 정수正受, 선정의 물, 삼매나 선정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하나의 경계, 정신正信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숭이같이 굉장히 경망하여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바

람 앞에 있는 하나의 털끝같이 바람이 안 분다 하더라도 털은 흔들리는데, 바람이 불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중생심은 그와 똑같이 산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조금도 동요 안 할 때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정지가 되어야 하는데 정지가 되려면 먼저 계체가 청정이라, 계행이 맑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몸에는 조금도 더러움이 없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간혜지乾慧智, 이론적,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계체가 청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혜지는 되어야 하지마는 정작 내가 성불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결단을 내린 다음에는 철저한 계행이 앞서야만 삼매에 듭니다. 이와 같이 계체가 청정하고 또는 실상묘혜實相妙慧라, 중도실상의 지혜를 해득해야 합니다. 간혜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실상의 지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리 실제로 보인다 해도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실 때는 꿈이나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나'다, 이것도 실제가 아닙니다. 나나 너나 우리가 보는 선善이나 악惡은 실제가 아닙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불교를 정신正信으로 입문 할 때는 마땅히 먼저 허망무상虛妄無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학식 어떠한 지혜 모두가 다 참다운 중도의 실상지혜가 아니면 그것은 다 허망한 망상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실상인가? 천지天地 우주宇宙가 둘이 아닙니다. 오직 우주가 하나의 생명生命, 하나의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즉 '나'란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를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지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우주대의宇宙大義 부처님뿐 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한다 해도 이 생각을 굳게 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실상지혜實相智慧가 나옵니다.

주객主客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주객主客을 초월한 하나의 진리뿐입니다. 이러한 중도실상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제법공諸法空인 허망 무상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의 영원한 여래상주如來常住라, 영원히 머무르는 부처님 생명 이런 것을 딱 파악하는 것이 실상묘혜實相妙慧입니다. 실상묘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만 참다운 공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正信입니다.

실상묘혜 중도실상의 영원히 멸滅치 않는 참다운 지혜,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이데올로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적인 모두 부처라는 하나의 사상思想, 이것이 실상묘혜입니다. 실상묘혜는 간혜지로서 먼저 얻어야 합니다.

다음은 참회멸죄懺悔滅罪라, 비록 하나의 진리고 본래로 봐서는 다 부처이고 하지만, 우리 현상계로 한번 나온 뒤에는 상대 유한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번뇌를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다 너다 사랑스럽다, 예쁘다 밉다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딱 절어있습니다.

비록 이런 실상묘혜를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분별 시비하는 그런 생각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멸하지 않습니다. 역시 미운사람 보면 미워지고 좋은 사람 보면 좋아지고 이런 것이 다 죄란 말입니다. 나라고 구분하고 너라고 구분하고 죄라 구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참회한단 말입니다. 누가 누굴 욕을 했다 미워했다 내가 훔쳤다 이것도 역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있고 남이 있으니까 훔치기도 하고 미워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고 남이 없다 하면 미워할리도 만무하고 사랑할리도 만무합니다.

따라서 그런 허물이 근본 되는 '나'라 하는 그 괴물 말입니다. '나'라는 요물 그걸 없애버리면 실상지혜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부처뿐인데 내가 괜히 '나'라고 했구나! 자기라고 망념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참회입니다. 이와 같이 참회를 해야만 비로소 상대 유한에서 빚어지는 죄를 없앱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성불하기 위해

서 하는 마음의 충족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우리 불자의 재산인 것입니다. 계행청정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실상묘혜도 우리 자산, 참회해서 둘로 구분 않는 것, 남과 나를 구분해서 차별대우하는 것, 이런 것을 참회하는 것, 이것도 역시 참다운 자산資産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도를 밝힐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계행을 지켜야 합니다. 계戒란 위없는 진리에 나아가는 근본이라 말입니다. 계율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선정禪定이 나오고 또는 선정으로 해서 참다운 지혜가 발發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삼매가 없이 깨달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다리 없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하나 염불을 하나 화두를 하나 뭘 하던 간에 꼭 삼매는 들어가야 합니다. 삼매는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삼매에 들어서 마음이 딱 모아져야만 우리의 번뇌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시겁래로 지은 산란한 그런 번뇌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그냥 끊어지겠습니까? 우리 마음 뿌리가 부처님인데 딱 모아서 뭉친 마음으로 밀어붙여야만 마음 뿌리인 불성에 닿습니다. 보통 상대유한적인 범위에서 뱅뱅 도는 윤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는 깊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계행을 지키지 않고서 수행을 한다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계행을 지키며 수행하는 사람은 용과 천상이 지킵니다. 우리는 용도 안 보이고 천상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 하는 것입니다. 용기운이나 천신 기운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사실적인 실상도 못 보는 것이고 실상까지 미처 못 가서 있는 어정쩡한 중간되는 존재인 용龍이나 천天도 못 보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 마음 따라서 행동 따라서 이러한 용이나 신은 지키고 또는 안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부정하면 용이나 신은 우리 사람 같은 몸이 아니고 보다 미세하고 밝기 때문에 분명히 기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동을 다 안다 말입니다.

몇 자나 되는 철판으로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용이나 신들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적인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양심도 가책을 안 받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은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귀신들이나 이런 신들이 비방도 않고 방해도 않고 우리를 지킵니다. 참다운 진리나 선禪을 방해하는 마구니들은 우리를 공경하고 부러워서 가버리고 맙니다.

계戒를 파계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말하기를 큰 원수로구나! 물론 우리는 어두워서 이 말소리가 안 들린다 하더라도 귀신들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을 죽이고 삿된 음란한 짓하고 욕설 거짓말한다고 할 때는 귀신들은 벌써 알고 꾸짖고서 걸음걸음 방해를 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많이 있지마는 우리가 바른 행동을 못 취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래 최상의 부처이니까 두려움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습니다. 석가와 더불어서 나와 둘이 아니니까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몸이 있을 때는 우리 행동 하나하나 계행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에 따라서 신이나 귀신이나 영靈들의 가피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능엄경楞嚴經』이란 소중한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사백천겁假使百千劫, 가사 백천겁 동안 무량한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소작업불망所作業不忘, 한번 지은바 업은 잊히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기가 나쁜 일을 했으면 그것이 잊어버려지면 좋겠지마는 한번 지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이나 천지 우주에다 흔적을 둡니다. 즉 훈습薰習합니다. 딱 두었다가 인연회우시因緣會遇時 비록 금생에는 설사 못 만난다 하더라도 인연이 딱 닿는 경우에는 과보환자수果報還自受 스스로 자기가 지은 바를 받습니다. 한 번 누군가를 죽였다면 금생에는 몰라서 넘어가버렸다 해도 나중에 다시 인연이 닿으면 받는 것입니다. 인과因果는 조금도 차착差錯이 없습니다. 꼭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인과因

果는 무서운 것이니까 계행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화大衆化시대입니다. 수행법이 너무 고답적이면 곤란합니다. 누구나가 공부를 쉽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역시 공부하는 방식을 아주 까다롭게 내어갖고 골치가 아프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부방식은 아주 쉬워야 합니다. 아주 쉽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어째서 그렇게 신도가 많은 것인가. 공부하는 방식이 쉽습니다. 하나님 믿고 십계명 지키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간단명료하니까 누구나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래라 저래라 굉장히 복잡난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난해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될 것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왕이수易往易修라 쉬운 것이 공부가 더 잘될 때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대중적으로 집단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아주 쉬워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오로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무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재가불자들은 공부방식이 어려우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린 사람들이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쉬운 쪽으로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한데 부처님 되는 공부 가운데서 제일 쉽고 공덕이 많은 공부 이것이 바로 염불 공부입니다. 염불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어느 큰스님도 염불은 하근기가 한다. 상근기는 참선해야한다. 이와 같이 한계를 지어서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방편으로 그 분이 말씀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염불이라고 해서 하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사실은 어떤 누구나가 하기 쉬우면서 진척은 제일 빠른 공부인 것입니다. 팔만장경을 보십시오. 어떤 경전이나 염불念佛·염법念法·염승念僧이라 부처를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하고 그런 법문 없는 곳이 있습니까. 몇 천 번 몇 만 번 염불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염불은 무엇인가? 부처를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바로 나의 참 생명이고 우주의 참 생명이고 우주의 실상 중도 이것이 부처 아닙니까. 조금만 고쳐서 생각해보면 염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본 생명이 부처요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입니다.

자타自他 모두가 부처이거늘 부처를 생각하는 그것이 낮은 공부가 될 까닭이 없습니다. 실상이 부처고 중도中道가 다 부처인데 실상實相을 생각하고 중도를 생각하는 공부가 낮은 공부이겠습니까. 참선을 하건 주문을 하건 염불을 하는 마음,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나 염불하는 마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간절한 공부가 못 됩니다.

부처한테 간절히 가고 싶은 그 마음, 부처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염불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 하나 저것 하나 걸음걸음 부처 가까이 가서 부처와 하나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약염불자若念佛者 만약 염불하는 자는 당지當知 마땅히 알지라. 차인此人 이 사람은 시인중분다리화是人中芬陀利花 사람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꽃이라' 부처님께서 방편설方便說도 더러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은 방편설이 아닙니다. 같은 경이라도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은 방편설 경이 아닙니다.

물론 이 경 가운데도 방편적인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가장 고도한 부처님의 진실설입니다. 그러기에 관음세지위기승우觀音勢至爲其勝友라, 백천百千 보살이 많이 있으나 백천百千 보살을 대변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한 말로 하면 자비와 지혜 아닙니까. 자비를 대변하는 성령은 관음보살이고 지혜를 대변하는 성령은 세지보살입니다.

즉 따라서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음·세지 두 보살의 화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이 보살에 의해서 한 번에 의미가 모아집니다. 하나로 모아지면 부처인 것이고 둘로 구분하면 관음觀音·세지勢至인 것이고 더 구분하면 백천관음百千觀音이 되겠지요. 천

지 우주가 모두 다 관음화신입니다. 백 천 만법이 모두 다 관음화신입니다.

이와 같이 염불하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 향기로운 꽃이니까 가장 고도한 두 보살이 가장 좋은 벗으로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관음보살' 한 번 부르고 '나무아미타불' 한 번 외우는 것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벗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실상묘혜實相妙慧 참다운 실상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염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저 극락세계에 계신다. 부처님은 내 밖에 계신다. 이래 버리면 관음 세지가 자기의 참다운 벗으로 삼질 못합니다. 염불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밖에서 안 구하고 자기 생명의 본질로 구하고 우주 만유를 하나의 부처로 구하는 그런 염불을 할 때만이 천지우주의 참다운 성령인 자비와 지혜의 성령인 관음 세지 보살이 우리를 좋은 벗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약염력견강若念力堅强 수입오욕적중雖入五慾賊中 불위소해不爲所害라' 만약 우리가 염불하는 힘이 아주 굳건히 강하다고 하면 비록 오욕이라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음욕이 있고 또는 이성·음식·잠·욕심 구덩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욕심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나 같습니다. 불위소해不爲所害라, 능히 헤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줏대가 없이 산란하니까 욕심에 끌려가고 진심嗔心 낼 때는 진심내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로 염불하는 마음이 강해서 하나로 모아질 때는 이런 오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해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염력강고念力强故 득견아신得見我身이라, 화두를 염하고 부처님을 염하고 또는 주문을 염하고 이런 염하는 기운이 강하면 바로 나의 몸, 부처님 몸을 본다 말입니다 즉 부처님의 참다운 영원적인 불생불멸의 법신을 스스로 증證합니다.

'일심불생一心不生 만법무구萬法無咎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좀 어렵지마는 우리

생활선상에서 그때그때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일심불생一心不生이라 바로 보면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생명뿐인데 너나 나다 좋다 궂다 하는 분별시비하는 유한상대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조금도 허물이 없다 말입니다. 시비하고 구분할 때 허물이 있는 것이지 법의 본질을 보고서 분별시비가 없다고 하면 허물이 별로 없습니다.

약능요심若能了心하면 만행구비萬行具備라, 만약 우리 마음이 뭣인가 깨달아 안다면 만 가지 행동이 갖추어져서 허물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도 내내야 앞에 것이나 뜻이 같습니다. 우리 중생은 마음의 본 바탕을 모르기 때문에 허물도 많이 있고 행동도 그르칩니다마는 마음의 본 바탕을 안다고 할 때는 덕성이나 지혜가 갖추어져서 별로 허물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심화기평자心和氣平者 만복자집萬福自集이라, 이것은 「채근담菜根譚」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만 하면 너무 피상적이니까 구태여 이런 문구를 소개하는 셈입니다. 마음이 화기롭고 평상심이 있는 사람들은 만복자집萬福自集이라 이것도 자업자득이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다 말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럴 때에 불평도 생기는 것이고 박복한 일도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항시 화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만복이 스스로 모인다는 말입니다.

중인유병衆人有病 모든 중생들은 병이 있는데 득문시경得聞是經이라, 만약 이 경을 들어서 안다고 하면 병즉소멸病卽消滅 하고 불노불사不老不死라, 병이 곧 소멸되는 동시에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것은 『법화경法華經』 「약왕품藥王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맨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운 법문입니다마는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이 지금 병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병이 있는데 득문시경得聞是經이라, 『법화경』이나 『약사경』이나 이런 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참다운 대승경전을 들어서 안다고 하면 병이 곧 소멸함과 동시

에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조금 과장 같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과 몸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경經을 바로 듣고 바로 해석할 때 아까 말씀처럼 바른 간혜지로 생각한다 할 때는 마음이 확 열려서 웬만한 병은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옹졸한 마음이 뭉치고 뭉쳐서 그때는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폐병이면 폐병 하나에도 부처님은 들어 계시는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 가운데도 다 들어 계십니다. 어떠한 것이나 부처님이 안 들어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바로 귀의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있는 병균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도 바닥에서 보면 청정미묘한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십년 묵은 병도 역시 마음이 확 열려서 내가 부처다 나한테는 무량공덕이 있다 이렇게 정말로 믿으면 병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장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약도 먹어야 하고 전문가한테 보여야 하는 것이지마는 기본적인 자세 아까 말씀처럼 마음을 확 열어야합니다. 즉 내 마음은 박 아무개, 김 아무개라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내 본래 마음은 부처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딱 돌려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신앙입니다.

만약 착한 남자나 여인들이 다만 부처님의 이름만 들어도 무량 세월 동안 지어온 죽고 살고 하는 죄를 다 없애는데 하물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구한다고 할 때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 들을 때는 정말 그럴 것인가 하고 의심합니다마는 부처님 법문은 모두가 다 심심미묘甚深微妙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려서 하신 법문인 것입니다. 깊이깊이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바로 안다고 하면 그야말로 본각本覺이라, 문득 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 죄를 몰록 녹이는 것입니다.

『대무량수경大無量壽經』에 있는 부처님 사십팔원에 보면 '내가 성불하

려고 할 때 중생이 극락세계를 가고자해서 내 이름을 진정한 마음으로 열 번만 부른다면 열 번 미처 못 가서 반드시 극락세계 탄생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천 번 백만 번 외워도 안 되는 것인데 다만 열 번만 외워도 극락 간다는 말씀이 있다 말입니다. 조금도 에누리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외울 때는 꼭 그러는 것입니다.

호리毫釐도 의심 없이 딱 믿고서 진실한 마음으로 외운다 할 것 같으면 한 마디에 극락가고 성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와 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 순결한 믿음은 우리 마음을 비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잠재의식에 나쁜 것이 많이 들어 있어서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좋다 궂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의심 없이 못 믿으니까 백만 번 천만 번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 분들 중 서른 세분은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달마스님은 28번째인데 중국에 와서 달마達磨가 첫째 그다음에 혜가慧可, 승찬僧璨, 넷째분이 도신道信스님입니다. 도신스님 말씀에 염불심시불念佛心是佛, 부처를 염하는 마음은 바로 부처요, 망념시범부妄念是凡夫, 망념은 범부라. 그러니까 대승공부, 대수행자의 공부는 지금 우리가 범부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처하고 빨리 하나 되어 버립니다. 내가 범부다 나는 못났다 이런 차별심 가지고는 공부가 진척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처 안 가 있지마는 끄트머리를 딱 짚어서 믿어버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맹자孟子의 『대학大學』의 허두에 나온 말씀입니다. 석가모니 말씀이 아니더라도 2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지도大學之道는 『대학』의 가르침은, 재명명덕在明明德이라,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마는 『대학』이라고 할 때는 낮은 공부가 아닙니다. 인간성의 본래면목을 밝히는데 참다운 대학의 길이 있다 말입니다. 명덕을 밝히는 데 요체를 둔다고 할 때 사회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명명덕明明德을 잘못합니다. 명덕明德을 밝히지 못하

기 때문에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비록 기술은 이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친다 하더라도 인간성의 줏대만은 명덕明德을 밝히는 것을 주장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때 아닙니까.

대학지도는 명덕을 밝히는데 있는 것이며, 동시에 재친민在親民하며, 일반 중생과 친근해서 중생을 가르쳐야 한다 말입니다. 재지어지선在止於至善이라, 그렇게 하면서 마땅히 항시 지극한 선善에 머물러야 합니다. 목적은 좋다 하더라도 방법이 그르치면 안 됩니다. 방법이나 목적이나 항시 순간 찰나도 지극한 선善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명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목적만 좋으면 방법은 무관하다, 이런 소홀한 말이 나옵니다마는 마땅히 명덕을 밝히는 동시에 수단 하나하나, 방법 하나하나를 참다운 윤리·도덕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공자孔子님 『논어論語』와 「명심보감明心寶鑑」의 가르침입니다. 군자는 성인지미成人之美하고 불성인지악不成人之惡하나니 소인小人은 반시反是라 이런 것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지금 현 시대는 너무나 혼란한 시대니까 다 알지만 되새겨야 합니다. 군자는 위대한 사람 바른 도덕적인 사람이 군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군자이십니다. 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인지미成人之美라 사람의 좋은 점을 이루게 합니다. 남의 험담이나 하고 남 못되는 거 바라고 시기심이나 하는 것은 성인지미가 못 되는 것입니다. 될수록 남의 좋은 점을 내세우고 남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고, 남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북돋아서 좋은 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깎으려고 애쓰면 그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이루게 하고 나쁜 점은 이루게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때는 소인이 참 많습니다. 소인은 모든 일을 남한테만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다음에 군자는 구저기求諸己하고 소인은 구저인求諸人이라. 군자는 모든 허물을 자

기한테 구하고 소인은 모두 남한테만 구합니다. 소인이 될 것인가 군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군자니까 마땅히 소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괴롭더라도 군자는 꼭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인지미하고 또한 동시에 책임은 항시 자기한테서 자책해야합니다.

자왈子曰 조문도朝聞道면 석사夕死라도 가의可矣라. 다 아시는 말입니다,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무방하다 말입니다. 현대란 사회는 비단 선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가 당장에 진리를 얻으면 곧 죽어도 무방하다는 뜻을 가져야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바른 가정이 서고 사회도 바른 사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상이 혼란한 때는 먼저 바른 가치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영국의 석학인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도 말했습니다. 원자력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인류가 불타佛陀가 행한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지 않고서는 또는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고서는 인류가 집단자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는 정말로 부처님 같은 최상의 지혜로 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정말로 집단자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실히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처님한테 가는 길 진리를 보는 것이 우리가 심상만 놓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한 조문석사朝聞夕死라,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무방하다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참다운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지금 혼란한 시대에 자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슬람교, 기독교, 유교 또는 무슨 교, 마르크스주의 무슨 주의 이렇게 혼돈 무궤도 한 때 자기 어버이가 바른 사상을 못 가지면 바른 인도를 못합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우선 간혜지, 중도실상의 지혜입니다. 비록 우리 범부의 안목에서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차별 있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의 생명인데 중생이 잘 못 봅니다. 바로 보는 참 지혜를 내 것으로 해가지고 염불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공부입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가 죽고 살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범부 경계에서 영생해탈의 경계, 영생 행복의 경계로 가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바른 지혜를 얻으셔서 가능하면 결택분決擇分이라, 한사코 내가 성불해야 한다는 결택분까지 가시고, 그렇게 못 간다 하더라도 순순히 보시도 하고 계행 지키면서 염불·참선으로 해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사회를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들딸을 내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우리 사회가 참다운 평화로운 복지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Ⅱ.

시라불청정尸羅不淸淨이면 삼매불현전三昧不現前이라,

“삼매에 들어서 아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삼매에 들어서 아는 지혜야 만이 과거 현재 미래 즉 말하자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헌데 그런 삼매 이것은 계행이 앞서지 않으면 삼매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도 ‘시라불청정尸羅不淸淨이면 삼매불현전三昧不現前이라,’ 시라尸羅는 우리말로 계율戒律을 말합니다. 계율을 청정히 하지 않으면 삼매불현전이라 삼매는 안 나옵니다.”

1. 갈앙심渴仰心이 극락세계

* 1987년 4월 5일 태안사에서 청화 큰스님 법문입니다.

써늘한 서남풍이 불 때는 서남풍이 불지 않고서 매화나무가 청초한 꽃을 피웠습니다만, 봄이 익어져서 순풍이 불어올 때는 그 생생한 싱그러운 매화꽃은 누그러지고 맙니다. 이럴 때를 당하니 우리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무상無常을 한결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헐벗은 그런 나목裸木에서 어디에 그런 꽃이 있었던가, 한 겨우내 동안 헐벗은 매화나무는 꽃도 이파리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파리도 없고 생기도 없던 그것에서 어떻게 꽃이 피어 나왔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계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꽃이 어느 곳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가? 나무를 몇 천 번 쪼개 본다 하더라도 매화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오면 분명히 꽃은 피고 만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부처님의 성품인 우리 근본 자성自性인 그런 불성佛性이 있다. 이와 같이 흔히 말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불성은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초롱초롱한 영가靈駕의 눈에도 안 보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안 보입니다. 허나 분명히 불성은 존재합니다. 비단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그런 생명의 본 근원인 그런 자성의 자리, 참다운 불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사람은 미처 못 본다 말입니다.

선가禪家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촉루리안경髑髏裏眼鏡이요, 촉루髑髏는 이것은 해골이 촉루입니다. 촉루리, 안 리[裏]자, 촉루 안에 즉 해골 안에 안경眼鏡이요, 눈이 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해골은 바싹 말라서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헌데 이런 해골

가운데 눈이 빛나고, 촉루리안경이요, 고목리용음枯木裏龍音이라, 고목은 마른 나뭇가지가 고목枯木이 아닙니까? 안 리[裏]자, 용 용[龍]자, 읊을 음[音]자 말입니다. 고목 가운데 그냥 용이 울부짖고 읊는다 말입니다. 고목에 바람이나 불면 모를까 바람이 안 부는데 소리가 날 리가 만무합니다. 일반 중생이 보는 것은 그냥 해골은 해골로 밖에 못 봅니다. 또 고목은 고목으로 밖에는 못 봅니다. 그러나 중생의 분별시비를 떠난 중생의 제한된 그런 식을 떠난 그런 안목으로 본다고 할 때는 해골 가운데서 분명히 안경이 빛나고 있습니다. 고목에서도 역시 우리 중생이 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묘음이 영원적인 리듬이 흘러나옵니다. '촉루리안경髑髏裏眼鏡이요, 고목리용음枯木裏龍音이라' 말입니다.

이런 소식과 마찬가지로 매화나무에서도 어디에도 꽃이 숨어 있지 않지만 인연이 닿으면 그와 같이 꽃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사회생활을 합니다만 혼란스러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식도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더러는 가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런 말을 지식인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체를 모르고서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불교인이 아닌 사람은 마음 비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겠습니까? 마음의 정체, 마음의 근원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인가? 그러면 선행해서 마음은 무엇인가? 지금 현대는 불교말로 오탁악세五濁惡世라 합니다. 그 다섯 가지 흐린 것이 꽉 차 있는 결국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런 나쁜 세상 즉 악세라 말입니다. 오탁악세란 말은 불교의 술어적 말 같지만 우리 현대에도 오히려 음미吟味해 볼 심심미묘甚深微妙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탁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맨 처음 겁탁劫濁이라, 겁劫이란 불교에서는 무량 세월을 말합니다. 세월이 차근차근 이렇게 오랫동안 되면 찌꺼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맨 처음 텅 빈 공간에서 우주가 구성될 때는 별로 찌꺼기가 안 생겼습니다마는 우주가 구

성되어서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찌꺼기가 즉 탁기濁氣가 생긴다 말입니다. 요즘 현대물리학과 역학에서는 엔트로피라, 엔트로피entropy, 불가역不可逆 에너지를 말합니다. 한번 사용한 에너지는 다시 재생하지 못하고 순수한 힘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해가 쌓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류의 그런 유형적인 문명이 오래가면 갈수록 찌꺼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쌓이면 그때는 우주의 분위기가 흐려진단 말입니다. 환경과 분위기를 떠나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그런 분위기에서는 우리 인간성마저 오염되어 갑니다. 겁탁劫濁은 오랜 세월이 되면서 우주의 찌꺼기가 차근차근 쌓이는 그것이 겁탁劫濁입니다.

겁탁이 생기니까 그때는 견탁見濁이라, 볼 견[見]자, 흐릴 탁[濁]자, 중생이 보는 견해도 역시 차근차근 흐림이 생깁니다. 나쁜 사상이 생기고 별로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사정이 생깁니다. 또한 동시에 견탁見濁이 생기면 중생의 견해見解가 잘 못 되면 중생의 견해에 따라서 생기는 나쁜 견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번뇌가 생깁니다. 자기라는 것을 바로 못 보고 우주의 본바탕을 바로 못 보면 그때는 인간의 마음에는 번뇌가 싹터옵니다. 이것이 번뇌탁煩惱濁이라, 견해가 잘못되고 또는 중생의 번뇌가 쌓이면 따라서 중생도 흐려 옵니다.

물론 중생의 마음이 흐리니까 몸도 흐린 것이고 전체가 흐립니다만, 아무튼 견탁見濁, 번뇌탁煩惱濁, 그다음 중생탁衆生濁이라, 이렇게 되면 차근차근 중생의 견해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면 즉 중생이 오염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쁜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사회를 혼동시키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같은 그런 병들을 좀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혼탁할 때는 그런 알쏭달쏭하고 중생이 잘 모르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중생계가 오염된 증좌證佐입니다. 이런 오탁이 오탁증시五濁增時라, 더할 증[增]자, 때 시[時]자 오탁이 차근차근 증가하여 우리가 살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탁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은 살맛이 없습

니다. 어느 철학자 말씀대로 불교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결국 모두가 다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가 아니면 희망도 없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오탁증시五濁增時의 인간사회에서 다행히도 역시 불법이라고 하는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출구는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도 불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자살하지 않고서 살 수가 있는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도 불교 아니고서는 최파摧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단순 소박한 그런 교로서는 물론 뒤지지만 이론 체계로 해서는 공산주의 이론을 못 누릅니다. 어째 그런가 하니 보통 일반 관념론觀念論이나 일반 신학적神學的 신학문神學問 그것은 물질세계의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공산주의를 누르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세계를 합한 그런 이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최파摧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사상을 해결시키고 우리가 보다 더 바른길을 유도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엇인가,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성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철학서, 어떤 종교나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는 그런 교리敎理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운다고 해도 역시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마음, 조금 더 허심탄회한 마음, 그런 상대적인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마음의 본질을 알아서 마음 특수성을 내세우는 그런 비우는, 그러한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법화경法華經』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탁악세五濁惡世라, 다섯 가지 그런 여러 가지 흐린 것이 증가되는 세계를 다시 또 표현해서 말씀했습니다. 삼계무한三界無限이라, 삼계 이것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 우리 중생이 태어나서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세계를 삼계三界라 합니다. 우리 중생은 어떤 사람이나 성자聖者가 되어서 성불成佛을 하지 못하면 삼계에서 모두

가 다 갔다 왔다 합니다. 우리는 다 삼계에 얽매어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불교 술어가 너무나 어렵고 또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개념적인 거리가 먼 관계상 잘 알려고도 않고 불신不信 합니다만, 사실은 캐어 보면 모두가 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조금도 오류가 없는 훌륭한 법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같은 불교를 하는 분도 역시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현상적인 중생구제, 우선 빵이나 해결되고, 우선 사회가 풍요하고 이런 것만 따지는 불교인들은 보통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무시합니다, 그래서는 근원적인 인간구제는 못 되는 것입니다. 삼계무한三界無限이라, 우리 중생이 갔다 왔다 하는 세계가 삼계인데 그것도 역시 우리 중생이 아는 것은 다만 욕계欲界만 압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겉에 있는 세계만 안단 말입니다. 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를 중생이 못 봅니다. 말로는 우리 불교인도 색계·무색계를 말하나 사실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욕계를 근원으로 해서 욕계보다도 업장이 가벼운 그런 중생이 태어나는 좋은 세계로서 분명히 색계·무색계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靈長이다, 그와 같은 아만심我慢心을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이는 한계 내에서는 인간이 좀 더 나은 것이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보다 더 우수한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한데 우리 욕계는 물론이지만 더 나은 색계나 무색계나 그런 세계도 역시 참다운 안락安樂은 없습니다. 어째서 안락이 없는가 하면 가사 천상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역시 번뇌는 못 떠납니다. 번뇌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아상我相인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미처 못 여의고서는 우리 중생이 사는 욕계도 못 떠나고

색계·무색계도 못 떠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윤회를 합니다. 싫으나 좋으나 우리가 윤회 않고서 참다운 영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을.... 원래 참 나는 지금 보이는 내가 아니라 말입니다. 진정한 참 나는 지금 보이는 김 아무개, 박 아무개 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참다운 나를 모르고서 그때는 윤회를 못 벗어납니다.

따라서 성자와 범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자란 참다운 나를 깨달아서 거짓 나를 최파한 이런 분들이 성자이고, 참다운 나를 모르고서 눈에 보이는 것만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범부인 것입니다. 삼계무한三界無限이라, 삼계는 나를 미처 못 떠나니 따라서 안락적인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삼계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우선 쾌락을 가지고 행복이라 합니다만, 나를 못 떠나는 중생이란 것은 참다운 행복의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순간 찰나의, 내내야 고苦, 고가 뿌리인 것이고 고의 뿌리 위에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중생의 행복입니다. 삼계에는 안락한 것이 없어서 유여화택有如火宅이라, 마치 이것은 불집이라 불에 타고 있는 집과 같다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치장도 하고 또는 행복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낍니다만, 사실 우리는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무슨 불에 타고 있는 것인가? 욕심慾心의 불에 타고 있고 또는 자기 마음이 싫으면 그때는 성내는 진심嗔心의 불에 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나를 못 떠나는지라 나에게 좋게 하면 욕심, 싫게 하면 진심, 이러한 탐심과 진심의 불에 안 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심·탐심·진심을 미처 못 떠났거니 이런 중생이 구성하는 세계는 모두가 다 화택火宅의 세계라, 불에 타고 있는 집이라 말입니다. 바로 보면 우리는 지금 불타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삼계는 안락한 행복이 없어서 마치 불에 타고 있는 집과 같고 따라서 중고충만重苦充滿, 생로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고 그런 고통이 충만 되어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이나

또는 늙음이나 또는 삶이나 또는 병이나 이것들 떠나서도 가지가지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고重苦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다구외甚多懼畏라, 결국은 심히 우리가 두렵다 말입니다. 고통이 충만해 있으니 두려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생이 바로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무상無常을 미처 못 느끼고 그런 허망한 것에 집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유常有 생로병사 우환이라, 항상 생이나, 늙음이나, 병이나, 죽음이나, 기타 가지가지 우환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 여시등화如是燈火, 이와 같은 불이 중생의 번뇌로 말미암은 그런 불이 치성무식熾盛無息이라, 불타서 조금도 쉬지 않는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문의 사회면 같은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불이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이고, 할퀴고, 싸우고 합니다. 배우나 안 배우나 중생이란 그런 점에서는 역시 아상我相을 못 떠난지라 이런 탐심貪心・진심嗔心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멈출 수 없는데 다만 여래如來 일이라, 여래란 부처님입니다. 문자 그대로 진리에서 온 여래如來, 불교에서는 여如하다는 것은 같을 여[如]자, 입니다. 진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진리하고 하나인 뜻이 여如입니다. 여여如如하다, 모두가 만상이 차별 없이 진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조금도 차이도 뭣도 없고 일여평등一如平等의 진리란 것에 있어서는 여여如如 하다란 것을 씁니다. 여래 이것은 진리에서 왔다, 즉 말하자면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 이것이 여래인 것입니다. 삼계는 이와 같이 고통이 많지만 다만 여래, 진리에서 오신 부처님만이 또는 진리를 깨달은 성자만이 삼계화택三界火宅을 이미 떠나 있습니다.

중생은 분명히 자기가 사는 현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화택세계火宅世界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탐심・진심의 불에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선 할 일은 땅보다도, 지위보다도, 자기 집보다도, 동생, 아들보다도 우리한테 있는 자기 자신에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경에도 머리에 불 끄듯이 머리에 타고 있는 불보다 급한 것이 있습

니까? 머리에 불 끄듯이 공부하라는 그것이 우리 중생에게 한 법문입니다. 그러기에 석가모니도 그와 같이 그런 급한 마음을 가졌기에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출가한 것입니다. 사실은 환경이 좋은 사람으로 출가한 사람은 모두가 이와 같이 초인적, 자기 몸속에 불타고 자기 수염이 불타고 이것을 끄듯이 바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초인의 절실한 감을 느끼고서 집을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이란 집을 나서서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집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의 불을 끄는, 자기 참다운 불성을 모르게 하고, 자기 참다운 행복을 저해하는, 이러한 탐심의 불, 진심의 불, 이 불을 끄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일대사一大事로 하고 다른 것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말이 전도 안 되고서 우리 생활이 바른 길로 가서 여래라, 참다운 진리에서 온 성자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중생은 나를 바로 못 봅니다. 나를 바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보는 이것은 망아妄我라, 망령될 망[妄]자, 나 아[我]자, 말입니다. 중생이 보는 나, 이것은 망아인 것입니다. 참다운 나가 못 되는 것입니다. 박사 학위가 있고 또는 지위가 높아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자기의 위치는 높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서는 망아를 미처 못 떠나는 것입니다. 성자가 아니고서는 모두가 망아妄我의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망아의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욕심만 부려서는 그냥 죽는 순간 황사망黃蛇網이라, 황사망은 무엇인가 하면 누를 황[黃]자, 뱀 사[蛇]자, 그물 망[網]자, 말입니다. 그때는 딱 누런 뱀의 허물을 쓰고서 저승에 갑니다. 욕심을 많이 품은 사람은 분명히 죽어서 그때는 좋은 곳으로 못 갑니다. 나쁜 것도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구렁이 즉 말하자면 굵은 허물을 쓴 구렁이 몸을 받는다 말입니다. 마음은 역시 응당 그곳에 가서는 부처가 있고 다 있겠지요. 이것은 분명

한 사실입니다. 다만 중생은 그것을 못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은 참다운 나를 못 보고서 망아妄我에 얽매여 삽니다.

그다음에는 가아假我라, 거짓 가[假]자, 나 아[我]자, 말입니다. 비록 나라는 것을 해독解讀한다고 생각할 때는 망아妄我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망령된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때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는 흔적이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하나의 존재로 생겨나는 하나의 그것이 가아假我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에다 각 원소,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가 합해서 하나의 인간 존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비록 망령되게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선 인간 존재의 하나인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가짜의 아我인 가아假我입니다. 그것도 역시 참다운 아我는 못 됩니다. 참다운 자기 본 생명은 아니라 말입니다. 참다운 자기 본성은 참 진[眞]자, 나 아[我]자, 그때는 진아眞我 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참다운 생명입니다.

석가모니나 각 도인들은 모두가 다 참다운 진아 참다운 진리를 깨달은 분들입니다. 우리 중생은 진아眞我가 있는 것을 알듯 말듯 하지만 보통은 가아假我도 미처 못 느끼고서 그냥 망아妄我, 망령된, 우선 금생에 나와서 누구의 자식, 누구의 딸 또는 자기 이름을 누가 지어주면 그것을 붙여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다 갑니다. 이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보통은 이런 망아 가운데서 오락가락하다 맙니다. 여기까지 진아까지 잘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꿔온 것도 아니고 원래 자기한테 이런 진아, 참다운 도리가 원만구족圓滿具足이라,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중생은 게을러서 미처 못 간다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박 아무개, 김 아무개 하는 우리 중생이 느끼는 망아 이것은 정유리무情有理無라, 인간의 그런 망정妄情, 분별시비하고 차별하는 인간의 망정에만 있고서 참다운 원리에는 없습니다. 참다운 원리에는 그때는 망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 엄마, 누구 동생, 누구 남편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중생의 분별시비하는 망정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원래 본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전무라,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무아無我라 하는, 내가 없다고 하는 무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불교를 안 믿는 것입니다. 대승大乘·소승小乘을 지금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대승까지 미처 못 가고서 소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아無我는 믿어야 됩니다. 무아를 믿어야 비로소 소승이란 말을 듣는다 말입니다. 즉 망아妄我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허나 중생은 내 잘난 얼굴, 내 재산, 내 권속, 이런 것에 얽매일 때는 아직은 망아妄我의 범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망아 이것은 다만 인연에 따라서 잠시만 이와 같이 가아假我가 있을 따름입니다. 가아假我, 이것은 여환가유如幻假有라, 마치 허깨비 모양으로 뜬구름 모양으로 또는 물속에 비친 달 모양으로 말입니다. 어린애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 물속에 달이 있는 줄 알고서 휘영청 밝으면 그때는 분명히 달이 비칩니다. 어리석은 원숭이가 물속에 달이 있는 줄 알고서 정말 달인 줄 알고서 건지다가 빠져 죽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진짜 달인지 안다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행복이요 또는 권세요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물에 비치는 달에 불과 한 것입니다. 사랑이고 미움이고 뭣이든 물에 비친 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생활 자체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수중월水中月이라, 모두를 물 위에 비친 달로 생각해야만 집착하지 않고서 참다운 진아, 참다운 영생의 행복을 약속하는 참다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참다운 나, 이것은 정무리유情無理有라, 우리 중생의 망령에는 없고 참다운 도리에만 있습니다. 이것만이 참다운 진리眞理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하더라도 이런 진아를 인정하고서 진아眞我가 아닌 가아假我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장수요, 자기가 무슨 집안 어른이요, 하는 이런 생각에서

는 그때는 마음을 못 비우는 것입니다. 탈탈 털어버리고서 오직 참다운 자기가 진아眞我 뿐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망령스럽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런 모순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아를 탐구하는 참다운 나를 탐구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要諦입니다, 비록 자기 인연이 복잡해서 진아로 우리가 모두를 뿌리치고 한 번에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설사 금생에 못 간다 할지라도 몇 생을 다해 가더라도 진아眞我가 되어야만 인생의 윤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결국은 망아妄我를 우리가 부정하고서, 망아를 초월하고서, 진아眞我를 성취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불교를 믿으나 안 믿으나 진아를 얻지 않고서는 인간의 참다운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참다운 자기를 모른다 말입니다. 진아만이 참다운 자기입니다.

참다운 진아眞我를 성취하는 공부 방법의 하나로서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 진아를 성취하는 그런 길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주문을 외는 문제, 화두를 의심하는 문제, 또는 염불을 하는 문제, 또는 그냥 명상하는 문제, 진아를 깨닫는 방법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어째서 많은가 하면 사실은 바로 보면 천지 우주가 바로 진아眞我 아님이 없다 말입니다. 내 존재 근원만이 진아가 아니라 하나의 피라미나 개미나 모두가 다 참다운 생명 자체는 진아입니다. 따라서 진아가 되는 길도 역시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마치 산봉우리를 올라갈 때 동이나 서나 북이나 남이나 올라가면 다 길이 있듯이 말입니다.

헌데 그런 가운데서 이문二門이라,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차정문遮情門과 표덕문表德門. 가릴 차[遮]자, 뜻 정[情]자, 우리 망정妄情을 중생이 무엇을 잘못 보는 망정을 부정하는, 가려서 참다운 것을 발현하는 그런 문이 있는 것이고, 또는 표덕문表德門이라, 우리 중생의 그런 차별적인 법이 아니라 영원적인 소위 말하면 무가정無假定의 법, 참다운 중도中道 사상의 법 이런 것을 나타내는 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의 각 종파나 또는 같은 불교인들이 옥신각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공부하는 방법 문제에 있어서 차정문遮

情門과 표덕문表德門을 잘 구분 못 한데서 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경을 본다고 할 때 표덕문 쪽의 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때는 차정문의 법문에 나오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방편이다, 이와 같이 부정합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차정문遮情門만 공부한 사람은 표덕문表德門 법문에 나오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중도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에서 말하는 사대오온四大五蘊은 공空이다 소위 제법공諸法空을 말하는 법문은 모두가 차정문 쪽의 법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無常하고 인생은 고생이 많고 이와 같이 인생은 무상이라, 소위 말하는 고苦・공空・무상無相・무아無我라, 인생은 고생,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법문은 차정문 쪽의 법문인 것입니다. 참다운 법문은 그저 부정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법문이 부정만으로 그치게 된다면 부처님의 법문은 한낱 하나의 허무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죠.

부처님의 법문은 일단 방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문제를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문제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내내야 참다운 목적은 영원한 영원히 존재하는 즉 표덕문적表德門的 불교말로 하면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 영원히 존재하는 항상과 영원히 행복한 안락과 또는 참다운 모든 도리를 다 깨닫고서 할 수 있는 아我라. 말입니다. 또는 청정히 조금도 번뇌가 없는 정淨과 이와 같이 상락아정常樂我淨을 갖춘 이 자리가 부처님의 참다운 목적입니다.

공空을 말씀하시고 또는 『금강경』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이러한 법을, 영원한 법을 나타내는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역시 부정적인 목적은 이러한 표덕문表德門 쪽에 두고서 우선 우리 중생은 망아妄我 우매한지라 차정문遮情門으로 해서, 그런 우리가 우리 망정에 있고 참다운 곳에는 없는 그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우리 수행자들도 보고 일반 중생들을 본다고 생각할 적에 먼저 이런 법을 말하는 부처님의 법성을 말하는 표덕문表德門에만

관심을 둔 사람은 사실은 번뇌를 잘 못 떼어냅니다.

참선 공덕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선불공修禪不空이라,' 닦을 수[修]자, 고요할 선[禪]자, 선을 닦아 불공이라, 아니 불[不]자, 빌 공[空]자, 말입니다. 그냥 공을 이론적으로 공이다 하면 그때는 공에 치우치기 쉬우나 닦아서 얻은 공은 내내야 공의 본질이 중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공만 닦으면 저절로 중도中道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은 미처 못 닦고서 사실은 모두가 다 부처다, 이와 같이 우선 불성만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문제를 미처 못 닦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만我慢도 걸리는 것이고 더러는 개인도 파괴하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원시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고구정녕苦口叮嚀한 말씀,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라, 부처님께서 원시 경전에 말씀하시는 『아함경』 같은 곳에서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란 이런 말은 굉장히 음미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부처라 이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부정을 잘 못 시킵니다. 자기부정을 못 시키면 그때는 욕심에도 걸리고 또 과過를 범합니다. 이러한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고 부정할 수 있는 자기비판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결국 내내야 불성佛性인지라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영원한 행복이 나옵니다. 이것이 '수선불공修禪不空이라.'

따라서 우리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차정문遮情門과 표덕문表德門, 우리 목적은 부처님의 그런 불성을 갖추고 있는 일체공덕을 갖춘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서 또는 우리 관념을 그곳에 두고서, 우선 공부하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대로 차정문 쪽으로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아我는 결국 비어있습니다. 참다운 진아眞我가 참답게 있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아我는 비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율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을 소개합니다.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유교경遺敎經』이라,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경인

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 들으실 때 일반대중에게 경계하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적에 자기 손자들에게 고구정녕히 아주 쉬운 말로 우려하고 타이르는 말로 해 놓은 법문이 『유교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경전을 보시면 알지만 아주 간단한 가운데서 또는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조목들이 있습니다.

계시戒是, 계戒 이것은 바로 정순해탈지본正順解脫之本이라, 바로 이것은 해탈의 근본에 따르는 법이라, 인계생정因戒生定하고 인정생혜因定生慧라, 계율에 말미암지 않으면 삼매가 못 나옵니다. 삼매가 없으면 참다운 지혜는 못 나옵니다. 우리가 분별시비하는 즉 말하자면 간혜지乾慧地라, 바싹 마른 지혜가 아니라 참답게 비춰보는 생명의 지혜, 과거·현재·미래를 초월하는 인간을 초월하는 지혜, 그런 지혜를 알려면 역시 삼매에 들어서 아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삼매에 들어서 아는 지혜야만이 과거·현재·미래 즉 말하자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헌데 그런 삼매 이것은 계행이 앞서지 않으면 삼매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도 '시라불청정尸羅不淸淨이면 삼매불현전三昧不現前이라,' 시라尸羅는 우리말로 계율戒律을 말합니다. 계율을 청정히 하지 않으면 삼매불현전이라, 삼매는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대승불교라 붙이기가 너무나 현란하고 현대가 바쁜 세상인지라 삼매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인도에나 있는 법이지 이와 같이 무시합니다만, 현대가 아니라 어떤 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역시 삼매에 안 들면 영원적인 참다운 지혜는 못 나옵니다.

파도가 고요하지 않으면 설사 만상萬象이 비춘다 하더라도 바로 못 비춥니다. 삼매三昧라는 것은 잠자는 파도, 파동치지 않는 잔잔한 파도 이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명경지수明鏡止水라, 밝을 명[明]자, 거울 경[鏡]자, 거울에 티끌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는 지수라, 그칠 지[止]자, 물 수[水]자, 파도가 없는 고요한 물 말입니다. 밝은 거울에 모양이 바

로 비추고 또는 고요한 물에 모양이 바로 비춰오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깊은 삼매에 들어서 고요한 적멸寂滅 경계 이런 경계가 아니면 영생의 참다운 지혜는 비춰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율로 해서 우리 몸뚱이나 주위를 맑게 해야 합니다. 내 몸이나 내 마음 가운데 티끌이 없다. 이와 같이 자부심이 안 들고서는 사실은 삼매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말고 마늘을 먹지 말고 파를 먹지 말라.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모두가 생명이라는 의미에서는 마늘이나 고기나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매에 든다고 할 적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조금도 파동이 없이 참다운 삼매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마늘이나 고기나 파나 모두가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경전 가운데 신통도 하고 여러 가지 재주를 내는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소금기도 안 먹어야 하고 그런 금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몸이나 마음이 오염되어서는 참다운 삼매에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가에서 이래저래 복잡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바른 길은 알아야 합니다. 삼매에 평생 안 들고 그냥 남이 말 한대로 뒤만 따라 가려면 몰라도 정작 본인이 삼매에 들어가려면 그런 금기는 지켜야만 삼매에 빨리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戒, 이것은 바로 정순해탈지본正順解脫之本이라, 해탈의 근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의인차계依因此戒 이런 계에 의지하기 때문에 득생제선정得生諸禪定 급멸고지혜及滅苦智慧라. 이런 계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모든 선정과 멸고滅苦라, 생로병사를 주로 하는 인생의 모든 고뇌, 번뇌를 멸하는 지혜를 얻는다 말입니다.

시고是故, 이런 고로 여러분 불자들은 당지정계當持淨戒라, 마땅히 청정계를 지니고서 물령훼범勿令毁犯이라, 그런 계를 훼범하지 말고 또는 해치지 말고 약침이 없이 해야 하느니라. 당지當知 계위제일안온戒爲第一安

穩 공덕지소주처功德之所住處라, 마땅히 알지라. 계戒 이것은 제일안온第一安穩, 마음을 가장 안온스럽게 하는 공덕이 머무는 곳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대승이란 변명으로 해서 계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결국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또한 동시에 삼세제불호념三世諸佛護念 선신가호善神加護라, 우리 중생은 안목이 한정되어 있어서 항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좋고 눈에 안 보인 것은 그때는 무시합니다. 우선 시주도 돈 많이 하면 좋고 말입니다. 사회생활도 역시 빵이 풍족하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보다 역시 우리 인간 정신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비록 남한테 보시를 하나도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그 정신 자체가 일반중생을 위하여 자기의 아我를 멸진滅盡하고 자기의 참다운 진아眞我를 계발하고 또한 동시에 다른 중생도 역시 참다운 진아를 갖도록 하는 그런 자비심 이런 것만 있다고 하면 남한테 돈 한 푼도 보시를 안 해도 그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헌데 중생은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중생이 하는 것은 제한되어 버리는 것이고 참다운 순 공덕을 얻지 못합니다. 항시 말씀합니다만 가사 우리가 사회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가서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같이 울고 또 울부짖고 하는 것은 참여고 중생을 떠나서 공부하는 것은 참여라고 못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생의 안목에서 보이는 것만 따지는 그런 좁은 소견인 것입니다. 비록 중생과 같이 안 산다 하더라도 역시 그 마음이 중생과 같이 더불어 있고 자기 신명을 다 바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참다운 참여인 것입니다.

마치 임란왜란(壬辰倭亂, 1592) 때 서산(西山休靜, 1520~1604)대사는 나와서 그냥 같이 싸워서 공로가 많고 진묵(震默, 1563~1633)스님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진묵 스님의 공로는 서산대사의 공로에 못지않습니다. 호국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라를 더 사랑했던가 나라를 사랑

하는 열도에 따르는 것이지, 나와서 덤벙거리고 안 덤벙거리는 그 점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순수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은 비록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삼세 부처님은 영생하게 존재합니다. 삼세제불三世諸佛이라 말입니다. 제불은 존재합니다. 또한 동시에 무수한 선신善神도 존재합니다. 다만 중생은 못 본다 말입니다.

우리 같은 중생이 어느 암실에 있으나 또는 어느 암굴에 있으나 우리 인간 존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삼세제불이나 각 선신들은 우리 행동, 우리 말 하나하나를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행동의 제아무리 비밀스러운 것도 역시 각 선신이나 부처님의 안목에서 떠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과출현因果出現이라, 우리가 짓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인과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합니다. 바른 행동, 바른 말, 내내야 계율 이것은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이 계율 아닙니까?

우리 행동이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와 같이 우리 신身・구口・의意 삼업으로 짓는 그런 것이 청정해지면 삼세제불도 역시 분명히 우리를 보고 지키고 또한 동시에 각 선신도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에서 쏘는 탄알도 사람보고 피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처구니없지만 사실은 총을 쏘거나 그보다 더 위력 있는 탄알이라도 역시 사람을 보고 분명히 피해 가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니 어떤 공간 속에서나, 각 선신이나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탄알도 역시, 탄알 속에도 각 선신과 부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모양이 아닌 성령으로써 부처님과 각 선신들이 말입니다. 어떠한 위치에서도 계십니다. 따라서 탄알 속이나 어떤 공간 가운데나 어디에서나 부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존재가 우리 행동이 바르면 그냥 즉시에 감응感應이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부처님 기운, 불성의 기운이 사람도 되고 개도 되고 또는 하늘의 별도 되고 다 되었습니다. 원래는 부처님 기운뿐인데 그런 기운이 인연 따라서 사람도 되고 개도 되고 다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개가 되고

사람이 되고 무엇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란 그 점, 부처님의 그런 성성적적惺惺寂寂한 부처님의 서린 기운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그와 같이 각 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부처님의 기운은 변동이 없습니다. 불성의 기운은 바위에 있으나 피라미에 있으나 또는 구더기에 있으나 똥에 있으나 부처님 기운은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모아서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뱀이 되고 무엇이 되었다 그뿐입니다. 뜬구름같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물 위에 비친 달과 같이 현상만 변할 뿐이지 부처님 기운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동이 없는 부처님의 기운, 그 기운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계행戒行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해온 사람들은 역시 제불보살이 보호해주고 또한 동시에 천신들의 가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밀교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목草木, 초목草木, 무심호無心呼 소승小乘이라, 초목에도 초목에도 무심이라, 초목에도 마음이 없다 하면 소승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식識 그러면 식識은 일반사람이나 있고 동물에나 있지 하고, 일반식물이나 무생물에는 없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 사실은 천지 우주가 식識 뿐입니다. 식識이 만법이라 말입니다. 만법이 식識뿐인 것을 중생은 겉만 본다 말입니다. 식識은 안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 불교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마음 만법이 유심인 마음, 일체가 모두 마음뿐이다, 식識이다 하는, 그런 순수 에너지뿐이라는 그걸 믿고서, 다음번 문제로 우리가 현상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낫다, 못 낫다, 밉다 또는 강도가 있다, 뭣이 있다, 이것도 역시 겉으로는 강도가 나쁜 것이지, 내내야 근원은 부처님 종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심심미묘한 만다라曼荼羅의 세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부처님의 화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낭비를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마치 조그마한 적은 물에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나, 또는 우리 발자국에 고여 있는 물이나, 그런 물에 있는 고기나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약간 길고 짧고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사람이란 것은 내내야 죽고 마는 무상無常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조그마한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에 노는 하나의 고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을 생각할 때는 마치 적은 물에 노는 고기떼를 생각해 우리는 풀 끝의 이슬 같은 그런 하찮은 목숨, 하찮은 목숨으로 무상을 느낍니다.

또한 동시에 도살장에 있는 양이나 소와 같이 금방 죽는다 말입니다. 20년, 30년 그것이 우리와 비교 할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백 년을 산다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우리 목숨은 따지고 보면 마치 도살장에 있는 소나 말들이 그냥 금세 죽어가는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상無常을 느끼고 고해苦海를 느끼고 고苦를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참다운 목적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법화경法華經』 「신해품信解品」에 보면 인간을 가리켜서 '영병궁자鈴甁窮子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영자 이것은 비틀거릴 영[鈴]자, 헤맬 병[甁]자, 비틀거리고 헤맨다 말입니다. 궁자는 궁할 궁[窮]자, 아들 자[子]자, 즉 말하자면 거지입니다. 우리 중생을 비유해서 비틀거리고 헤매는 거지와 같다. 이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우리 중생은 사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물질의 유무를 불문하고서 따지고 보면 결국은 영병궁자라, 비틀거리고 헤매는 하나의 거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몸도 역시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내 몸도 결국 각 원소가 합해서 임시간 하나의 형태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기에 이것은 마치 공취空聚라, 빌 공[空]자, 모을 취[聚]자, 공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청정망루淸淨望樓를 다 보고 약간 수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없다 하는, 내 몸뚱이가 텅 비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면 불법의 참다운 진수를 모릅니다. 결국은 피상적으로 가고 맙니다. 내가 비어있다는 공空을 느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몸은 텅 비어있는 것입

니다. 언제인가도 말씀했습니다만, 공을 제아무리 많이 모은다 해도 공뿐입니다. 제로zero를 몇 만개 더해도 제로zero인 것뿐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듯이 내내야 우리의 몸 또는 만유를 구성하는 가장 미세한 세포 가장 미세한 소립자 이것도 역시 사실은 질량·열량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운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겉피에 불과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염파念波에 불과합니다. 헌데 중생은 잘못 보고 성자聖者는 분명히, 명명백백히 그러한 참다운 실존實存을 보고서 가상의 텅 빈 공空을 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약산유엄(藥山唯儼, 760~829)선사禪師, 이분은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은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선사禪師한테 법을 받은 분입니다. 그때 마침 낭주자사朗州刺史로 있던, 자사刺史란 그 고을을 다스리는 관찰사觀察使를 말합니다, 낭주자사로 있던 이고李翺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역시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은 비록 관리로는 지내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디에 자기가 부임하던지 바로 그 관내의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뵙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낭주로 가서 맨 처음 들은 것이 약산 유엄스님이란 분이 자기의 관내에 있단 말을 듣고 이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고李翺란 관리가 약산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가서 보니 집도 허술하고 나이가 많이 든 분이라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런 볼품이 없어 보인다 말입니다. 물론 산중에서 공부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도는 높다 하더라도 볼품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고李翺란 분이 하는 말이 빈축하는 말투로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 "보는 것이 듣는 것만 못하는구나."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들을 때는 위대한 도인이라 하니까 얼굴도 훤히 빛나고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인데, 가서 보니까 사실 얼굴도 별것도 아닌 것이고, 얼굴은 꾀죄죄하니 바싹 야위어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뜸 약산스님이 하시는 말이 "그대는 귀만 소중하고 눈은 소중하지 않구나" 이와 같이 답변 했어요. 사실은 귀나 눈이나 모두가 다 평일여平一如일 것인데 약산스님이 그와 같이 말하니까 그냥,

이고李翺 그분도 공부를 좀 한 분이라 그냥 마음에 와서 턱 걸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참 도道입니까? 어떠한 것이 참 길입니까? 이와 같이 참다운 길, 도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산스님께서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킵니다. 다른 신통한 기기묘묘한 몸부림도 없이 단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만 그렇게 가리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큰소리로 알겠는가? 하고 호령을 했어요.

땅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고 인제 알겠는가? 하고 호령을 하니까 이고李翺란 관찰사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니 그때 약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운재청천수재병雲在靑天水在甁이라, 구름 운[雲]자, 있을 재[在]자, 푸를 청[靑]자, 또 하늘 천[天]자,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수재병水在甁이라, 물 수[水]자, 있을 재[在]자, 병 병[甁]자, 물은 병 가운데 있다. 마침 약산 선사의 상床에 병이 있고 병 가운데는 마시는 물이 있었겠지요. 참다운 불법, 참다운 진리를 물으니까 무슨 기기묘묘한 어떤 난해한 법문이 아니라 맑은 하늘에 구름 있고 또한 동시에 병 안에는 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재청천수재병雲在靑天水在甁이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길이란 것은 우리 인간생활을 떠나서 딴 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생이 보고 못 보고 한다는 차이뿐이라 말입니다. 일반중생은 못 보고 참다운 도인들은 볼 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간격도 없이 천지 우주에는 부처님뿐인데 일반중생은 못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 또는 병에 담겨있는 물, 이와 같이 컵에 있는 차, 이것은 모두가 다 본 바탕은 부처인 것입니다. 중생과 도인의 차이로 해서 중생은 못 보고 성자는 본다는 말입니다. 다 그러기에 법본묘추유물정法本妙醜由物情이라. 법은 본래 묘하고 신묘한 것이지만 추유물정이라. 다만 중생이 망정으로 그르친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종교나 그 신앙이 필요하지만 우리 불교는 특히 바른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른 정신이 못 되면 그때는 바른 신앙에 못

듭니다. 바른 정신만이 자기를 구제하고 타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은 비록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못 본다 하더라도 천지 이대로가 부처님의 심심미묘한 생명이라 말입니다. 우리 경經에는 극락세계가 십만의 국토 저 밖에 있다 합니다. 물론 중생의 이런 오염된 세계를 본다고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극락세계는 형편도 없이 멀겠지요. 허나 이것도 역시 우리 중생과 성자의 견해 차이뿐입니다. 성자가 보면 그때는 물론 이와 같이 못생기고 못난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라 말입니다.

그러나 각 성수星宿의 질에 따라서 마치 토성이 있고 목성이 있듯이, 같은 별도 역시 호법선신이 주재하는 그런 좋은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성에 사는 존재 또는 지구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는 존재 금성 같은 좋은 곳에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참다운 실상 이것은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는 천지 우주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다만 중생의 오염된 눈으로 보면 그때는 이것이 사바세계이고, 오염된 그 마음, 그 마음 떠나면 그때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 말입니다.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요, 오염되면 범부라 말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그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른 정신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탐貪·진瞋·치痴 삼독심三毒心으로 가리어서 조금도 맑은 세계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맑은 세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맑은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천지 우주가 깨달음 뒤에 청정한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이라, 본래 청정함을 인정해 놓고서 닦아야 만이 공부가 빠른 것이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적다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유교경遺敎經』,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법하신 『유교경』 속에 있는 법문입니다.

'지족공덕知足功德이라.'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안다 말입니다. 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기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헌데 이런 만족을 아는 공덕은 어떤 것인가 하니, 여등비구汝等比丘, 이것은 우리 비구뿐 아니라 사부대중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비구

들이 약욕탈제고뇌若欲脫諸苦惱, 만약 고뇌를 인생고를 없앤다 하면 당관지족當觀知足이라, 마땅히 족함을 우리들은 관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만족을 모르니까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망동을 취하고서 죄를 범한다 말입니다. 지족지법知足之法이라, 우리가 만족을 아는 법은 어떤 것인가 하니 이것은 '즉시부락안온지처卽是富樂安穩之處라.' 우리가 만족을 알면 그때는 재산의 유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족을 아는 그 마음, 청정한 마음으로 해서 그냥 그것이 부락富樂이라 말입니다.

'지족지인知足之人, 수와지상睡臥地上이라.' 비록 땅 위에 누웠다 하더라도 '유위안락猶爲安樂이라,' 오히려 안락스럽고 말입니다. 마치 공자가 물먹고, 나물 먹고, 팔 베고 누웠어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하듯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면 비록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다 하더라도 별로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별로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만족을 모르면 도처가 고통뿐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 극락이란 것은.... 원래 불성佛性은 무한의 가능성이 있어서 원래 불성은 무한대의 불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불성에 까지 못 가면 항시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불을 못해 놓으면 충족감을 못 느낍니다. 이성으로나 또는 돈이나 어떤 것으로나 성불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먼저 만족이란 뜻을 잘 모르면 도처에 불만뿐입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땅위에 누웠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락이 되는 것이고, 부지족자不知足者는 만족을 모르는 이런 사람은 수처천당雖處天堂이라, 천당 같은 우리 환경이나 물질은 풍족해서 모자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역불칭의亦不稱意라, 제 마음에 맞지 않다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부지족자不知足者 수부이빈雖富而貧이라.'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것이고, 반대로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하더라도 부자인 것입니다. 부지족자不知足者,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위오욕常爲五欲, 항상 오욕에 얽매여서 '지족자지소연민知足者之所憐愍 시명지족是名知足이라.' 따라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시 마음이 오욕의 노예가 되어서 참다운 만족을 아는 현자들에게 빈축을 받는 것이고, 가여운 마음으로 해서 연민밖에 못 받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이 구차하다 하더라도 역시 성자의 말은, 이것은 진어眞語라, 여어如語라, 성자의 말은 진어·여어입니다. 참 진[眞]자, 말씀 어[語]자, 성자의 말은 이것은 참다운 말입니다. 성자의 말은 여어如語라 여여한 말입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내 참다운 생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망령된 망아妄我가 아니라 진아가 나일 바에는 진아眞我로 가는 길, 참다운 청정된 길은 모두가 다 부자인 동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재산이나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참다운 자기를 모르는 길은 역시 가시밭길이고 구차한 것입니다. 학식이 많이 있고 또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자기 신앙을 생명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불성은 나에게도 있겠지, 이와 같이 이치로만 따지고 자기 생명으로까지 공감을 하는 그런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신앙 대상을 간절한 앙모심仰慕心, 간절한 그리움으로 구하는 그런 수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자기가 불성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워하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정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 현대인들은 배우는 것이 하도 바싹 마르고 또는 우선 물질에 오염되어서 말입니다, 우리 신앙 대상인 부처님을 생명으로 구하는 추구하는 앙모仰慕하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기독교인의 신앙으로부터 참고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리움으로 해서 부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념신해一念信解 공덕이라, 한생각 우리가 믿고서 해석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는 법문입니다. 기유중생其有衆

生, 어느 중생이 문불수명장원여시聞佛壽命長遠如是라,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해서 그때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을 듣고서 안다 말입니다. 우리는 법신 부처님을 단순히 이치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인 것이니까, 내가 생명이듯이 내 본질이고 천지 우주의 본질인 부처님 바로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주의 순수한 생명이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생명이 장원長遠이라, 특히 영생하고 또는 무량수인 것을 의미하고,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 부처님의 생명이 무량수임을 듣고서, 능생일념신해能生一念信解 소득공덕所得功德이라, 능히 한생각 믿고서 해석하는 것을 얻는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면 내가 부처지 하고서 그냥 자기를 초월하는 자기 본 생명 자리, 영원의 자리를 무시하면 그때는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내 생명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한 것을 듣고서 믿는 그 마음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때는 무유한량無有限量이라 한량이 없다 말입니다. 약유선남자선여인若有善男子善女人, 만약 불교를 믿는 그런 착한 사람들, 착한 여인들이 위무상도爲無上道이고, 해탈을 위한 무상의 진리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계행을 지키고 인욕을 하고 또는 정진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와 같이 바라밀을 많이 닦는다 하더라도, 이런 공덕은 비전공덕만분천분比前功德萬分千分 불급기일不及其一이라, 앞서 말한 부처님의 생명을 무량하게 믿는 그런 공덕에 비교하면, 그냥 그것을 모르고서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보시도 하는 공덕은, 부처님 생명의 영원스러운 것을 믿는 공덕의 천분의 일도 못 되고 천만분의 일도 못 됩니다.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역시 무량하다. 즉 영원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데서 불상숭배나 방편적인 신앙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오직 따지고 보면 이런 오바라밀五波羅蜜,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

정禪定 이런 오바라밀이 기초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을 이와 같이 공경스럽게 아! 그리운 부처님이시여! 하는 간절한 갈앙심渴仰心, 이런 갈앙심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경에서 일념왕생一念往生이라, 한 생각 청정하면 그 일념으로 해서 우리가 극락에 간다 말입니다. 다만 중생은 일념 그것이 순수하게는 못 되는 것입니다. 일념이 순수하면 그 즉시 신통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위가 불성뿐이다, 바위나 또는 공간이나, 나무나, 무엇이나 다 순수한 불성뿐이다, 불성은 물질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또는 내 몸도 불성뿐이다. 내 몸도 각 원소가 합해서 이와 같이 현상적인 사람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불성을 감추고 있는 살아있는 불성뿐인 것입니다. 헌데 이와 같이 모두가 다 불성뿐이라고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공간을 날아갈 수도 있고 신통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오염된 습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백 퍼센트 못 믿습니다.

'신만성불信滿成佛이라.' 믿을 신[信]자, 가득할 만[滿]자, 성불이라 말입니다. 사실은 믿음만 백 퍼센트 믿게 되면 그때는 그것으로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그렇게 못 믿는다 말입니다. 따지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또는 습기 때문에 가리어서 백 퍼센트 못 믿는 것입니다. 백 퍼센트 못 믿기 때문에 병도 안 낫고 공덕을 입지도 않습니다. 일체가 가능한 것이 불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단순 소박한 염불이라, 일념도 흐림이 없는 순수한 공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방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명이 무량무수無量無數함을 딱 느끼는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니 비록 금생 내내 보시하고 인욕을 하고 또는 정진을 하고 계행을 지키고 참선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덕은 부처님을 참답게 믿는 공덕의 몇 분의 일보다 못합니다. 이와 같이 갈앙하는 갈앙심渴仰心의 공덕은 큰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재가불자님들은 부처님을 갈앙하는 갈앙심渴仰心, 즉 우리

고향은 바로 극락세계이고 우리 참다운 자리는 부처님입니다. '자성미타自性彌陀 유심정토唯心淨土라.' 참다운 자기생명은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그리움 그것이 없으면 거기에 못 갑니다. 갈앙심이 순수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서 비약적으로 성불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만성불信滿成佛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끝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처님께서 맨 나중에 말씀하신 『유교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경전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여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기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언佛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문애도博聞愛道는 도필난회道必難會요, 널리 듣고서 도를 탐하는 사람들은 그 도를 반드시 만나기 어렵고, 학문의 바다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팔만장경을 다 공부한 뒤에 우리가 성불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성불을 못 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많이 듣고서 닦는 그런 행법은 도道를 만나기 어렵고 말입니다. 수지봉도守志奉道는 그러나 비록 학문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순수한 뜻을 지키고서 수지봉도라, 그런 진리를 받들고서 갈앙하면 이것은 그런 때는 도道 이것은 기도심대其道甚大라, 깊고 크다, 그런데서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은 문자를 배우지 말고서 마음을 딱 집어서 마음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복잡다기한 그런 것에만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닦는 가운데서 깨우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經을 미처 못 배우고 그런 잡다한 공부를 못한 분도 역시 이런 박문애도博聞愛道를 능히 듣고서 도道를 사랑하는 그런 것은 도필난회道必難會요, 그런 도는 반듯이 얻기가 어렵고 말입니다. 뜻을 받들어서 도를 희망하는 그런 순수한 길은 도가 깊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 설산에서 한고조寒苦鳥란 새는 찰 한[寒]자, 괴로울 고[苦]자, 말입니다, 한고조寒苦鳥란 새는 아주 게으름이 많은 새인데, 평소에는 설산

이 춥지만 낮에는 햇빛이 오니까 게으름 피우고 놀고, 밤에는 추우니까 후회하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도 성불의 길이 좋은 길이란 것을 대강 짐작하지만, 한고조와 같이 그냥 좋은 미끼에 빠져서 거기에 속아서 참다운 성불의 길을 못 갑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물속의 고기와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허망하단 말입니다. 또는 지금 곧 도살장의 소나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생의 제한된 운명입니다. 마땅히 머리에 불 끄듯이 자기 현재의 위치가 어느 위치라 하더라도 성불의 길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2. 천지 우주는 바로 무량광불無量光佛입니다

* 1989년 3월 19일 KOEX 대강당에서 서울 금륜회 창립법회시 설하신 법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출가해서 맨 처음에 받는 계가 사미십계沙彌十戒입니다. 사미십계 가운데서 여섯 번째가 불좌와고광대상不坐臥高廣臺上인데, 출가수행자는 청정한 생활을 해야 하므로 마땅히 자기 분수에 넘는 높고 또는 넓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저 산간 토굴에 있는 스님이 이와 같이 자기 분수에 넘는 높은 자리에 앉고 보니, 마치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 듯한 모양으로 굉장히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인연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할 수 없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열반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사자후결정설獅子吼決定說이라, 사자후는 부처님의 참다운, 조금도 에누리 없는 일승법문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장 수승한 법문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조금도 오류가 없는 그러한 법문이 사자후결정설인데,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여래상주무유변역如來常住無有變易이며 상주도량常住道場하시고 상전법문常轉法門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항시 계시면서 조금의 변역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불법을 성취하는 도량에 항시 머물러 계시며, 모든 중생이 다 본래면목을 성취하는 성불의 법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엄스러운, 우리 불자님들이 모이는 좌석뿐만 아니라 산간이나 마을이나 또는 하나의 싸움판이나 어디에나 부처님은 항시 계시면서 언제나 최상법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하고 떠나서 멀리 계시는 것인가?

부처님은 우리를 떠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부처님은 가득 차 계시며, 또한 우리가 안 보이는 공간에도 가득 차 계십니다.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 중생의 오염된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청정미묘한 법문이 항시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이 제한된 업장에 가리어져서 미처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서원이 충만된 우리 불자님들, 우리 소중한 법우님들을 대할 때 감격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 자리는 이렇게 평온스럽고 아늑합니다마는 한 발 나가면 정치싸움, 경제싸움 또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싸움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불자님들이 세상에 계시는데, 왜 사회는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인가? 현재 통계낸 것을 보면 기독교 인구, 불교 인구, 이슬람 인구, 또는 대종교 인구, 유교 인구 등 모두가 6,000만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종교를 믿고도 나머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이 자기 성찰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이건 불교이건 또는 무슨 종교이든지 간에 모두가 사람 사람끼리의 화합, 또는 고도한 도덕률을 내세워서 인간의 평화와 정의를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종교인들이 꽉 차고 종교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와 같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는 어째서 그러는가? 각기 자기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흐린 시냇물을 맑히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중류나 하류에서 이래저래 방편을 다 쓴다 하더라도 흐린 물이 맑혀지지가 않습니다. 흐린 시냇물을 맑히기 위해서는 저 상류에 올라가서 상류 근본을 다스려야 합니다.

중국의 황하를 중간에서 아무리 애를 써서 제방을 쌓고 별 짓을 다한다 하더라도 황하물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 상류에서 계속 토석 또는 누런 물이 흘러 내려오니 황하물을 조금도 맑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시도,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가지가지 종교의 덕목설, 도덕설 등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혼란스러움을 면치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른바 인간의 근본악, 기독교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원죄, 근본 원죄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무명無明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근본 악, 인간의 근본 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근본 무명과, 근본 무명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요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상대유한적인 여러 가지 시도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서는 사실 상대에 그쳐 버리고 불교의 말로 하면 윤회에 그쳐 버리고, 참다운 해탈이라든가 참다운 인간의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사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 같은 분은 초인을 내세워서 인간의 악을 제도하고자 애쓰고 또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 같은 분은 '실존은 휴머니즘이다.'라고 말해서 역시 인도적인 말을 내세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는 인간 사회는 제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각기 철인들이나 종교인들이 가지각색의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악 문제, 인간성에 원래 갖추고 있는 번뇌 문제, 근본 무명을 제도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를 이끄는 분들이 모두가 그 근본 인간성 문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철학 문제를 무시하고서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면 혼란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사인관세四人觀世라'는 네 사람의 차원 따라서 인간의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람들은 일반중생의 세상을 안락스러운 처소로 봅니다. 인간은 행복스러워야 하고, 음식도 잘 먹어야 하고, 기왕이면 옷도 화려하게 입어야 하는 등 인간의 의식주에 관해서 화려를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일반 범부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거기에 어긋나면 반발도 하고 비관도 합니다. 인간은 안락스러운 것이다, 인간은 그저 잘 먹고 잘살다가 쾌락을 만끽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기왕이면 명예나 어떤 것이나 남보다 앞서야 하겠다는 굳은 집념을 가진 분들은 모두가 인생의 목표를 안락이라는 데에다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금 더 올라가서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들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승은 인간을 과학적인 범위 내에서 보기는 보더라도 근본을 다 못보고 인간을 고苦로, 고통으로 봅니다. 어째서 고苦인가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과거 전생을 무시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과거전생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금생에 자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생명의 근원인 전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전생을 부인하면 인과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형태가 금생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분명히 과거전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생 생명은 과거 전생에 지은 대로 받습니다. 과거 전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정도로 밖에는 우리가 선근이 부족했기에 이렇게 인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올 때부터 그런 제한된 고통을 우리가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사, 많이 닦아서 천상에 올라갈 때는 나올 때부터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상중생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 안에서 고생하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중생들은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더 올라가서 극락중생들은 화생化生을 합니다. 극락에 관해서도 우리 부처님을 믿는 분들도 역시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도 합니다만 극락세계도 역시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극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차이 문제인 것이지 극락의 실존적인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극락중생들은 화생이라, 한생각 자기 마음으로부터 마음만 청정하면 그냥 순식간에 태어납니다. 따라서 극락중생은 나올 때 생의 고통이 없습니다. 생의 고통이 없으므로 거기에 따르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든가, 인간보다도 못한 중생은 응당 피할 수 없는 생과 늙음과 병과 죽음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 성품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적인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한계 상황을 인간의 성품은 절대로 만족을 못 취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성佛性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이 불성으로 하나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불안스러운 것을 면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구하는 것은 역시 무한을 구합니다. 행복도 지혜도 다 한계 없는 무한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복력이, 인간된 제한성이 그와 같은 무한의 복력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기에 불안스럽고 좌절을 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생은 소승이 보듯이 정말 고苦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고, 아직은 안 죽어봤으니까 죽음의 고통도 모릅니다만 누구나 늙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결국은 시일이 되면 가고 맙니다. 마땅히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그러한 제한된 인간이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고苦라고 생각할 때는 웬만한 것은 참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인생을 쾌락이라고 규정을 세운 사람들은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못 참습니다. 본래 인간은 응당 쾌락스러운 것인데 왜 고통을 받을 것인가? 그러나 소승들이 깊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은 다 고통뿐입니다. 안락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순간 찰나고 또 그 근원은 모두가 고苦에서 연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한 단계 올라가 보살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인관세四人觀世, 이것은 우리 중생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 것, 또는 소승은 어떻게 보는 것, 또는 보살이 보는 것, 또는 가장 본래면목 본래 인간자리에 들어간 부처가 보는 것, 이 네 차원에서 인간을 보는 견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살이 본다 할 때는 우리 인생이나 모든 것을 텅 빈 공空으로 봅니다. 내 생명,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하늘의 성수星宿와 뭇 산천山川이 있는데 왜 이것이 공空인가? 공空이라는 문제를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 관문을 잘 못 넘어섭니다. 그러나 텅 빈 공空이라는 관문을 못 넘어서면 인생의 고액을 면하려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하니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라, 오온법五蘊法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 즉 우주만유의 모든 현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오온법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일체존재가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 다 비어 있음을 비추어 통찰해야만이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라, 인생고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박학다식博學多識하더라도 인생 모든 존재가 비었다 하는 본래적인 투철한 견해가 없으면 인생고는 못 떠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자기 개인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또한 가정적으로 불화스러운 것도 모두가 다 텅 비었다 하는 공空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불교인들이나 현대인들의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한사코 제법개공諸法皆空이라, 하는 공空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공空인 것인가? 분명히 있는데 왜 공空인 것인가? 가장 정밀과학이라는 현대물리학에서도 분명히 물질은 분석해 들어가면 나중에는 텅 비어버린 에너지만 남는다는 것을 증명했지마는, 배운 사람도 역시 공空, 그러면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 당시에 그런 무식한 때에 공空을 말해본들 어떻게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문도 초기에는 쉬운 것부터,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와 같이 중생의 업장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차원, 실존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텅 비었습니다. 왜 비었는가? 용수보살龍樹菩薩이 지으신 『중론中論』에 보면 인연소생법因緣所生法 아설즉시공我說卽是空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생겨난 법은 모두가 다 곧바로 공이다. 분석한 뒤에 공이 아니라 즉시공卽是空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이 아니라 색즉공色卽空, 물질이 바로 공空입니다. 다만 그런 견해의 차이가 업장에 가려있고 무명을 못 떠나는 우리 중생이 생각할 때 명명백백히 있지마는, 우주의 본 실상을 볼 수 있는 성자의 청정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백백히 바로 공空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인연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因과 연緣이 잠시 합해서 순간도 머물지 않는 것이 일체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원자구조를 보건 분자구조를 보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본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든 모두가 잠시 합해져서 순간 찰나도 머무름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만법유전, 만법이 모두가 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만법이 다 순간찰나도 머무름이 없이 운동하고 있는데 어떠한 존재도 고유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아무리 자기 얼굴이 잘났다고 하더라도, 순간 찰나 앞과 순간 찰나 뒤와의 얼굴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생이 차이를 못 볼 뿐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역시 그때그때 신진대사가 되어서 구舊 세포는 죽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그것을 못 느끼니까 내 창자는 항시 그대로인 창자다. 또는 막 태어난 나와 오십이나 육십 먹을 때의 나는 똑같다. 이와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한 원자구조는 불확정성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일정한 것이 없는데 하물며 그런 원자가 모여서 원소가 되고, 또

원소가 모여서 각 분자구조가 되고, 그런 것이 모여서 이루어진 물질이 일정하니 고유한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사 전자현미경으로 본다고 할 때, 잘난 자기 몸뚱이나 자기 얼굴 등 어떤 것이든 모두가 하나의 산소나 수소 등 각 원소가 빙빙, 결합되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밖에 아닌 것인데 우리는 고유한 자기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는 엄격한 실존론實存論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가 우주의 실사에 입각한 것입니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법문, 낮은 법문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본뜻은 모두가 다 실상에 입각해서 우리 중생을 실상까지 이끄는 법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개인적인 갈등 혹은 어떠한 조직체의 갈등이나 반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 천지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으니 내 소유나 자기에 딸린 권속이 자기의 것이라고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 되는 책임을 망각하고 어머니 되는 자기 위치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연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자기 성불을 도모하고, 자기 권속의 성불을 도모하고, 자기 벗의 성불을 도모하고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본래는 텅 비었다 하는 본래적인 실상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사실은 보살이 텅 빈 공空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空으로 보는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것이 못됩니다. 다만 현상적인, 우리 중생이 보는 그것만 비었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허무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유심唯心입니다. 이와 같은 모양

을 하고 있는 이 몸도, 또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금도 다이아몬드도 이것이 다 오직 마음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중생들은 납득이 안가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 마음일 것인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많은 불자님들이 모여 계신데 왜 이분들이 모두가 다 마음일 것인가? 그러나 분명히 이것도 명명백백히 마음입니다. 삼계유심이요, 만법유식이라. 비단 이 경계뿐만 아니라 천지 우주가 다 마음뿐입니다.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삼계 모두가 다 식識뿐입니다. 삼계유심三界唯心이란 말이나 만법유식萬法唯識이란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이 자리는 참선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훌륭한 지성적인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가사 우리가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보신 안목을 우리 안목으로 하지 못하는 한에는 참선이라고 말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두가 다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유심唯心을 꼭 잘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개인적인 갈등도 쉬고 참선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모두가 다 마음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살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가 다 텅 빈 공空입니다. 공空, 여기까지는 현대물리학도 역시 다 증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은 결국은 끄트머리 가서는 다 에너지만 남아버립니다. 알맹이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그 무엇이고 결국 보다 미세한 데에 가서는 −, + 라는 전하電荷도 없고 또는 물질이라는 질량質量이 없습니다. 질량이 제로[0]이고 전기적인 대전관계도 제로[0]이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밀과학인 물리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물리학이 저 에너지가 되어버리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는 그 소식을 다 알면 좋은데 물리학은 거기까지는 다 모릅니다. 어느 학문도 어느 종교도 물질이 텅 비어버리는 그 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알고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인들이 아전인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궁금한 문제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또한 물질의 본질은 무엇인가? 물질과 인간성의 상관성은 무엇인가? 이것도 궁금해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 물질의 본래면목이 무엇인가 또는 물질과 정신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부처님 법문은 이 문제가 다 풀려있습니다. 풀려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잘 믿지를 않고 또는 공부를 않기 때문에 여실히 못 느끼는 것입니다.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元功德母라, 어느 것 하나 틀림이 없이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옳고 중간도 옳고 마지막도 옳습니다. 여법합니다. 또 부처님뿐만 아니라 마하가섭이 증명하고 아난존자가 증명하고 용수龍樹가 증명하고 달마達磨가 증명하고 육조 혜능慧能스님이 증명하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증명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은 일생을 가장 철저히 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계행 청정해서 자기 몸뚱이 중생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사심 없이 자기 평생을 통해서 증명한 이런 길이 호리毫釐도 거짓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는 다 알지 못하고 증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믿기라도 분명 믿어야 합니다.

만법이 다 물질이 텅텅 비어있지마는 텅텅 비어있는 저쪽이 무엇인가? 가사 원자력 가운데 들어있는 그 무시무시한 기운을 보십시오. 핵분열에서 나오는 기운이 원자폭탄 아니겠습니까? 핵융합으로 나오는 기운은 수소폭탄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안 통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미세한 존재 가운데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본다고 생각할 때 저 에너지로 되어버리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비록 물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에너지만 되어버리는 그 자리, 물질은 텅 빈 그 자리가 무시무시한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만 되어버리는 그 자리, 순수한 그 자리, 물질이 아닌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 '일체만법一切萬法이다, 만유萬有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이렇게 성겁成劫이 되었다가, 우리 중생이 살다가 다시 파괴가 되어서 텅 비어버리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것은 지금 물리학이 증명합니다마는 분명히 천지 우주는 각 성수星宿나 은하계나 다 파괴되어 텅텅 비어버립니다. 텅텅 비어버리는 그 자리가 되어도 역시 에너지는 남습니다.

순수한 생명은 남는 것입니다. 순수한 생명 그것이 불심佛心입니다. 그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나 모두가 다 일체존재의, 일체 모든 물질의 근원이 에너지만 남거니,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공色卽空이요 공즉색空卽色이라, 물질은 바로 에너지요, 에너지는 바로 물질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 가운데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인연이 합해지면 다시 천지 우주가 성겁으로 해서 형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수무량의 각 중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정말 부처님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기묘묘奇奇妙妙합니까! 기기묘묘한 중생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할 때 에너지 가운데 들어있는 그 힘은 무시무시한 무한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에서, 번뇌를 녹여버린 성자의 경계가 아라한과인데 그 아라한과를 성취한, 나유타 아승지겁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성자가 모여서 무량 세월을 두고 그러한 불성, 즉 마음에 들어있는 공덕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도 원만하고 지혜도 원만하고 능력도 원만하고 행복도 원만한 그런저런 공덕들을 우리 같은 중생들이 헤아릴 때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만, 삼명육통三明六通을 다 통달무애通達無碍한 아라한과를 성취한 도인들이 무량 무수가 모여서 부처님 가운데 들어있는 즉 불심 가운데 들어있는 공덕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혜가慧可스님이 달마達磨스님한테 가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거두어서 밝혀 주십시오." 달마 스님께서 "그러면 그대 마음을 가져오너라." 혜가慧可가 제 아무리 자기 마음을 더듬어보아도 자기 마음이 처소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심장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발에도 있지 않고 자기 손에도 있지 않고 자기 등 뒤나 자기 앞에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도 없지마는 결국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잡을 수 없는 하나의 영지靈智에 불과한 것인데, 영지靈智도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명백백히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끝도 갓도 없는 자비와 지혜와 일체공덕이 다 갖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덕을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 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 마음 공덕이지만 이러한 범주로 해서 우선 체계를 세우면 상락아정이란 말입니다. 항상 있거니, 그때는 영생불멸해서 생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생사를 떠나 있습니다. 낳음도 원래 없고 죽음도 원래 없습니다. 그저 몸 따라서 몸이 죽어지면 이 몸뚱이 쓰다가 낡아지면 옷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지만 우리 마음 우리 생명 자체는 죽지 않습니다. 거기다 업을 지어 놓으면 업에 따라서 다른 몸을 받겠지요.

즉, 이와 같이 부처님이 보신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 다 심심미묘한 마음뿐인 것입니다. 청정무비淸淨無比한 마음,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마음,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은하단이 있다 하

더라도 모두가 다 마음뿐입니다. 하늘에 총총한 무수억 별도 모두가 다 마음뿐입니다. 청정무비한 마음세계에서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나툴 뿐인 것입니다. 지구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모두가 다 청정무비한 마음세계, 순수에너지는 마음 세계에서 인과의 법칙 따라 그때그때 잠시간 모양을 나툴 뿐입니다.

몇 억년 또는 몇 십억 년 몇 백억 년 되면 지구도 허물어지고 각 별도 허물어집니다. 지금 물리학이 이것 역시 다 증명 했습니다. 블랙홀이라. 나중엔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에너지의 작용 따라 다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때는 우주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천문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중생은 어두워서 모두를 다 안락스럽게 보지마는 사실은 안락스러운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과학적으로 보는 소승이 볼 때는 우주를 고苦로 봅니다. 그러나 우주를 고苦로 보는 것도 역시 현상적인 관찰뿐인 것이지 본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현상의 본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보살이 볼 때는 우주가 텅 비어있습니다. 『반야심경』 사상이라든가 『금강경』 사상은 보살이 보는 우주가 텅 비어있다는 색즉공色卽空입니다. 우리가 공空을 말한다 하더라도 분석한 뒤에 다 쪼개 가지고서 공空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같으면 사람 그대로 바로 공空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공空을 생각할 때 석공析空이라, 분석한 뒤의 공空을 보고 석공이라 합니다. 분석치 않고 사물 그대로 바로 보면 즉공卽空이며,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것이 즉공인 것입니다. 다만 견해가 무명심無明心이라든가 삼독심三毒心, 즉 탐욕심이나 분노심이나 어리석은 마음의 어두운 중생이 볼 때는 분명히 다 있지마는, 삼독심을 떠나고 무명심을 떠나버린 성자가 볼 때는 명명백백히 다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육조 혜능慧能스님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하처야진애何處惹塵埃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이 보살이 볼 때는 텅 비어서 본래무일물, 즉 물질이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나 죄나 악이 붙어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근본에서 보면 다 이런 것인데 우리 중생은 그렇게 못 봅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천지 만물을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실상견實相見, 다시 말하면 불안청정佛眼淸淨이라. 부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천지 우주가 다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즉불心卽佛 곧 마음이 바로 부처이므로 천지 우주는 부처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존귀해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어야 비로소 존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문을 떠나서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상대유한적인 인간의 가치 차원으로 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존엄이라는 것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가장 존귀해야 존엄이라고 붙일 것인데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했다, 인간이 죽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다, 인간은 이렇게 불법을 좀 믿기는 믿지마는 그렇고 그런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울 수가 있는 까닭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비록 지금 현재는 고苦만 느끼고 인생고人生苦만 볼 수 있는 소승 경계밖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또는 아직은 더 미숙해서 인생안락人生安樂이다 하는 의식주만 최고로 알고서 거기에 몰입하는 이른바 물질지상주의자 경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견해만은 '인간은 바로 보면 본래가 마음뿐이다. 본래가 오직 부처님이다. 사람만 부처님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바로 보면 다 부처님뿐이다.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다. 천지 우주는 부처님 생명이다.' 이렇게 느껴버리고서 자기를 그 자리에 맞추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가 그와 같이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믿고 행하는 데에서 비로소 인간은 존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야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비길 수가 없는 것이지 상대유한적인 인생관으로 해서는 존엄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하고 화합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시대적 과제로 지금 남북통일을 간절히 희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시킬 것인가. 각기 자기들 입장과 위치에 따라서 가지각색의 이론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이데올로기 그런 차원에서는 완전한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창한 남북통일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끼리의 화합도 역시 근본적인 인간해석, 바른 가치관이 없이는 참다운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참다운 벗이 되고 참다운 아내가 되고 참다운 아버지가 되고 참다운 불자가 되고, 어떠한 입장에 있던 가장 최선으로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은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가르침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만의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시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 하고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장담하지마는 누가 그것을 본 적도 없는 것이고 혹은 우리가 증명하지 않는데 당신 홀로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어떻게 믿을 것이냐'고 예수님한테 따져서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나는 내 생명이 어디서 온 줄을 알고 있으며 또한 제한된 내 몸뚱이인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하느님이 말을 한다. 따라서 내가 한 말, 이것은 하느님이 증명하고 천지 진리가 증명하거니 공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성자聖者라 하면 비단 예수뿐만 아니라 공자孔子나 소크라테스나 노자老子나 어느 분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천지 우주의 진리에 입각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인입니다. 우주의 본바탕을 모르면 성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자라는 것은 인간의 본래 생명, 우주의 본질을 알아야 성인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제아무리 내세워 보아도 자본경제라는 것은 역시 모순구조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범부끼리 서로 경쟁을 하여 자기사업이 보다 더 잘 되게 하고 또 자기가 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범부라는 것은 그런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경쟁적인 걸로 해서 이북이 그냥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북은 어떤가. 공산체제는 어느 면으로 해서는 그야말로 경제면의 공정을 기한다 할지라도 번뇌를 못 떠나버린 일반중생이 다시 말하면 아상我相을 미처 못 떠나버린 사람들이 제아무리 공정公正을 기한다 해도 참다운 공정이 못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통제를 많이 하면 그때는 가장 소중한 인간의 자유를 훼손시킵니다. 따라서 이북적인, 김일성 주체주의 그것으로 남한까지 전부 다 포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이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남한주의도 이북이 승복을 못하는 것이고, 이북의 주의도 역시 남한이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적당히 이북의 좋은 점, 이남 좋은 점, 자본주의·자유사회 좋은 점 또는 통제경제의 좋은 점, 이것저것 섞어서 절충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것 역시 임시에 불과할 뿐 중생이 만드는 것들은 완전무결한 화평이나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이데올로기를 다 넘고 모든 주의를 다 넘어서 가장 기본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타당한 진리에 입각해서, 저 높은 자리에서 사방을 다 보고 말입니다, 진리의 궁극에서 진리의 기본에서 이북도 보고 이남도 보고 그 높은 자리에서 비판해야지, 같은 레벨 정도로 해서, 일반중생 차원에서는 상대편의 좋은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중생들은 「바이블Bible」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 마음에나 자기 눈에는 서까래 같은 번뇌가 있는데, 남의 눈에 남의 가슴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 같은 것에만 관심을 둔단 말입니다. 내가 범부이고 내가 아직은 성자가 못되는 정도에서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범부는 자기 스스로 자기 번뇌 떼는 데에 열중해야지 정말 양심이 있다면 범부인 한에는, 성자가 못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 안목을 맑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의 장점과 단점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번뇌 어두운 사람들은 남의 장점도 볼 수가 없고 단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번뇌 없이 청정한, 맑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거니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지마는 맑은 안목, 본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원수도 없고 미운 사람의 씨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니까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시냇물이 혼탁할 때에 시냇물을 맑히기 위해서는 저 상류, 인간의 근본악, 인간의 원죄를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자나 현자나 철인이나 다 그 자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중생이 그걸 잘 안 믿습니다.

각 무수한 성인들이 우리한테 일구여출一口如出로 말씀하신 우주의 도리를 지키면 굉장히 쉬운 것인데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락이라는 것이 오욕五慾을 마음대로 누리고 풍족한 물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산간에서 고행하고 아주 검소한 생활은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의 도리를 잘 모르시는 말입니다. 불가佛家에서 공부할 때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해서 우리가 맑아지면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라, 우리 중생의 경계를 떠나서 맑은 경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중생이 느낄 수 없는 참다운 법락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느끼는 낙樂은 속락俗樂, 즉 상대유한적인 안락인데 정말 공부를 깊이 하면 속인적인 오욕락을 떠나서 영원적인 영생불멸의 법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법락法樂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불도 열심히 하고 참선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는 자기 업장이 녹아짐에 따라서 법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법락이 한번 나오면 법락은 후퇴가 없습니다. 법락을 모르니까 불교를 믿는다 해도 부처님 법에 어긋난 짓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空이다 라고 느껴져야 만이 비로소 법락을 느낍니다. 따라서 법락을 한 번 느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두를 남을 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 역시, 어떠한 물질이라든가 제한적인 하나의 주의를 떠나서 그야말로 상대를 떠난 절대주의, 영원적인 차원에서 보아서 우리가 취사선택해야지 그냥 같은 차원에서 본다 할 때는 결국 다툼을 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합할지는 모르지만 그럴 경우 결국 하나마나 다시 혼란스럽게 되고 맙니다. 오직 문제는 근원적으로 고차원高次元에서 가정假定을 떠난 무가정無假定의 원리原理에서 봐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부처님께서 우주와 인생을 보신 것이 유심관唯心觀입니다. 모두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두를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곧 마음이니까 말입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굉장히 더럽기도 하고 아주 비겁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달마達磨스님께서도 '마음, 마음, 마음이여, 마음을 찾기가 가히 어렵구나. 마음을 좁히면 옹졸하기가 바늘구멍도 못 들어가고 마음을 넓히면 마음 넓기가 삼천대천세계 천지 우주를 다 포섭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좁은 쪽으로 보면 천지 우주가 다 마음뿐이거니, 바늘만 아니라 먼지나 하나의 소립자나 어떤 것이든 모두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가 마음뿐이니 마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마음보다 더 넓은 것도 없고 마음보다 더 작은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쁜 것도 마음보다 더 나쁜 것도 없습니다. 잘못 쓰면 결국은 가장 나쁘단 말입니다. 젊은 세대는 미처 못 느낍니다마는 6 · 25 전쟁 때 저희 같은 세대는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들, 어떤 경우는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 역시 그 상황에서는, 별로 죄가 없는 사람을 장작이나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평소에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상황 따라서 마음의 동물성이 발동되게끔 환경이 되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잘못되면 사람처럼 싸움 좋아하고 남 배신 잘하고 잔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부처 아니겠습니까! 부처라는 이런 고귀한 차원을 유물론자는 알 까닭이 없습니다. 김일성이 주체주의를 말합니다마는 그 주체는 유물론唯物論에 입각해서 모두가 물질이고, 역사의 발전이라 하는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말해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는 인간성의 본질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성이 소중하다, 인간성의 본래면목이 부처다, 하는 여기까지는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인간성을 보다 더 추구하는 분들, 인간성의 존엄성을 내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유물론자의 굴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본주의 구조 역시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응당 우리가 과감히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는 재산, 내 회사, 모두가 내 것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잠시간 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가 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의 진정한 통

일을 위해서도 역시 시기가 언제 오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처님의 사상, 모든 것을 바로 보는, 근원에서 보는 사상을 갖는 우리 불자님들이 차근차근 수가 불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디 오건 빨리 오건 간에 보다 확실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현대과학에서 미처 모르는 정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다만 상대유한적인 물질세계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는 형이하학적인 물질세계도 다 알고 또 물질보다도 훨씬 근원적인 에너지세계 그런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압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 물질세계 또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정신세계를 다 통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물질세계만 겨우 분석하고 거기에서 콱 막혀있는 과학이 보다 더 생생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세계가 아닌 정신세계, 순수에너지세계,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무한 광명세계를 알아야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과학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도 과학이 보다 더 생생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와 같은 종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종교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우리 불교인들이 이천만이라고 합니다마는, 너무 과장된 말로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불교인들 이천만보다 더 많겠으므로 종교인구 통계수치를 합치면 우리 한국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가는 과장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종교인구를 생각해 볼 때 한국을 비롯한 세계 불교인구가 거의 십억쯤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도 불교보다 더 많은 십억보다 많든가 적든가 하고 그리고 또한 몇 백 종의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의 철두철미한 신앙체계이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종교가 가장 좋다고 치켜세우고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확신도確信度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신앙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남을 배격하고 편견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세기에서 기독교의 십자군원정, 또 영국과 프랑스의 30년 전쟁을 보면 모두 종교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동설地動說을 부르짖다가 화형에 처한 브루노(Giordano Bruno, 1548~1600)와 같은 중세기 철인哲人을 봅니다. 이렇게 평화나 정의를 위주로 하는 종교 밑에서 도리어 그런 잔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처럼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다시 비참한 짓을 안 할 것이다, 남북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다, 세계인들은 1차나 2차 대전 같은 무시무시한 전쟁을 안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모양은 꽤 화려하고 찬란스럽습니다마는 인간성 자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회만 되면 다시 전쟁도 하고 무시무시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선 이란과 이라크의 7년 전쟁 보십시오. 같은 이슬람교도인데 7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펼쳤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법집法執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견해가 옳다는 독선적인 법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양편이 다 법집을 떠나서 정말 이슬람사상이 철두철미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 불교를 보십시오. 벌써 파가 몇 파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부끄러워서 불교의 이야기를 할 엄두도 못 냅니다마는 하여튼 무슨 종파 무슨 종교이든지간에 이와 같이 분파되고 분열된 상황을 보십시오. 과연 종교가 필요한 것인가? 종교의 상황을 볼 때 정의감에 불타는 분들은 종교의 무용론無用論을 펼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도 문중 대립으로 얼마나 추태를 많이 보입니까. 이런 것 역시 다 부처님 법을 떠나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법집을 못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불법뿐만 아니라 일체종교가 모두 다 법집을 떠나서 울타리를 헐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불교인의 경우에 아집我執이라 하는 나我라는 관념은 제법공諸法空이다 하니까 대강 떠나지마는 법집을 못 떠나니까 각 종파가 대립해 싸우는 것입니다.

『아함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문이 부처님께 가서 "당신은 괴로움 또는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무엇을 잃었기에 내가 괴로워하고 근심할 것인가?" 하셨습니다. 부처님 안목에서 본다고 할 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님뿐인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그 바라문이 다시 "당신은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선 "무엇을 얻었기에 내가 기뻐할 것인가!" 하셨습니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 다 원만구족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사실 잃음도 없고 새로 다시 얻음도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이므로 나한테 있는 본 생명이 일체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부처이므로 새삼스럽게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 봐서 허투로 보는 것이지 바로 보면 그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어버리면 또는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도 한없이 무량법락無量法樂이 있으며, 모든 문제를 근본 본질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잃음도 없고 또는 얻음도 없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독선을, 법집을 떠나버리면 나와 남의 한계가 없고, 좋다 궂다 하는 시비가 있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승찬(僧璨, ?~606) 대사가 『신심명信心銘』에서 '지도무난至道無難이요 유혐간택唯嫌揀擇이니' 이것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가 않다, 다만 중생의 섣부른 상대적인 지식 가지고 옳다 그르다 모두 시비분별 하니까 어려운 것이니, '단막증애但莫憎愛하면 통연명백洞然明白이라' 미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관념만 떠나버리면 훤히 틔어서 천지 우주가 다 부처뿐이란 말입니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번뇌의 시초입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시초가 무엇이냐 하면, 원래 본래면목이 청정미묘한 불성인데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그때는 그것이 무명심이 됩니다. 따라서 '단막증애하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만 떠나버리면 '통연명백이라.' 천지 우주가 오직 청정미묘한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자입니다. 그런데 도본무이道本無二라, 원래 도道라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예수나 공자나 노자 같은 분들이 성자가 아니라면 석가모니 마음하고 다르겠지만 성자라고 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과 둘이 아닙니다. 성자라는 것은 우주의 본바탕, 인생과 우주의 본 진리를 보고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분들이 물론 역사적 배경 따라서 약간의 표현은 다르고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 중생의 그릇 따라서 설법하는 여러 가지 방편은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 줄거리, 우주의 본바탕,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불교인도 마음을 가다듬어서 기독교의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 또는 「누가복음서」의 구절을 보십시오. 물론 부처님 가르침같이 철저한 것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중요한 법문은 같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것을 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아귀다툼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히 힘의 낭비일 뿐입니다. 한세상 살다가는 인생, 몇 십 년 살다마는 인생, 정말 부처님만 믿어도 오히려 짧은 세상입니다.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성불의 길을 닦아 나아가야하는 것입니다.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만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런 짧은 동안에 기독교나 유교나 모두가 근본은 불교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무슨 필요로 공연히 비방하기 위해서 힘을 낭비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마땅히 아집我執 곧 나라는 집착을 떠나고, 또는 내 종교만 옳다하는 자기 관념상 즉 법집法執을 떠나버린다면 각 종교의 울타리나 벽은 저절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종교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종교 무용론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니까

그냥 내가 한생각 돌이키면 곧장 부처가 되겠지, 이렇게 부처경계를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부처님 공부하는 가장 지름길, 그야말로 가장 성불의 정문이라 하는 것은 참선 아니겠습니까? 참선을 우리는 성불의 정문正門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인들은 모두가 다 참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분들도 어느 분들은 염불이나 주문은 하기 쉬운데 참선은 어렵다 하고 처음부터 참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참선같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참선의 별명別名이 안락법문이라, 즉 안락스럽단 말입니다. 어째서 안락스러운가 하면, 참선하면 몸도 개운하고 좋아져서 생리건강에 좋고 또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마음도 개운하고 또 자기 분위기도 고요해집니다. 우주의 도리에 안 따르면 참선이 못됩니다. 참선이란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이므로 누구한테나 참선은 좋습니다. 가사,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저만큼 어딘가에 계신다, 계시다가 열심히 염송하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염불은 되어도 참선은 못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저것이 무엇일까, 그런 의심하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할 때라도 우리가 그냥 상대적인 문제나 의심하고 있으면 참선이 못되는 것입니다.

본래면목 자리를 분명히 추켜들어야 합니다. 불심 자리를 안 떠나야 비로소 참선이 됩니다. 보조국사 「어록」의 돈오頓悟라는 대목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시불本來是佛이라, 본래 부처니까, 무한의 공덕이 본래 갖추어 있고 그 공덕이 부처와 더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딱 느끼고서 참선해야 돈오頓悟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돈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됩니다마는, 따라서 부처라 하는 우리 마음의 본래면목 자리를 분명히 느끼고서 그 자리를 안 떠나려고 해야 선禪인 것입니다.

가사, 관세음보살님을 외운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저만치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의 자리, 천지 우주가 부처님뿐인데 천지 우주의 부처님 자비가 관세음보살이다, 부처님 지혜가 문수보살이라고

느낄 때는 그것이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좋아서 하느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천지 우주가 모두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느끼고서 하느님을 부르면 참선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현상적인, 유한적인 문제를 떠나서 절대적인 본래면목에다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하고 안주安住를 시킨다면 모두가 참선이 됩니다.

더 완벽히 말하면 천지 우주는 바로 지금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다 부처거니 바로 참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지 우주의 그 도리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참선이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여묘포서如猫捕鼠라 합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조금만 한눈팔면 쥐가 하도 잽싸니까 도망가고 맙니다. 집중해서 노려야만이 쥐가 도망 못가고 고양이한테 잡힙니다. 그와 같이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천지 우주가 부처 아니라는 생각이나 나와 남이 따로 있고 분별 시비하는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서, 모두가 다 무량공덕을 가진 부처뿐이라는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한눈팔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은 과거전생에 지은 버릇, 금생의 버릇이 굉장히 많아서 자꾸 마음이 빗나갑니다.

그때는 여계포란如鷄抱卵이라, 마치 어미 닭이 계란을 안 듯이 말입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부화할 적에 21일 동안을 제대로 안아야 하는데 사흘 정도 안다가 그냥 훌쩍 떠나버리면 계란이 병아리가 못 됩니다. 21일 동안을 진득하게 참고 참아야 만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부처인데도, 즉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힘이 다 갖춰 있는데도 참아야 하듯이,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한눈팔지 않고 부처님 자리를 지켜서 염념상속念念相續 이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일행삼매一行三昧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부처다 하는 것은 일상삼매一相三昧에 해당하고 그러한 일상삼매, 천지 우주가 다 부처뿐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은 일행삼매一行三昧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천지 우주가 부처뿐이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일행삼매를 또한 금강삼매金剛三昧라고

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무염오수행無染汚修行, 즉 오염되지 않은 수행이라 합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좋다 궂다 시비를 가리고 또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괜히 해대면 그것이 오염된 수행인 것이지 무염오수행이 못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범부라 하더라도 역시 참선할 때는 적어도 내가 부처가 다 된 셈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부처님이므로 부처님을 안 떠나고서, 잘나도 부처님 못나도 부처님 넘어져도 부처님입니다. 죽으나 사나 옆을 보나 뒤를 보나 모두 다 부처님뿐입니다. 따라서 그 생각을 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禪이 됩니다. 즉 본래면목을 안 떠나는 것이 선禪인 것이고 그래야 오염을 떠난 무염오수행입니다. 무염오수행이 되어야 그때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인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님뿐이라는 생각을 딱 해야 비로소 돈오頓悟인 것이고 말입니다. 물론 이론도 더러 있을 수가 있으나 그 생각을 안 떠나고 수행을 해야 돈수頓修란 말입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님의 생명의 광명이기 때문에 대일여래大日如來라, 우주가 바로 대일여래입니다. 또한 우주의 생명이 나한테 똑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거니, 너와 나와 우리가 둘이 아니거니, 일체존재는 다 간격이 없이 불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님의 광명뿐이거니, 비로자나불이라, 광명변조 즉 광명이 두루 해 있다는 말입니다. 비로자나불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광명변조입니다. 에너지 광명이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물질의 근원에는 광명만, 불성광명만 충만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광명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도인들은 모두 그런 광명을 보고, 자기 생명과 자기 모두와 광명과 하나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무아無我, 무소유無所有라, 나와 남이 없고 또 내 것이 없습니다. 그

러기에 나무아미타불이라,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량광불無量光佛, 부처님의 광명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 무량광불입니다. 그 가운데는 행복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안락 모두가 충만해 있기에 환희장엄불歡喜莊嚴佛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충만해 있습니다.

광명과 행복과 환희가 우리 자성,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은 그것뿐인데 우리가 잘못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치를 하나 또는 경제를 하나 또는 학교 스승이 되나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인생의 본래면목 자리를 딱 느끼고서 그 자리를 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의 차원에서 봐야지 그냥 중간쯤 되는 데에서 본다면,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시야비야是也非也하고 맙니다. 우리는 순간찰나도 영원의 차원에서, 불성 차원에서 문제를 조감하고 반조返照해서 봐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동 하나를 모두가 성불하기 쉽듯이 말입니다. 우리 이웃을 모두가 성불로 이끄는 것이 우리 불자의 보살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 우주는 바로 무량광불無量光佛입니다. 대일여래입니다. 천지 우주는 부처님 광명으로 충만된 비로자나불입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똑같은 아미타불인 것이고 우리 자비는 관음보살이고 우리 지혜는 문수보살입니다. 조금도 간격과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인간은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 가득 차 있는, 더 나을 것이 없는 가장 고귀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생에 한사코 성불하십시오. 우리가 성불할 때 우리 이웃도 정화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도 정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3. 본래가 부처라

* 1986년 12월 15일 태안사 정중당淨衆堂 완공 법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간에 어떤 입장에 있든지 자기 스스로 마음의 그런 안락한 행복을 추구해서 마지않습니다. 지위가 높고 또는 재산이 많이 있고 학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안락하지 않으면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이것은 마음이 첫째 안락安樂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마음이 안락할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교양 정도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해답이 나오겠지만, 어느 사건이나 또는 어느 사물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런 문제에 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 우리가 어느 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의 순리를 잘 모르면 그냥 불안스럽습니다. 특히 인생의 행로란 것은 굉장히 복잡다기합니다. 갈래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란 대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 마음이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고식적으로 옷이 좀 풍부해서 따뜻하게 입고 또는 배불리 먹고 또 안정된 자기 가정이 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걸로 해서는 그때그때 순간적인 상대적인 그런 행복은 느낀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행복은 못 느낍니다. 모든 문제의 인과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집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보고의 말씀처럼 정중당淨衆堂 집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인因과 연緣이 같이 복합적으로 합해져 있습니다. 시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모든 마음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원인 또는 간접적인 인과를 다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온 우주 어떤 것도 역

시 그 연緣이 거기에 같이 곁들여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조금 멀고 가깝고 그런 원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것도 거기에 다 같이 동참되어 있습니다.

태안사에 안 나오신 신도분들 또는 불교를 안 믿는 분들 또는 저 방글라데시나 저쪽 남아프리카 사람들 또는 비단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동물・식물・무생물 모두가 다 태안사 정중당淨衆堂을 이루게 하는 인연으로 모두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말로 하면 중중무진重重無盡이라, 얽히고설키고 몇 중 겹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인연이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 태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만이 원인이 아니라 무수무량의 인因과 연緣이 거기에 합해져 있습니다.

허나 우리 범부들은 그냥 직접적인 가까운 인연만 따지고서 간접적인 인연을 모릅니다. 인과율의 그런 깊은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부모만 소중하고 남은 소중하지 않고 말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조건이나 모두가 천지 우주가 거기에 다 같이 동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마디의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인과를 해박하게 모르고 인과에 밝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안정을 못 취합니다. 항시 불안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인과를 모르면 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합니다. 나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문을 들어서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각 원소가 모여서 되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은 또 무엇인가. 마음은 하나의 그 신령스러운 하나의 영령에다가 금생에 나와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자기 마음입니다.

각 원소가 합해있다는 각 원소를 떠나서 불교말로 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地・수水・화火・풍風 아닙니까. 탄소・수소・산소・질소가 모여서 자기 몸이 됐습니다. 산소를 떠나서 내 몸이 없고 수소를 떠나

서 내 몸이 없습니다. 또 마음도 역시 어버이한테 배우고 또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떠나서 자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볼 때는 이런 합해진 연緣들을 해오解悟해 버리면 그때는 자기란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바람 기운 떠나서 내가 없고 물 기운 떠나서 내가 없고 부모 떠나서 내가 없고 또는 스승 떠나서 내가 없고 말입니다. 일반 사회인 떠나서 그때 내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연緣들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원각경圓覺經』에 범부미도凡夫迷倒라, 원래 본질에서는 성자와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만, 우리 현실에서는 분명히 성자와 중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리만 따져서 범부와 성자가 따로 없다 모두 다 부처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리에 있어서는 본래시불本來是佛 본래 부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처럼 인과를 깨달은 성자와 인과를 미처 못 깨달은 범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범부미도凡夫迷倒, 미혹 할 미[迷]자, 거꾸로 도[倒]자, 범부가 잘 몰라서 거꾸로 보기 때문에 사대위신四大爲身, 지수화풍 사대나 각 원소가 합해서 내 몸이 있다고 하고 말입니다. 망상위심妄想爲心이라, 망상을 내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 범부가 생각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각 원소가 모여서 내 몸이 있다. 이것이 내 몸인 것이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부스러기가 모여서 내 마음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자기가 못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현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참다운 마음, 참다운 본래 근원적인 그러한 성품, 이런 것이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까지 인과율因果律을 밝혀서 근원까지 못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안심입명安心立命을 못 합니다.

현대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때 아닙니까, 그 말 잘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는 각 정보가 범람되어서 책도 많이 나오고, 신문・잡지・라디오 그런 매스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복잡한 학문과 정보와 지식

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이 제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인과를 밝혀서 근본뿌리·근본실제 원인까지 모르면 우리 마음은 안정을 못 취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모르면 불안스러워서 잘 못 삽니다. 마치 나그네가 길을 모른 채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반 중생은 거의가 다 길을 모르고 막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척거리고 넘어지고 합니다. 정중당淨衆堂이 이루어진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사부대중이 참선하는 선방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너무 번다한 말은 떠나서 어떻게 참선해야 할 것인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참선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 같아서 말씀의 범위를 줄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래 부처라. 책을 보나 뭣을 보나 웬만한 사람이면 다 말을 합니다. 본래 부처라,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반성해보면 욕심도 많이 있고 또는 진심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를 반성해 보면 부처감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 스님 같은 경우 부처라는 것을 여섯 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했습니다.

맨 처음 낮은 차원은 무엇인가 하면 '본래 부처라.' 가사 불경을 한 번도 못 보고 부처님 법문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흠축欠縮이 없는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무수한 도인들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주의 실상을 바로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이 본래 부처라 했기 때문에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강도나 제아무리 안 배운 중견中堅·무식無識이나 틀림없이 모두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인과因果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제일 끝에 가서는 부처밖에 안 남습니다. 일 촉도 없이 분석하고 분석해서 들어가면 제일

원인, 제일 끝에 원인은 역시 부처가 남습니다. 촛불 역시 들어가고 들어가면 끝에 가서 불성이 나옵니다. 물이나 또는 산이나 냇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대 역시 불교말로 하면 수성불가득水性不可得이라, 물 성품도 없이 분석해보면 물 성품은 간 곳 없이 나중에는 불성만 남는단 말입니다. 화성불가득火性不可得이라, 불도 역시 불기운도 역시 땅 기운도 역시 불성만 남습니다. 어떤 것이나 다 우주만유 두두물물頭頭物物 모두가 다 분석하고 분석하다 보면 제일 끝에 가서는 제일 원인인 불성만 나옵니다.

따라서 본래 부처란 이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깨달아서 완전한 체험은 미처 못 하더라도 도인들 말씀 따라서 분명히 본래 부처님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자기가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가 아직 못 되어서 체험을 못 했을 뿐이지 결국은 부처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처 계발을 못했을 뿐입니다. 본래 부처란 그런 부처의 차원이 있고 그다음엔 배우고 알아서 부처입니다. 불교의 술어를 보면 명자득불名字得佛이라, 이름 명[名]자, 글자 자[字]자, 이름이나 글자를 따져서 글을 배우고 경을 배우고 법문을 듣고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인이 아닌 사람은 본래 부처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본래 부처이지만, 결국은 법문이나 경전을 보고서 비로소 정말로 우리 인간은 본래 부처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 이것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워서 아는 부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차원입니다. 명자득불名字得佛입니다.

허나 이와 같이 법문 들어서 알지만 아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건방진 사람들은 본래 부처란 그 말만 듣고도 내가 부처다 해서 그때는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그래 버리면 그때는 증상만增上慢,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만심我慢心입니다. 증상만增上慢이란 것은 미처 진리를 모르고도 안다고 합니다. 진리를 모르고도 안다고 하는 증상만 되면 그 사람은 공부가 안 됩니다. 호법선신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허나 정말 닦아서 본래 부처지만 계행도 지키고 참선・염불하고 해서 닦아서 나간단 말입니다. 닦아가는 부처, 불교 말로 하면 관행득불觀行得佛이라, 볼 관[觀]자, 행할 행[行]자, 말입니다. 우리가 관觀도 하고 참선・염불해서 참구도 하고 실천수행해서 계행도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차근차근 우리가 정말로 부처가 되어 갑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엔 수행이 익어져서 수행이 약간 성숙해져서 그때는 우리가 견성오도見性悟道 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부처의 성품을 딱 본단 말입니다. 현관성제現觀聖諦라, 그냥 아무렇게나 이치로만 딱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관이라, 나타날 현[現]자, 볼 관[觀]자, 사실은 실제로 불성을 딱 보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 생명인 광명을 본단 말입니다.

서산(西山休靜, 1520~1604)대사의 「청허당집淸虛堂集」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공친절처做工親切處하니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간절하고 친절하게 절실하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홍일상동령紅日上東嶺이라 붉은 홍[紅]자, 날 일[日]자, 붉은 광명이 동쪽 하늘에 떠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공부를 함으로 해서 간절히 닦아가면 닦아가는 공덕으로 해서 업장은 녹아지고 본래 부처인 생명이 광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공친절처做工親切處하니 홍일상동령紅日上東嶺이라.' 이와 같이 해서 정말로 그때는 우리 생명의 근원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인들이나 깨닫는 순간을 보면 다 광명을 스스로 현관이라. 광명을 실제로 관득觀得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부처님 그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거기는 아직 구경지究竟地는 못 됩니다. 완전무결한 것은 못 됩니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역시 습기가, 즉 말하자면 가사 우리가 잡초를 뽑더라도 잡초의 우듬지는 뽑았다 하더라도 뿌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성은 봤다고 할지라도 과거 무수겁래로 지어온 번뇌의 그런 습기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습기를 마저 없애야 합니다. 마저 없애려면 아주 오랫동안 염불 참선해서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잠재해 있는, 잠재의식에 있는 번뇌를 녹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는 마지

막, 부처님같이 그때는 완전 성불成佛합니다. 그것이 '구경득불究竟得佛이라.'

이와 같이 여섯 차원으로 느껴가야만 오류를 안 범합니다. 그래야 만이 그때는 거짓 도인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부처다. 이것만 알아서는 거짓 도인이 많이 나옵니다. 인생고해를 자기도 탄탄대로로 순탄히 못 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남도 역시 바른길로 못 이끕니다. 한 소경이 뭇 소경을 이끌다 다 함정에 빠뜨린단 말입니다. 우리사회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 말처럼 이 세상의 혼란스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가만있으면 되고 헌데, 아는 사람들이 참말로 알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좋지만은 세상이 혼란스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른길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아는 척 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혼란스런 것입니다. 애국을 부르짖고 외치는 분들이 참다운 애국자가 별로 드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밝혀놓으신 명명백백明明白白한 길, 아까 말씀처럼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법문을 듣고, 보다 더 확인 하고 보다 더 우리 심정에 인식을 더하고 인식을 닦아서 차근차근 우리 불성을 개발하고, 또는 견성오도見性悟道하고 습기를 녹이는 데 참선의 길이 있습니다. 헌데 참선 그러면 참선 안 해본 분이나 염불만 한 분들은 참선을 굉장히 어려운 고도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선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도인들 말씀에 안락법문安樂法門이라, 안락한 법문이 참선입니다.

왜냐면 우리 일반 중생은 부자연스런 말을 하고 부자연스런 행동을 합니다. 허나 참선 이것은 부자연스런 행동, 부자연스런 말을 거두어서 다스려서 자연스러운 말, 자연스러운 행동 또는 자연스런 생각... 용수보살龍樹菩薩이란 그런 제2의 석가라고 하는 분도 참선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정념, 바를 정[正]자, 생각할 염[念]자, 말입니다. 정념正念 일체처一切處에 처하여 부동하는 선禪을 선이라 한다, 바른 생각

이 마음 한가운데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으면 선禪이라 한다. 바른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는 선인 것입니다. 의심도 한 번도 않고 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부처 같은 생각, 평등무차별의 부처 같은 생각이 한군데 딱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는 선인 것입니다. 화두 역시 화두를 의심한 것도 역시 그와 같이 바른 생각 말입니다, 평등무차별의 그런 불성에다 우리 마음을 머물러 두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참선의 방법이 많이 있으나 모든 방법이 다 그런 평등한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공덕이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 지혜, 거기에다 우리 마음을 머물러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다 그런 정념에다가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하신 것이 제일 편한 것입니다.

남들을 미워도 않고 사랑도 않고 말입니다, 분수에 넘는 그런 욕심도 안 부리고 그런 공통된 마음을 갖고서 영원적인 진리에다 머물러 두는 것이 몸도 마음도 사실은 제일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분들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참선의 길을 닦아 나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처럼 염불은 쉬운데 참선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공부 이것은 제일 쉬우면서 공덕이 많은 것입니다. 어렵다고 공덕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처럼 가장 자연스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쉽고 하는 이것이 참선 공부이고 염불 공부입니다.

염불念佛은 무엇인가, 부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염[念]자, 부처 불[佛]자, 말입니다. 부처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참선의 요체인 바로 정념正念입니다. 조주趙州 스님께 어느 스님이 '여하시불如何是佛잇고'.... 달마스님께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시 고쳐 말하면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라.' 애써서 부처란 뜻을 물으니 뜰 앞의 잣나무라 말할 수는 없으나, 우선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부처란 것은 뜰 앞의 잣나무만 부처가

아니고, 또는 특별히 석가모니나 신통한 사람들만 부처가 아니라 뜰 앞의 잣나무나 또는 소나무나 앞에 있는 저 나무나 어떤 것도 바로 보면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겉만 보고서 실상은 못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두법은 대부분 그런 비근한 것을 부처인 것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다 부처인 것을 모르니까, 두두물물이 부처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의심을 품으므로 해서 비로소 다 부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뜰 앞의 잣나무가 부처인가, 이와 같이 의심을 하고 참구하고 하다 보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딱 모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참선을 해보고 염불해 보시면 압니다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아오면 차근차근 그때는 문제가 풀려간단 말입니다. 더 맑아오면 자기 몸이 훤히 틔어서 그때는 자기 몸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몸이 원래 없는 것입니다. 좀 차원이 높은 말씀입니다만, 원래 자기 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 몰라서 네가 있다 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없는 것입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에서 말씀하신 제법공諸法空,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색은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 바로 공인 것이요, 물질을 분석하고 분석해서 공이 아니라, 물질을 바로 보면 물질이 공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번뇌에 가리어서 바로 못 봅니다. 물질이 공이니 물질로 구성된 내 몸이나 또는 집이나 천지 우주가 다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공諸法空이라, 모두가 그때는 공空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부처라는 정도, 경經을 좀 봐서 알 정도의 상식 가지고서는 그것을 잘못 느끼는 것입니다. 참선·염불을 많이 해서 참선을 하되 화두를 드나 염불을 하나 주문을 외나 그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내내야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에 딱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화두를 드나 염불을 외나 주문을 하나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간 곳이 없단 말입니다. 텅 비어서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참말로 공이구나, 자기 몸을 당장에 누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숙공정如宿空亭, 무유재주無有宰主라.' 몸이 마치 하나의 나그네가 사는, 나그네가 잠시간 깃들인 막집과 같단 말입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바로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참선·염불을 깊이 안 하면 바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느낄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 불교도 역시 자꾸 여러 가지 복잡한 분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공空을 느끼고 나가면 그때는 이와 같이 분열 파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空은 다만 텅 비어서.... 공空 이것은 그냥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인 공 말입니다. 허무한 공이 아니라 공의 실상은 바로 불성佛性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공인 것이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불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항시 우리가 만날 것인가 말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바로 보면 결국은 내 몸도 내가 아니요, 헌데 하물며 내가 미워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두가 허망합니다. 허망할 때 무상無常을 느낍니다. 무상을 느끼나 거기까지는 아직 초보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무상이 아닌 영원히 존재한 영생한 참다운 부처님의 성품이 일체 존재의 근본 뿌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일체 존재의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허망하지만, 중생이 보는 소리·형상은 다 허망하지만 그런 것의 근원적인 참다운 모습은 그대로 영원적인 불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약적으로 그냥 뛰어서 불성을 보고 성불을 못 할지라도 아까 말씀처럼 바른길만은 알아야 합니다.

가는 곳은 결국은 우리 근본적인 우리 생명으로 갑니다. 금생에 못 가면 몇 만생 뒤에라도 인간은 불성, 자기 본래 생명을 봐버려야 그래야만 지옥이나 아귀 축생이나 그런 곳에 윤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목적은 역시 부처가 되는 것, 우리 스스로 생명의 고향인 불성을 증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다 목적을 둘 때는 그때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열의 있게 하고 게을리 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목표만은 달리할 수 없단 말입니다. 헌데 그것을 느끼는 정도가 그 사람의 과거세의 선근을 쌓은 사람은 보다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염불도 더 많이 한 사람은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참선 많이 한 사람은 확실히 느끼지만, 염불도 적게 하고 참선도 적게 한 사람들은 그때는 그마만치 마음이 정화가 안 되어 마치 물이 흐리면 바닥이 안 보이듯이 우리 마음도 흐리멍덩하면 우리 마음의 바닥인 불성이 안 보입니다. 참선·염불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흐린 것을 맑게 합니다. 하다보면 차근차근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아 그렇구나, 정말로 내 마음 또는 우주만물의 본성이 불성이구나, 이와 같이 깊이 느낍니다. 깊이 느낀 사람들은 그만치 업장이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세음보살도 하루에 오만 번 해라, 십만 번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염념죄중念念罪中, 죄명심멸罪名心滅이라.' 생각을 하다보면 차근차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는 멸하고 마음은 정화되어 온단 말입니다.

아무튼 참선과 염불은 둘이 아닙니다. '화두'를 하나 '아미타불'을 하나 '관음보살'을 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의심하고 싶으면 우리는 아직 부처님을 못 봤으니 의심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중요한 목표 ,성불이라는 목표, 영원히 멸하지 않고 자비나 지혜나 일체공덕을 갖춘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를 분명히 느끼는 그것만은 우리가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자기생명의 근본자리, 일체 공덕을 갖추고서 행복·자비·지혜를 갖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응시하고서 화두를 드나 염불을 하나 주문을 외나 그 자리는 항시 응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나 무엇을 부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체성根本體性을 안 떠나야 합니다. 가사 우리가 무無자 화두를 들더라도 근본체성을 떠나면 그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선사나 그런 도인들이 참선의 종

류를 구분한 것을 보면 맨 처음 외도선外道禪이라, 지금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참선이나 선禪 같이 지금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구하려고 하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서 나온 것도 역시 이쪽에서 가지고 가서 재탕하여서 이쪽으로 다시 위촉을 시키는 그런 참선 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명상법이나 초월적인 명상법 같은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인도에서나 흘러가서 조금 보태거나 또는 그대로 해서 나오긴 합니다.

어째서 동양적인 선禪 사상이 관심을 끄는가 하면, 서구적인 그 과학적인 상대유한의 사고방식이나 또는 기독교와 같이 그와 같이 신이 창조했다 하는 이런 학설로는 현대과학문명을 설명을 못 합니다. 인류의 얽히고 설킨 현대문명을 풀이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그런 갈등과 분열을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석학들은 다 말합니다, 불교가 아니면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는 "불타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현대 인간은 집단적 죽음밖에 도리가 없다."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결국은 실망 때문에 하다 보면 결국은 할 길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출구가 없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결국 자살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남한테 이끌려서 가는 사람 같으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자기 스스로 판단도 하고 남을 지도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불교와 같은 그런 원융무애圓融無碍한 도리가 아니고서는 현대적인 문제를 풀래야 풀 수가 없습니다. 각종 설키고 얽힌 이데올로기 문제라든가 사상 문제 그런 문제를 불교가 아니면 풀래야 풀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전인수我田引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데 이러한 부처가 되는 길이 참선·염불인데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두 갈래 길이 아닌 것인데 참선을 다섯 종류로 구분한 것을 인용하면은 맨 처음 외도선外道禪이라, 참선에서 그냥 공리功利를 구한단 말입니다. 머리가 좋아지고 몸이 가볍고 또는 신통을 해가지고 뭘 알아보고 그와 같이 어떤 공리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외도선外道禪입니다. 그

다음엔 범부선凡夫禪이라, 일반 이것은 외도는 아니고서 불자지만 별로 깊이는 못 하고서 인과는 좀 알지만 참선을 부처님을 구하고 염불도 하는 이것이 범부선凡夫禪입니다.

그다음엔 소승선小乘禪이라, 사실은 우리가 본 것은 허망한 것이고 실재實在는 없다. 이와 같이 모든 형상이 공空인줄 알고서 닦는단 말입니다. '나'란 것이 허무한 것이고 관념도 허무한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참선을 소승선小乘禪이라 합니다. 그다음엔 대승선大乘禪이라, 우리 몸이나 우리 자아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일체만유가 다 허무한 것이다. 불교 용어로 하면 아공我空·법공法空 이라. 나도 공이고 동시에 일체 여러 가지 이치나 모두가 다 공이란 말입니다. 일체 주의·주장을 공이라 하는 그런 법집을 떠나 버린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도 공이고 일체적인 법法도 공空이고 하는 이것이 '아공·법공' 입니다. 이와 같이 아공·법공을 느끼는 참선 이것이 대승선大乘禪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가장 고도한 선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최상승선最上乘禪입니다. 일반 외도가 무슨 공리나 어떤 재주나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외도 참선법인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중생이 하는 불교는 믿는다 해도 인과는 좀 믿고 그냥 닦아서 하는 선 이것은 범부선凡夫禪이라. 그다음 겨우 내가 허망한 것을 느끼고서 하는 것은 소승선小乘禪입니다. 일체가 다 허망함을 느끼는 것은 대승선大乘禪이라. 이와 같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서 가장 고도한 선법이 최상승선最上乘禪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법禪法인가 하면 제가 앞서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부처임을 우리가 비록 못 느끼고 못 파악한다 하더라도, 못 증證했지만 천지 우주가 부처임을 확실히 느낀단 말입니다. 즉 어려운 말로 하면 천지 우주의 실상을 우리가 안 떠난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의 실상을 안 떠나고 하는 참선이 바로 최상승선입니다. 최상승선이 되어야 비로소 이른바 이것이 참다운 참선입니다.

우리는 좀 어렵지만 아까 제 말씀처럼 그냥 재주나 공능功能이나 그런 것을 구해서 하는 외도선도 피하고 또는 범부가 하는 것도 피하고 다

만 공만 느끼는 그런 것도 피하고 오직 가장 끝인 가장 참다운 즉 말하자면 조사선祖師禪, 여래가 하고 조사가 하는 가장 고도한 선禪, 우리가 미처 번뇌에 가리어서 못 느낀다 하더라도 본래 부처임을 느끼는 선 이것이 가장 고도한 선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참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참선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명이 본래 부처이고 천지 우주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안 놓쳐야만 이것이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무방한 것이고, 어떤 것을 하던지 간에 그런 방편적인 것은 문제가 없이 모든 방편이 다 참선으로 해서 귀의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선・염불이 하나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선을 하신 분들은 이미 지금 화두를 어느 분한테 타신 분들은 화두 거기에다 마음을 딱 두고 열심히 의심을 해서 아까 제 말씀처럼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자리, 하나의 불성인 자리를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해야 하고, 화두를 않고서 염불을 한 분은 염불로 해서 염불을 열심히 해서 일념불퇴一念不退라, 한 생각도 후퇴가 없이 해가지고서 그때는 자기 본래 생명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 마음도 정화가 되고 우리 마음 구석에 있는 잠재의식의 저 뿌리에 있는 그러한 습기도 정화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기, 우리 몸에 배어있는 나쁜 버릇도 빠집니다.

그냥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 우리 몸에 배어있는 나쁜 버릇이나 우리 마음 구석에 있는 습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삼매에 못 들면 우리 몸에 배어있는 나쁜 버릇이나 우리 마음 구석에 있는 습기를 못 뺀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닦아서 무아무중無我無中이라, 그와 같이 닦아서 무아무중되는 삼매에 가까워져야만 자기의 습기를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우리 생명의 본체인 불성을 훤히 본단 말입니다. 불성을 훤히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성을 훤히 봐야만 그때는 공부가 내가 이만큼 되었구나 하는 장담을 한단 말

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제가 말씀한 것은 도인들의 가르침 따라서 옮기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본바탕, 생명의 본바탕을 안 놓쳐야 염불도 참다운 염불이고 참선도 참다운 참선이고, 그때는 참선과 염불이 둘이 아닙니다. 다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도가 하는 참선 또는 소승이 하는 참선 그런 참선 이것은 참다운 참선은 못 됩니다. 참다운 참선은 부처님이나 역대 선지식들이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바로 일체공덕을 갖춘 부처란 말입니다. 이것을 딱 믿어야 합니다. 딱 믿고서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구나 하는 그 생각을 안 놓치면서 화두도 의심하고 염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참선입니다.

그래야 참선과 염불이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앉아서 하면 좌선이고, 서서 하면 입선이고, 가면서 오면서 밥을 먹을 때나 얘기를 할 때나 이런 생각을 안 놓치고서 우리 마음을 부처님한테로 자꾸 모은단 말입니다. 하나의 구심점으로 부처님한테 마음을 모으고 모으면, 앉으면 좌선, 서면 입선, 걸어가면 그때는 행선이고 말입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밥 먹으나 그때는 다 참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선방에서 하는 좌선만 참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부처님을 지향하면, 즉 말하자면 체體에다 본체本體에다 우리 마음을 딱 입각해 두고서 두두물물 그때는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모두 다 참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방편적인 외도법이라든가 또는 재주나 운수運數를 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운수를 위해서 역시 그와 같이 가장 고도한 참선을 하는 것이 자기 운수를 위해서도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서산대사西山大師 『귀감龜鑑』에도 있습니다만,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만 한다고 해도 지옥이나 마귀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무섭고 가장 고귀한 것이 부처란 말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무섭고 위대한 것이 부처입니다. 또는 가장 근본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마귀나 아귀나 그런 것은

그 마음이 부처한테는 어림도 없단 말입니다.

허나 마귀나 무엇이나 간에 부처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근본은 다 부처인지라 말입니다. 부처 이름만 부르면, 마귀나 그런 것은 몸이 미세해서 비록 법문을 안 배웠더라도 신령한 기운으로 그냥 아는 것입니다. 영계는 밝으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벌벌 떤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액운을 피해서 운수를 구할 때도 역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화두를 해서 참구參究 한다거나 그와 같이 바른 참선, 다시 말해서 근본을 안 떠나는 공부를 한다면 운수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그러기에 참선의 대선사 되는 송나라 때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스님 그분은 그야말로 참선의 대도인입니다. 그분은 법안종法眼宗의 3대 법사입니다. 그분은 임금이 다 숭상해서 하니까 얼마나 자기생활이 복잡하겠습니까. 임금이 자문을 구하니까 또는 대관들이 와서 숭앙하고 하니까 그와 같이 나라에서 숭봉崇奉을 받는 그러한 영명스님, 그분의 하루 생활을 보면 아침이면 방생을 하고 낮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십만 번 하고 말입니다. 밤에는 시식하고 밤에는 귀신한테 보시하고, 그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중생제도 하면서 아침에는 방생, 낮에는 아미타불 십만 번, 밤에는 시식施食 하였습니다. 대선사가 그런단 말입니다.

또는 한국에도 설파상언(雪坡尙彦, 1707~1791)스님, 설파스님은 백파(白坡, 1767~1852) 스님의 법사法師입니다, 백파스님은 위대한 분 아닙니까. 설파스님이 당시에 화엄종정華嚴宗正입니다. 화엄종단의 유명한 공부를 많이 한 분이 나중에 자기 말년에는 지리산 영원사靈源寺에 가서 하루에 '나무아미타불'을 하루 오만 번씩 십 년 동안 하시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선과 염불이 둘이었으면 염불했겠습니까. 선과 염불은 둘이 아닙니다. 요要는 문제는 우리 마음이 불성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선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셔서 힘나시는 대로 오셔서 하루도 좋고 몇 시간도 좋고 그때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아까 제 말씀처럼 앉으나 서나 얘기할 때나 집안에서나

마음만 우리 본심에 머물러 있으면 다 그때는 참선 인지라, 특별하게 마음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되 뭐라 해도 이와 같이 성지는 공부가 잘되는 것이니 가능하면 오셔서 그때그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권해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회참여를 한다, 안 한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헌데 어떤 누구나가 다 참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간접보다 가깝고 멀고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누구나가 다 중생에 한에서는 중중무진重重無盡하는 그런 인연법에 의해서 우주의 행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주의 문제에 대해서 다 참여를 하고 있다.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더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사 임란壬亂 때 보면 서산(西山休靜, 1520~1604)스님은 나와서 그분은 참여를 많이 하고 진묵(震默, 1562~1633)스님은 산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분은 참여를 안 했다, 이와 같이 간단히 치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산에서 임란壬亂 때 한 번도 안 나와도 산중에 계신 진묵대사 역시 참여를 서산대사 못지않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상만 보고서 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불성이 보입니까. 우리가 불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이 불성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생각 그것이 우주를 정화를 시킵니다. 바깥에 한 번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안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화두를 하더라도 공부가 벌써 우주를 정화 시킵니다. 꼭 나가서 덤벙거리고 하는 것만이 참여가 아닌 것입니다. 형상만을 집착하면 사실은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도 역시 소리나 형상에 집착하면 그것은 사도邪道라, 그와 같은 말도 있듯이 우리 불교는 형상이나 모두를 한꺼번에 합해서 봐야지 형상만 보고서 근원을 안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문제는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입장에서 얼마만치 성실한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나와서 덤벙거리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거사님들은 직장에서 당신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면 그것이 벌써 사회적으로 현실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않고 무엇을 안 해도 그때는 무방한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역시 현모양처라, 어진 아내, 현명한 어머니, 이것이 벌써 여러분들은 사회에 참여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승려 역시 나가서 기치를 내세워서 데모나 하는 것이 참여가 아닙니다. 염불하는 사람 충실히 하고, 기도 모실 사람 기도 모시고, 참선하는 사람 참선하는 이것이 우리의 참여입니다. 자기의 분수, 종교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이 유형무형으로 우리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방향, 즉 말해서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취임해 가지고서 자기가 한 말이 우리 정부는 마비가 되어 있다, 포괄적인 해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부처님 교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정치문제나 무엇이나 포괄적인 전부를 통합해서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불한다는 그런 뚜렷한 바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정견이 있습니다. 정견을 우리가 지향해서 자기부서, 자기인연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아까 제 말씀처럼 바른 참선, 바른 염불, 교와 염불 따로 없고 또는 교와 참선 따로 없고 진리는 오직 하나의 뭉치, 하나의 진리입니다. 단 문제는 우리 마음이 순간 찰나도 본체인 불성을 안 떠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상승선의 그런 참선을 하시므로 해서 우리 마음도 몸도 편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역시 우리 마음이 본래가 부처인지라 부처 같은 그 마음 가져야만 우리 몸도 제일 편한 것입니다. 집안 운수를 보나 또는 아들한테나 어떤 누구한테나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우리가 최선의 그런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순간 찰나도 부처를 안 떠나는 길, 그 길 이것이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선방에서는 인도의 유마거사維摩居士나 중국의 방거사龐居士나 우리나라의 부설거사浮雪居士나 그와 같이 위대한 거사님들이 나오시고 또한 우리 보살님들도 역시 니총지尼總持라, 달마達磨스님께 법을 받은 여자로 해서 총지總持비구니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앞으로 보다 더 가속도로 우리사회를 정화 시켜서 우리사회를 불국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4. 참선參禪! 감격스런 말입니다

* 1986년 8월 3일 태안사 정기법회 법문입니다.

어떤 법문은 심리학적으로 또는 심령학적으로 우리 불교 문제를 재조명도 하시고 또는 업業사상, 우리가 악업을 짓고 또는 앙화殃禍를 받고, 선업善業을 짓고 여러 가지 행복을 받는 업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해부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순수한 불교신앙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자세를 역설해서 적절하게 말씀해주신 그런 법문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통六神通사상, 신비부사의한 그런 신통 문제를 과학적으로 조명해서 말씀해주신 그런 법문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면서도 의미 깊은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단 이러한 어른들은 금륜의 법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적인 불교 법사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로서 추앙도 하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헌데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참선문제, 참선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사실 참선하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마는, 정수精髓를 못 잡고 계신 분이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참선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인가? 이런 문제를 제가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보살龍樹菩薩이 쓴 『지도론智度論』이란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지도론』에 보면 겁진소시劫盡消時 우리 천체天體가 성겁 되고, 생물이 사는 주겁 되고, 다시 이것이 파괴되어 괴겁 되고, 다시 텅 비어서 공겁이 됩니다. 이와 같이 4겁을 항시 되풀이해서 명색이 영겁회귀永劫回歸라, 이렇게 되풀이하는 셈인데 우리 중생이 많이 살고 행복도 누리고 불행도 하고 이렇게 생활한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가 파괴될 때는 자연적으로 선정禪定에 들어갑니다.

겁진소시劫盡消時, 겁이 다 해서 천지 우주가 파괴할 때, 겁이 불타서 다 멸할 때는 일체중생이 천지운행이 자연의 힘으로 자연개득선정自然皆得禪定이라, 모두 다 고요한 참선에 듭니다. 지금 우리는 참선을 해라, 참선을 해야 한다, 성불하려면 참선이 지름길이다 하며 참선을 권유합니다만, 천지 우주가 파괴할 때는 가만히 둬도 모든 중생이 깊은 참선을 합니다.

참선・선정・삼매가 조금씩 다르게 풀이는 되나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선을 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고 하려면 고생도 하고 하지마는 천지 우주가 파괴할 때는 저절로 전 중생이 깊은 삼매에 들어가 참선합니다. 천지 우주는 보다 대국적으로 보면 지금 참선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업장에 가려서 대 우주의 자연적인 법칙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법당 앞에 무엽유화無葉有花라, 잎이 없이 꽃만 피는데 그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도 역시 선정 가운데서 함부로 동요하면 꽃이 못 핍니다. 고요한 선정에 잠겨서 인욕하고 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엽유화無葉有花라, 이파리도 없이 꽃이 핍니다.

엄마 배 안에 든 태아도 합장하고 고요한 선정에 듭니다. 해부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합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배 안에서 못 참으면, 선정・참선하듯이 못 참으면 참다운 어린애로 성장이 못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주만물이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참선은 보통 고요함에 잠기는 참선이 아니라, 성불이라고 하는 즉 영원의 생명, 영원의 행복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참선을 말합니다. 헌데 불교가 하도 방대하고 너무 넓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불법에서도 역시 불법을 총망라해서 불법을 압축해서 가장 골수骨髓법문이 즉 첩경이 지름길이 참선인지라 참선을 더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선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아까 말처럼 천지 우주는 지금 참선을 하고 있고 다만 중생의 나쁜 버릇 때문에 천지 우

주의 법칙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말도 천지 우주에 맞는 바른말을 하고 생각도 천지 우주에 맞는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근본을 안 잊어버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생은 근본을 잊고 삽니다. 행동도 천지 우주의 법칙에 맞추어서 즉 조화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살생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음행도 않고, 천지 우주에 맞추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참선이 되고 맙니다.

허나 중생은 업장에 가려서 그와 같이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이렇게 쉽고 자기한테도 행복의 지름길을 가져다주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나 제일 수승한 길, 인생 최고도의 압축된 문화현상 말입니다. 지금은 참선이 국제화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비단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자기 수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참선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참선을 말합니다. 아만심我慢心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스님된 것 보십시오. 가히 참선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철학도 안 배우고 별 깊은 학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참선 하나만 익혀 놓으면 인류문화의 가장 첨단 최고봉에 오른 셈입니다. 어떻게 참선할 것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태식법胎息法 즉 호흡법이나 또는 서구에서 유행하는 초월적 명상법이나 그런 법들이 거의 참선과 비슷합니다. 요가에서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참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번 결제법문 때 안심법문이란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안심安心시킨다. 즉 불안한 마음을 없애버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선하지 못합니다. 비록 화두를 들고 백날 의심만 하더라도 먼저 안심한 마음이 못되면 참선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오후수先悟後修라, 우리 자성, 우리 인간성과 우주의 본질을 자기가 아직 증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 이렇구나 하고 느끼고 해야 참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참선이 못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애쓰고 부르고 가부좌하고 해도 그 모양만 가지고는 참선이 못됩니다. 내 자성, 내 생명의 본바탕의 부처님을 느끼

고 천지 우주의 생명이 동일한 부처님을 느낄 때 일체 불성 가운데 내 공덕이 들어있다 분명히 확신한 다음에 가부좌도 하고 염불도 하고 화두를 들어야 비로소 참선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조국사普照國師 「어록」에 보면 본래시불本來是佛이라. 닦은 뒤에 부처가 아니라 본래 부처라, 자성청정自性淸淨・자성해탈自性解脫이라. 본래 자성 내 인간성의 본질이 청정하고 본래 해탈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봐서 때 묻어 있지 부처가 본다고 하면 아무리 미운 중생 또는 지옥에 가서 지옥고를 받는 무간지옥無間地獄 중생이라도 광명이 찬란한 부처님 몸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적인 어정쩡한 견해 때문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것이지 지옥이 있고 축생・아귀・사람・천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의 차원에서 가는 것입니다.

참말로 옳은 것은 부처님이 보는 하나의 견해뿐입니다. 즉 일진법계라,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어쩌다 운수가 나빠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독사가 없으면 부처가 못 됩니다. 어느 티끌, 어느 못난 것 하나가 없으면 부처가 못 됩니다. 부처란, 천지 우주 전체가 바로 부처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버려도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하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은 다만 못 봐서 가르고 분별하는 것이지 오직 일원적으로 천지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뿐입니다

우리는 인과의 법을 믿습니다. 허나 어떤 사람들은 강원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중강中講(중강이란 사찰 강원講院의 강사 밑에서 조교처럼 강사를 받들고 학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강 소임입니다) 되는 어떤 한 분이 언젠가 와서 “삼세윤회三世輪廻가 정말 있습니까?”하고 묻습니다. 그 태도는 저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안 믿는 것 같아요. 교리야 알겠지요. 이론으로는 중강이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자기 가슴으로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염불이나 참선을 많이 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별로 안 보여도 경經을 안 배워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른 판단이 섭니다만, 가령 육조六祖 혜능慧能스님은 일자무식이라 합니다. 긴가민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학문적인 공부는 별로 안 한 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5조 홍인(弘忍, 601~674)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정통법을 받았습니다. 5조 홍인스님 밑에는 오백제자, 기라성 같은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수神秀대사가 상수좌上首座인데 이분을 제치고 일년도 못된 행자인 혜능이 5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 닦아서 청정하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우주의 본질을 바로 비추어 본단 말입니다. 이래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과법이나 어려운 문제나 비록 학문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염불 부지런히 하고 참선을 부지런히 해서 참선과 염불이 원래 둘이 아닌 것인데 부지런히 해서 마음이 닦아지면 알아집니다. 가령 『반야심경般若心經』 한 편을 공부하더라도 참선을 한 철한 때와 두 철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법문인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과법도 역시 마음이 맑은 분들은 안 배웠다 하더라도 금생에 내가 있거니 과거에도 내 생명이 있었겠지, 금생에 내 생명이 있고 내 행동이 있으니 내세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삼세인과三世因果를 유추해서라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것에만 눈이 팔린 사람은 잘 못 믿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어두우니까 잘 못 믿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위성의 수달장자須達長者가 부처님한테 공양도 시주도 많이 했는데 수달장자의 창고를 맡고 있는 노파가 부처님을 숭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만 오시면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우리 주인은 스님한테 함부로 베풀면서 소중한 재산을 축낸다고 비방합니다. 수달장자는 부처님을 숭배하는 분이라서 자기 종이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노파를 구제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은 왕가에 부처님을 초빙하는 형식을 취해서 부처님께서 왕가에 들어가실 무렵에 자기 종인 노파를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 부처님과 만날 수 있게 말입니다.

노파가 성중城中에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성중에 계십니다. 그 노파는 보기 싫은 부처님이 서 계신지라 금방 돌아서서 나옵니다. 허나 부처님의 신통으로 돌아서서 나오지만 또 자기 앞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가리니까 손가락마다 부처님이 보입니다. 얼마나 박복하면 삼십이상 팔십종호라, 그와 같이 잘 생긴 부처님, 만덕을 갖춘 부처님을 보기 싫어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뿌리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친아들인 라후라 존자한테 말씀하시길 "저 노파는 나하고 인연이 없다. 그대가 가서 제도하라, 그대하고는 인연이 깊으니까, 그대가 가면 충분히 제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후라가 가서 허공에서 전륜성왕 모양을 하고서 노파 앞에 내려서니까 내려서자마자 노파가 고개를 한번 들 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같이 삼명육통三明六通을 다 갖추고 모두를 다 아신 부처님도 인연이 없으면 당신 마음대로 제도를 못합니다. 무인연중생불가도無因緣衆生不可度라, 부처님도 인연이 없으면 제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인연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과 저 노파는 어떤 악연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께서 "과거 무수생전에 나하고 노파하고 부부였는데 내가 나중에 여자 하나를 봤는데 그때 노파가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안 보겠다고 앙심을 품었는데 그 앙심을 못 풀어서 그것이 몇 백 생을 이어오다가 금생에 다시 만나니까 그렇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사假使 백천겁소작업불망百千劫所作業不忘이라, 가사 백천겁 동안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한 번 지은 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회

우시因緣會遇時 과보환한자수果報還自受라, 다시 만나면 보복이나 과보나 앙갚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 안 받고 극락에나 올라가면 안 받지만, 이런 사람 몸뚱이를 받으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과라는 것은 인과필연因果必然이라,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연입니다.

이러한 인과도 다 풀어버리고 모든 악연도 다 풀어버리는 가장 바른 길 이것이 참선입니다. 참선은 근본본체를 안 떠납니다. 우리 중생은 보통 근본본체를 떠나고 삽니다. 경도 보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 보통은 근본본체를 떠나고 입으로나 또는 옅은 마음에서 합니다. 그러나 비록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모신다 하더라도 기도 모시는 마음자세, 근본체가 우리 인간성의 본질을 안 떠나면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집法執이라, 내가 하는 법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화두를 의심하면 참선이고 다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뜻입니다. 달마대사達磨大師나 6조 대사의 뜻하고 어긋납니다. 어떻게 부르던지 현상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근본 체體를 실상을 안 떠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때는 '이뭣고'를 부르나, '아미타불'을 부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나 모두 참선입니다.

선정 즉 참선, 삼매 이 풀이를 하면 우리 마음이 본체에 안주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참선·선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체를 못 봅니다. 우리 인간성은 하나인 것인데 본체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말로는 하느님 부르나 부처님 부르나 다 참선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처님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뜻하고 계합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안 보이는 본체에다 우리 마음을 묶을 것인가 입니다. 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보이는 내 마음에 부처를 머물게 할 것인가? 참선이란 말이 우리같이 참선을 평생 동안 해온 사람들은 그와 같이 간절한 말이 없습니다.

근 40년 동안 참선하고 지내왔으니 얼마나 황홀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참선하다가 죽겠다 하는 오직 그런 마음뿐입니다. 오직 가부좌 위에 살다가 가부좌 위에서 가겠다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선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참선, 그 말 자체가 감동이나 격동을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전율을 일으키는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참선, 아까 말한바 같이 본래시불本來是佛, 본래 부처 자리, 내가 본래 부처다.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본래 부처 자리에 머물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고생들 많이 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 방거사龐居士, 방거사는 집안에 계시는 거사 아닙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의 대표 거사는 유마거사維摩居士, 중국에서는 방거사, 한국에서는 부설거사浮雪居士입니다. 중국 방거사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방거사가 그 당시에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스님, 이 스님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정통 조사이십니다. 이 스님한테 가서 참문參問이라 거기에 참배하고 법문을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법에 끌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 중생은 만법에 끌립니다. 조금 좋으면 탐심을 내고 진심을 냅니다. 우리 중생은 모든 현상에 끌립니다.

그때 마조馬祖스님 말씀이 ‘일구흡진서강수一口吸盡西江水 하라.’ 서강수란 양자강인데 우리 한강의 십 배가 넘습니다. ‘그대가 한입에 서강수를 들이키면 내가 일러 주마.’라 했습니다. 물 몇 사발도 못 마시는데 어떻게 양자강을 한입에 들이키겠습니까? 불교에서 탄토건곤呑吐乾坤이라, 삼킬 탄[呑], 토할 토[吐], 하늘 건[乾], 땅 곤[坤]자 입니다. 하늘과 땅을 삼키고 토한다는 말입니다. 천지 우주를 자기가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그런 경계가 되면 만법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쩨쩨한 마음 내가 있고 니가 있고, 재산・권리・지위 등 상대유한적인 것에 끌리는 마음이 있으면 참다운 선禪을 못 배웁니다. 양자강을 한 번에 들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천지 우주를 삼키고 뱉을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마음이라야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고 만법에 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선할 때는 비록 이것도 저것도 배웠다 하더라도 그때는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다 놓는 공부 그 법문이 『반야심경』·『금강경』 공부입니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이라, 있는바 모두가 다 꿈이요, 허깨비요, 그림자요, 거품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딱 놓아 버려야 만이 양자강·한강, 천지 우주를 삼키고 뱉을 수 있습니다. 둘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생활인이 되서 이것 저것 다 뿌리치고 재가불자님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참선이란 이름을 붙이고 참선할 때는 그와 같이 놓아 버려야 합니다. 가사 심상心想공부라, 자나 깨나 앉으나 누우나 대화할 때나 공부할 때는 상대를 의식해야 하지만, 정말 내가 참선해야겠구나 하고 맘먹었을 때는 나요 너요 모든 것은 다 놔버려야 합니다. 다만 부처의 진리와 하나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명의 본질, 우주의 본질을 부처의 경계에서 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가장 귀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참선공부는 제일 쉬운 것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먼저 느끼고서 아직은 부처가 안 보이지만 부처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애쓰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공부할 때 두 가지 성품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했습니다.

가사 그 사람이 감성感性이 풍부한가, 지성智性이 풍부한가, 그렇게 구분해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풍부한대로 타력적인 그런 면에 역점을 두고 우리에게 지도했고, 지성적인 분들은 자력적인 자기 힘을 위주로 하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 원력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인력이 원래 있습니다. 우주가 갖추고 있는 청정한 인력이 인격화시켜서 표현할 때가 바로 원력인 것입니다.

중생을 근본 가운데 하나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연시킨 것이 사홍서원四弘誓願이나 더 부연敷衍시키면 사십팔원입니다. 부처님의 원력 이것이 물리적 표현으로 하면 만유인력입니다. 중생을 성불시키고자 하는, 한가운데로 이끄는 힘이 원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힘을 인격화시켜서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서 우리를 항시 부릅니다. 이와 같이 영원적인 하나의 힘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힘을 아미타 부처님은 피안에서 우리를 부른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를 몰아서 피안으로 가게 하는 힘, 이러한 것을 석가모니나 각 도인들이나 철인이나 모두 다 하나로 돌아가라. 우리를 극락으로 몰아세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말로는 초환발견招喚發遣이라, 부를 초[招], 부를 환[喚]자,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고, 발견發遣이라 석가모니부처님, 보살, 도인은 우리를 가라고 재촉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는 척력斥力・인력引力이 합해져서 원력이 되어서, 우리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만 타면 좋은 것인데 중생은 그 힘을 못 탑니다. 아미타불은 우리를 부르고, 석가모니부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장 가깝게 타고 가장 온전히 탄 것이 참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선할 때는 비록 내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주의 생명의 인격적 표현, 우주의 어떠한 경우도 멸滅하지 않는 즉 4겁을 통해서 성겁成劫,・주겁住劫・괴겁壞劫・공겁空劫에도 변치 않고 어떠한 생로병사에도 변치 않는 부처님 이것이 법신法身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신부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냥 믿으면 실감이 안 나니까, 법신부처님의 대명사 명호를 외웁니다.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무생至極無生 청정보주명호淸淨寶珠名號라.' 아주 지극하고, 생사가 없고 번뇌가 없고, 때 묻지 않은 보배 이름인 아미타불을 우리가 부른다고 하면, 수지탁심受持濁心이라, 탁한 마음이 염념지중念念之中이라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죄멸심정罪滅心淨이라, 죄가 절로 멸하고서 마음이 정화됩니다.

우리는 보통 염불이다 하면 하근 중생이 한다, 그것은 방편이다 하고 값싸게 방편으로 칩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나 도인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거니, 부처님 이름을 외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가깝고, 의의意義가 깊은 길입니다. 즉 이것이 지극청정至極淸淨 보주명호寶珠名號입니다. 가장 지극하고 보배 같고 영생하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을 외우다 보면 원래 자기가 부처인지라, 부처가 차근 계발啓發됩니다. 허나 이것도 역시 본체, 본 실상과 하나가 되는 데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럼 이름만 불러서 될 것인가 하는 의심이 항시 나옵니다. 즉 공부란 지혜와 선정이 같이 아울러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원래 지혜와 선정이 같이 아울러 있어 놔서 우리 불성공덕을 모두가 다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도 원만히 갖추어진 공부, 조화된 공부를 안 하면 빨리 같이 합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름만 불러서는 조화에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즉 이름을 자꾸 부르면 우리 마음을 안정은 시키나 지혜 개발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 도인께서는 방편을 나투어서 우리 부처님, 이것은 원래 광명이거니, 우리 중생이 보는 물질광명이 아니라, 초월적인 무장무애無障無礙라, 장애 없이 우주에 충만한 광명인지라, 그러한 광명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쇳송하시는 분이 나무아미타불 장엄염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십일만구천오백一十一萬九千五百 동명동호아미타불同名同號阿彌陀佛이라,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 수가 많아서 강가나, 김가나, 박가나 모두가 동명동호同名同號라, 여기 계신분이 다 똑같이 같은 이름의 아미타불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똑같은 아미타불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광명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무장무애無障無礙라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에서 배워서 공간 속에는 산소·수소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산소·수소가 없을 때는 공기가 아닙니다. 공기 없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위의

성층권에 올라가면 몰라도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공기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가 있다면 산소·수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있거니, 우리 몸도 역시 그러한 원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하고도 딱 붙어있습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각 원소로는 붙어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공간도 원소 따위가 차 있으니 원소를 구성하고 원자를 구성하는 광명, 우주의 순수에너지, 그것은 어느 공간도 빈틈없이 우주에 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명이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생명의 광명, 우리 근본자리, 순수한 장場에너지 자리, 이것을 우리는 상상으로 이미지 합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대한 도인들이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산대사의 염불하는 게송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즉염불경계心卽念佛境界라, 마음은 곧 염불경계라, 부처의 경계, 생명의 광명이 충만한 경계입니다. 억지불망憶持不忘이라,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즉칭명불호口卽稱名佛號라, 마음은 부처의 경계에 머물러 잊지 않고, 입으로는 부처의 이름을 외워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경계를 잊지 않는 그 마음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명호가 하나가 되면 팔만사천의 번뇌를 녹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문들이 무수무량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쉽고 공덕이 많은 공부를 딱 하나 외워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방법상 많은 문제를 말하더라도 너무나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외울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런 법은 특수한 도인뿐만 아니라, 정통 조사인 세친보살(世親 또는 天親菩薩, 바수반두, Vasubandhu, 320~400년경)은 부처님 정통 조사 가운데서 21대분이십니다. 이분도 역시 『정토론淨土論』이란. 법문에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서 부처님의 생명 있는 광명을 관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용수보살龍樹菩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원력 믿고서 이름을 부르면, 순풍에 돛단배와 같이 자기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 따라 성불成佛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선정과 지혜,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러한 점, 우리 마음을 비추어보는 그런 지혜, 이것이 같이 되어야 마치 새가 날개가 둘이 있어야 날듯이 공부도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智慧와 선정禪定이 갖추어 있어서 정혜쌍수라, 이와 같이 해야 공부를 빨리할 수가 있고 싫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부방식 따라서, 다른 공부도 많이 있지마는 다른 것은 재가 불자로서는 어려운 것이니까, 재가불자로서 일용간에 하기 쉬운 공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부, 기도하거나, 참선하거나, 법당에서, 직장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공부는 역시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제일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처님의 이름만 불러서는 미흡하니까, 즉 지혜와 선정이 아울러야 되는 것이니까, 불심이 갖춘 지혜와 선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광명, 그 광명을 관조觀照하면서 합니다.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광명을 관조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이름을 외웁니다. 이렇게 해가다가 심상心想 간에는 공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될수록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서 별시別時수행이라, 별시에 수행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때에는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번뇌를 녹여서 성불의 길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의심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 치우치게 느끼면 곤란스러운 것이니까, 제가 조금 더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선하는 법은 염불선念佛禪,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부처님의 광명을 염하는 선禪, 그런 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화두를 참구하는 선禪이 있습니다. 화두란 도인들이 우리 근기에 맞추어서 무슨 문제를 줍니다. 그럼 그 문제를 의심하면서, 의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것도 역시 훌륭한 방법이니까 이걸로 해서도 상당히 공부가 진척되는 것이고, 위대한 도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참선만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니와, 여러분 같은 재가불자님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심 이것은 선방에서는 모르거니와 법당에서 기도 모실 때라든가 일할 때는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묵조선默照禪이라, 의심 없이 가만히 무념무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관법觀法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현상을 관합니다. 가사 서쪽에 비친 해를 관한다든가, 극락세계의 물을 관한다, 땅을 관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관조觀照한다 말입니다. 이런 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선법에는 염불선, 화두를 참구하는 의심하는 선禪, 묵조해서 화두를 안 드는 선禪, 지금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불교에서는 묵조선默照禪,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 마음의 무념무상으로 명상에 잠깁니다. 조계종에서는 화두를 참구하는 화두선話頭禪을 합니다. 동시에 염불선念佛禪도 같이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시고서 자기한테 맞는 법, 내가 의심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마땅히 자기가 숭상하는 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서 화두를 의심하면 무방하고, 따지기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서 원래 부처거니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흐린 물을 가만히 두면 앙금이 가라앉고 바닥이 보이듯이 본래 부처인 것이니 가만히 있으면 번뇌가 녹아서 우리 본성이 나오겠지 하고 명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묵조해도 무방합니다.

명상도 좋아하지만 따지기는 안 좋아하고, 부처님을 인격으로 구하는 마음, 타력적으로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 이런 분들은 염불선이 알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情意로, 감성으로 구하는 분들은 염불로 해서 고향같이 어버이 같이 구하는 마음으로 해야 들어맞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정의와 들어맞습니다. 제 말씀을 명심하셔서 관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자기가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근본 뿌리가 같은 것을 느껴야 합니다. 각 부처 이름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참선이 못됩니다.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 즉 하나임을 느껴야 합니다.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모두 하나입니다. 다만 공덕 따라서 이름이 있다고 느껴야 참선이 됩니다. 하나의 진리로 뭉쳐버리지 못하면 참선이 못됩니다. 왜 못되는가 하면, 그때는 근본 체를 떠나버립니다. 근본 본체를 안 떠나야 참선입니다. 아무리 웅변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본체를 떠나면 참선이 못됩니다. 참선의 의미가 우리 마음이 본체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체는 무엇인가? 본체는 둘이 아닙니다. 일체만법을 다 갖추었지만, 오직 하나의 법신불法身佛,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관음보살 따로 아미타불 따로 이와 같이 따로 하면 그때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부르나 부르는 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장보살을 부르나, 하나님을 부르나, 오직 하나의 진리만 딱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본체와 내가 둘이 딱 맞습니다. 본체의 생명, 부처님의 생명이 광명입니다. 그냥 중생이 보는 물질적인 광명이 아니라, 모든 공덕을 포함시킨 신비로운 광명입니다. 천지 우주는 사실 광명뿐입니다. 광명 위에서 각 원자가 생기고 했던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파괴되어서, 우리 중생이 다 천상에 올라가고, 물질이 파괴될 때 다만 광명은 우주에 남습니다. 이것은 불교 학설입니다마는 텅텅 비어버리고 광명만 남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는 중생의 공동업력으로 광운光雲이라, 빛구름이 우주에 충만해 가지고서 빛구름 위에서 각 만물이 형성되고 합니다. 우주가 파괴되어도 광명은 남습니다. 그 광명이 본체이건만 우리 중생은 탐貪·진嗔·치癡 삼독에 가려서 못 봅니다.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광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 광명은 만능합니다. 만능하니까, 그 광명을 본 사람들은 별 신통을 다 합니다.

참선! 감격스런 말입니다. 우리 인류문화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 바로

참선의 문화현상입니다. 우리는 무식하다 하더라도 참선만 잡으면 벌써 문화 인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참선 가운데서 화두를 참구하는 그런 법, 또는 화두 없이 잠자코 자기 마음만 맑히는 명상법,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서 부처님의 생명의 실상인 광명光明을 관조觀照하는 법,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부처님의 광명을 관조하는 법입니다. 그런 법을 정통 조사가 제일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바쁘신 여러분들은 법당에 가나, 직장에 가나 이런 광명을 관조하면서 하는 부처님 법은 제일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수무량의 신들, 저급 신, 고급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신들로 꽉 짜여 있습니다. 뇌성벽력 가운데도 우리가 공부하라고 날씨가 딱 개인 것 보십시오. 헌데 신장神將들이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는가? 신장도 역시 가장 공경한 것이 부처님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높은 신이나 낮은 신이나 제일 공경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을 외우고 광명을 생각하면 어떠한 신들이나 나쁜 신도 뒤에서 우리에게 침범을 못하고, 좋은 신은 우리를 감싸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피를 입는 면에서 보나 또는 호념護念이라, 삼세제불호념三世諸佛護念이라, 부처님은 그냥 비단 일원광명이 아닙니다. 일체 생명을 갖춘 만능의 광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즉시에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아십니다.

그런 부처님인지라, 더구나 우리가 이름 부르고 생각하면 우리와 상통합니다. 부처님의 호념護念, 부처님이 보호하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나 천지 우주의 신령이 우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나, 그러기에 『몽수경夢授經』에 있지요, 조념관세음朝念觀世音, 모념관세음暮念觀世音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한다면, 천라天羅·지라地羅 신이라, 하늘의 신, 땅의 신들이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보문품普門品」 같은 경經도 짤막하지마는 굉장히 심수오묘深邃奧妙합니다. 부처님 이름도 외우고 높은 분들 이름을 외운다고 하면은, 부처님 이름이 가장 높고 무서운지라, 역시 모든 신들도 한 근본의 고향인지라, 그때는 좋아하고 우리를 지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분들의 받들음을 받는다, 가호를 받는다, 그런 점에서나, 우리 본래가 부처인지라 남이 나를 숭배한다는 점에서 보나, 사실 염불을 많이 하면 옆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좋아합니다. 같이 염불을 많이 하면 이상하게 상통합니다.

우리 얼굴은 업장 따라서 얼굴이 나옵니다. 부처님 얼굴은 삼십이상팔십종호라, 부처님 얼굴은 백 겁 동안 모든 선을 쌓아서 부처님 얼굴이 되었습니다. 우리 얼굴 또한 눈·코·입 전부가 다 과거 전생에 또는 금생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업장에 따라서 알맞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체만유는 염파念波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게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의 가장 고귀하고 높고 무섭고 그리운 이름이 사실은 내 본 이름인 동시에 부처님 이름입니다. 내 본 이름이 바로 부처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가짜고 말입니다.

내 참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그리운 이름을 외우고서, 부처님의 실상인 광명을 이미지로 상상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자기 몸 좋고 자기 마음 좋고 부처한테 차근차근 가까워지고 말입니다. 남 좋아하고 귀신 좋아하고 신장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부처님이 지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장 쉬운 공부로 공덕은 가장 높이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참선법회를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5. 내 본 성품이 부처입니다

* 1986년 10월 5일 태안사 정기법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입정入定을 하셨습니다마는 입정이란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삼매에 드는 것인가? 우리가 막연히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매에 드는 것은 보통 독서삼매니 뭐니 하는 것은 상대유한적인 것에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참다운 삼매란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고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의 생명, 하나로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즉 범성일여凡聖一如라, 즉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니고 또 불범일여佛凡一如라,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고, 또는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일원적으로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환원시켜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래야 참 삼매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나 법문할 때 입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산된 마음을 하나의 진리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삼매가 되고 입정이 됩니다. 삼매에 드는 것이 입정이란 말입니다. 즉 정定 이것이 삼매입니다. 삼매가 정이고 정이 삼매입니다. 입정의 정定 이것은 고요할 정[靜]자가 아니라, 정할 정[定], 마음을 진리에 정해버리는 정할 정[定]자, 그 정에 드는 삼매에 드는 이것이 입정入定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없는 것을 구합니다. 욕심을 내는 것도 한없이 구하고, 한번 성내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불같이 성을 냅니다. 자기 몸을 희생도 하고,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끝도 한도 없는 성[瞋]입니다. 마치 그럴 때 불같은 마음으로 해서는 천지 우주를 다 불태워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혜로 역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생각해보면 알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도 미술도 다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쪽으로나 우리 중생

은 한도 끝도 없이 무한을 구합니다. 가령 욕심 많은 사람이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큰 금덩이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금덩어리를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화나 재물이나 한도 끝도 없이 구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무한을 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몸 자체가 유한한 존재 인지라 항시 유한적인 것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무한을 구하는 마음이 어느 때에 가서 만족할 것인가. 이것은 성자가 되어서 천지 우주가 내 것이 되어 둘이 아닌 경계 이러한 경계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못 채웁니다. 우선 그러한 천지 우주가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닌 경계, 천지 우주가 내 것이 되는 경계, 그런 경계에 이르기 위한 방법적인 인간의 재물, 인간의 조건, 이러한 것이 칠성재七聖財입니다. 일곱 가지의 재물입니다.

우리 중생은 물질적인 보화나 학문이나 기능을 구하지만, 성자는 물질・기능・학문을 하나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지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데 성자의 재물은 방법을 떠나서 목적을 위한 참다운 재물을 구합니다. 이것이 칠성재七聖財・칠덕재七德財 그럽니다. 즉 말하자면 보통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덕이 깃들어있는 재물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칠성재를 갖추어야만 인간이 구하는 무한의 재물, 즉 영원적인 재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칠성재・칠덕재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구하는 참다운 행복, 영원의 행복을 보장하는 무한의 보배는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칠성재인가?

맨 처음이 신信, 믿음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적으로 의심하는 공부가 있다하더라도, 먼저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이 믿고서 그다음에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 진리

란 과연 어떤 것인가, 진리의 무한공덕은 의심하면 모르되 처음부터 의심하면 우리가 진리에 못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진리를 못 봤지마는 성자의 가르침이나, 무수한 그런 증언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분명히 있다.' 처음부터 회의론자는 진리에 못갑니다. 각 성자가 교지한바 절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는 다음은 계戒입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말로 '계행불청정戒行不淸淨하면, 삼매불현전三昧不現前이라.' 우리 계율이 청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한 삼매가 못 나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생하고 사음하고 욕하는 태도로 해서는 우리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즉 삼매가 못 됩니다. 마땅히 청정계행, 몸으로 바른 행동, 말로 바른 언어, 생각으로 바른 생각을 해야만 삼매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행을 지켜야 합니다. 도덕적 행동으로 조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은 참懺이라, 참괴懺愧, 자기가 지은 행위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 참회하는 것을 참懺이라고 하고 남한테 대해서 대인적인 참회는 괴愧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뉘우치고, 남한테 뉘우친단 말입니다. 참괴라 무참괴중생無懺愧衆生이라, 참회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공부가 안됩니다. 호법선신도 안 돕습니다. 참괴를 해야 만이 우리 마음에 누적된 번뇌가 녹아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한번 마음먹을 때, 자기 마음의 잠재의식에 심어있는 번뇌종자는 그만큼 소멸됩니다. 참괴懺愧라, 자기한테 뉘우치고, 남한테 뉘우칩니다.

그다음은 다문多聞이라, 많이 듣습니다. 쓸데없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진리에 관한 바른 교법을 듣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법문을 모르면, 사바세계의 중생 생활은 고난이 많은지라 고난의 가운데 서는 그때그때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법문을 많이 들으면, 그때그때 어려울 때 바른 판단이 척척 나와서 해결해 나갑니다. 따라서 그런 부처님의 성불에 관한 바른 지혜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사리捨離라, 버릴 사[捨]자, 떠날 리[離]자, 우리가 무슨 법을 미처 증명하지 못하면 자꾸만 자기가 아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화엄경華嚴經』 본 사람은 『화엄경』에 집착하고 『반야심경般若心經』 본 사람은 『반야심경』에 집착을 합니다. 그와 같이 중생은 진리의 체를 근본을 증명하면 집착을 안 하지만, 진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가 본대로 나름대로 얽매이고 맙니다. 얽매이면 남하고 불화스럽게 됩니다. 또는 고집하면 자기 마음도 훤히 안 트입니다. 훤히 안 트이면 진리와 계합이 못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자기가 소중한 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착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허망한 것이구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내용, 개념은 사실은 별 다름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높게 보고 부처님은 낮게 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개념은 차이가 없는데, 이름 따라서 집착하고 시비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리捨離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 버려서 어떤 표현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어떤 진리를 지향해서 애쓰고 해야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리捨離입니다. 공부한 사람들, 양심있는 사람들이 사리를 잘못합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하면 자기 마음이 옹졸해지고, 남하고 화합도 잘못합니다. 지금 각 불교종단이나, 기독교 각 분파도 역시 각기 사리를 잘못하는 데서 수많은 종파가 생깁니다. 사리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행동은 최선을 다할망정, 표현을 가지고서 자기 고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남한테 보시한다 하더라도 보시한 행동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지혜智慧라, 참다운 지혜입니다. 상대유한적인 무엇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지식은 우리 의식으로 범부의 유한적인 학식이나 앎이 지식이고, 참다운 지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해탈로 인도합니다. 영생의 부처의 경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참다운 믿음信, 몸과 입과 뜻으로 바르게 행동을 취하는 계율戒律,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남한테도 사심 없이 자기 참회하는 참괴懺愧, 진리를 많이 듣는 다문多聞, 또는

진리에 집착않는 사리捨離, 또 참다운 영생·해탈의 지혜智慧, 이것이 성자가 갖추어야할 재물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물질 면에서 불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인간 자체가 불공평해서 어떤 사회가 되나 완전무결한 평등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구성 문제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마는 이러한 빈부의 격차, 구차한 사람들 구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 소리가 높습니다. 이것도 물론 참 좋습니다, 좋으나 어떤 것이 정말로 구차한 것인가, 어떠한 것이 참답게 가난한 것인가? 어떤 것이 참답게 부자인가 하는 한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정신적인 빈곤, 마음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석가釋迦, 공자孔子, 예수 같은 분들은 물질의 가난을 문제시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난행·고행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야 석가모니가 왕자니까 자기가 재산을 보시해서 남줘버리면 그만이겠지요. 허나 구태여 거기를 튀어나와 설산에서 고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마음 구제, 정신적인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인들의 전기를 봅니다마는 어떠한 위인들이나 대부분 다 가난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해가지고 위대한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걸 본다 하더라도 사실 구차한 것은, 빈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정부 당국이나 위정자는 그런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서 과감히 해야 합니다마는, 인간 자체를 생각할 때는 절대로 가난한 것이 불행만이 아닙니다. 저는 승려니까 저한테 와서 이따금은 집안이 안 된다 하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허나 사실은 그런 것이 별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 그걸로 해서 보다 더 큰 행복이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맹자孟子님 말씀도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으로 해서 그 마음을 공고히 다진 다음에 위대한 대임大任을 맡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은총으로 해서 반드시 불행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이기면 은총이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을 보십시오. 링컨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분도 그런 밑바닥의 고생이 아니면 그런 위인이 못 나옵니다. 저 같은 사소한 스님도 과거에 군대생활도 하고, 형무소에도 가서 보고, 그런 생활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이 약간 단련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었더라면 항시 우쭐거리고 심각하게 깊이 못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불공평을 제도할 때는 마땅히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함부로 날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나중에 다시 반등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부나 사회기관은 자유나 평등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과감한 시책을 취해야 되지만, 우리 종교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 덕재, 성인의 재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면 행복스럽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토굴에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양재기나 몇 개 있고 할 때는 참 마음이 푸집니다. 그러나 전기가 있고 무엇이 있고 하니까 도리어 마음이 옹졸하고 거북합니다. 부담만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수행자는 사회생활 하는 여러분과는 다르지만, 아무튼 이와 같이 성자의 길, 해탈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 많으면 자꾸 얽힙니다. 우리 수행자는 같은 걸망이라도 걸망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으면 공부가 덜 되고, 걸망에 많이 안 들어있으면 공부가 더 깊다는 그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표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말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저것 얽힌 것이 많다 보면 해탈이라, 다 풀어야 할 건데, 물론 마음의 번뇌를 풀어야 하지만, 몸에 이것저것이 있으면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재산이 많이 있고 회사가 많이 있고 하면 평생 동안 공부를 못합니다. 역시 무량의 보화, 무량의 보배는 덕재德財입니다. 참다운 진리를 믿는 것, 또는 진리를 따라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의 나쁜 행동을 참회하고서 자기 마음 속에 들어있는 나쁜 종

자를 버려버리는 것이 참회·참괴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를 많이 들어야만 역시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어둠과 광명의 싸움입니다.

얼만치 우리 마음이 어둠이 더 많은가, 얼마만큼 광명한가? 양심있는 사람은 어둠보다도 광명이 많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자는 완전히 광명뿐인 마음입니다. 이런 진리를 많이 들으면 우리 마음이 들은 만큼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은 증장됩니다. 이러한 다문多聞 또 아무리 좋은 것도 집착 않는 사리事理, 참다운 해탈의 지혜, 이것이 참다운 보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배를 재산의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때그때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여시법如是法 시칠성재是七聖財, 이와 같은 법의 일곱 가지, 참다운 거룩한 재물은, 피제중생불여차彼諸衆生不如此 모든 중생이 이러한 성자의 재물을 얻지 못하면, 극빈궁極貧窮이라, 아주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참다운 가난한 것은 성자의 재물, 덕재德財가 없는 것이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빈곤만 안 되면 물질의 가난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법사님들의 법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고생스러울 때 인생을 더 많이 배웁니다. 고생스러울 때 우리 업장을 빨리 녹입니다. 순탄할 때는 가사, 과거세에 아홉의 업을 지었다 하면, 업을 지은 것이 우리가 행복스러우면 우쭐거리면서 아만我慢만 키우는 가운데 그런 업을 못 녹이지만, 고생 가운데 좌절이 되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업장을 녹입니다. 사실은 고생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업장을 더 빨리 녹이는 것입니다. 그런 심심미묘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역시 지옥고地獄苦를 받는 가운데, 다생겁래多生劫來로 많이 지은 업장을 벗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진리로 뭉쳐 있어서, 어떤 것이나 무의미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가령 사회에서 살인자가 있다고 합시다. 살인자는 밉고도 나쁜 사람입니다. 허나 살인죄를 지었다는 그걸로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은혜 가운데서 은승창렬은隱勝彰劣恩이라, 나쁜 것을 내보이고 좋은 것을 숨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보면 살인 죄인도 부처님 화신인데, 살인죄라는 그 무시무시한 나쁜 것을 보이면서 부처님의 좋은 것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면 말입니다. 물론 살인죄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나 사바세계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중생이 바로 못 볼 뿐입니다. 은승창렬은隱勝彰劣恩이라, 승을 감추고서 나쁜 것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부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러한 거룩한 재물을 못 지키기 때문에, 고명극빈궁故名極貧窮이라, 이것보고서 왈曰 가난하고 구차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열반경涅槃經』이나 『보적경寶積經』 이런 훌륭한 대승경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을 잘 알고 좋은 말씀도 잘 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 그런 방법론이 애매하면 깊이 공부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가불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실런가 모르지만, 우리 같은 평생 동안 진리하고만 시름하는 사람들은 수행 방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방법으로 공부할 것인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방법이 자기한테 안 맞으면 노력을 많이 해도 그 성과는 없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꼭 성자가 가는 길, 석가모니가 공부한 길, 정통 조사祖師가 공부한 방식,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칭 도인이나, 무엇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한 말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불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염불 아닙니까? 무슨 공부를 하나 염불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를 생각하지 않은 공부가 있습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이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은 공부가 없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인도 역시 먼저 근본적인 요체를 구해야 합니다. 가지나

잎 등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서 하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고 공부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불교 법문 가운데 약능요심若能了心하면, 만약 마음을 깨달으면 만행구비萬行具備라, 만 가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근본만 깨달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따라오는 것인데, 근본을 못 구하면 자꾸 얽히고 설켜 곤란합니다. 염불하는 마음은 근본의 마음입니다. 그럼 염불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염타불念他佛이라, 부처님을 자기 밖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훌륭한 스님들의 좋은 법문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염불을 잘못 이해해서 염불을 다만 근기 약한 일반중생들이 한다. 근기가 강하고 수승한 사람들은 참선이나 하지 염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염불과 참선의 한계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염불 이것은 근기 낮은 분들한테 대해서 부처님께서나 도인들이 임시로 말씀하신 말입니다.

부처님은 밖에 있다, 극락세계에 계신다, 이와 같이 부처님을 우리 마음 밖에 두고서 마음 밖에 있는 부처님을 타력적으로 우리가 흠모하고 추구하는 식의 염불은 염타불念他佛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마음이 익어져서 부처님은 마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부처님은 자기 마음 안에 있다, 자기 마음 안에서 부처님을 구한다, 이것이 염자불念自佛입니다. 즉 자기 안에서 구하는 염자불念自佛입니다. 따라서 염불하는 차원의 순서로는 염타불에 비해서 염자불이 더 높은 셈입니다. 이것은 (염타불) 밖에서 부처님을 앙신仰信으로 구하는 것이고, 염자불은 우리 자성불自性佛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다. 사실은 부처님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본질로 해서만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밖에나 어디에나 빈틈없이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

내 밖에 내 안에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신 부처님, 이것이 염자타불念自他佛입니다. 그래서 염자타구염불念自他俱念佛이라, 밖에나 안에나 모든 것을 함께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참다운 염불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법당에 불공을 모시는 아직은 무지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물론 불공은 모셔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처님을 내 안에 내 밖에 천지 우주에 가득 찼다는 느낌으로 모시면 좋지만, 그러면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지만, 다만 부처님을 밖에서만 구하면 그것은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공들이면 들인 만큼 있다고 하지만 큰 공은 못됩니다. 마땅히 천지 우주에 어디에도 계신다는 이와 같이 염자타구염불念自他俱念佛을 생각하면서 모셔야 합니다.

법당에 부처님은 불상을 모십니다마는 불상 이것은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나무나 쇠로 만든 것에 부처님이 들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천지 우주에 계시는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허나 천지 우주 안 계신 데가 없거니 그런 동불銅佛이나, 석불石佛이나 모두 불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볼 때는 천지 우주 모두가 한계가 없습니다. 즉 간격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뿔뿔이 봅니다마는 사실 뿔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자현미경을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전자현미경으로 본다고 하면, 천지 우주가 이렇게 안 보이고서 하나의 가스체, 가스보다도 더 희박한 공기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안목으로 봐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와 같이 미세한 것으로 본다면 보다 부처의 안목으로 본다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봐도 가스체로 보이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엄밀하고 투철하고, 가장 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 불안佛眼,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모두가 다 불성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불상이나, 쇠로 만든 불상이나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허나 우선 상대유한적인 의미에서라도 역시 법당에 모신 부처님은 천지 우주의 부처님 상징입니다. 그래야 공부도 되고 성불의 길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중복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기 위해 말합니다.

염불을 구분할 때 부처님을 자기 밖에서 생각하는 염타불念他佛, 또는

자기 마음의 본질로 생각하는 염자불念自佛, 또 자기 마음 밖에나 안에서 함께 구하는 염자타구염불念自他俱念佛, 또 한 가지 구분은 칭명염불稱名念佛이라, 즉 부처님의 이름을 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음보살, 아미타불, 약사여래라 부르는 것은 칭명염불稱名念佛입니다. 부처님의 대명사, 이름을 외운다 말입니다. 아라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라한을 모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가를 천도하는 때에는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나 지장보살地藏菩薩을 부르고, 그와 같이 부처님의 이름은 많이 있으나 모두가 다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뿔뿔이 생각했을 뿐입니다. 공덕 따라서 붙는 이름을 외우면서 부처님을 외웁니다. 이것이 우선 가장 하기가 쉽고 다음은 관상염불觀想念佛이라, 어느 상호, 즉 부처님의 화상畫像을 생각하면서, 화상이 지금 눈앞에 없다하더라도 부처님은 훌륭하구나, 부처님의 공덕은 끝없구나 하고 부처님의 공덕이나 화상을 염하면서 관념적으로 하는 염불, 이것이 관상염불觀想念佛입니다. 그다음은 역시 음은 똑같은 관상염불觀像念佛이라, 부처님의 상을 앞에 놓고 아미타불, 관음보살의 부처님의 형상을 앞에 놓고서, 우리가 보면서 부처님과 닮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상을 놓고서하는 것이 관상염불觀像念佛입니다.

그다음은 실상염불實相念佛이라, 이것은 아까 말한 염자타구염불念自他俱念佛과 같은 염불입니다. 즉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합해서 모든 존재의 근본 실상, 일체생명 존재의 실존을 생각하면서 하는 염불이 실상염불입니다. 따라서 염불은 실상염불에 와서 비로소 올바른 참다운 염불입니다. 어떤 염불이나 공이 있지만, 가령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염불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 한에는 평생 해야 합니다. 불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역시 표현이야 이름만 다르지 염불은 염불입니다. 하느님도 부처님이나 같은 것이니까요.

따라서 여기 있는 법문의 한계를 잘 외워두어야 그때그때 혼돈을 안 느끼고서 누구한테든지 바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름만 외워도 밖에 계시니까 우리를 구제한다, 복을 준다 하는 즉 염타불念他佛식으로 이름만 외우면 별로 큰 공은 없습니다. 마땅히 이름만 외울지라도, 내 마음 자세는 맨 나중에 있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이라, 천지 우주를 우리가 부처로 보고서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타의 구분이 없고 일체만유가 오직 부처님뿐이구나, 우리가 미처 못 봐서 그렇지 바로 보면 부처님뿐이구나, 천지 우주는 하나의 부처님 생명이구나, 이와 같이 부처님의 절대적인 생명, 생명에다가 마음을 안주하고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야 참다운 칭명염불이 됩니다.

지금 우리네 어버이나 할머니들은 보통은 실상염불을 모르고서 칭명염불稱名念佛을 합니다마는, 그런 분한테도 타일러서 실상염불實相念佛에 마음을 두고서 외우도록까지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덕이 많습니다. 그래야 자성이 맑아져서 성불의 길로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불들이 그때그때 어디에 응용하는가? 응용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수식염불數息念佛이라, 수식이란 호흡을 하는 것인데, 호흡을 헤아리고 호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호흡법하는 사람들이 그냥 호흡하기가 곤란하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들숨·날숨에다 맞춰서 염불합니다. 자기 호흡에 맞추어 염불하는 것이 수식염불입니다.

그다음은 참구염불參究念佛, 이것은 이름을 안 외운다 하더라도, 자기마음속으로 '내 본 성품이 부처거니! 천지 우주의 본바탕이 부처거니!' 이와 같이 부처님을 믿고서 부처를 구하는 염불입니다. 이것은 소리 안내고 마음으로 참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간화염불看話念佛이라, 참선하는 분들이 화두 하는 분들이 의심하는 화두가 있는데 '무자無字' 화두가 있고 '뜰 앞의 잣나무' 등 화두가 천칠백이나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심하는 화두 대신에 아직 우리가 부처가 못됐으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천리만리 먼 길이니

까, 부처님을 하나의 명제로 하고서, 부처를 구하는 문제를 하고서 부처를 구합니다.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을 화두로 해가지고서 구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명호, 이름을 화두로 해서 구하는 염불, 이것이 간화염불看話念佛입니다.

또는 융통염불融通念佛이라, 융통성 있게 이것저것 안 치우치고 어떤 때는 의심했다가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 보았다가, 우리 인간의 심리는 원래 원만한 것이어서, 어떤 때는 의심도 하고 싶고 어떤 때는 백퍼센트 믿고도 싶고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영원적인 부처님을 의심도 해봤다가 무념무상으로 해봤다가 염불도 해봤다가 마음의 집착 없이, 부처님의 법 따라서 원융무애하니 하는 것이 융통염불입니다.

그다음은 관음염불觀音念佛, 부처님의 자비심은 우주에 충만한데, 부처님은 그야말로 자비와 지혜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께서 나오신 것은 다 관음觀音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안 나오신 것이 없어서, 사실은 일체만유가 다 관음화신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산하대지 모두가 다 관음화신입니다. 산도 물도 관음 화신입니다. 천지 우주 모두가 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성령인 관음이구나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관음보살도 역시 이름을 부르면 날 구제하겠지, 나한테 복이 오겠지 하면 저급한 염불입니다. 관음과 내가 둘이 아니고, 일체만유가 관음과 둘이 아닌 경계, 모두가 일체 존재가 관음화신이라는 경계, 이런 것을 납득하고서 염불해야 만이 참다운 관음염불인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아미타불하는 미타염불 또는 미륵염불이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본이 하나임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경을 보시면 부처님의 여래십호가 항시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덕이 많으니까, 이름을 붙이면 하도 많으니까, 많지만 보통 열 가지 이름으로 공덕을 찬탄합니다. 즉 하나는 여래如來라, 진리에서 왔다, 진리에서 그대로 오셨다, 우리 성자는 다 여래 아닙니까? 성자는 진리 그대로 왔으니까,

진리에서 바로 조금도 흠이 없이, 진리 그대로 표현된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여래라, 여법이 왔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여如라 하여 여여如如는 진리 같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응공應供이라, 마땅히 일반 모든 존재의 중생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같이 번뇌가 남아 있으면 중생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아직은 미달합니다. 허나 부처님만이 번뇌를 녹여 버려서, 나와 네가 둘이 아닌 부처님만이 참답게 일반중생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공입니다.
다음은 정변지正徧知라, 바르고 보편적인 지혜라,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우주의 모두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부처님의 지혜를 다 아시는 겁니다. 일체를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하면서도 보편적인 치우침이 없는 앎, 이것이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다음에 명행족明行足이라, 부처님의 지혜가 밝아서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혜와 행동을 원만히 갖추고 앎 뿐 아니라 실천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善逝라, 부처님은 중생이 아니라, 바른 행동만 취하고서 참다운 영생의 피안으로 바로 가신 분입니다. 물론 피안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가시고 바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오신 것이 여래요, 바로 가신 것이 선서입니다. 진리의 바다에서 바로 오시고, 바로 가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진리의 바다에서 바로 오시기 때문에 여래고, 진리의 바다로 가시기 때문에 선서입니다. 세간해世間解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도인들은 도인적인 법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장사나 정치를 다 알아야 합니다. 참다운 지혜는 다 알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변입니다.

또 무상사無上士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부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천상천하무여불天上天下無如佛이라, 부처님같이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무상사無上士라, 다시없는 훌륭한 분입니다. 또는 조어장부調御丈

夫라, 인간의 탐욕심이나 성내며 불뚝거리는 흥분하는 마음이나 무명심이나 모두를 눌러서 조복을 시켰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밖의 적보다 마음의 적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마음의 번뇌가 더 무서운 적입니다. 지금 사람은 밖에다만 외쳐봅니다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원수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참다운 원수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일체 번뇌를 조복시킨, 정복한 분이 조어장부調御丈夫입니다.

다음은 천인사天人師라, 하늘과 인간의 스승, 인간뿐만 아니라 무수한 천상도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는 이십팔천이라 하지만 무수한 천상, 몇 천개 몇 만개 천상이 있습니다. 그런 천상과 인간을 합한 스승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천인사입니다.

또는 불세존佛世尊이라, 사바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높은 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열 가지 명호입니다.

한도 끝도 없지만 이와 같이 열 가지로 해서 각 불경에는 그때그때 많이 나옵니다. 한 경전에 십호가 몇십 번 나온 곳도 있습니다. 잘 모르면 그때그때 애매하게 넘기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상묘해實相妙解를 잘 모르면 애써 공부해도 큰 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무엇인가? 일체존재의 본질입니다. 참모습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을 실상이라고 안 봐야합니다.

우리 중생은 가상假相이라, 우리 중생은 참다운 진짜는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꿎게도 탐심貪心·진심嗔心·치심癡心 삼독심 때문에 바로 못 봅니다. 우리 중생은 삼독심에 가려서 거기에 걸려 봅니다. 허나 삼독심에 안 걸리고서 바로 보는 참다운 지혜에 비추는 우주의 참모습 이것이 실상입니다. 실상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세계가 아니라,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 세계뿐입니다. 우리는 금생에 갈는지, 몇 생후에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교 믿음은 석가모니가 위대하다, 누가 위대하다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가장 옳은 정신正信 이것은 실상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못 본

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심심미묘한 자비와 지혜 일체공덕을 갖춘 부처다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못 가지면 불교의 참다운 신앙은 못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을 내세우고 자타自他를 구분하고, 우리 중생이 보면 분명히 자타가 있고 밉고 고운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평등무차별平等無差別의 하나의 생명체, 이런 것을 분명히 믿는 묘한 지혜, 묘한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계행을 지키고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하고, 고행을 하고, 하루 한 끼 먹고 하더라도 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다만 외도의 고행하는.... 고행외도란 보통 바른 지혜가 없이 단식 많이 하는 등 고행을 많이 한 걸로 수행을 삼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단식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실상묘혜가 있으므로 해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경우는 외도의 고행과 똑 같아서 별로 큰 이익이 없습니다.

과거 미련할 때는 부처님을 밖에서 구하고 실상을 미처 모르고서 구했지만, 지금 현재는 실상을 모르고 구하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체이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마땅히 부처님과 무수한 성자가 보신 그대로 믿어야만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실상묘혜입니다. 실상묘혜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실상묘혜를 간직해야만 참다운 수행이 됩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많이 들어도 들을 때는 감격도 하고 마음이 격발되고 합니다만, 또 가정이나 사회나 사바세계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잊어버리고 마음이 해이되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법을 구하면서 난행, 고행하신 그 모습들 그 자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구법승들의 전기를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년결사인데, 삼년결사도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3년 동안 문밖에도 못나가고, 누구도 못 만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구법승들,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하고 하는 천 년 전에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하는 구법승들에 비하면 너무나 이것은 안이한

생활입니다. 법현(法賢, 340~420)대사나 현장법사(玄奘法師, 601~664)나 인도에 갈 때는 인도에 한번 갈 때 기간이 삼 년이 더 걸립니다. 백 사람이 출발하면 몇 사람도 못 살아납니다.

사막을 넘고 파미르고원을 넘고, 사막의 넓이가 우리 한국보다 넓은데 몇천 리 가도 사막뿐입니다. 이런 고생 고생길을 3년이 더 걸려야 인도에 닿습니다. 그러면 또 말이 다르니 말을 배워야죠, 가서 말 배우면 몇 년, 불경 배우는 데 몇 년, 이런 기간이 보통 이십 년이 넘습니다. 삼십에 들어가면 오십이 넘어야 옵니다. 우리가 보는 한문 불경들은 그렇게 해서 구한 것입니다. 진리를 구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가신 분이 법현스님입니다. 서기 399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지금같이 문명시대에도 실크로드를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천몇 백 년 전에 실크로드를 가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막 가다가 길이 없으면, 가다가 해골이 발에 치면, '아! 이 길이 옳구나.' 해골이 없으면 길을 모릅니다. 가다가 길에 쓰러진 해골을 보고서 길을 찾아갑니다. 십진구퇴十進九退라, 열 사람이 가면 아홉 사람은 후퇴하고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법현스님은 육 년 걸려서 중국에서 인도에 갔습니다. 그 험난한 사막과 밀림 가운데서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진리를 구한다는 그 마음, 역시 자기 생명을 몇 번 내던진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 구하는 것입니다. 이 법현스님이 갈 때 육 년, 또 인도에서 몇 년, 그렇게 이십 년 동안 걸려서 낸 것이 『불국기佛國記』라, 인도의 나라는 부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지금도 『불국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현장玄奘법사라, 이것은 손오공 같은 『서유기西遊記』에서 다아는 법문 아닙니까? 손오공이랑 같이 갔던 현장법사는 들어가기 전부터 위대한 법사인지라, 임금한테 말하니까 승낙을 안 했습니다. 당 태종이 승낙을 안 해줘서 몰래 숨어서 출발했습니다. 낙타가 몇 십 마리 있어야 되고 사막을 넘어야 하니까요. 몇 십 명이 한 대隊를 짜서 갔습

니다. 그러나 다 쓰러지고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손오공과 저팔계 등 몇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험난한 길입니다. 한번은 현장법사가 사막에서 물은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고 기진맥진해 가만히 누워 '이제 죽었구나' 하구서 체념하고 힘없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님의 장엄스런 모습이 보이면서 새로운 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막혀보이던 길이 훤히 트여 보인다 말입니다. 우리는 장애障礙나 마구니 같은 것을 무서워합니다만, 사실 자기 생명을 내 던진 마당에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만 우리에게 참답게 베풀어지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천지 우주는 원래 신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중생이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우보익생만허공雨寶益生滿虛空이나, 천지 우주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보배가 충만해 있지만, 중생이 어두워서 미처 잘못 수행했습니다. 우리 신앙심만 사무치고 정말 성실하면 얼마든지 행복을 받아쓴다 말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공부한 혜초(惠超, 704~787)국사, 혜초 역시 신라에서 나올 때에 십육 세 약관弱冠도 미처 못되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강삼장에게 공부하다가 이분도 인도로 갔습니다. 이분은 인도에 갈 때 바다로 해서 인도를 가고, 올 때는 육지로 오면서 쓴 것이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입니다. 즉, 인도의 다섯 나라의 풍물·풍토를 쓴 것입니다. 이러한 법현대사, 현장법사, 또는 의정법사, 해일법사, 혜초국사 같은 분들이 갔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갔지만, 이분들은 역사에 두드러지게 남은 분들입니다.

의정(義淨, 635~713)스님은, 현장법사가 인도에 갔다 와서 유명해지고 또 그분의 공로가 많은데 부럽지만, 그 당시에는 계율戒律적인 율본이 별로 없어서 계행에 대한 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를 갔습니다. 이분도 역시 꼬박 내왕만 해서 육 년입니다. 갔다 온 시간이 이십일 년이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하도 답답하고 구법승들의 모습이 애처로워서 그때 읊은 시가 이것입니다. 진晉·송宋·제齊·양梁 당대간唐代間이라, 의정스님 갔던 시대가

당나라 때인데, 당의 이전, 진・송・제・양나라 때도 많이 갔습니다. 고승구법리장안高僧求法離長安이라, 그런 고승구법들이 장안을 떠나갔는데, 거인성백귀무십去人成百歸無什이라, 갈 때는 수가 백을 이뤄도 중국에서 인도까지 구만리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열도 안 됩니다.

갔다 올까 말까 하는 아득한 길을 떠나야 하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법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생에 통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공부 안 할 수 없는 것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이런 구법승求法僧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진리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 장안을 떠나서 갈 때는 백을 이루어도 돌아올 때는 열 사람도 안 됩니다. 후좌안지전자난後座安知前者難이라, 뒤에 앉아 편히 경經을 보는 사람들이 어찌 알 것인가, 앞의 사람의 고난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이 갖다 준 경經도 잘 못 봅니다.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을 구할 때는 이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법을 구할 때 간절한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얼마나 고생스러웠던가를 전달해주는 내용입니다.

억상애정별憶想哀情別하니, 생각하니 슬프도다, 간절한 마음이 애절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혜초국사慧超國師가 인도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인도에 가서 공부하다가 고향도 못 가고 죽은 사람이 있어서 인도 법당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슬프도다, 그대들이 원대로 못 따랐구나, 누가 알리요 고향 돌아가는 길을! 고향에 가고 싶어 몸 부림도 많이 쳤겠지만, 어떻게 갈 길이 없다 말입니다. 한 달에 가는 길도 아니고,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세월 가도 가기 힘든 길입니다. 부질없이 고향 따라 가는 흰 구름만 바라본다, 이런 애절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게으름 부리지 말고 우리도 역시 구법승 못지않게 공부해야만 불법이라 하는 광대무변의 자리, 영생의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의 몸

가운데는 갖은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땅기운, 물기운, 불기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가 모여서 몸이 안 되었습니까? 물론 원소로 하면 산소・수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각 원소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자재로운 힘만 낸다고 하면 불을 내고 싶으면 불이 나오고, 물을 내고 싶으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도인道人이 있었습니다. 그 도인이 승법상인勝法上人이라, 위대한 도인, 승속 간에 상관없이 위대한 사람한테 상인上人이라 합니다. 승법상인이란 분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삼매에 잠기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한번 방에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마침 식食 때가 되어서 시자侍者가 방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스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훤히 불만 보입니다. 조금 뒤에는 불이 물도 되어서 물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자가 돌멩이를 던져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스님이 방에서 나오신다 말입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서는 가슴이 아프다고 해요. 가슴을 만지면서 몹시 고통스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자에게 내가 들어간 후 무슨 일 없었는가 하고 물어보니, 시자가 "사실은 스님께서 안 계셔서 방을 들여다보니 물만 보여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법상인께서 "그럼 내가 방에 다시 들어갈 테니까 다시 돌을 던져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 물로 화化해서 물이 있으니까 그 시자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 뒤에 다시 나오셔서는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매에 들면 모든 신통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 천리만리입니다만 하나가 되면 모든 힘을 발휘합니다. 실상實相 가운데는 정변지혜, 자비 등 다 들어있습니다. 물, 불 또는 각 일체 요소가 다 있어서 참다운 힘만 낼 수 있는 삼매에 들면 다 발휘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무한의 힘, 무한의 가능을 분명히 믿고서 그러한 것과 하나가 되는 데서 우리 공부가 전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한 염불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공부는 하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상염불實相念佛이라, 실상염불의 본질을 이탈하지 않고서 언제나 어떤 공부를 취하든지 간에, 가령 인연이 바뀌어져서 하느님을 믿든지 간에 또한 염불 안하고 다른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마음 자세만은 실상염불 속에 마음을 안 주시켜야 공부에 손해가 없고 우리 마음이 산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염불과 참선이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실상에 안주가 안 되면 염불은 염불대로 들떠서 그것이 참선은 못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선과 염불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염불 이것은 정도가 낮다 기왕이면 참선해야 한다고 참선을 고도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선과 염불이 본래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데 한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것에 구분이 있는가? 부처님 법문 중에 선시불심禪是佛心이요, 참선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시불어敎是佛語라, 교는 부처의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선 이것은 우리 마음의 불심, 불심에 입각을 해야만 참선입니다. 아무리 모양을 참선 같은 모양을 취한다 하더라도 불심佛心에 입각을 못하면 참선이 못됩니다. 우리 마음이 참선에 가서 안주하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불심佛心에 안주를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화두를 의심하고 참선 같은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일체 만유가 하나다, 천지 우주가 원래 부처뿐이다 하는 이런 생각, 천지 우주가 진공묘유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텅텅 비어서 원래 있는 것은 불성佛性뿐이다, 이와 같이 본래 불성, 여기다 마음을 두어야만 참선이나 선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 따라서 아미타불을 부르나 뭐를 부르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고 우리 마음만 절대 무차별의 하나의 생명인 불심佛心 자리에 안주하면 다 참선인 것입니다.

집안에서 일하고 학생이 공부하고 경經을 보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불심에 안주하면 선禪인 것입니다. 즉 무시선무처선無時禪無處禪이라, 때와 장소가 따로 없는 참선, 이것은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안 떠나 있다 말입니다. 관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것이 음향으로 그치지 않고서 우리 마음 자세가 겸비가 되어 마음 실상에 부딪혀 안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안주하는가? 우리가 불심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주하는가? 불심을 봐버리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사실은 불성을 보는 것은 천안통天眼通을 통하고 삼매에 들어서 우리 스스로 물도 되고 불도 되고 하는 경계가 안 되면 불성을 못 봅니다. 천지 우주에 가득한 불성을 보기 위해서는 삼매에 들어서 우리 몸의 모든 번뇌를 녹여버려서 우리 몸이 천지 우주와 하나가 되는 순수한 데에 이르러야 불심佛心을 보는 것입니다. 불심을 봐야 참다운 정신正信입니다.

사실 신앙이 불심을 못 보면 미신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하지만 아직은 미신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것이지 불성을 안 보면 확실히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경에도 '증전證前에는 미신迷信이요, 증후證後에는 정신正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심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마음을 영원적인 불성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대체로 아시겠지만, 우리 중생이 보는 모든 경계는 사실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좋다, 궂다, 밉다, 곱다 하는 경계, 그런 우리가 보는 정도의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경에 몽환포영夢幻泡影이라, 그림자 같고, 거울에 비친 산 같고, 메아리 같고, 구름 같고 하는 것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허깨비인 것입니다. 밉다 해도 참으로 미운 것도 아니고, 좋다 해도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만 자기의 무지를 압니다. 수행자는 자기가 보는 견해의 유한성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유한적인 유한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대를 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것을 부정을 딱 시켜서 부정을 시키나, 부정의 실체, 부정해 버리는 그 내용, 다 공空해 버렸지만 그 공空의 내용, 공空이 아닌 참다운 영생의 생명, 그것이 불성입니다. 그것도 안 보이니까

확실히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와 같이 믿어야 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진공묘유眞空妙有라, 우리가 보는 것은 텅텅 비어서 허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지만 우리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묘유妙有가 참말로 있습니다. 참말로 있는 것은 묘유妙有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있는 것이고, 참다운 것은 묘유입니다. 부처님이나 도인이 보는 무가정無假定의 원리, 가정을 떠나버린 참다운 진리인 묘유,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법문 끊어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 무량수불無量壽佛·무량광불無量光佛·청정광불淸淨光佛이요,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명호를 광명 쪽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생각할지라도 가장 미세한 존재인 소립자가 광파光波 광명의 파도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광명의 파도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광입자입니다. 양자·중성자·전자나 모두 광입자에 불과합니다. 천지 우주는 광파가 충만한데 광명의 파도가 중생의 업 따라 적당히 결합되고 진동해서 이루어진 것이 각 원소요, 원소가 결합해서 물질이 됐습니다. 우리 중생은 미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참다운 성자는 그런 광파, 일체 물질의 근원적인 광명의 파도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는 광명의 파도뿐인 것입니다. 파도 위에서 각 존재가 인연 따라서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불성을 안 봐서 모르지만 진공 묘유라 해도 역시 애매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광명의 표현으로 된 무량광불이라, 무량광불이란 광명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천지 우주가 광명의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실상에다 딱 매어두려면 분명히 안 보이지만 광명의 생명은 사실이니까, 성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니까, 그 성자의 말 따라서,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런 무량광불, 광명으로 충만 된 것을 상상하면서 그 이미지를 안 놓치면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상을 안 여의는 공부입니다. 실상을 안 여의면 모두가 참선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느끼게 되지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실상을

안 여읠 것인가?

실상을 안 떠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팔만장경은 현상 밖에 안 보이는 중생심이 실상을 안 여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각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상을 안 여의는 공부 가운데 가장 절실한 말씀, 가장 고도한 말씀이 천지 우주가 부처님의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미지로 부각도 시키고 자기암시도 주면서 하는 염불이 실상염불인 동시에 어떤 공부나 선禪이 됩니다. 그래야만 불심佛心에 계합됩니다. 인연 따라 어떻게 공부하시던지 제일하기 쉽고 인상적인 것이 천지 우주를 광명으로 보는 것이니까, 공부를 해가면 미처 도인이 못 되어도 순간순간 광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때그때 순간에 비치고 맙니다. 공부가 깊어지면 그 순간이 길어집니다. 순간이 길어지면 광명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겠지요. 분명히 존재하는 광명을 연상하면서 광명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광명과 하나가 되어갈수록 우리 마음은 확대가 되고 우리 지혜는 더욱 더 증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의 행복, 광명이 되어야만 비로소 영생합니다.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영원의 생명을 발굴해 가면서 해탈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Ⅲ

사람 근원은 보신報身 · 법신法身입니다.

"풀도 역시 근원은 보신 · 법신입니다. 이 컵도 역시 근원은 법신 · 보신인 것입니다. 다만 화신의 경계에서만 그때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본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근원이 하나인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이며, 이것이 정견正見입니다."

1. 가장 행복한 세계가 화장세계華藏世界입니다

* 1987년 7월 5일 태안사 정기법회 법문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이 평등무차별해서 원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는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높은데 앉아서 편히 지내고 있고 또는 자리가 없어서 서서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 마음이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상적인 행복스런 세계를 추구해 마지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방법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행복을 구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행복스런 세계를 우리 불교에서는 화장세계華藏世界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즉 조금도 그런 오염도 없고, 또는 조금도 죄악도 없고 차별도 없고 평등한 또는 자유스러운 진리에 입각한 여법한 사회가 진리에 맞는 그런 사회가 이것이 화장세계입니다. 화장세계를 우리 불교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극락세계라, 조금도 그런 고통이 없는 안락이 원만구족한 그런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서는 밀엄국密嚴國이라, 이것은 어떤 뜻이고 하면은 비밀스러운,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신비부사의한 우리 중생의 지혜로 해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공덕이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자비도 한도 끝도 없이 충만해 있고 또는 지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공덕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이나 간에 완전무결한 사회, 이러한 신비부사의한 사회가 이것이 밀엄국이라, 또 불경에서 딴 이름을 들어보면 청정광명처淸淨光明處라, 조금의 오염도 없고 또는 영원한 진리의 광명이 충만한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상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불경에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화장세계라, 마치 연꽃같이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 그런 세계 또는 행복이 사무친 그런 극락세계, 또는 일체 공덕을 다 갖춘 밀엄세계, 또는 불성광명이 우주에 편만遍滿해 있

는, 없는 데가 없이 충만해있는 그런 세계니까 청정광명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세계는 지금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계는 미래에 있고 현재 오지 않은 세계가 아닙니다. 또는 과거 없는 세계가 아닙니다. 청정광명처 또는 극락세계 이것은 과거도 분명히 존재했고 또는 바야흐로 현재 역시 존재하고 있고 미래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사회란 말입니다. 극락세계나 밀엄국이나 청정광명처나 또는 화장세계나 이런 세계는 영생사회입니다. 있다 없다는 사회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잘 못 생각해서 바른 견해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맛을 못 본다 말입니다. 즉 감견感見을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 중생의 마음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면 중맹모상衆盲摸象이라, 여러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비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사 그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말할 것이고,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반구半球와 같다고 말할 것이고 이와 같이 소경들이 코끼리 전모·전신을 못 보고서 자기가 만진 곳에 따라서 자기 소견을 낸단 말입니다. 따라서 코끼리가 뭣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각기 서로 자기 의견대로 고집해 가지고 싸움도 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삶이라 하는 것은 대체로 이러한 중맹모상이라, 뭇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따지는 견해와 같이 아집과 독선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 중생은 모든 사태나 사물의 본바탕을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문제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우선 합니다. 가사 사람 몸도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우리가 보통 느끼는 이것은 상식적인 인간의 그런 견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지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보

다도 그 사람 몸이 어떻게 어떠한 원소로 해서 구성돼 있는 것인가, 그 사람 생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와 같이 해부학적이나 분석학적으로 사람 몸을 점검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판단도 있는 것이고, 허나 앞서 처음에 말한 상식적인 표현, 즉 말하자면은 그 사람 얼굴이 좀 잘나고 못나고 늙고 좀 덜 늙고 그런 정도의 것이나, 또는 과학적으로 각 원소가 모여서 한 세포가 돼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견해나 이러한 것은, 인간의 전모全貌를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모를 바로 못 보는 것은 역시 그러한 옅은 견해로 해서는 본 근원을 못 본다 말입니다. 오직,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견해만이 즉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만이 인간을 참답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된 발견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상식적이라던가 또는 과학적인 분야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자아自我를 참답게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철학적인 깊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인 견해 또는 과학적인 견해 그것만 가지고서 우열優劣을 따지고 사회나 여러 가지 현상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행운이 도래해서 활짝 열려있는 그런 복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각기 구구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어떤 사람이 공이 많다던가,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 힘이라던가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따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밖에는 사태를 모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바른 견해인가, 이것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같은 종교·철학 가운데도 부처님 가르침 같이 무가정無假定의 원리라, 가假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원리로 해서 말씀한 가르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견해로 해서 이러한 어떤 사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연생因緣生이라, 좋은 것도 인연생, 나쁜 것도 인연생, 개시皆是, 모두가 다 인연생입니다. 무수한 인因과 연緣이 합해서 하나의 사태가 딱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누가 죽었다 하면 죽은 그것은 하나의 원인만이 아닙니다. 가지가지의 종종무변種種無邊의 그런 원인인 연緣과 인因이 합해져서 그러한 죽었다 하는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개방된 분위기에 지내는 것 역시 이것은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단체 그것만의 공로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과 연이 무수무량의 인과 연이, 합해져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천지 우주의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생명력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지금 활짝 열려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원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넓은 큰 사태뿐만 아니라 하나의 풀포기라 하더라도 이 앞에 지금 여러 가지 화초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꽃 한 송이 역시 다만 하나의 원인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태양기운 물기운 또는 땅기운 나아가서 천지 우주의 모든 기운이 직접 간접으로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서 어느 한 가지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아까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우리 중생이 미처 지금 다 수용은 못하고 느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천지 우주는 이것은 바로 극락세계, 화장세계란 말입니다. 옛날 미개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법문을 알았지마는, 지금은 아주 개명된 사회인지라 개방된 사회인지라 부처님 법문도 역시 가장 고도한 법문을 단박에 알아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쁜 때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분들은 총명한 분들입니다.

즉 우리 중생은 상식적으로나 또는 중생의 여러 가지 분별시비로 보

는 것이니까 미처 바로 못 보고서 극락세계를 극락세계인줄 모른다 말입니다. 허나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서 참다운 마음, 본래 마음을 가지면 바로 이 사회에서 극락세계를 희구希求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는가? 우선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 불교에서는 열 가지 경계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구분합니다.

제일 나쁜 마음, 제일 못된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 남을 미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모질스런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이것은 지옥地獄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쓰는 순간 그 사람 마음이 지옥 같은 것이고 또는 그렇게 마음 씀으로 해서 그 사람 죽으면 꼭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방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나 내세나 분명히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조금 나은 마음 그 마음은 아귀餓鬼 같은 마음이라, 아귀 이것은 욕심만 내는 자기 외에는 모르는 그런 귀신이 아귀 아닙니까. 아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보다 좀 나으면 그 때는 축생畜生 같은 마음이라,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는 지혜가 없어서 어두운 지혜 때문에 금생에 사람 몸 못 받고 또는 천상도 못 가고 그냥 개나 소나 돼지 그런 몸을 받습니다.

그보다 나은 마음은 무엇인가. 아수라阿修羅 같은 마음, 아수라라는 것은 서로 악쓰고,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그와 같이 우리 사회가 온통 아수라 같은, 아수라장 같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싸움 좋아하고 서로 때리고 화염병 던지고 말입니다. 이런 싸움 바닥 이것이 아수라 마음입니다. 그보다 나은 마음은 우리 인간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처 같은 마음 단박 냈다가 그냥 순간 찰나에 나쁜 마음 됩니다.

인도의 아소카왕은 인도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성군聖君 아닙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서 아소카왕 같은 성군은 없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소카왕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폭군이었습니다. 생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수帝須[목건련자제수目揵連子帝

須]라던가 또는 혜연비구나 그런 훌륭한 스님네 만나서 마음을 딱 돌이켰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한번 돌이킨 다음에는 인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자비롭고 지혜로운 그러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팔만사천 탑을 세우고 또는 가지가지 그런 불법의 홍포를 해서 빛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인 쿠나라는 굉장히 얼굴이 잘났습니다. 어떻게 눈이 맑고 예쁘던지 한번 그 사람 눈을 본 사람은 마음이 빨려간다 말입니다. 따라서 아소카왕의 후궁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쿠나라한테 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궁이 그 쿠나라 태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쿠나라는 하도 마음이 성실하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인지라 자기 아버지 아내인 후궁한테 마음이 끌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점잖은 말로 타일러서 오온五蘊은 무상無常한 것, 오온은 허무한 것을 말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허나 그 말을 후궁은 듣지 않고서 음심淫心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간계奸計를 내어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쿠나라 태자의 안구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소카왕은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나중에 몇 년 뒤에야 아소카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쿠나라의 안구가 자기 후궁, 아내인 그 사람 때문에 빼앗긴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소카왕이 진노震怒해 그냥 후궁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쿠나라 태자가 결사하고서 말렸습니다. 제가 안구를 빼앗긴 이것은 제 업장인 것이지, 업장을 제가 받는 것이지 그 후궁의 허물이 아닙니다. 다 전생의 인연을 잘못 지어가지고서 그 나쁜 일만 했을 뿐이지 오직 제 안구를 빼앗긴 것은 제 허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한테 말씀 드렸지마는 아소카왕은 듣질 않았습니다.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후궁을 집어넣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애초에는 폭군이 되었다가 그런 훌륭한 분들 만나서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가 또 마음이 한번 진심이 발동하니까 자기 아내도

이렇게 태워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무상하기도 하고 요물스런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은 아까 말씀처럼 사람 같은 마음도 있고 또는 그보다 더 좋은 마음, 사람 같은 마음은 겨우 오계五戒, 죽이지 말고 또는 훔치지 말고 삿된 음행을 말고 거짓말·욕설 이러한 말도 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하는 오계 정도 지키는 그런 식識이 있으면 그때는 사람 몸 받는다 말입니다. 허나 사람 같은 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은 그냥 제한 받지를 않습니다. 천상天上 마음 가지면 금생에도 천상 같은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또는 죽어지면 그냥 우리 식이 천상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나은 마음은 그때는 성문聲聞이라, 지혜가 별로 수승하진 않지만 부처님 법문 듣고서 이치를 깨달아버립니다. 또 그다음에는 그보다 더 수승해서 부처님 법문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인연 따라서 우주의 도리를 압니다. 그것은 연각緣覺이라, 또 그보다도 더 높은 마음 이것은 자기도 모든 육도만행六度萬行이라, 보시도 하고 또는 계행도 지키고 모든 좋은 행동은 많이 하지만은 일반 중생과 더불어서 성불의 길을 간다. 말입니다. 이는 보살菩薩이라, 이런 보살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 마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구경적究竟的인 최상 마음, 이것은 부처의 마음입니다. 우주의 실상을 바로 알고 우주가 바로 자기가 돼버리고 또는 모르는 것이 없고 일체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처 같은 마음 이것이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있는 지옥 같은 마음 또는 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성문·연각·보살, 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부처 같은 마음자리에 온전히 못될 적에 그때그때 쓰는 것이지 참다운 마음이 못됩니다. 참 마음은 결국은 부처의 마음, 부처 그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래 마음인 부처의 마음을 딱 가져버리면 아까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린 이 세계는 극락세계고 또는 연화장세계고 밀엄국密嚴國이고 청정광명국淸淨光明國이 될 것인데,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으로 변합니다.

아소카왕이 생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무수한 사람을 학살했을 때는 지옥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이것은 비단 아소카왕뿐만 아니라 우리 범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범부는 여건만 되면, 조건만 있으면 당장에 순간 동안 지옥 같은 마음이 발생합니다. 자기 어버이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스승을 때리기도 하고 하는 것 보십시오. 그런 마음은 바로 지옥 같은 마음입니다 허나, 한 마음 돌이키면 그 마음이 또 역시 선량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임不信任시대라 서로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라 합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인가.

자기 마음의 본바탕도 믿지 않고 또는 상대의 본마음 바탕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본바탕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쁜 짓을 좀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본래가 부처구나, 내 마음은 영생할 수가 있고 일체 공덕을 갖추고서 천지 우주를 오직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내 마음은 부처구나! 이와 같이 믿는다고 생각 할 때는 우리는 어설픈 마음에다가 자기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본래 자기면목을 몰라서 지옥 같은 마음도 내고 또 축생 같은 마음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본래 마음은 부처 같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면 아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도 불신할 수가 없고 남의 마음도 불신 할 수가 없습니다.

춘추전국시대 맹자(孟子, B.C. 371~289)와 순자(荀子, B.C. 300~230) 보십시오. 맹자는 성선설性善說이라, 우리 인간성은 본래 선한 것이다 이와 같이 느꼈단 말입니다. 또는 순자같이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간직한 사람들은 남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는 기독교 신앙같이 원죄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그 아담과 이브의 아들로 해서 카인이 제 동생 아벨을 죽였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진심嗔心을 내어가지고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자기 친 동생까지를 죽인 카인의 후예다, 따라서 인간 마음은 원래 나쁜 것이다, 원죄가 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은 원죄로 원래

나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생관으로 해서는 또 역시 우리가 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불신풍조가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헌데, 아까 말씀처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또는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기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대체로 고학력 지도층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 있어서는 그냥 방편적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거의 삼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편적인 낮은 법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인간의 마음을 딱 집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만 시기상응時機相應, 시기적절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쓰는 마음을 사람 같은 마음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본바탕은 부처 같은 마음이 자기 본질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교 인생관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라, 이것은 인도어인데 무엇인가 하면 광명변조光明遍照라, 광명이 우주에 두루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을 때는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불타관佛陀觀을 가질 때에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한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세 가지 범주로 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말합니다. 세 가지 범주는 무엇인가 하면 법신法身이요 보신報身이요 화신化身입니다. 소위 불교를 믿는 분들은 법신·보신·화신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신앙 대상인 부처님에 대해서 개념이 서는 것입니다.

법신은 무엇인가. 그 법신이란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말로 해서, 비로자나불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것은 광명변조, 불성·광명·생명광명이 우주에 두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법신法身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보신報身 이것은 법신·보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신은 법신 가운데 들어있는 일체의 공덕을 말한 것입니다. 그

럼 화신化身은 무엇인가. 화신은 법신·보신이 일체우주의 종종무변의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비교해서 말하면 여기 한 그릇의 밥이 있다고 합시다. 밥 담겨있는 밥 전체 이것은 법신입니다. 밥그릇 안에 있는 밥만은 보신입니다. 또는 하나하나의 밥알, 낱알 이것은 화신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하자면 불교에서 일월삼신一月三身이라,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달의 전체 모양 이것은 법신이고 달의 광명 이것은 보신인 것이고 달그림자는 화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부처님인데 전부 한 번에 부처님의 체體를 말할 때는 법신이라 하는 것이고, 부처님 가운데 들어있는 일체 공덕은 보신인 것이고, 이러한 일체의 현상은 화신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이와 같이 장엄스런 법회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생은 두두물물 모두가 다 이것이 화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근원은 어느 사람이나 간에 내내 그 사람 근원은 보신·법신입니다. 이런 풀도 역시 근원은 보신·법신입니다. 이 컵도 역시 근원은 법신·보신인 것입니다. 다만 화신의 경계에서만 그때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본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근원이 하나인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입니다. 이것이 정견正見입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와 같이 근원적인 정견을 파악 못하면 불교를 바로 모르는 것입니다. 또는 현대와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는 부처님의 정견으로 해서 바른 가치관을 딱 세우는 것이 누구한테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근원은 내내 똑같은 보신·법신이란 말입니다. 어느 인간이나 어떤 사물이나 또는 유정 무정 모두가 다 보신 법신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셋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다에서 바람 따라서 거품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천파만파 파도가 일어나고 또는 몇 수억의 그런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내내 물에서

일어났거니 똑같은 물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역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생명은 보신·법신인지라, 이렇게 화신의 경계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단 말입니다. 거품과 거품이 똑같은 물이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박가·김가·정가, 우리 중생 두두물물 똑같은 보신·법신인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불교를 딱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법신·보신·화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가, 박가 그런 현상적인 데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원적인 보신·법신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체대비同體大悲라, 참다운 자비심이나 참다운 도리 같은 것은 법신·보신을 알아야만 참다운 자비심, 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천지가 한 몸이다. 성악설이나 원래 인간의 원죄가 있다, 우리는 죄스런 것들이다, 그럴 때는 남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강도가 있다 하더라도 강도짓 하는 행동은 나쁘지만은 그것은 겉에 뜬 현상뿐인 것이고 강도 역시 똑같은 보신·법신인 것입니다. 그 마음 돌이키면 그때 그냥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천상天上 갈 수 있는 복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경에서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백구십구인의 사람 목을 베었습니다. 천 사람 사람 목을 베면 도道를 통한다는 외도外道를 알아서 그런 말을 듣고서 미련한 사람이 구백구십구 인의 사람 목을 베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 사람 째 목을 베려 하다가 천 사람째 자기 어머니 목을 베려 하다가 부처님 만나서 마음을 순간 돌이켰습니다. 구백구십구인의 목을 베었다 하더라도 마음 돌이켜서 그냥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자가 되어서 아라한 도를 성취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회심回心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을 불신합니다. 불신풍조를 씻는 가장 근원적

인 가르침은 불교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보면 지금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근원까지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즉시에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법신·보신이 보인다 말입니다.

가나제바 존자尊者란 분은 인도분입니다. 부처님 정통법을 받으신 분이 서른세 분 33조사祖師 아닙니까, 달마達磨스님은 28대고 육조 혜능慧能스님은 33조사 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위대한 도인들이 많이 있으나 우선 전래에 내려온 것은 정통 조사를 33분으로 칩니다. 33분 가운데서 열네 번째가 용수龍樹보살이고 열다섯 번째가 가나제바 존자입니다. 가나제바 존자는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아주 미개한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제바 존자가 사는 나라의 왕자가 외도外道를 믿고서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제바 존자가 외도꾼을 '내가 최파摧破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전부 그렇게 외도에 일색 되어서 부처님 법문을 어떻게 알아듣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존자는 자기가 지원해서 왕궁의 수위守衛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성자가 수위가 되었으니 벌써 행동이 다르겠지요.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것이나 슬기로운 것이 다르니까 수위가 됐지만 그 수위가 왕자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는 그 왕자가 하도 기특해서 그대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일체 진리입니다.' 모두를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왕자 앞에서 감히 일체 진리라, 모두를 다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왕자가 그야말로 괘씸하게 생각 했겠지요. 그러니까 왕자가 '그대가 과연 뭘 아는가?' 그렇게 말하니까 '임금님께서 제 말씀을 믿지 않으시면 그냥 임금님이 신봉하신 그분들을 다 부르십시오. 저하고 말 한번 대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가나제바 존자하고 외도들하고 같이 토론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나 정견正見, 우주의 본질을 다 아는 일체 종지를 다 아는 그런 분인지라 그냥 몇 마디 안 가서 외도꾼을 최파摧破해 버렸습니

다.

그래도 상당히 많고 영향 있는 외도꾼들인데 그와 같은 자기 스승들이 가나제바 존자한테 최파를 당해 버리니까 무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말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과도한 제자가 있었던가 앙심을 품어가지고서 가나제바 존자가 처소處所로 와 있을 때 그냥 칼을 들고 와 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단 말입니다. 칼로 가나제바 존자의 배를 찔러서 몇 번 이렇게 휘저어서 그러니까 창자가 튀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가나제바 존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이것은 그대의 허물이 아니도다. 이것은 내가 숙세에 지은 업장이 칼로 되어서 나를 죽이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대에게 아무런 것도 없지만 다만 그대는 아직은 범부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내 스승, 남의 스승 하는 그런 법집法執 때문에 그대는 죄를 범했는지라 마땅히 그대는 그런 법집을 떠나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를 죽인 살인자한테 설법했습니다. 법집이라, 나만이 옳다 또는 내가 지키는 법만이 옳다 하는 법집을 떠나야 한다. 이와 같이 설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역시 주변이 소란스럽게 되어 가지고서 삼십 명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가나제바 존자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원성을 부리니까 그 아픈 가운데 저쪽 구석진 밀실로 데려가서, 그대가 그대로 있으면 제자한테 발견되어서 그대가 필경 죽을 것이니까 지금 저 내 처소로 가서 내가 쓰던 발우와 가사가 있으니까 가만히 도망가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인 그 자객을 도망을 시킨 다음에 자기 본 처소에 오니까 그때는 그냥 자기 제자들이 와 가지고서 스승을 죽인 놈이 어디 갔느냐고 울부짖을 것 아니겠습니까. 울부짖는 그런 가운데서 그때 또 가나제바 존자가 마지막 법문을 했습니다. 제법본공諸法本空이라, 모든 법은 본래 비었도다. 우리는 이러한 '제법본공이라.' 이런 말씀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방편적으로 믿을 때가 아닙니다.

방편적으로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방편적인 가르침에서는 기독교나 또는 이슬람교나 공산주의나 그러한 어떠한 이념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불교의 방편을 떠나버린 참다운 진실을 바로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대학 다니는 자기 아들, 딸 또는 사회의 고학력적인 여러 가지 높은 수준을 같이 비교하고 제의할 수 있습니다. 제법본공諸法本空이라, 제법이 본래 비었거니, 제법 이것은 일체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나, 너나 산이나, 냇이나 하늘의 별이나 모두 현상을 다 제법 그럽니다.

제법본공이라, 제법이 본래 비었거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야심경』에 있는 오온개공五蘊皆空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오온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일체만법을 구성한 이것이 바로 오온 아닙니까. 산이나 냇이나 사람이나 일체존재를 구성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이것이 오온입니다. 따라서 오온개공이라, 오온이 다 비었다는 그 말이나 제법본공이라 제법이 비었다는 그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제법은 본래 비어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중생의 본질을 못 보는 그러한 상대유한적인 견해기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있다 하는 것이지 참다운 견해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를 그냥 그대로 해서 보신·법신 부처님으로 본다 말입니다. 나요 너요 예쁘고 밉다 하는 분별시비를 바른 눈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중생이 바로 못 보니까 내가 있다 니가 있다 좋다 궂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본다고 할 때는 제법은 분명히 비어 있는 것입니다.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라.' 오온이 다 비어 있음을 우리가 비추어 봄으로 해서 도일체고액이라, 일체 고액을 우리가 제도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법이 비었다 하는 그런 바른 견해를 못 가지면 인생고를 우리가 제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순을 우리가 못 끊는 것입니다. 그저 미봉책으로 호도해서 끊는 것

이지 더 근원적인 번뇌는 못 끊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은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더라도 오온이 비어있다, 제법이 비어있다, 바로 보면 본래 비어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화두로 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모순을 제거합니다.

제법이 본래 비었거니 무아아소無我我所라, 원래 내가 없고 제법이 있다 하니까 내가 있는 것이지, 일체법이 비었으니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그와 같이 일체 원소가 있다 하니까 이런 세포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마저도 다 비었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 중생이 바로 못 본다 말입니다. 마치 어두컴컴한 길에 지푸라기가 있으면 지푸라기를 뱀으로 그릇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은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제법이 본래 비었거니 무아아소無我我所라, 내가 없고 내 소유가 없단 말입니다. 내 집, 내 재산, 내 밭, 논, 금시계가 없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 것이 있는 것이지 내 몸이 없으면 어디에 내 것이 있겠습니까. 제법이 비었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나'라는 것도 없고 나의 소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해서 무상의 행복을 누리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부처님 말씀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이것은 싫든 궂든 간에 역시 무아無我·무소유無所有입니다.

제법이 본래 비었다는 소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결국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제법이 본래 비었거니 나와 내 소유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해칠 것도 없고 해침을 받는 나도 없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집 때문에 나를 죽이는 자가 있는 것이고 또는 죽임을 당하는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거니 죽는 나도 없고 나를 죽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제자들한테 마지막 법문을 하면서 그대들은 이와 같

은 참다운 법을 관찰하고서 법 따라서 공부할 것이지 괜스레 망상심으로 도망간 그 사람 쫓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러서 그 자리를 정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임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위대한 성자란 그렇게 법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법의 실상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가상假相을 보고 도인들은 그와 같이 실상實相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부처님 그러면은 우리 중생도 부처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안 들어가면 그때는 부처가 못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무엇인가, 천지 우주를 다 총망라한 생명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우리 밖에 따로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존재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부처인 것입니다.

다 들어있는 일체지一切智 이것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처님이 아니다 또는 상대방이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부처님 가운데 있으면 부처인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신·보신·화신이라, 우리 생명의 우리 마음의 불교의 법문가운데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자리가 법신인 것이고, 우리 마음에 갖춰있는 공덕이 보신인 것이고, 마음이 일어나는 일체 전체가 이것이 화신인 것입니다. 부처 즉 마음이고 마음 즉 부처입니다. 허나 그와 같은 본바탕을 못 보는 것이니까 우리는 바로 못 보는 데서 가지가지 분별시비를 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자기 개인도 그만치 불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본래 마음자리인 법신·보신·화신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제아무리 위대한 법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작 부처가 되는 공부가 합당하지 못하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래 마음인 부처가 될 것인가? 이런 데도 역시 가지가지의 수행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방편적인 수행방법이 아니라 제일의적第一義的인 우리가 에누리 없이 그냥 바로 성불하는 가까운 길, 우리는 바쁩니다, 바빠 놔서 사실은 복잡한 길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성불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요, 일체만유가 본래 부처임을 딱 믿어 버려야 합니다. 안 보이니까 물론 다 안 믿겠지만 일체 성자가 다 말한 것이고, 또는 지금은 하나의 물리학이나 학문도 역시 일체만유·일체존재가 하나로 돌아가는 즉 무엇인가 모르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는 각 분자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은 양이온·음이온 즉 양자·전자 이런 것이 같이 결합돼서 결합 여하에 따라서 또는 진동 여하에 따라서 결국은 각 원소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원소가 합해져 우리 세포가 이루어집니다. 양자나 전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양자·전자·중성자의 본질은 사실은 아직은 다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모르지만은 결국은 물질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무엇, 부사의한 생명, 양자나 전자나 중성자를 구성한 그 존재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물리학에서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신비로운 그 에너지 그 무엇이 적당한 운동 따라서 양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헌데 그러한 양자나 전자를 구성한 신비로운 그 무엇, 신비로운 그 에너지를 규명한 것 이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분명히 과학을 포섭하고 과학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과학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사실 부처님 법문은 그러한 과학보다도 미세하고 과학의 본질을 밝혀 있습니다. 일체존재의 가장 미세한 소립자인 양자나 전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을 구성한 순수한 순에너지, 가장 순수한 에너지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불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불성은 우주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법신이란 뜻이 비로자나불이라, 광명변조라 하듯이 부처님의 불성광명은 우주의 어디나 간격 없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에 충만해 있는 부처님의 광명,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장場에너지 이런 순수한 생명이 모아져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인연 따라서 그

때그때 양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 이런 것이 결합돼서 원소가 되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도 역시 저 구경적인 하나의 불심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만법귀일萬法歸一이라, 일체가 다 하나의 진리, 어느 것도 불성이라 하는 하나의 진리로 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지금 번뇌에 어두워서 못 본다 하더라도 내 생명의 근원, 유정·무정이나 또는 어떤 것이나 간에....

역시 우리가 남을 불신하지 않고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상대편을 부처같이 보는 것같이 가장 순탄하고 조화스럽고 화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헌데 한 말씀 제가 부언해 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감성적으로 공부를 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신앙대상인 부처님을 하나의 그 무엇이다 이렇게만 느끼고 그냥 참구할 때는 환희심이 덜 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내 생명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의 본바탕인데 부처님 가운데는 일체의 공덕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행복도 원만하고 지혜도 원만하고 자비도 원만하고 다 원만한 것이 거기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량 지혜나 무량의 자비행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딱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성 가운데는 그런 무량공덕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그런 공덕을 환희심으로 추구하는 간절히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치를 구한다. 하나의 도리를 구한다. 하나의 도리나 이치를 구하는 그런 냉엄한 마음으로 해서는 우리 마음이 감격스럽게 잘 못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 또는 내 고향 말입니다. 내 생명의 고향, 내가 진정 돌아가야 할 내 님, 이와 같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감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량공덕·무량환희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본질을 그런 환희심으로 구해야지 그냥 이치로 구할 때는 그때는 우리 마음이 싫증을 내는 것이고, 또는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정토경淨土經』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념왕생一念往生이라, 또는 십념왕생十念往生이란 말입니다. 열 번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그때는 극락세계에 바로 태어난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일념 십념이라, 한생각·일순간 이런 것도 역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환희심으로 구할 때는 그와 같이 그런 몇 번 안 부른 염불이 그와 같은 위대한 힘을 내서 우리 마음을 정화를 시켜가지고 비약적으로 우리 마음이 초선初禪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싹 마른 하나의 도리를 구한다 또는 이치를 구한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비약을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가불자님들께서는 지금 바쁜지라 어려운 공부는 하기가 곤란스럽겠지요. 우리같이 선방에서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할 수가 있으나 집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공부는 어려운 것이니까, 역시 환희심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구하기 쉬운 것은 뭐라 해도 그것은 염불공부입니다. 부처님을 인격으로 구하는 이것이 하나의 환희심으로 구할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공부방법을 가지고서 공부가 익어진 사람들은 그때는 할 필요가 없지만은 아직 자기 공부가 방법을 못 가진 사람들은 부처님을 환희심으로 구하는 쪽으로 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공부하는 방편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을 인격적으로 구하는, 부처님의 공덕을 흠모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한테 공덕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름 이것은 명호 부사의不思議라, 이름 따라서 이름 가운데 가서 부사의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 이름같이 아무렇게나 된 이름이 아니라 부처님의 무량의 성性 공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름인지라 이름 자체에 부사의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계신 분들은 다른 어려운 것은 할 겨를도 없는 것이고

또는 그럴만한 여건이 안 닫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대로 하기 쉬우면서도 공부가 빨리 익어지는 그런 염불공부로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부르면 부른 만치 부처님이 우리를 굽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주변에 무수무량의 신장神將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 신, 저급 신, 그런 무량의 신들도 역시 가장 존경하는 이름,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은 부처님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처님의 명호로 해서 쉬운 공부로 해서 원래 자성인 본래 부처인 그 자리를 증證 하시고서, 우리 이상세계인 극락세계 또는 화장세계, 청정광명처인 그런 자리를 우리 스스로 현상세계에 바로 이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성불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2. 천지 우주가 부처님, 하나의 몸입니다

* 1986년 5월 4일 태안사 정기법회 법문입니다.

한가한 사람을 가리켜서 절에 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가하다는 중인 저 역시 한가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뜨락에 자산홍이 활짝 만개했습니다만, 저는 언제 그 꽃이 머물렀는지, 언제 꽃이 피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가다 오다 보니까 저렇게 만개해서 활짝 피었다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저도 바빴습니다, 따라서 명색이 한가하다는 저도 바쁜데, 하물며 세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을 하시는 우리 재가 불자님들은 더욱더 바쁘시리라고 미루어 생각합니다. 동정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인지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어느 것이나 하나의 것을 바로 보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바쁜지라 지나치고 삽니다. 어째서 꽃은 피는 것인가? 꽃이 피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불자佛子인지라 인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체만유一切萬有가 인연생因緣生이라.' 인연이 화합하면 이루어지고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시초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꽃을 피우는 가장 근원적인 인因은 무엇인가? 꽃이 피는 연緣은 우리가 압니다. 씨앗이 있고, 수분, 태양광선, 비료도 있습니다.

그런 연緣은 많이 있습니다만 정작 인因은 잘 모릅니다. 대체 꽃이 피는 가장 시초인 인因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가지나 이파리 등 지엽적枝葉的인 작은 연 같은 것은 중요시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근본적인 인을 캡니다. 근본을 알아서 근본실상의 바탕을 알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생활하고 만사를 처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마는 겨울 되면 저 자산홍도 나목裸木이 됩니다. 헐벗어 버립니다. 헐벗은 나목에서는 꽃이라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봄이 되면 새 잎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나무의 어느 구석에도 꽃은 없습니다.

일본의 중세기中世紀에 한 무사가 있었는데, 그 무사는 자기가 숭배하는 절의 선사禪師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불심佛心, 불심 하는데, 부처님 마음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추궁하다시피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사하는 말이 대뜸 "내 마음에 있지" 마땅히 부처님 마음이니까 마땅히 마음에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무사도 역시 실험 겸해서 칼을 빼어들고 "당신 가슴, 당신 마음 어디에 불심이 있는가?" 하면서 마치 선사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윽박지르면서 불심의 소재를 추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사 대답이 게송으로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무를 쪼개 보아도 꽃이 없건만, 봄이 오면 가지가지마다 꽃이 피느니라."

사실 나무의 어디에도 꽃은 없으나,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정말 하나의 꽃에도 천지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도시에 대부분 계시지만, 도시의 밤 야경을 보십시오.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십시오. 물론 발전소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조작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켜지겠지만 과연 그 불빛의 시초 광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광명이 원래 있기에 발전소가 있고 거기 조작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에 불이 켜지지 않겠습니까? 광명은 대체로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 저런 것 어느 한 가지를 두고 보더라도 우리에게 심심미묘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바빠서 사회의 기계적인 여러 가지 조직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바빠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알면 우주를 다 알 것인데 어느 하나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꽃피는 것이나 또는 하나의 돌멩이 원인, 전기불의 광명의 원인 등 한 가지를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어중된 중간쯤만 알고 삽니다. 이렇게 바른 것은 모르면서, 근원적인 것은 모르고서, 중간쯤 가정된 사고

방식, 가정된 가치 기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사회나 우리 개인이나 안심입명安心立命이 없습니다.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와 같이 가정된 것이 아니라, 무가정無假定의 원리, 제일의 원리, 근본의 원리에서 원리를 깨닫고 원리에서 판단하는 생활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바른 정통의 법을 이으신 분이 중국으로 따지면 6조까지 33대가 있습니다. 달마達磨스님은 인도에서 오셨는데 그분은 28대고, 그 뒤에 2조 혜가慧可, 3조 승찬僧璨, 4조 도신道信, 5조 홍인弘忍, 6조 혜능慧能 그래서 6조가 있습니다. 헌데 4조 도신대사로 부터 홍인대사가 나왔는데, 4조 도신대사에게 하루는 늙은 한 노장이 왔습니다. 그 노장은 출가한 사문沙門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이었습니다. 노장이 와서 "듣건대 도신대사가 수천의 제자를 거느리고 사람을 제도하고 계시니 저도 함께 제도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승가의 풍속이 퇴소退少 퇴로退老라, 원래 70이 넘으면 퇴로해서 받아주지 않고, 7세 미만은 퇴소라, 너무 어려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원래 출가 길이라는 것은 7세 이상 70세 미만이 되어야 그래야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장은 7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 같은 늙은이는 공부할 수 없다, 출가 안 된다." 하고 거부하니까 노장 역시 선근이 있었는지 "기왕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서 몸을 바꿔 태어나서 공부해야겠구나." 하고 서원誓願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세웠지만 기왕이면 다시 몸을 바꿔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때는 부잣집의 풍족한 생활 때문에 출가를 못하니까, 우리는 출가할 때 보통 보면 서산대사西山大師나, 대체로 위대한 도인들도 역시 아주 풍족한 환경에서 출가한 분들은 없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무엇인가 비참한 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장도 역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면 너무 생활이 풍족해서 출가할 계기를 못 갖는다. 차라리 기왕이면 아주 못난 사람, 아주 그런

거지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야겠구나.' 하고 짐짓코 자기의 호흡으로 숨을 끊어가지고서 서원誓願 세워 태어난 것이 얻어먹는,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누군 줄 모르는 그야말로 참 거지 여자한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여자가 어린애를 데리고서 얻어먹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얻어먹고 다니다가 어찌어찌 해서 4조 도신대사가 계시는 절에 갔어요. 거지되는 그 어린애 어머니도 그렇게 속이 실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린애를 잘못 간수해서 어린애가 법당에 기어 올라가서 법당에다 똥을 쌌다 말입니다. 신성한 법당에 똥을 쌌으니 온 대중이 그때는 소란을 피우겠지요.

마침 예불 시간이 되어 4조 도신대사도 같이 예불 모시고 나오시다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두 옆에서 그냥 꾸짖으니까 겨우 세 살 나기 어린애가 하는 말이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라.' 부처님 몸은 법계에 두루 있는데, 어느 구석에도 부처님이 안 계신 데 없이 불신충만어법계라, 부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해 있습니다.

부처의 몸은 법당이나 똥간이나 어디에나 가득 차 있는데, 부처의 몸이 없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똥을 누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당에도 부처의 몸이 있고 똥간에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부처의 몸이 없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알려 주면 내가 가서 똥을 싸겠다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어린애 말이지만 답변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진리, 천지 우주가 바로 평등무차별平等無差別의 부처님 진리뿐인데, 부처가 없는 빈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똥을 눌 장소가 없겠지요.

그래서 온 대중들이 그냥 어린애이지만 하도 기특해서 모두 앞에 가서 합장하고, 도신대사한테 "스님이시여, 이 아이가 보통 애가 아니니, 빨리 거두시어 위대한 법사를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말입니다. 그러자 도신대사 말씀이 "7세가 넘어야 중이 될 것인데 아직은 너무 어리다." 하니까 그 아이가 "언제는 늙어서 중 못된다"고 하고, 오늘은 또 어리다고 못 된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니까, 그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그 근

처에서 키워서 5조 홍인대사로 만들었습니다. 6조 혜능대사는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은 법계法界에 충만하건마는 중생이 못 봅니다. 중생은 법계의 모든 것의 실상을 모른다 말입니다, 참다운 모습을 못 본다 말입니다. 참다운 모습을 모르니까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을 볼 까닭이 없습니다.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하니' 부처의 몸이 법계에 가득 차 있어서 '보현일체중생전普現一切衆生前이라.' 두루 일체중생 앞에 항시 나타나 보이신다 말입니다. 바늘 구멍만한 틈도 없이 부처님은 다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너와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부처와 내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부처와 더불어서 같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 말도 오직 부족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몸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님 몸덩어리, 하나의 몸입니다. 두루 일체중생 두두물물頭頭物物 앞에 부처님이 항시 계십니다.

천지 우주 자연이 바로 부처인데, 어디에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있겠습니까? 단, 중생의 눈이 어두워서 근본 실상을 못 본다 말입니다. 마치 아까 말했지만 전기 원인이 분명히 광명光明으로 있건 만은 중생이 광명의 원인을 못 봅니다. 자산홍 나무에서 꽃이 피는 심심 미묘한 진리가 있는 것인데 중생은 그걸 못 봅니다. 꽃이 피면 피는가 보다, 잎이 지면 지는가 보다 합니다. 그와 같이 중생은 근본을 못 보고 그때 그때 지나치고 삽니다. 지나치고 사는 그런 어설픈 지혜로써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니까 투쟁과 분열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假定에서 산다 말입니다. 가정假定의 원리에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일체 성자는 무가정無假定의 원리에서, 영원적인 진리에서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니까 바로 봅니다. 따라서 그르침이 없습니다. 즉 여법히 봅니다.

우리가 근본을 알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쓴 만치 「법성게法性偈」에도 '우보익생만허공雨寶益生滿虛空하니' 비와 같은 그런 보배, 심심미묘한 부처님의 진리가 허공에 가득하니, '중생수기득이익衆生隨器得利益' 중생의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 몸이건마는 중생의 인연 따라서 우리가 많이 구하면 구한만큼 잘못되면 잘못 구한 만치 거기에 얻고 갚는 것입니다. 심심미묘한 부처님의 진리가 허공에 가득 차 있어서 중생의 그릇 따라서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곳마다 보리좌菩提座라, 바로 진리를 닦고 성불하는 최상의 행복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자기 직장이나 가정, 법문 듣는 이 자리나 어느 곳이나 우리가 도를 닦고 성불하는 수행도량이 아님이 없습니다. 부처님 법이 충만하거늘 어느 곳이 부처님 도량이 아닌 곳이 있겠습니까?

『화엄경華嚴經』은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이 같이 한 생명으로 인연 관계가 되어있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이라, 얽히고설켜 같이 한생명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말할 때 자기가 아는 어중간한 인因과 연緣만 내세웁니다. 우리 범부는 제아무리 지식을 축적해 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사건, 어느 하나 존재의 인연은 다 모릅니다. 나무가 싹트면 나무의 인연을 다 알겠습니까? 우주에 있는 어느 한가지도 다른 한가지 원인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꽃잎 하나도 우리한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악독한 사람이 나오면, 그 책임이 우리의 어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눈곱만한 하나의 것도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명 덩어리입니다.

중생은 현상만 보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는 모릅니다. 그러나 현상을 지양해서 바닥을 본다면 모두가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어떠한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 가운데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이런 인연因緣, 이런 중중무진 어느 것도 버릴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살인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내 생명生命과 관계가 있습니다. 살인자 그 사람이 우주에 없으면 안 됩니다. 살인자 그 사람이 우주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우

주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연관계 인연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마승馬勝비구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태도가 점잖아 누가 보면 신심을 냅니다. 마승 비구가 미처 도를 못 깨달을 때 탁발을 했습니다. 얼굴이 잘나고, 태도가 위장부偉丈夫니까 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때에 사리불 존자가, 사리불이 스승을 얻지 못하고 외도 밑에서 공부는 하지만 항시 마음엔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참다운 도道는 이것이 아닌데, 참다운 도는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가는데 당당한 위장부가 가사를 수垂 하고서 탁발을 나오는데 그 사람 모습만 보아도 환희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존자여 저한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마승비구가 하는 말이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러나 제 스승, 세존은 천상천하의 대도인인데 그분이 제 스승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리불이 "그러면 세존 그분이 당신한테 어떤 법문을 하십니까? 법문 가운데 골수가 무엇입니까? 그 법문을 나한테 들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마승비구가 "제법종연생諸法從緣生, 모든 법은 연 따라 일어나고, 역종인연멸亦從因緣滅이라, 역시 인연 따라 멸하도다. 아사대성주我師大聖主 시아여시설是我如是說, 나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상도 조성하고 탑도 조성합니다. 탑을 조성하면 그때는 응당 사리舍利를 모셔야 하겠지요. 허나 사리가 많지 않으니까 진짜 사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생신生身사리가 없을 때는 법신法身사리라, 법문 가운데서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을 압축시킨 법문, 오직 하나로 뭉친 법문 그 법문을 법신사리라고 해서 탑에다 모시고, 불상에다 넣어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신사리가 마승비구가 사리불에게 말한 법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서 멸하도다. 내 스승인 석가모니께서는 항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의 두 글귀는 떼어버리고, 앞에 있는 두 글귀, 인연생인연멸因緣生因緣滅이라, ‘연 따라 일어나고, 연 따라 멸한다.’ 이것이 부처님 법문의 대요大要입니다. 잘되나 못되나 이것이 인연이겠지 하며 쉽게 말하지마는 인연은 그와 같이 심심 미묘합니다. 인연의 가닥을 잡아올라 가면 그때는 천지 우주를 다 알아 버립니다.

아까 말처럼 가장 태초, 시초始初, 제일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까지 알아야만 인연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緣도 역시 천지 우주가 다 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사람도, 어디 사람도, 선인·악인도 누구나 다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 나의 생명과 나의 멸망에 원인이 있습니다. 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면 가까운 연은 잘못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허나 부모님부터 조상까지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아프다는 것이 다 인연이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만이 천지 우주 모든 존재의 인연을 다 압니다.

그 외에는 인연을 모릅니다. 따라서 인연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세는 가장 시초의 원인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인연의 뜻을 새길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새기는 것은 실상을 바로 깨달아야만 할 수 있지만, 인연법, 인연 이것이 부처님법의 대요입니다. 제일 원인, 무가정無假定의 원인, 이것이 불성입니다.

마치 물리학에서 순수에너지 또는 장에너지가 가장 시초에너지가 되듯이 우리 존재의 모든 근원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성佛性·불심佛心 이것이 제일 원인입니다. 『법화경法華經』에 보면 불종종연생佛種從緣生이라, 불성이라는 씨앗이 연을 쫓아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경전도 소승경전은 인연법을 말할 때 모두 연緣과 연緣이 합해서 되었겠지 말하지만, 대승경전은 역시 시초인 제일 원인을 항시 내세워서 말씀합니다.

인연생이란 것도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연과 연이 많이 합해서 하나가 되었겠지, 꽃이 필 때는 씨앗, 물, 햇빛 등이 합해서 피었겠지, 이와 같이 말합니다만, 불교 대승적인 해석은 가장 근원적인 제일 원인을 말합니다. 가장 시초의 순수한 생명, 즉 불성까지 올라가서 말합니다.

불성佛性이, 부처님 몸이 바뀌어져서 부처의 몸이 갖추고 있는 무한의 힘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주가 된 것입니다. 연도 역시, 따지고 보면 부처님 몸입니다. 인因도 부처님 몸이요, 무수한 연緣도 부처의 몸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몸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인연의 대승적大乘的 해석입니다. 많은 인因과 연緣이 합合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소승적小乘的인 해석이고, 불성 가운데 있는 심심미묘한 힘이 인因과 연緣이 되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대승적大乘的 해석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 들어가면 '불여래諸佛如來 시법계신是法界身이라, 모든 부처님은 바로 이것이 법계의 몸으로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들이 석가모니라는 몸 자체, 개체의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겉에 보기는 사람이지만, 석가모니 참 몸은 법계法界, 온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입일체중생심상중入一切衆生心想中이라, 일체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계신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일체중생을 작게는 우리 사람만 말합니다. 조금 더 넓게 들어가면 사람, 일반 동물을 몰아서 말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해석은 모든 중생, 무생물・생물・유상有相・무상無相,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중생 그럽니다. 우리가 불교를 해석할 때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대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 존재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계십니다. 그런고로 그대들이 심상불시心想佛時, 그대들 마음에 부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처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이고 바로 우주의 전체 아닙니까, 한도 끝도 없고 부사의不思議해서 말로 할 수 없지만 우주 자체, 생명 자체가 부처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제반이 없고 구함이 없고, 이런 부처님을 우리가 생

각할 때는 시심즉시是心卽時, 이 마음이 바로 삼십이상三十二相 팔십수형호八十隨形好, 우리는 부처님 덕상을 말할 때 32가지의 대인상大人相을 말하고 또 대인상에 비추어서 80가지의 작은 상호를 말합니다. 즉 만덕을 갖춘 부처님 모습이 사람의 말로도 다 표현 못하고, 일체중생의 지혜를 다 모아서 해도 다 표현 못하는 그런 부처님의 지혜, 그 공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 부처님의 법신의 몸이 형상화 되어서 사람 몸이 될 때는 32상 80상호가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잘생긴 얼굴은 모두가 백겁 공덕입니다. 겁은 무량세월인데, 무량세월 동안에 갖은 공덕을 베푼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얼굴이 되고 삼십이상三十二相 팔십종호八十種好 그런 상호相好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지天地 우주宇宙가 바로 부처님 몸이고, 부처님은 일체중생의 심상心想에 항상 계신지라, 사람 같이 의식적으로 판단해서 사람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부처님은 무한의 공덕인지라, 따라서 자기도 역시 무한의 공덕, 32상 80종호가 그냥 갖추어 옵니다. 부처님 생각하는 공덕은 이와 같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할 때는 그냥 반영돼서 우리 몸도 재미없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생각・행동 가운데서 가장 수승하고 고도한 생각을 할 때는,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그냥 기분 좋고 몸이 상쾌해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우리한테 모두 갖춰오는 힘을 느낍니다.

우리는 불교를 이론적으로만 따져서 믿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허나 우리 감성적인 면,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치게 믿는다면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나 다른 경經에도 있습니다만, 일념왕생一念往生이라, 또는 십념왕생十念往生이라, 생각을 골똘히 해서 사무치게 믿는다면, 열 가지 생각만 가지고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원인을 만듭니다. 또는 더 사무치면 한 번만 생각해 가지고도, 우리 몸이 범부凡夫의 번뇌를 녹이고 해탈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감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만 체계를 세우고 감성을 믿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감성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은 우리 마음을 비약시킵니다.

일념왕생이라, 비록 지금 때 묻은 중생이라 하더라도, 한 생각 사무치면, 그때는 비약적으로 번뇌를 녹이고 성불成佛도 합니다.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우주가 바로 부처님이고, 우리 심상 가운데 모든 존재의 중심에는 부처님이 항시 계신지라, 그대들이 만약에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시심시불是心是佛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갖춥니다. 완전히 못 갖춘다 하더라도 부처님하고 통로를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시심작불是心作佛이라,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우리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라, 일체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시심시불是心是佛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정작 내 마음이 왜 부처인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도 못합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천지 우주는 바로 마음뿐입니다. 마음이 원자를 만들고, 마음이 물질을 만듭니다. 순수에너지의 보다 순수한 알맹이도 역시 마음입니다. 지금 고도로 발달된 정밀과학도 역시 그러한 것을 대강대강 증명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력의 이데올로기라 합니다. 원자력 때문에 인류가 피해를 입는, 원자핵으로 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힘인데, 그런 무서운 힘의 가장 시초는 무엇인가? 이것은 역시 마음입니다, 불심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처님 경전 가운데는 윤곽만 말 한 데가 있고, 또는 『구사론俱舍論』 같은 논장論藏에는 체계를 세워서 현대물리학적인 술어는 안 쓴다 하더라도 체계를 세워서 말씀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뿐인 것인데, 생각하는 힘이, 그 에너지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물질을 만듭니다.

우주가 텅텅 비어서 공겁이 됩니다. 지금 물리학에서도 역시 종말에 가서는, 우주가 다 비어서 타버려서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종말이 다가와서 공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러면 종말이 되고서 공겁만 되고 그때는 다시 우주가 형성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생의 생각이 뭉치고 뭉쳐서, 생각 그것이 물질을 만듭

니다.

싫어하는 생각을 하는 마음 씀은 오른쪽으로 유순流順을 시켜서 전류를 만드는 것이고, 또 좋아하는 생각의 순수한 생명은 왼쪽으로 돌려서 양자陽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주를 구성합니다. 불교로 말하자면 중생衆生의 공업력共業力이라, 태초의 텅 빈 우주 가운데 중생의 공통共通된 업력이 쌓이고 쌓여서 물질을 만듭니다. 우주를 구성 합니다. 그런 것이 소상히는 안 알려졌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경전, 도인들의 논장 가운데는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천지 우주 가운데 오직 마음뿐인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에 따라서 천지 우주를 만듭니다. 어떠한 것이나 근본은 마음입니다. 근본은 심心입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고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 일체가 오직 마음뿐이고 모든 법이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뿐인 것입니다. 다만 중생의 눈이 어둡고, 번뇌에 가려 바로 못봐서 결과만 보지 근원은 보지 못합니다. 불성도 못보고, 불성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못 봅니다.

과정도 못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대물리학은 그런 과정을 근본 바탕인 불성을 못 본다 하더라도, 원자도 알고 합니다. 지금 사람 되고, 뭣 되고, 우리 세포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물리학은 대강 압니다. 물리학자나 그런 분들이 더욱 더 분발해서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해서, 정말로 깨달아버리면 그분들이 다 불성을 봐 가지고 참다운 체계를 세우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미처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나 도인들 말씀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천지 우주는 오직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천지 우주 가운데는 모두가 다 식識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생물이나 무생물에도 다 식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 개 이상 되는 각 원소를 보십시오. 가령 양자 밖에서 전자 여섯 개가 돌면 탄소 아닙니

까? 일곱 개면 질소고 하나가 더 있으면 산소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모든 원리가 하나의 수리적인 단계를 보십시오. 기막힌 우주의 질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의 근본 실체는 불성佛性·불심佛心입니다.

중세기나 그런 때는 종교의 체계원리를 몰라도 무방했고 또는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럭저럭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원자력의 원리를 모르면 원자보다 더 깊은 것을 모르면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못 삽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꼭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신 부처님이나 도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자보다 더 깊은 원리, 원리를 파악하고서 안심하고 원자력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히 조작합니다. 과학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원리를 안, 근본 바탕을 안 성자의 가르침뿐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생의 무상無常과 허무虛無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부설거사浮雪居士 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신라의 위대한 거사 아닙니까? 중국에서 방거사龐居士, 인도에는 유마거사維摩居士 이 세 분은 재가불자의 표본으로 얘기합니다. 이분의 전기는 대강 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게송만 설명하겠습니다.

부설거사의 「사허부구게四虛浮漚偈」 네 가지 것이 거품같이 허망하다는 무상을 역설한 시입니다. 처자권속삼여죽妻子眷屬森如竹하니, 처자와 권속이 마치 숲이나 대와 같이 많고, 즉 집안이 좋고, 자식이 많고, 아주 번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 위에 금은옥백적사구金銀玉帛積似邱라, 금·은·옥·비단이 마치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니 즉 부귀를 같이 누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권속도 많고 재물도 많다고 하더라도 임종독자고혼서臨終獨自孤魂逝라, 죽음에 이르러서 홀로 외로이 간다, 아무리 부귀를 누리더라도 죽을 때는 혼만 외로이 나갑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는 죽음을 미처 못 느낍니다. 아직 못 죽어 봐서 못 느끼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은 셈 치고 생각해보면 깊이 느낄 수가 있

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자기 혼魂만 혼자 갑니다. 아무리 아끼고 닦을지라도 이 몸뚱이는 순간도 가지고 못 갑니다. 운명 떨어지면 이 몸뚱이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나 누구나 다 썩은 몸뚱이는 싫어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닥쳐올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르고 삽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이 몸뚱이가 꼭 자기 것이고 영원한 자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자와 범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자는 자기 몸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부는 자기 몸을 자기, 내 것으로 압니다. 어쩌다가 자기 업력기운이 각 세포를 긁어모아서 하나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인연이 다하면 다시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것뿐인데 우리 중생은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기 권속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또는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기 혼魂이 죽어서 혼자 갈 것을 안다고 하면 이와 같이 애쓰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고서, 근본실상·근본생명을 알려고 애씁니다.

죽을 때는 홀로 혼만 외로이 가는 것이니, 사량야시허부구思量也是虛浮漚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것도 뜬 거품이구나. 조조역역홍진로朝朝役役紅塵路하니, 아침마다 밤마다 애쓰고 힘써서, 홍진은 우리 세속에서 사는 고달픈 생활입니다. 작위재고이백두爵位纔高已白頭라, 겨우 애써서 벼슬에 올라갑니다, 자기 벼슬자리가 겨우 올라갈 때는 이미 센 머리라, 세속의 길 가운데 애쓰고 애써서 겨우 가까스로 벼슬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는 이미 자기 머리는 세어져서 백발이 된다 말입니다.

염왕불파패금어閻王不怕佩金魚라, 염라대왕은 우리 중생을 심판하는 저승의 왕입니다. 꼭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자기 심판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죽어지면 우리 어두운 혼령들, 근본실상을 모르는 혼령들은 갈 곳을 모릅니다. 죽어서 가는 자기 마음이 염라대왕과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염라대왕은 원래 우리 마음을 심판하는,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 못 하는데서 느끼는 그런 심판하는 그런 왕 우리가 선악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겠지요. 염라대왕은 불파패금어라. 금어金魚 찬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어란, 옛날 정사품처럼 높은 사람들이 고기 모양으로 된 금으로 만든 주머니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 않으면 금어는 못 찹니다. 염라대왕은 오직 우리가 행동한 선악만 따지고서 우리 행동의 좋은 점만 두려워할 것이지 금·옥·벼슬·훈장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벼슬이 높아서 금어 찬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벼슬이 높고 지위가 올라가서 훈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런 것은 죽어서 가는 마당에는 죽음 길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 사량야시허부구思量也是虛浮漚라, 생각해보면 이것 역시 뜬 거품이구나!

맨 처음에는 자기의 권속·재물을 말한 것이고, 그다음은 애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이것도 역시 생각해보면 염라대왕은 조금도 두려워않는 것이고, 금심수구풍뇌설錦心繡口風雷舌이요, 우리가 문장이나 글이 많아서 문장을 잘 쓰고, 말을 잘 하고, 마치 우뢰 같이 웅변을 잘 하고, 또는 천수시경千首詩經이라 천수나 만수나 시를 지어서 그 시가 어떻게 훌륭하던지, 만호후萬戶侯라, 옛날에는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 제후 후[侯]자, 지방을 다스리는 원이나 영주가 후侯 아닙니까?

헌데 우리가 문장이 좋고, 말이 좋고, 그렇게 해서 천수나 만수나 시를 잘 지어서 같은 영주도 천호 가진 영주 있고 만호 영주가 있는데 만호는 꽤 많은 땅을 다스리는 영주겠지요. 그런 만호를 다스리는 영주를 오히려 가벼이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증장다생인아본增長多生人我本이라, 다생의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헤매는 동안에, '나'다 하는 내가 잘 났다, 네가 못 났다, 이와 같이 나와 남을 가리는 아상我相, 시를 잘 쓰면 시를 잘 쓴다는 상을 낼 것이고, 글을 잘한 사람은 글을 잘한 상을 내겠지요.

우리는 예술가도 많이 있고, 여러 솜씨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솜씨 있는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아도 보통은 자기 재간에 상相을 많이

냅니다. 즉 그와 같이 그런 문장이 많이 있고, 웅변이 좋고, 시를 잘 쓰고 해서 만호후를 가볍게 할 정도로 할지라도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다생 동안에 아상의 근본만 더 증장하는 것이니,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뜬 거품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세 번 허망한 거품소리를 얘기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결론적인 중요한 법문이 되겠습니다. 가사설법여운우假使說法如雲雨라, 가사 진리를 설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일반 세속이지만, 이제 진리로 해서 불법을 많이 배워서 가사 진리를 설하는 것이 마치 구름 같이 잘 설하고, 감득천화석점두感得天花石點頭라, 하늘 꽃이 감동하고, 우리가 보통 말해서는 꽃이 감동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말을 잘하면 하늘 꽃이 감동하고, 돌이 옳다고 끄덕끄덕 합니다.

중국의 도생대사道生大師는 구마라집鳩摩羅什 제자인데 위대한 분입니다. 천제성불闡提成佛이라, 천제란 부처의 종자가 없는 나쁜 사람이지요. 부처의 종자가 없는 나쁜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 당시에 참다운 대승이 미처 안 들어올 때는, 다시 말하면 도생대사가 나올 때는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 때니까 지금부터 1500년 이상 되는 세월입니다. 즉 인도에서 대승이 안 들어올 때는 나쁜 사람들은 성불 못한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 성불하는 것이지 나쁜 사람은 성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생대사는 벌써 마음이 맑으니까 어떤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중국에 들어온 학설로 해서는 나쁜 사람이 성불한다는 학설이 없었지마는, 벌써 도생대사는 자기 영감靈感으로 제아무리 나쁜 사람도 역시 다 성불한다는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대해 이설異說을 말할 수 있는가 하여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밝은지라 분명히 믿었습니다.

비록 경전에는 미처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대의가 어떤 중생이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강도나 제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꼭 성불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벗들도 안 믿으니까, 하도 원통해서 산에 가서 돌을 세워놓고서 돌을 상대로 법문을 했습니다. 과연 부처님 법이 나쁜 천제闡提, 선근이 없는 착한 공덕이 없는 사람이 천제입니다,

선근을 안 닦는 사람도 성불한다는 것인데, 돌을 세워놓고 말하기를 부처님 경전에는 비록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본뜻은 틀림없이 선근이 없는 사람도 다 성불한다, 이것이 나는 옳다고 믿는데 과연 그대들, 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묻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감격스러웠는지, 그런 돌들이 옳다고 끄덕끄덕했습니다. 좋은 법문 듣고, 좋은 말 듣고, 돌들이 옳다고 끄덕끄덕한 이것이 석점두石點頭입니다.

가사, 법을 설하는 것이 구름이나 비와 같이 잘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늘 꽃, 땅의 꽃뿐만 아니라 하늘 꽃이 감동을 하고, 돌마저 끄덕 끄덕 옳다고 할지라도 간혜미능면생사乾慧未能免生死, 간혜乾慧는 아직은 생사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혜乾慧 이것은 삼매에 못 들어서, 우리 마음이 참다운 안정을 취해서, 우리가 영원성 불성을 체험하는 것 아닌 지혜, 이것이 간혜입니다. 염불이나 참선이나 또는 선근이 많아서 그냥 순간에 했던지 간에 불성을 못 증證한 이론만 갖고 있는 지혜, 소위 구두선口頭禪, 간혜乾慧는 생사를 면할 수 없고 즉 말하면 영생을 모릅니다.

바싹 마른 지혜, 즉 참다운 선정을 못 닦은 지혜, 참다운 선정을 못 닦으면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공덕이지만, 그런 공덕을 발휘하지 못 합니다. 신통도 자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 원자력 이상의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인데, 선정을 못 닦으면 그런 불성을 체험을 못 합니다. 따라서 공덕을 못 발휘합니다. 따라서 중생들이 숭상할 수가 없습니다.

달마達磨스님 때 달마스님 형님이 돌아가시고 조카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달마스님은 도인이므로 위대하지만, 조카는 사람이 약빨라서 부처님 법을 안 믿습니다. 달마스님 제자 가운데 웅변가가 많이 있겠지요, 몇 사람이 가서 말하지만 안 믿습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면 부처가 됐지, 부처만 믿으면 되지, 달리 말할 필요가 뭐 있는가? 약빨라서 괴변이 심해서 도저히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 불법 가운데도 역시 부처님 법문을 조금 외우고, 참선도 조금하고 하면 가짜 도인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달마스님 조카도 도저히 안 믿어 버립니다.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으면 있었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본래 부처인데 깨달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와 같이 도저히 말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그런 걸 알아차리고 오색찬란한 구름위에 타가지고 왕자가 거처하는 침실로 갔습니다. 난데없이 오색찬란한 구름 위에 달마대사가 장엄스럽게 서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법문 끊어짐]

중생이 아상我相을 못 버리면, 아我를 미쳐 못 버리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지합니다. 허나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또 한편으로 권장합니다. 왜냐면 중생들의 교만심을 조복시키려면 위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꼭 보이십니다. 달마스님 조카되는 왕자도 역시 달마스님이 신통을 안 보였더라면, 그 사람을 조복을 못 시킵니다. 그와 같이 부사의한 힘을 보이니까, 그때는 불성에 들어있는 무한공덕의 힘을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조카를 부처님 문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헌데 약삭빠른 사람들, 재주있는 사람, 이런 간혜, 바싹 마른 이론적인 지혜만을 가지고서 알았다고 합니다. 현대문명의 병폐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불교의 침체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혜만 가지고서 전부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해解에 불과하고 마땅히 그다음에 행行이 있

고, 증證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냥 신행信行이라, 조금 믿고, 조금 해석하고, 여기에만 멈추니까 참다운 힘을 못 냅니다. 마땅히 거기에 후속적으로 행行과 증證이 따라야 합니다. 부설거사도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기에 결론적으로 '간혜'란 말을 내어가지고, 이런 것은 재주는 좀 있고 남한테 대우도 받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참다운 생사, 자기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영생을 바라지 못합니다. 법성만이 영생하고, 우리의 참다운 생명인 불성만이 영생하는 것인데, 불성·법성을 못 본 사람들이 무슨 말로 해서 영생을 얻고, 생사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출가는 못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처님을 한번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사무치면 비약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념왕생一念往生이라, 일념돈생一念頓生이라, 한 생각에 바로 성취하는, 비약하는 신비부사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우리 마음과 석가모니의 마음과 한 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지 못 할 뿐입니다. 원래 성질로 봐서는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 똑 같습니다. 우리가 다만 어두워서 그 마음을 모르고 인식을 못 할 뿐입니다. 바로 알려면 간혜를 넘어서 경을 읽든지, 집안에서 염불을 하건 화두를 하건, 몰록 삼매三昧에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아지경無我之境에 들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길을 갈 때 엑스터시(ecstasy)라, 이렇게 한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서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꼭 불교라고 하지 않더라도 망아지경忘我之境, 자기를 잊어버리고 몰두하는 삼매三昧에 들어갑니다. 삼매의 물로 씻어내야만 비로소 간혜를 면免할 수 있습니다. 간혜를 면해야 생사生死를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부대중이 외호해 주시는 덕택으로 해서, 3년 결사하는 스님들도 역시 간혜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經이야 강원 나왔으니까 8만 4천 중요한 것은 다 배웠겠지요. 글로 해서는 생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生命을 못 구제 합니다. 이

와 같이 비록 설법이 운우雲雨같이 웅변을 토하고, 또는 그 웅변이 하늘의 꽃을 감동시키고, 돌이 끄덕끄덕할 정도로 잘 한다 할지라도, 이런 지혜는 생사를 면할 수 없으니, 이것도 생각해보면 허망한 뜬 거품이구나!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위험한 때 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본다 할 때, 좌우의 대립 또는 남북의 대립, 또는 우리나라의 여야의 대립, 학원의 문제 등 무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저만치 멀리 있는 부처님 말만 한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부처님 생각, 이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요긴한 열쇠입니다. 근원적으로 여야를 보고, 근원적으로 학원문제를 생각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 생각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 말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나 홍로일점설紅爐一點雪이라, 마치 뜨거운 화로의 한 덩이 눈과 같이 녹아 버리고 맙니다.

부처님 법으로 본다 할 때 원래 원수가 없거니 누구와 싸울 것 입니까? 부처님 법으로 본다 할 때 원래 모두가 한 몸이거니 자기 당, 자기 문중, 자기 집안만을 위해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할 일은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아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아는 그 길, 석가, 예수, 공자가 가르친 그길, 그길로 가는 길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성자가 되는 그런 길을 일로매진一路邁進해 간다고 생각할 때, 학원 문제, 무슨 문제 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나, 사바세계의 문제는 부처님 법, 성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해결하는 가장 요긴한 길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론적으로 참다운 실상의 진리, 오직 부처님 진리만이 근원으로 안다는 그런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셔야 하고, 설사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역시 그냥 간혜, 이론적으로만 체계를 세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생활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만, 사실 우리 생

활에 사무치면, 생활에 사무친 도덕적인 행위로 해서라도 역시 우리 마음은 비약적으로 간혜를 면해서 참다운 영생의 지혜를 획득합니다.

그 예로 부처님 법문을 인용하면, 부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애법비구愛法比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는 비구란 뜻입니다. 간절히 진리를 구하는 비구입니다. 애법비구는 자기 몸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진리만 구하면 그만이다.' 그와 같이 간절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그 마음을 시험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말입니다만, 악마가 그 앞에 서더니만, "그대는 진정으로 법法을 구하는가? 또한 그대가 진정으로 자기 신명을 바쳐 법을 구하는가?" 하고 묻자 과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피부를 벗겨서 종이를 삼고, 뼈를 분질러서 붓으로 삼고, 피를 뽑아서 먹을 삼아 부처님 진리를 적을 수 있는가? 하고 묻자 애법 비구가 그 말 답변 대신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 껍질을 벗깁니다.

부처님 경전의 표현을 보면 마즉멸신魔卽滅身이라, 최상의 진리를 적으려고 하는 사무친 마음으로, 피부를 벗겨 종이를 만들고, 뼈로 붓을 만들고, 피로서 먹을 만든 그 순간, 그냥 악마는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즉멸신이라, 악마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마나 번뇌나 똑같은 풀이입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 진리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만 사무치면, 다시 말해 아집我執만 아상我相만 떠나면 일시에 진리는 빛나옵니다. 마구니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념왕생一念往生이라, 한 생각에 극락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일념돈생一念頓生이라, 한 생각 사무치면 성불成佛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이 비약할 수 있습니다. 심상불시心想佛時, 우리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무한공덕과 바로 통로가 생깁니다. 그런 통로를 통해서 사무친 마음으로 성불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 공부가 많이 있으나 역시 요긴한 공부는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

음이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화두를 드나 주문을 외우나,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인 우리 마음의 실상인 부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문을 외나 염불을 하나 화두를 드나 모두가 다 방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서 순간 찰나도 부처님 마음을 안 여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안 여의면 본래 부처인지라 순간 또는 다음 순간 또는 늦게 빠르게 성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재가불자는 부처님을 안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생각과 생각에 딴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모든 일을 부처님의 진리에 비추어 해결하는 그런 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저만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어떤 것이나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을 재인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순간도 안 떠나는 공부, 이 공부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즉 염불 하는 것입니다. 제일 쉽고도 제일 빨리 성불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간혜지乾慧地라, 바싹 마른 지혜가 아니라, 영원적인 생사해탈의 지혜, 부처님의 무한공덕을 내 공덕으로 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3. 통달무아법자通達無我法者 진시보살眞是菩薩이라

* 1986년 7월 6일 태안사 정기법회 법문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역화가 되어 가지고 아주 유서 깊은 순례지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마는 우리 불교인으로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성지입니다. 네팔을 가면 지금도 안탑眼塔이 있습니다. 안탑은 무엇인가 하면 눈 안[眼]자, 탑 탑[塔]자, 입니다. 탑에 딴 것이 없이 탑 위에 커다란 눈알이 있는 것입니다. 안경이 있습니다. 눈알이 있는 셈인데 왜 하필이면 큰 눈알이 탑 위에 그려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중생이 마음 닦아서 가는 과정에서 다섯 가지의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은 또 많이 있지마는 우선 큰 차이만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섯 가지의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도 못한 축생이나, 지옥 중생이나 그런 중생은 제외해 놓고서, 우선 사람으로부터 부처까지 이르는 단계, 그런 단계가 다섯 가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우선 우리 인간적인 차원 이것이 육안肉眼이라, 살 육[肉]자, 눈 안[眼]자, 말입니다. 선善도 조금하고 악惡도 조금하고 그와 같이 알 듯 말 듯한 지식, 이런 인간적인 상대유한적인 그런 가치관 이것이 육안肉眼입니다.

그다음에 더 올라가서 그때는 더 보다 시야가 넓은 천안天眼이라, 항시 저는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중생은 하늘나라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무시해 버립니다. 허나 우리 영靈이 맑은 사람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소나 수소가 보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천상도 분명히 있지마는 중생은 미처 못 봅니다. 헌데 사람보다도 더 차원 높은, 즉 안목이 밝고 업장도 가벼운 천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바로 천안天眼이라,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천안天眼은 그러니까 조금 더 사물 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아직은 미흡하고 그다음에는 혜안慧眼이라, 혜안은 원융무애圓融無碍라, 즉 말하자면 천지 우주가 다 공空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공空을 못 봅니다. 우리 중생은 유有만, 있다고 하는 것만 봅니다. 지금 물리학의 힘으로 해서 지금은 중생이 안 보이는 것도 약간은 봅니다마는 사실은 보다 깊은 것은 또 못 봅니다.

우리가 지금 소립자고 뭣이고 하는 것도 역시 인간이 인간 차원에서 말을 붙였을 뿐이지, 바꿔서 말하면 이것은 가명가상假名假相에 불과합니다. 실지가 아닙니다. 중성자中性子・중간자中間子 또는 전자電子・양자陽子 그것도 역시 우리 중생이, 중생 나름으로 붙였을 뿐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헌데 혜안慧眼은 이것은 그런 것 저런 것이 텅 비어버려서, 즉 일체 물질은 텅 비어버려서 제로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의 견해가 지혜 혜[慧]자, 혜안慧眼입니다.

그다음에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그때는 텅 비어 있지마는 완전히 비어있는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빈 가운데 불교말로 하면 묘유妙有라, 참다운 뭣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가 법안法眼입니다. 앞에 말한 그런 우리 인간이 보는 육안肉眼, 또는 하늘나라 사람이 보는 천안天眼, 또는 제법이 공空한 자리, 모두가 공한 자리를 보는 혜안慧眼, 또는 공한 뒤에 공의 실체, 공의 알맹이를 보는 법안法眼, 이런 것을 통틀어서 완전무결한 안목, 이것이 부처 불[佛]자, 눈 안[眼]자, 불안佛眼입니다.

따라서 그 네팔의 탑, 안탑의 그 눈알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의 불안佛眼입니다. 우리 중생이 누구나가 다 인간적인 아무렇게나 보는 그런 안목 가지고서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 가장 진리의 꼭대기에서 보는 그런 불안佛眼으로 따져서 모두를 잘 관찰하고 생활을 하라, 불안으로 가치를 판단하라, 이러한 우리 하나의 생활, 하나의 판

단 모두를 다 불안佛眼에서 진리의 구경지究竟智에 입각해서 하라는 거로 해서 그와 같이 불안의 눈이 그 탑에 그려져 있습니다.

헌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심심미묘甚深微妙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끔 얘기합니다만 임진왜란 때 우리는 보통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싸우고 의병을 일으키고, 아주 화려하고 용감스러운 그런 것은 추앙도 하고 또는 호국불교다 해가지고 우리가 찬탄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산에서 한 걸음도 안 나오고 공부하는 진묵(震默, 1562~1633)스님, 이분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난國難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때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또는 민족이나 모두를 초월해서 진리 자체, 참다운 법 자체, 진리를 탐구해서 우리 중생들한테 보다 바른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이 사회가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탐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불안佛眼을 탐구하는 바른 견해,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 그분들은 절대로 나와서 싸우는 분들의 공로에 못지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가佛家에서는 진묵震默 스님이나, 또는 서산西山스님이나 똑같이 봅니다. 사회 참여를 한 분이나 안 한 분이나 똑같이 봅니다.

그것은 어째 그런가 하면 바른 지혜를 계발한다는 그것도 크지만, 사실은 또 바른 지혜를 가진 분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는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염파念波라든가 그 청정한 파동이 그 때는 천지 우주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소련의 원자력의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저쪽 서구지방으로 다 풍기고 하는 것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 닦는 그런 것도, 그것이 방사능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석으로 예불을 모실 때 계향戒香·정향定香·혜향慧香 그런 예불 모시는 법문이 있습니다만, 그런 계향이나, 혜향이나, 그런 것도 역시 계戒를 지키는 그야말로 참다운 향기, 또는 법을 바로 아는 그런 향기, 그 향기가 그 자리에만 미치

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에 그것이 미친단 말입니다. 계행 청정한 분이 있으면, 벌써 계행 청정한 그 사람만 그 주위에만 계행 청정한 분위기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청정한 그런 기운이 천지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방사능 이상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한번 딱 나시면, 부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냥 사람 마음만 훈화薰化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는 그 분위기나 다 정화淨化가 되어서, 질병도 그때는 덜 생기고 또는 전란도 덜 생기고 이와 같이 그런 정화를 다 일으키는 굉장히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경經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계실 때에, 마가다국은 부처님 덕분으로 부처님 훈기 때문에 별로 난리도 안 나고 또는 흉년도 안 들고 해서 잘 지냈는데,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옆에 있는 코살라국이라 거기로 잠깐 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웃나라니까 갔다 왔다 하셨습니다. 딱 가시니까 가시자마자 이쪽 마가다국에서는 다시 옛날에는 없던 재난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자나 그런 도인들은 그런 성자를 지키는 호법선신들이 성자가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는 것이고 저리 가면 또 저리 몰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국에서는 코살라국에서 다시 부처님을 모셔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시 인연 따라서 가셨는데 그냥 또 오시겠습니까? 따라서 마지못해서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그사이에 경계 양쪽에 부처님 얼굴을 조성해, 부처님의 아주 영롱한 큰 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처님의 얼굴로 해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양쪽을 다 보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악신들이, 액신들이 그때는 양쪽을 다 범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유서由緖로 해서, 아까 말씀처럼 제일의적第一義的인 유서는 우리가 불안청정佛眼淸淨한 부처님의 그런 무가정無假定의 원리, 절대의

진리를 가지고 생활하라, 불안佛眼에 입각해서 생활하라, 그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차원이 낮은 상대유한적인 의의로 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면 그 사람 따라서 이와 같이 분위기가 정화되고, 정화 안 되고 합니다. 안 계시면 그때는 그만치 흐려지고, 계시면 또 그만치 또 역시 분위기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문에서 보는 중맹모상衆盲摸象이라, 무리 중[衆]자, 소경 맹[盲]자, 만질 모[摸]자, 또는 코끼리 상[象]자,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책에도 다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뭇 소경이 하나의 코끼리를 만지듯이, 우리 중생도 이와 똑같이 지금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뭇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배를 만지면 방주 같고, 코를 만지면 그때는 방아공이 같고, 이와 같이 전면을 못 보니까 자기가 그때그때 접촉하는 대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전부를 못 보는 것입니다. 어느 한 편 밖에는 못 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역시 전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한계를 모르니까, 우리 불교인도 이와 같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는 과오를 범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악쓰고 데모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대학교수로서 선동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때 우리의 판단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역시 부처님의 지혜, 아까 말씀마따나 부처님의 그런 불안청정佛眼淸淨한 안목眼目, 모든 사태를 전부 한 번에 볼 수 있는 안목, 거기에서 봐야 됩니다. 우선 내일, 모레, 또는 몇 년 후, 그것 보는 것은 우리 불교인들은 할 것이 못됩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상대유한적인 것이라 절대가 못됩니다. 이래서는 사회가 도리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폭풍우가 친다하더라도 끄떡없는 그런 우리 가치관, 이것을 우리는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저번 때 신도님들이 저한테 몇 분 오셔서 스님 법문은 말씀도 서툴지마는 너무 어려워서 알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잘못되었다고 참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법회에서는 참 법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 비유하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꺼번에 있는 그런 것이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신 것이고, 또 여기에 한두 번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문은 일자함다의一字含多意라, 단 한 자 속에도 그냥 부처님의 진리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아무리 쉬운 법문도 역시 가장 고귀한 법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운 법문, 익히 들어서 아시는 법문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생각 마시고서 재차 들으시면 부처님 법문은 다 소중합니다.

부처님 법문은 소승 가운데 대승이 있는 것이고, 대승 가운데 소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융圓融한 것인지라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법문 가운데서도 역시 명확한 체계를 세워야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쉬운 법문에 대해서 체계를 안 세워 놓으면 나중에 어려운 법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마따나 '나'라는 위치, '나'라는 것이 대체 우주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처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에 너무나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인가? 우리가 닦아서 성자의 지위에 올라서 놓으면 그때는 만물의 영장 가치가 있습니다만, 부처님 말씀처럼 그야말로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입니다만 우리가 닦지 못해 가지고서 인간된 어정쩡한 그런 지위에서는 만물의 영장은 못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못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현실과 당위적當爲的 현재, '나'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나갈 길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 이상과 현실을 뚜렷이 구분해 가지고서 자기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역시 상대유한적相對有限的인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위치를 가장 정확

히 말한 부처님의 쉬운 법문이 십법계十法界입니다. 십법계를 알면 우리가 아만심도 안 내지는 것이고, 또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비굴한 마음도 안 납니다. 이것은 불교의 초심, 사미승도 다 외우는 그런 법문 아닙니까?

사생육도四生六道라, 또는 사성육도四聖六道라 말입니다. 육도 이것은 다 익히 들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옥・축생・아귀・아수라・인간・천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쪽에 있는 성문・연각・보살・부처 이와 같이 모두 합해서 이것이 열 경계인데, 이런 가운데 어정쩡한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처럼 만물의 영장은 절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불교는, 현대불자님들은,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저만치 것은 보통은 다 무시해 버립니다.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때는 부처님 차원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일반 중생들 차원에서, 어느 유수한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그대로 밀려가고, 또는 사회개혁을 잘하는 어느 경제학자가 쓴 책 보면 그리 밀려와 버리고, 그와 같이 우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보다도 더 높은 차원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인간밖에는 안되지만 안 될망정 역시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이 제일 밑에 업장이 제일 무거운 중생이 가는 지옥, 그다음에 축생・아귀・아수라・인간・천상 이것은 모두가 중생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중생계, 삼계三界를 떠나서 그때는 성자의 지위, 성문・연각・보살・부처 이와 같이 성자의 지위까지 합한 이것이 불교에서는 생지십계生地十界라, 날 생[生]자, 땅 지[地]자,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처럼 보통 그냥 지옥이나, 아귀나 모두가 내 마음에 있지, 이렇게 그냥 흔히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마는 사실은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지옥・아귀・축생 십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제법諸法이 공空이라, 하는 공에서 본다고 할 때는 텅텅 다 비어서 본래

무일물無一物이라 공空해 있지마는, 우리가 상대유한相對有限의 경계를 이렇게 허용할 때는 실존적으로 이와 같이 십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고, 또는 축생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아귀는 귀신은 역시 우리가 안 보이지마는 우리 주변에 항시 있습니다. 또 아수라도 역시 지금 이런 주변에 없다하더라도 깊은 산중, 또는 바다 아주 깊은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처럼 천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상도 욕계慾界 육욕천六慾天, 색계色界 18천天, 무색계無色界 4천天, 그래서 28천天의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삼계三界를 초월해서 닦아서 가는 성자, 즉 도업道業을 닦아서 가는 성자의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 이와 같이 네 가지 경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있으나 이런 것이 그냥 사실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시 심중십지心中十地라, 아까 말한 것은 생지십지生地十地라, 우리 마음에 있는 십계十界 이것은, 다시 말로하면 아까 말씀처럼 심중십지 또는 수지십지受持十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실지로 있는 이러한 중생계도 필요하지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십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열 가지 경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 남미우면 곧 때려죽이고 싶은.... 저는 맨 처음 출가해 가지고서 아주 상당히 고명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조금 수행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수행했다 하더라도 어느 조건만 주면, 어떤 조건만 닿으면 능히 제 아비도 죽인다.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승가僧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6·25 전쟁을 겪어본 분들은 압니다마는 그 당시에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여건 따라서 그 여건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그냥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합니다. 아까 그 스님 말씀처럼 여건만 있으면 그냥 선량한 사람도 자기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 같은 마음, 이런 악독한 마음이 원래 우리한테 있습니다. 또는 축생이라, 어리석기도 하고 판단도 잘못하고, 개·짐승·소 또는 독사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조금 자기한테 누가 잘못하면 성내고, 또는 자기만 좋아 안 하면 그때는 시기심 내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축생 같은 마음입니다. 또는 탐욕만 내는 마음, 자기 것은 절대로 아끼면서 남의 것은 함부로 하는 이런 것은 아귀 같은 마음입니다. 또는 싸움만 좋아하는 악독한 마음 이것은 아수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 조금만 자극을 준다거나 충격을 주면 그때는 이와 같이 악독한 마음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은 역시 청정하고, 계행도 잘 지키고, 그러한 청정한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좋은 마음, 그러한 천상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또는 그보다 더 올라가서 그때는 무소유無所有라, 원래 내 몸은 없다, 원래 중생은 공空한 것이다, 그와 같이 자기의 소유所有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소유 정신 이것은 역시 성문聲聞같은 마음입니다.

또는 일체만유一切萬有가 연기법緣起法이라, 그러한 인연 중생의 마음, 일체만유가 같이 보조하고, 같이 상대가 되어 있고, 같이 얽혀 있고, 같이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만유萬有 연결의 마음,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역시 연각緣覺의 마음입니다. 또는 비록 자기 스스로는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만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보살 같은 마음, 즉 선인후기先人後己라, 자기는 뒤로 하고 남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또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을 다 원만히 갖춘, 깨달음도 원만하고, 또 행동도 원만하고, 이러한 마음이 부처 같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훑어본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이런 마음, 지옥 같은 마음, 축생 또는 아귀·수라,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의 겉에 뜬 부동

浮動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 자리, 본 근본자리는 역시 부처의 마음입니다. 근본根本 자성自性은 역시 부처의 마음입니다.

표현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떠한 성자聖者나 이런 악독한 마음을 우리가 절제하고 억누르고 가장 소중한 정화淨化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도록 유도 않는 성자가 없습니다. 그런 성자 가운데서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체계있게 가장 고도한 마음, 부처 같은 마음을 우리한테 계발啓發한 그런 가르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천사와 악마가 같이 공존해 있단 말입니다. 천사 같은 마음에서 가장 고도한 좋은 마음이 부처 아닙니까, 악마 같은 마음에서 가장 나쁜 마음이 지옥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는 천사와 지옥이 공존해 있습니다. 부처와 지옥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갈 길은 오직 외길로 부처님이 되는 길, 성불成佛의 길밖에는 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길로 바로 못 가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붙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인가? 내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특히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 표현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꼭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 인간성 가운데 들어 있는 이와 같은 악마와 천사 또는 부처와 지옥, 이와 같이 공존共存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우리가 가르치는 후진들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각 성자의 가르침 또는 위대한 교육가의 가르침입니다.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나 또는 프뢰벨(Friedrich Wilhelm August Fröbel, 1782~1852)이나 어떤 교육자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인간 가운데는 신성神性이 있다, 인간의 마음을 신성으로 유도誘導하는 그런 교훈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치로 해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진선미眞善美라, 진리와 또 선善과 또 미美와 아름다움과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진眞이요, 또는 윤리적으로 그때는 선善이요, 또는 예술적으로 그때는 미美요, 이와 같이 진선미를 다 갖춘 종합적인 가치관, 이것이 즉 말하자면 성인聖人이란 그런 성聖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교육관을 딱 세워야 만이 오류誤謬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선 빵이 많으면 된다, 빵의 분배가 조금 불평스러우면 그냥 불평을 일으킨다, 이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흐린 물을 우리가 맑히려면 먼저 상류上流를 맑히면 됩니다. 근원이 우리 마음인지라 마음을 다스리면 결국은 거기에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각기 우리 인간성 가운데 이것이 다 들어 있지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상품십악上品十惡이라, 가장 모독스러운 십악十惡을 범합니다. 살생하고, 훔치고, 또는 삿된 음행을 하고, 욕설하고, 또는 망어妄語 거짓말하고, 이간하는 말하고 또는 꾸며서 말하고, 훔치고 또는 술 먹고 또는 진심嗔心내고, 탐심貪心내고 치심癡心내고 이러한 등등 마음 내는 것이 십악十惡입니다. 십악을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횡포하니 부린다 말입니다. 같은 십악도 역시 아주 제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같은 십악도 아까 살생도 하고 또는 사음邪淫도 하고 또는 훔치기도 하고 그런 열 가지 악惡 가운데서 별로 지나친 것은 아니고서 그냥 보통 십악을 행사한 그런 중생은 그때는 축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인간의 윤회輪廻를 잘 안 믿습니다. 저번에 한번 불교 스님들로 해서 강원講院 중강中講을 지낸 분으로 남한테는 그런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모양 같습니다만, 감히 우리 같은 선배한테 와서는 말합니다. “스님! 윤회가 참말로 있습니까? 윤회가?” 한 사오 년 동안 강원에 다니는 분도 역시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현대 우리가 받는 교육이 하도 눈에 보이는 것만 역설力說하니까,

사람이 전생이 있고 또는 미래가 있고 하는 것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백 퍼센트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필요로 무슨 억하심정으로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또는 부처님 다음에 무수한 성자

가 다 부처님 법문을 증명했습니다. 지금은 심령과학도 역시 과거 전생 몇 생을 다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그런 것을 좀 지양을 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이것도 되고 뭣도 되고, 과거 전생에 개가 되고 소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비유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비유담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그런 십악 가운데 어정쩡한 악은 그때는 축생이 되는 것이고, 또는 악은 별로 안 짓고서 십악을 별로 지나치지 않는 정도, 셋 가운데 가장 옅은 정도의 악惡, 그런 십악을 범한 중생은 아귀 귀신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사 귀신은 공간도 일념一念이라, 한 번 생각하면 천만리 가버립니다. 영가,천도 하기 위해서 "영가, 누구시여!" 부르면 그때는 즉각 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만, 그와 같이 귀신만 되어도 역시 업장業障은 지금도 무겁지만 사람 몸과 같은 이런 거추장스러운 몸이 없어놔서 그때는 시공時空을 초월해서 갔다 왔다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는 아니겠지만, 또는 영靈이 밝은 귀신은 사람 마음도 꿰뚫어서 압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를 존재로 해서 인정認定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귀가 있고 또는 아수라, 아수라 이것은 하품십선下品十善이라, 아까 말씀처럼 살생도 않고 또는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도 않고 거짓말, 욕설, 이간하는 말, 꾸며서 하는 말도 않고, 진심嗔心·탐심貪心·치심癡心도 안 부리고, 이런 것이 정도가 별로 높지가 않고서 제일 밑에 하下 뿌리 정도, 이런 중생이 태어난 곳이 아수라 경계입니다. 아수라 역시 몸이 사람 몸 같지 않은지라 역시 귀신보다 아수라는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가사, 요즘 산에 가서 공부했다고 그래 가지고 자칭 도사라는 분들 꿰어 알아맞히고 무슨 자칭 도사라는 분들은 보통 다 아수라 신神들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보다 더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중품십선中品十善이라, 중품십선 내지 인간은 오계五戒를 지킵니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 욕설, 이간하는 말, 꾸며서 하는 말 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계행戒行을 지키고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십선을 행하면 그때는 사람으로 인도환생人道還生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이런 오계나 또는 중품십선을 닦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 인구가 오십억 인구를 말하는 셈 아닙니까마는, 오십억 인촌 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정도 같으면 이러한 중품십선 이와 같은 경계에서 소요하고서 공부했던 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때에 태어나서 불교를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라 때도 불교를 믿어왔고, 저 멀리 일찍이 부처님 회상에서 불교를 믿어왔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할 때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품십선上品十善이라, 이것은 천상에서 받는 복입니다. 왕자도 역시 상품십선은 미처 못되어도, 왕자 가운데는 같은 십선 가운데서도 하품, 중품을 떠나서, 인간 가운데서 역시 십선을 더 닦아야만 그런 왕자가 되는 것이지 저마다 못 되는 것입니다.

군사혁명을 했건, 무엇을 했건 간에 역시 남의 우두머리가 될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십선을 닦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인연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지금 이와 같이 육도, 우리 중생이 왔다 갔다 하는 욕계·색계·무색계가 이것이 삼계인데, 우리 중생은 삼계를 지금 뱅뱅 헤맨단 말입니다.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또는 보시도 하고 남을 위해 행동도 하고 약간의 선善도 하고 살생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 않고 말입니다. 거짓말 욕설 그런 말도 않고 이와 같이 닦아서 가는 정도는 비록 선이라 하더라도 이런 삼계에서 면치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보다 높은 삼계를 벗어난 사선四禪 경지에 들것인가? 이때는 역시 도업이라, 아까는 선업인 것이고 도업을 닦아야 합니다.

도업이란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자기 몸을 제아무리 바쳐서 준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선업에 불과합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고 하는 정도에서는 아직은 착한 일에 불과합니다. 허나 부처님의 무상지혜無常智慧, 제법공諸法空의 지혜, 모두가 근본은 다 텅 비었구나, 텅 빈 실상 이것은 부처뿐이구나 말입니다.

저는 역설을 많이 합니다만, 먼저 내 몸이라든가 또는 그대 몸이라든가, 천지 우주가 텅 빈 것을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사실이 비었으니까 말입니다. 어째서 비었는가? 옛날에 물리학이 미처 발달이 못 될 때에는 비었다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했겠지, 하고 말했지만 지금은 물리학이 발달 되어서 사실은 물질이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텅 비어 있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몸은 무엇인가? 각 원소가 모여 있는 세포에 불과합니다. 각 원소는 무엇인가? 원소는 중성자, 중간자, 또는 전자가 합했단 말입니다. 각 원자가 어떻게 합해 있는가?

그건 여건 따라서 각 원소의 구분이 있습니다. 또 각 원자는 무엇인가? 중성자나, 중간자나, 전자나 그것은 일정한 것이 그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만 몇 분간 생명이 못 가는 것입니다. 파괴하면 그때는 텅 빈 공空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만 남습니다. 따라서 천지 우주에는 사실은 물질은 없이 에너지만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만 충만한데, 동력이 와서 충격을 주어서 각 원자가 생기고 그때는 원자가 모여서 또 원소가 생기고, 원소가 모여서 세포가 생긴단 말입니다. 과학자는 그와 같이 텅 빈 것을 증명합니다. 과학을 안 배운 사람들은 정말로 내 몸이 비어있을까?.... 어렵더라도 불교란 것이 굉장히 고도한 것입니다. 텅 비었다는 제법공諸法空을 모르면 불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처님 법문 가운데는 선善도 있고 악惡도 있고 상대유한적인 것이 많이 있으나, 그런 말씀은 방편에 불과하고 사실은 텅 비었다 하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오온이 다 비었다 하는, 오온이란 정신과 물질입니다. 텅 비어 있는 실상, 그것이 불성, 그것이 부처님이라, 그것이 이제 법신불이란 말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순수에너지의 실상實相,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佛性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나 몸이 사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불교의 『구사론俱舍論』이나, 그런 공부 안한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아! 그것은 부처님 말씀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불교의 『구사론俱舍論』이나 『기세경起世經』을 보면 물리학보다도 훨씬 세밀한 풀이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술어로서 변증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풀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 비었으니까 결국 '나'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비었거니, 내가 잘못 봐서 지금 내 몸이다, 너다 하는 것이니까 소위 말하면 무아無我 아닙니까? 무아無我란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천만번 때려 보아 무아를 느껴야 됩니다. 무아無我를 못 느끼면 결국은 공부했다 하는 보람이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것을 우리는 있다고 한다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뇌가 싹터옵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아소유我所有라, 내 소유가 그때는 없단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소유라, 내 소유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아내, 내 자신, 내 동생, 또는 내 학문, 무엇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空을 느끼고서 무아소유無我所有라, 내가 없고 또 내 소유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서 공부할 때에 성문이라는 성자, 또 올라가서 연각성자 또 올라가서 그때는 보살성자, 그리고 가장 원만한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없다 하는 그런 진리를 닦는 그런 가르침이 사제법문四諦法門입니다. 인생人生은 상대유한적인 범부가 보건데 공空인 것이다, 고苦다 말입니다. 고苦요, 공空입니다. 그러나 고苦를 받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을 느껴 가지고서 그

런 독심 때문에 그런 삼독심과 우리 행위가 고苦의 원인인 집集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苦를 다 떠나서 고苦가 멸해버린 자리, 고苦가 멸해서 참다운 행복,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의 자리 이것이 멸滅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그런 멸滅에 이르기 위한 방법, 계제階梯 이것이 도道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것 가운데에 불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는 차원을 좀 더 높여서 말입니다. 고苦·집集은 이것은 원래 없다,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고苦나 집集이나 모두가 다 얽히고설켜 천지우주는 하나도 별일이 없이 같이 상대해 있다, 불교말로 해서 중중무진重重無盡이라, 서로 얽히고설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얽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연각입니다. 이런 것이 그 인연법, 이것이 중요한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입니다.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은 12단계로 해서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처六處·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입니다. 우리 중생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는 삼계三界를 헤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무명無明이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 고생 받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고생의 원인 또는 사회 혼란의 원인 이것은 뭐라 해도 무명無明 역시 무지無智입니다. 무지가 사회나 또는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무명이 있기에 따라서 그때는 행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는 쭉 나아가서 그야말로 참 인간이 나고, 또는 아귀가 나고, 또는 지옥이 나고 합니다. 무명이 없다 하면 그때는 오직 저 끝에 부처만 있을 것인데, 무명 때문에 이것저것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몰아서, 중생이 무명계에 헤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처님 차원에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육바라밀六波羅蜜입니다. 이 시간에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아까 말씀처럼 사미승들도 아는 가장 쉬운 법문 아닙니까. 그러나 잘 모르신 분들은 이

런 때에 정확히 딱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고도한 법문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결국 무명無明이 문제입니다. 무지無智 즉 바로 못 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무명을 벗어야 할 것인가?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가? 저번에 어느 스님네가 저한테 편지를 해서, 스님, 저 인간人間의 생명이 대체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대체 어디서 왔는가? 공부는 한다고 했으나 의단이 안 떨어진다, 고 저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몇 말씀으로 해서 그런 해답을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 모두가 흔히 많이 의단疑團을 품는 문제이니까, 다음 법회에 오시면 그때 말씀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스님은 오늘 안 와 버렸습니다. 역시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분명히 내가 중요한데, 나니까 내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내 시초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생명의 근저, 이것에 아주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서 대체로 그와 같이 윤곽은 아까 십법계十法界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말씀하겠습니다.

즉, 참나眞我 란 무엇인가? '통달무아법자通達無我法者 여래설명如來說名 진시보살眞是菩薩이라.' 내가 없다는 그런 법을 통달한 이는 여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바로 보살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남한테 많이 주어서 보살이 아니라, 역시 보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통달무아라, 내가 없다는 그런 무아를 통달해야 만이 참다운 보살입니다. 무아無我 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아無我와 씨름해야 합니다.

무아無我에 못 들어가면 결국은 부처님 법을 바로 모르는 것이고 보살이 못 되는 것입니다. 보살의 참다운 보살이 부처님 제자인데, 무아無我가 못되면 우리는 보살이 못됩니다. 어째서 무아無我인가? 저도 역시

무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없는가? 지금도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많이 보는 가운데서, 부처님 경전 가운데 무아無我에 대해서 가장 절실히 풀이한 경전은 무엇인가? 하고 여러 종류를 봤는데 『마하지관摩訶止觀』 이라, 여기서 무아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마하지관은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스님이 썼는데, 우리 불교를 가장 체계있게 다룬 분은 천태지의 스님이십니다.

천태지의 스님은 『법화경法華經』을 주로 많이 했으나, 내가 없다는 무아無我에 대해서 『마하지관』이란 참 훌륭한 책입니다. 또는 『 원인론原人論』 입니다. 인간의 시초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학자들이나 학도들께서는 『원인론』을 보시면, 사람의 시초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이 구절이 가장 단명하게 사람의 본질이 무아無我인 것을 해설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다 쉽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나 체계있게 무아를 말한 것은 이 법문입니다.

'위무지혜고爲無智慧故'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계언유아計言有我라' 내가 있다고 고집하고 계를 세운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명이 없고 진리가 있다 하면은 내가 있다고 고집을 안 세울 것인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계計도 하고 집착도 하고 여러 가지 분별 망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있다고 고집을 하나, '이혜관지以慧觀之' 지혜로서 나를 본다고 할진대, 부처님의 무상지혜 무가정의 지혜로 본다면 그때는 참 실무유아實無有我라, 실로 내가 있다고 할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재하처我在何處라, 내가 대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분명히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말입니다.

두족지절頭足支節 일일체관一一諦觀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자세히 본다 할지라도, 요불견아了不見我라, 결국은 나라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머리 이것은 내가 아니요, 눈 이것도 내가 아니요, 손, 발 이것도 내가 아니요, 심장 역시 이것도 내가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듬어 봐서 '나'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달마대사達磨大師와 혜가대사慧可大師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혜가스님이 달마스님께 가서 "제가 불안스럽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안심을 주십시오." 하자 달마스님이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보라" 그러자 혜가스님이 아무리 더듬어 봐도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 남 사랑하는 마음, 예쁜 마음,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있다고 고집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도 없고, 내 발에도 내가 없습니다. 있다고 망집妄執이라, 우리가 분별심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스레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일일이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요불견아了不見我라, '나'라는 것은 끝끝내 없다 말입니다.

하처유인급중생何處有人及衆生이라, 그러면 대체 어느 곳에 중생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인가 하면 다만 중생업력기관衆生業力機關이라, 중생의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이나 천지 우주는 오직 청정미묘한 바로 부처님 한 덩어리 부처뿐인 것인데, 우리 중생이 탐심, 진심에 가려 바로 못 봐서 내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중생업력기관衆生業力機關이 가위공취假爲空聚라, 가짜로 그때는 임시로 공空을 이렇게 모았다 말입니다. 세포 이것은 공空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일체만유는 모두가 원소가 빙빙 도는 거품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금강경』에서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이라, 꿈이요 허깨비요 그림자요 모두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 비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 만유는 다 거품이요 꿈이요 허깨비입니다.

중생은 꿈이요 허깨비 때문에 싸우고 애쓰고 합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만 아까 말씀처럼 부처가 되는 길, 우리 참다운 실상을 깨닫는 길,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길은 그때는 다음 문제입니다. 자기 옷 문제, 돈 문제, 빵 문제, 그런 문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오직 문제는 자기 마음 깨달아서 우리 부처로 가는 길, 참다운 나를 아는 길, 즉 말하자면 진아, 참다운 나를 아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처유인급중생何處有人及衆生이라, 어느 곳에 내가 있고, 중생이 있는가 하면 중생업력기관衆生業力機關이 가위공취假爲空聚라, 각 원소를 다 모아서 종중연생從衆緣生이라, 모두 인연 따라서 태어났다 말입니다. 따라서 비유하면은 무유재주無有宰主라, 주인공이 없는 것이 마치 여숙공정如宿空亭이라, 마치 빈 정자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쉬는 것과 같다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세포가 모여서 이것이 마치 비유하면 빈 정자와 같은 것인데, 여기에 식識이 머물러서 내 것이라고 고집합니다.

이 몸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중생의 심식心識이 바로 못 보니까, 천지 우주를 하나의 덩어리로 못 보니까, 구분해서 밖에는 못 보는 중생의 망령 때문에 내 몸, 네 몸 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이것은 꼭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못 느끼면 그때는 진아眞我, '참나'를 그때는 못 느낍니다. '참나'를 못 느끼면 우리가 성불을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또한 성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아무리 그런 말씀이 많아도 내 몸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그때는 그런 것을 못 지킵니다. 내 몸이 중요한데 어떻게 욕심을 안 내고 내 몸을 해롭게 하면 진심을 안 내겠습니까? 역시 무아, 참다운 진아 말입니다. 원래 나라는 것이 없다는 그런 무아, 참 나는 천지 우주의 바로 법신 부처가 바로 '참나'입니다. 나요 너요 없이 우주는 하나의 진리 덩어리, 하나의 법신 부처님뿐인 것입니다. 오직 일원적一元的으로 하나뿐인 것입니다. 불교는 역시 가장 고도한 철학인 동시에 종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야만 대승大乘입니다.

형형形形이 색色이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만물을 구성하는 그런 색이나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뚱이나 또는 일체 물질을 구성하는 그런 색 즉 물질이나, 사려심思慮心이라 생각하는 마음이나, 무시이래無始以來라, 시작이 없는 오랫동안의 갓도 끝도 없습니다. '나'라는 생명이 원래 끝이 없습니다. 법신이 끝이 없거늘 내 생명이 끝이 있겠습니까? 영생하는 그 법신이 생명이 내 자리인데 내 생명이 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끝도 없고 갓도 없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또는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것이 무시이래 비롯이 없는, 처음이 없는 데 부터 인연·욕구, 무수한 그런 인과의 힘으로 해서, 인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염념생멸念念生滅이라, 순간순간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합니다.

염념念念 이것은 생각생각이라. 가장 짧은 시간 보고 념念 그럽니다. 순간순간 그때는 생하고 멸하고 한단 말입니다. 무시이래로 한도 끝도 없는 오랜 세월부터서 모든 천지 만물이 생生하고 멸滅하고 끝없이 생하고 멸하고 한다 말입니다. 생겼다 없어지고 또는 또 생기고 이와 같이 생멸을 거듭하면서 상속무궁이라. 서로 사뭇 위한다 말입니다. 그냥 그것이 끊어지면 별로 무엇 안 될 것인데 안 끊어지고 이것이 상속해 와서 마치 여수연수如水淵藪라, 물방울이 떨어지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합쳐져서 물줄기가 되고 됩니다.

사람 몸도 역시 마치 물방울 모양으로 사실은 각 세포가 이렇게 방울방울 모인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안 끊어지고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로 보인다 말입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또는 불이 불꽃이 타오르는데 사실은 앞에 올라간 불꽃, 뒤의 불꽃이 원래 하나가 아닌 것인데 이것이 연속되기 때문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 생명이나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이나 모두가 다 무시이래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연의 힘으로 해서 순간순간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이와 같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한줄기 물 되듯이, 또는 불꽃이 올라가서 한 불길이 되듯이 말입니다, 빗줄기도 방울방울 빨라지면 계속해서 빗줄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 물방울이 방울방울 모여서 하나의 물줄

기가 되듯이 불도 불길이 올라가서 하나의 불꽃이 되듯이 마치 이와 같이 심신가합心身假合이라, 우리 몸과 마음이 가짜로 임시간臨時間 합해 있단 말입니다.

인연의 힘으로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지금 가짜로 임시간 합해 있습니다. 심신가합心身假合이라, 몸과 마음이 즉 세포와 식이 합해 있단 말입니다. 원래 부모님 배 안에서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오기 전에 식으로 해서 그때는 몸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오기 전에는 몸이 없습니다. 의식, 식識으로 헤매다가 부모님 연緣 만나서 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임시로 영양을 섭취해서 이런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으로 해서 그런 마음, 식과 물질이 합해서 내가 구성 되었단 말입니다. 심신가합이라, 몸과 마음이 가짜로 임시간 합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치 [사일사상?]이라. 하나같고 항상 같다 말입니다. 사실 하나가 아닌 것인데, 산소가 합해지고 수소가 합해지고 모두 합쳐져 된 것인데 탄소 등이 합해진 것입니다. 내내야 산소·수소·탄소·질소, 이런 것이 합해진 것이 세포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것이 합해서 몸이 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못 보는 것이니까 하나같이 보고, 항상 같이 본다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무명 때문에 범부불각凡夫不覺이라, 범부는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집지이아執持以我라, 이것보고 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마음 분별의식과 산소·수소가 모아진 하나의 물질이 잠시 합해진 것인데 이것도 우리 중생은 잘 못 보니까 나라고 고집합니다. 저는 그 무아를 잘못 느껴서 저는 무아를 얼마나 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은 모르지만, 무아無我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없다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행복行福이라, 행복은 바른 견해, 원래 부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서 닦는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삼복三福[세복世福·계복戒福

·행복行福]을 닦으면 해탈하고 성불하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업장에 따라서 더디고 빠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삼복三福을 닦아야 합니다. 삼복을 못 닦으면 참다운 불자라고 못합니다.

우리는 세간에 있으니 마땅히 세복(世福, 세간의 복)을 닦아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윤리적인 복, 형제간의 우애, 부모에게 효도, 부부간의 화목, 이웃끼리의 선린 그런 우리 윤리 행동,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계나 십계十戒나 그런 계행을 지키는 것이고,[계복戒福]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로 해서, 지금 우리가 미처 부처가 안돼서 모른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나, 모든 생명의 뿌리가 부처님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 위에서 공부해야 합니다.[행복行福]

그런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염불공부입니다. 이왕이수易往易修라, 쉬우면서 공덕이 많습니다. 지금 사람은 공부 좀 하면, 염불 그것은 낮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대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런 공부방법, 도인들이 가장 역설하신 공부방법, 어떤 도인들이나 어떤 선지식이나 염불공부는 말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하기 쉽고 또는 성불하기 쉽단 말입니다. 원래 부처인지라,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이름 외우고 하는 것, 이것이 염불 아닙니까?

따라서 화두나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다 성불하는 법인 것이니까 그 법대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해서 나가면 쓰는데, 아직 확실한 공부방식을 모르는 분들은,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그 공부, 제일 쉬운 공부, 천지 우주는 원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지 우주의 기운이 모든 중생을 성불하고자 하는 기운이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나무·돌·흙이 모두 목적이 있듯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섭리하신 부처님, 천지 우주가 부처님뿐인 것인데, 부처님은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중생을 다 성불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두워서 미처 못 봅니다마는, 원래 우주에는 우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의 목적이 내내야 부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서원 부처님의 서원이, 방금 말씀처럼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이고 우주의 목적입니다. 서원 따라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 이름을 외우고 말입니다. 가장 공덕이 많고 쉬운 법문으로 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마지막 법문도 "게으름 피우지 말라." 우리의 하나의 수행방법을 알면 게으름 부리지 말라, 게으름만 안 피우면 원래 우리가 부처인지라 걸음걸음 부처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서원 따라서 바른 견해를 딱 견지하고, 우선 인간적인 그런 세복世福, 또는 계행 지키는 계복戒福, 또는 바른 견해 밑에서 닦는 그런 행복行福을 닦아서 성불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4. 천상천하天上天下 무여불無如佛

* 1985년 4월 8일 초파일 법문입니다.

이날은 비단 이것을 석가모니釋迦牟尼라는 하나의 인간 탄신일誕辰日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석가모니와 나와 사람은 다르다 하더라도 석가모니와 나와 우리와 그러한 마음의 본바탕은 하나입니다. 인류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실 때까지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또는 우주의 본바탕은 무엇인가? 그러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러한 문제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개벽開闢 이후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철인哲人도 많이 나고 위대한 군자君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빼놓고서는 사람의 본질, 사람의 본 실상 이것을 모르고 지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의의, 이것도 모르고 지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인간의 본바탕과 우주의 본질을 바로 밝히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신誕辰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참 나를 느끼고서 참 행복에 걸맞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단 석가모니라는 나하고 대립되는 내 밖에 있는 사람의 탄신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 내 본 생명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새로 발견하는 그러한 기쁜 날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비로소 아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배도 많이 있고 또는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 본바탕, 자기 생명의 본질을 아는 그와 같은 큰 보배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장 존중한 보배, 가장 거룩한 그러한 진리, 이러한 진리를 오늘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우주의 개벽을 45억년이라, 그렇게 유구한 세월을 말합니다. 45억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인류나 또는 기타 동

물들이나 천체가 발전·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아직 참다운 우주의 본질을 몰랐다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겨우 지금으로부터 2529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 의의나 인간의 본 바탕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습니다만 오늘같이 가장 경하慶賀스러운 날은 없습니다. 제일 소중한 날, 우리 생명을 바로 아는 날, 우리 갈 길을 바로 깨달은 날, 이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로 미혹되어서 본바탕을 모르고 삽니다만 그렇더라도 사람은 제일 행복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교양에 따라서 그 행복의 척도尺度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돈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물질의 풍요, 어떤 분은 지위로 만족하는 그런 지위·감투 그러한 것의 자기만족, 어떤 분은 이성적인 그러한 것의 만족, 어떤 분은 음식이나 그러한 것의 만족, 각기 나름대로 그런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만, 그 마음 바탕은 역시 완전무결한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한된 우리 욕구로 해서는 우리 행복을 충당을 못 시킵니다. 이러한 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우리 인간은 본래 부처인지라, 우리 인간의 본바탕은 불성佛性이 있는지라, 불성을 우리가 완전히 계발啓發을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본 생명 자리인, 실상인 불성에 우리가 못 들어가면, 다른 것으로 해서는 우리 인간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공허를 메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같이 유행遊行하셨습니다. 유행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도인들이 갔다 왔다 하는 그러한 행각이나, 수행자가 갔다 왔다 하는 그러한 행각을 가리켜서 유행이라 합니다.

유행하시는데 어디만치 가시니까 아주 놀기 좋은 그런 그늘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 한다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뭣을 분주히 애쓰고 찾고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대체 무얼 찾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말이 “우리는 지금 남녀가 이와 같이 합해서 행락을 와서 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마음이 좋지 못한 여인이 노는 틈을 타서 우리가 지닌 여러 가지 패물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가져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물론 그대들이 도난당한 패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들의 참다운 생명, 참다운 나 이것이 중요한데 그대들은 가장 중요한, 제일 급하기도 하고 제일 소중한 자기를 찾는 그 문제는 망각하고서 그냥 우리 생활에 조금 도움 되는 호주머니 것, 그것만을 소중히 생각한다. 따라서 마땅히 자기를 찾는 공부,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하고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 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름으로 해서 우리 생활은 자꾸만 왜곡되게 빗나갑니다. 정치를 우리가 하든, 또는 교육자가 되든, 학생이 되든, 하나의 농부가 되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가령 학교에서 남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본 갈 길은 어떠한 것인가? 이걸 모르면 아동들이나 학생들을 바른길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정치도 역시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내 문제, 그 생명 문제를 먼저 풀이를 못하면, 다스리는 그런 국민들을 바른길로 다스려서 행복스럽고 풍요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물질만 풍요하면 복지겠지, 산업이 흥왕興旺돼서 대량생산만 하면 풍요한 나라가 되겠지, 그럼 행복스럽겠지, 이걸로 해서는 참다운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 가치는 지금 우리가 짓밟혀

있고, 또는 제아무리 못난 무지몽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명 가치는 우주하고도 안 바꿉니다. 그러한 생명 가치, 가장 보배로운 가치, 이 가치를 무시하면 무시한 그러한 발전이라 하는 것은 참다운 발전 못 되는 것이고, 인류 행복도 못 가져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불안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자기의 가치, 참다운 영원의 가치, 가장 행복스러운 보배, 이것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적인 그런 불행이나 우리 가정의 불화나 사회의 불안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불식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기본 되는 그런 가치, 나의 문제, 내 인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밝힌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시 가운데 천상천하天上天下 무여불無如佛 하니,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부처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분이 없으니 시방세계十方世界 역무비亦無比로다, 우주 전부를 다 우리가 둘러본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도 부처님 같은, 부처님에 비길 만한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님과 비길만한 분이 없도다, 이러한 게송偈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와 같이 어떠한 것도 부처님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한데 부처님께서는 비단 그러한 우리한테 간단하게 우리 길을 일러준 것에 그치지 않고서 비록 중생이 지금은 어두워서 업장이나 그런 번뇌에 가리어져 미처 발견 못하고 불행히 헤맨다 하더라도, 인간의 불성은 깨달은 나와 같이, 천지 우주의 모든 바탕 진리, 행복의 본질을 깨달은 나와 같이, 어느 중생이나 다 똑같은 그러한 본성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부처 불[佛]자, 성품 성[性]자, 불성佛性입니다. 이것이 부처라는 성품입니다. 석가모니란 그런 사람은 하나의 사람으로 해서 우주에 항시 있는 자기 바탕인 동시에 우주의 본바탕인 불성을 깨달은 분입니다. 우리 중생은 석가모니와 똑같이 불성을 다 같이 갖추고 있지만은 불성을 미처 못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은 미처 못 깨달은 부처고, 석가모니같이 그런 도인들은 깨달은 부처입니다. 다만 발견하고 못했다는 차이뿐인 것이지, 본바탕은 똑같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께서 6년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뒤에 맨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깨달아서 보니까 나만 부처인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이나 일체중생이 다 부처라고 갈파喝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나쁜 사람은 밉고 또는 좋은 사람은 우리가 귀하고 하지요, 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지요. 허나 부처님께서 깨달은 뒤에 본다고 할 때는 비단 깨달은 나뿐만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산천초목이나 또는 일반중생이나 기타 동물이나 모두가 다 부처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존재가 다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어려운 법문입니다만, 현대라는 사회는 하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놔서 이런 기본 된 법문을 알아야만 우리가 혼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한테 도전해오는 그러한 괴상한 학설들, 우리 불교를 박멸하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학설들, 그러한 종교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중생은 아직 어두워서 못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 같은 안목에서는 바로 본다면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없고 또는 차별적인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광명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비단 사람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돌 한 개나, 나무 한 개나 또는 하늘에 있는 별이나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그 본바탕은 생명은 똑같은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러한 부처님이라 하는 우주의 본바탕인 생명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처럼 그러한 깨달은 안목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떠한 누구나 다 그때는 성불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맘에 안 내키면 그냥 밉다고 하고, 자기 맘에 내키거나 조금 이익을 베풀어 주면은 그냥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중생이 본 바탕을 못 봐서 그러합니다. 밑바탕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밑바닥은 다 부처인지라 밑바닥을 본 성자의 안목에서는 그저 전부 다 훌륭한 부처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은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要諦이기 때문입니다.

계행을 지키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이러한 것은 다만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 경계, 천지 우주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전부 다 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경계, 그런 경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부처님 같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금생에 나와서 대부분은 다행히 온전한 몸으로 제대로 의식을 갖추고서 살고 있지만은 불행한 사람들을 본다면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분은 양쪽 손도 없고 말입니다. 양발도 없고, 그리고 더구나 소경이고 그런 채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지구상에 한 두 분이 아닙니다. 복지사업가로 해서 유명한 헬렌 켈러(Helen Adams Keller, 1880~1968) 여사, 그분은 귀머거리인 동시에 소경이요, 벙어리였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분도 한 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분은 자기 본심, 자기 본심이 무한한 가능인의 부처다, 자기 본심이 무한의 가능인의 신선神仙이다, 부처라는 것은 그 사람은 몰랐지만 신선이다, 이것을 믿었기에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해서 귀머거리나 또는 소경이나 벙어리임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굉장히 나쁜 갈래로 우리가 전락이 되고, 더러는 행위가 좋아지면 좋은 대로 우리가 초선에 올라가고, 우리는 지금 사람이니까, 우선 편하니까, 우리가 건강하니까, 우리는 불행한 사람을 잘 모릅니다. 허나 우리가 짓는 우리 말, 우리 행위, 우리 생각, 이것에 따라서 우리 중생은 여러 갈래로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자가 보통 알고 있는 윤회 아닙니까. 가장 못되면 지옥地獄, 조금 나아지면 아귀餓鬼, 조금 나아지면 그때는 짐승, 개나 소 같은 짐승 말입니다. 조금 나아지면 싸움만 좋아하는 귀신인 그런 아수라阿修羅, 조금 나아지면 그때는 인간, 더 나아지면 천상天上, 이렇게 해서 우리 중생은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때는 그와 같이 전락되었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인간의 생명, 인간 윤회를 잘 안 믿습니다만 지금은 심령과학도 역시 이러

한 것을 대부분 증명합니다. 비록 사람인 우리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와 같이 헤매는 것입니다. 헌데 아까 부처님 말씀을 인용한 바와 같이 원래 생명은 부처이건만 그와 같이 우리 행위 따라서 그때그때 전락했다가 수승殊勝했다가 윤회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 생명인 동시에 우주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런 불성 가운데는 일체 공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부처의 성품 그것이 나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의 본 바탕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공덕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그때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만, 나의 생명이 본 바탕인 동시에 또는 우주의 바탕, 하나의 원자나 또는 뭣이나, 개나 소나 돼지나 하늘의 별이나, 모두 다 그 본바탕은 부처입니다.

헌데 그 부처 가운데, 그 불성 가운데는 일체 가능이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지혜나 기술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의 혜택을 그야말로 참 굉장할 정도로 많이 봅니다만, 도시 나가서 밤에 높은데 올라가서 도시 야경을 우리가 전망할 때는 그 황홀한 야경, 황홀한 광명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행복스럽구나, 이와 같이 황홀하구나,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안 보았지만, 안 본 사람도 역시 극락세계가 이런 것인가, 이럴 정도로 도시 야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무수한 전등, 인간의 지혜로 해서 약간의 조작操作만 하면 그때는 그와 같은 찬란한 불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전등 생각해보십시오. 불이 어디가 숨었다가 이렇게 전기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제한된 그런 지혜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에는 그와 같이 광명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조작만 하면 그때는 그와 같이 빛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주나 뭣이나 어떤 것이나 불성 가운데는 완벽히 있습니다. 행복도 완벽히 있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중생이 마음이나

행동을 닦아가지고 보다 더 불성에 접근되면 접근되는 만치 우리 행복은 증장되고 더해집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신 분은 모릅니다만 부처님의 별명이 환희광불歡喜光佛이라, 환희광불이라 말입니다. 환희란 말은 기쁘고 날뛰는 것이 환희 아닙니까. 부처님의 별명이 환희광불이라, 기쁨에 충만 되어있는, 행복에 충만 되어있는 부처라 말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아까도 말씀처럼 광명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때는 거기에 완벽히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되면 된 만치 어떤 점으로 보나 우리 인간의 능력은 더 증장됩니다. 가령 수학자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역시 불성에 접근되면 된 만치 그 이상 두뇌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컴퓨터를 보십시오. 몇 백 명이 우리가 계산해도 못할 그런 계산을 컴퓨터는 몇 분 동안에 해냅니다. 그것 역시 비록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주의 본 바탕에는 그러한 컴퓨터보다도 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약간만 조작하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원자폭탄 보십시오. 레이다나 그런 장치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이 모든 재주나 기술이나 모두가 다 근본 바탕은 불성이나 부처님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만 사람으로 해서 그런 불성을 깨달은 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류 역사 유사 이래 맨 처음으로 불성을 깨달은 분인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다만 우리의 선각자先覺者로서 깨달은 분이란 걸 느끼고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역시 깨달은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목적인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지은 업장으로 해서 아무리 싫다하더라도 역시 살생도 많이 하고 나쁜 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연因緣 불가피不可避라.' 우리가 좋은 일만 하면 우리가 싫다 하더라

도 역시 천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업을 닦아서 참선·염불을 많이 하면 그때는 우리가 싫더라도 극락이나 성불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본바탕이 부처님으로 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본바탕은 일체 행복이나 지혜나 자비를 갖춘 불성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앞에서 말씀처럼 2529년 전에 태어나시고서 25세에 출가하셔서, 물론 다른 설도 있습니다만, 30세에 성도하시고 49년간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세월이지만은 이 동안에 아까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갈 길, 우리 인간의 본 생명을 전부 다 설파하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이것이 팔만사천법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법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만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이미 인연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는 잘못 배웁니다. 잘못 배우기 때문에 우리 승복을 입고도 조그마한 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는 집안에서 믿는 분도 부처님한테 귀의歸依해서 몇십 년 된 분도 역시 어쭙잖은 일, 사소한 일로 서로 고생하고, 마음을 썩이고, 우리 마음을 우리 소중한 불성佛性으로 가는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왜곡을 시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시여,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니까 우리한테는 석가모니와 똑같은, 원효元曉스님과 똑같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이 갈 길은 오직 불성을 계발함으로써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도 역시 우리 본바탕, 우리 생명의 근원인 불성을 개발 못 할 때는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가고 맙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나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나 우리 국가의, 국가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나 세계 인류복지를 위해서나 어떤 면으로 보나 최상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한테 있는 내 본바탕에 있는 불성佛性을 깨닫는 길입니다.

허나 우리는 삼독심三毒心이나, 탐욕을 부리는 탐욕심, 또는 조금 마음이 안 내키면 마음을 우리가 혼란스럽게 해서 마음을 동요시켜 흥분하고 불룩거리고 하는 그런 진심嗔心, 성내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자기 본질이 부처임을 인식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학설을 모르고 또는 중요한 무슨 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본질이 자기 본바탕이 부처임을 아는 그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본바탕이, 내가 지금 못 보지만은 내 본바탕이 부처다, 이와 같이 느끼는 분들은 벌써 지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본바탕을 불성이라고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자기 분수 이상의 탐욕심, 또는 기분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성내는 마음, 진심嗔心, 그리고 자기 본바탕이 부처임을 인식 못 하는 마음, 이 마음 이것이 삼독심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본래 부처건만 우린 부처가 못되고, 지옥地獄으로, 조금 나으면 아귀餓鬼로, 또는 축생畜生으로, 또는 사람으로, 그와 같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삼독심三毒心을 우리가 못 거두면 우리 윤회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몇 만생 몇 천생을 지나도 우리는 역시 그와 같이 지옥으로, 아귀로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독심의 그 반대가 불교의 삼학도三學道란 말입니다. 계행戒行을 지켜서 우리 행동을 바르게 하고, 언어를 바르게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을 항시 고요히 통일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그때는 우리 마음의 바닥을 비춰본다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불교의 참다운 지혜로 해서 비록 내가 안 보일망정, 내 본바탕이나 우주의 바탕은 부처구나, 일체 공덕을 가진 부처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인식한다. 이것이 삼학도三學道입니다.

자기 언행을 바르게 하는 그런 계율戒律, 또는 그런 마음을 고요히 해

서 자기 본바탕, 불성을 비춰보는 그러한 선정禪定 즉 정신통일, 거기에다 비록 자기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내 본바탕은 부처구나, 이와 같이 느끼는 그 지혜智慧, 이것이 삼학도三學道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생은 우리 업장을 녹여 삼독심三毒心을 차근차근 힘을 줄이게 해가지고서 본래 고향인, 본래 우리 생명의 근원인 부처로 돌아가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 어두움과 광명의 양면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앞에 말씀처럼 탐욕심이나 또는 성내는 마음이나 또는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깔려있을 때는 판단을 잘못합니다. 한번 성내보십시오, 바로 보는가. 탐욕을 내보십시오, 바로 보는가. 탐욕과 성냄과 또는 내 본바탕이 부처구나 이렇게 못 느끼면 우리 판단은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짐에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국가·민족으로 보나, 우리는 바른 생활을 못하고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사회 혼란도 역시 그러한 탐욕심, 또한 성내는 마음, 또는 내 본질이 부처구나,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삼독심 때문에 사회·개인·국가·인류 모두가 다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고불변千古不變의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또는 무수한 도인들이 다 증명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마음 때문에 탐욕심이라 하는, 또는 성내는 마음이라 하는, 내 본질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는 그 마음,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방금 말씀처럼 바른 판단도 못하고 우리 생활은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생활인가, 광명의 생활인가?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처럼 계율을 지켜서 살생도 않고, 말도 바른말, 행도 바른 행, 생활도 바른생활, 이렇게 하면서 내 본바탕이 부처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지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자아내기 위해서 그때는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한단 말입니다. 이런 소위 삼학도, 이렇게 지키면 이러한 것은 광명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등燃燈을 켭니다. 왜 켜는 것인가? 인류 역사,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분의 생일을 기념한다 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바탕을 밝히고 우주의 본 생명을 밝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린다 해도 좋습니다. 허나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해서, 진리의 광명으로 해서 우리 무지를 몰아내는 이러한 것이 가장 소중한 오늘의 의의입니다. 불을 왜 켜는 것인가? 광명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광명인 아까 말씀처럼 바른 행동, 바른 생각, 바른 지혜 이걸로 해서 우리의 어두운 무지無智를, 어둠을 몰아내고, 삼독심三毒心을 몰아낸다 말입니다.

우리는 등을 켤 때는 내 남편이 잘되면 좋겠다, 또는 자기 가정 행복을 기원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허나 그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흐린 물이 내려올 적에 흐린 물을 막으려면 상류를 먼저 맑게 해야 합니다. 하류에서 아무리 맑게 하려 해도 상류가 흐리면 하류도 흐리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근원이 마음인지라 우리 마음에서 어둠만 몰아내면 행복은 절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아무리 남편의 행복을 바라고 자기 자손들의 행운을 바란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어둠이 깔리면 그때는 행복은 못 옵니다. 어둠만 몰아내면, 계행 지키고 또는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비추어보고 내 마음이 부처구나! 내 본성이 부처구나! 이것을 분명히 느끼고서 우선 근본 뿌리를 북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가령 박사학위가 한 댓 개가 있다 하더라도, 참다운 지혜를 모르고 우리 불성을 못 느끼면 그건 무지입니다. 학식은 있으나 참다운 지혜에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겸허히 자기가 안다. 하더라도 영원적인 진리 앞에서는 내가 무지다. 소크라테스(Socrates, B.C. 470년경~B.C. 399년경)도 자기 무지無智를 아는 것이 참다운 지혜의 입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기 무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다운 불성佛性의 지혜를 모릅니

다. 참다운 불성의 지혜를 모르는 자기 무지, 이것을 먼저 우리는 겸허하니 느끼고서 그와 동시에 방금 말씀처럼 바른 광명스러운 우리 생각, 광명스러운 행동, 우리가 부처님을 한번 부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광명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한번 부르면 벌써 귀신들은 훤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면 벌써 우리 집안은 그대로 벌써 광명에 비춰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동이 바르고 우리 생각이 바르면 우리 불교를 광명으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설사 물질을 베푼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그 마음이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을 때, 아까 말씀처럼 근원을 다스리는.... 근원을 다스리면 마치 뿌리를 북돋우는 나무 이파리 모양으로 그냥 바로 무성해 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파리나 가지만 생각하지 뿌리는 그냥 외면합니다. 탐욕심 버리는 그러한 계행,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요하게 하는 그러한 참선 염불입니다.

거기다 참다운 지혜, 비록 내가 안 보이고, 나는 여태는 몰랐다 하더라도, 내 근본이나 우주의 본질은 일체공덕을 갖춘 부처구나, 이렇게 딱 믿는단 말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계율을 지키고, 또는 참선·염불하고 또는 지혜를 닦는단 말입니다. 전단향나무는 향나무가 한군데 있으면 40리를 사방으로 다 향내를 풍긴다 합니다. 「이랑」이라는 그런 독초는 나무 한 그루가 그 독초의 냄새 때문에 악취가 그때는 몇 십리 간다고 합니다. 나무도 그렇거든 우리 사람의 나쁜 행동은 눈에는 안 보여도 몇 십리, 몇 백리까지 나쁜 행동이 그냥 분위기로 해서 그것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에 누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악령惡靈이 전파 이상으로 빨리 가서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축복한다 그러면은 축복하는 그런 선령善靈이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그때는 그 선령이 미국까지 가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부사의不思議한 도리道理, 이것은 전자·원자역학

이나 그런 것이 다 발전되어서 우리가 유추합니다만 아무튼 전파나 그런 어떤 자기파 이상으로 그와 같이 심심미묘甚深微妙한 속도나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벌써 나를 오염시키고 우주를 오염시킵니다.

다시 생각하면, 한 생각의 좋은 생각이 벌써 나를 정화시키고 우주를 정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이것이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을 그때는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가정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부디 오늘 광명의 날, 이처럼 가장 훌륭한 기념일, 이날 우리는 기념에서 획기적으로, 당장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처럼 광명스러운 길인, 우리 행동 바르게 하고 말 바르게 하고, 우리 생각을 항시 부처님, 내 본인의 부처한테다가 안주安住를 시키고 생활하는 그러한 부처님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등을 켤 때도 아까 말씀처럼 내 광명, 내 불성을 밝히는 그런 불, 우주를 밝히는 그런 불, 바로 밝히면 바로 등 하나가 우주를 밝힙니다. 부처님 법문은 원융무애圓融無碍입니다. 하나와 전체가 같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잘되면 그때는 우주가 다 그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등은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하고 동시에 우리 자성自性한테 갖춰있는 삼독심을 몰아내는 그런 불,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밝히는 그런 불, 우리 국가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지의 불, 세계인류를 영원히 평화로 이끄는 불, 그런 불을 켜시면서 더욱 더 행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법어法語를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Ⅳ

소참법문

“부처님이 자비심으로 구고구난救苦救難이라,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건져주는 부처님 이름은 관세음보살이며, 지혜로써 중생의 무명을 깨뜨려주는 부처님 이름은 문수보살·대세지보살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을 모두 모아서 총 대명사로써 부르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님 공덕은 원융무애 하여 한이 없습니다.”

1. 화안애어和顔愛語

* 1987년 5월 13일 성암사에서 대중공양 오신 분들께 하신 소참법문입니다.

재물 보시가 있고 그다음에는 또 법문 보시 즉 제일 보시 법보시法布施가 있습니다. 헌데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물 보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보답해서 법문 보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신도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비오는 가운데 고생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재물 보시로 해서 우리 대중들은 찰밥 공양을 참으로 흡족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재물 보시를 받았으니 반드시 그 보답으로 법문 보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하기를 싫어하고 말도 잘못합니다만, 보답하는 의미에서 제가 법문 보시를 안 하면 저도 빚이 됩니다. 할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재물 보시와 법문 보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는 무외시無畏施 보시가 있습니다. 무외시 보시란 한문자로 하면은 없을 무[無]자, 두려울 외[畏]자, 즉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 보시라 하면 사회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법문 보시도 여러 가지 강습회나 법회도 많이 있어서 법문 보시는 많이 듣습니다만, 무외시 보시란 것은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중생의 불안스러운 마음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아주 옹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괜히 불안스럽습니다. 헌데 아주 평화롭고 공자 같은 분을 표현할 때 춘풍 가운데 있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덕이 많고 그분 옆에 가면 어쩐지 향긋하고 봄바람 같은 아늑한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또는 재물도 베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기 표정으로 그와 같이 하는 보시, 봄바람 같고 고향같이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보시가 무외시 보시의 하나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상호를 보면 얼굴 자체가 삼십이三十二 대인상大人相이라, 팔십종호八十種好라, 여든 가지의 가지가지 좋은 모습으로 손이나 발·피부·머리카락이나 모두 자비와 지혜의 덕성에 딱 알맞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 중생은 좀 잘났다 하더라도 눈이 좋으면 입이 좀 재미없고 그와 같이 완전무결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부처님 상호는 삼십이 대인상이라 어디나 모두 원만 무결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원만 덕상도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이 가령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하는 그것만도 역시 과거 전생에 공덕의 과보입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금생에 화장을 별로 안 한다 하더라도 부드럽습니다. 살생도 하고 중생들한테 거칠게 대한 사람들은 금생에 피부도 거칩니다. 그런데 부처님 상호는 그러한 모든 덕상이 갖추어 있습니다. 과거 무수 생 동안에 자비와 지혜를 쌓아온 적덕공덕積德功德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공덕을 쌓았던지, 그런 공덕은, 금생에 나오실 수 있는 부처님 공덕은 백겁장엄百劫莊嚴이라, 백겁 동안 더러는 자기 몸도 희생을 하고 재물도 베풀고 가지가지 쌓여서 그와 같이 금생에 원만 덕상을 갖추신 것입니다. 백겁장엄이라, 한 겁이란 무량한 세월입니다. 한 겁도 무량세월인데, 하물며 백겁이니까 더욱더 많단 말입니다. 그동안 어떤 때는 자기 자식도 바치고 어떤 때는 자기 아내도 바치고 그러한 가지가지 공덕을 베푼 그런 것이 금생에 나와서 그와 같이 무량 즉 백겁장엄이라는 조금도 흠축欠縮이 없는 덕상을 나투신 것입니다.

헌데 그 관세음보살님도 역시 아미타 부처님이나 여러 부처님께서는 그냥 설법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정진하는 상을 하고도 계십니다만,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중생한테 내가 모두 바친다, 그대들 중생의 소원을 내가 모두 들어준다 하는 무외시인無畏施印인 것입니다. 이

렇게 손을 든 것이 중생들의 모든 두려움을 덜고 모든 고난을 구제한다는 부처님의 하나의 표식의 상징입니다. 대자대비의 서원이 곧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의 무외시 형상과 별로 다름이 없는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한번 그 사람을 척 대하면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그러한 정도의 인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아상我相을 떠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곧 바로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해서... 형상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표징인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말한바 있습니다만 사람이 사십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십대 이전에 찌푸리기도 많이 하고, 성도 자주 내고 한 사람은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얼굴에 좋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지내고 불교에서 하는 말로 화안애어和顔愛語라, 항상 부드러운 말, 항상 평화로운 표정을 지은 사람들은 사십대가 되면 그것이 자기의 고정된 얼굴이 되어서 누가 보나 화평和平을 느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와 같이 모두 과거가 훌륭한 분들입니다. 남한테 욕도 안 하시고 성도 안 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옛날같이 세상의 구조가 단순할 때는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수양도 하기 쉬워서 산중에 한번 박혀있으면 그야말로 방해도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때는 어느 깊은 데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조용한 곳이 귀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산중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다녀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등산객은 조용한 데만 찾아와서 시끄럽게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사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도 많고 화사한 것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마음을 끌리게 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끌려가니까 그때는 마음이 더러는 텅 비어버립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현재라는 복잡한 사회에서는 찾기가 참 곤란스럽습니다. 또 하도 복잡해서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전기에 대한 상식도 알아야 되고 연탄 피우는 사람들은 연탄도 알아야 됩니다. 산중에서 군불이나 장작을 때면 그만입니다만, 사회가 발달되면 발달 될수록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모든 관심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므로 정작 내가 무엇인가 하는 나의 참다운 아我, 불교말로 해서 진아眞我, 참 나를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참 나를 어디 두고서 거짓 나만 두고서 사는 사회 같습니다. 바쁘게 지내지만 알맹이가 없단 말입니다. 도시에 가보면 뿌리 없는 나무 모양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바삐 서두릅니다만, 정말 알맹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나의 본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무수한 성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내내야 한 말로 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인생의 가치, 참다운 가치관을 그분들은 밝힌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의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밝히고 그 뒤에도 무수한 성인들이 그런 길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가시밭을 헤치고 석가모니 같은 분도 태자로서 나라를 이어야 할 것인데 모두 버리고 출가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참다운 나는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늙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주부로서 여러 가지 책임責任을 갖고 계시니까 우선 집안 잘 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재산도 모아지고, 무병할 것을 바라겠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딴 종교의 가르침이나 가르침의 현실은 그보다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주가 중요해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가장 더 중요한 제일의적第一義的인 문제, 인간의 근본문제, 이러한 데에 종교의 핵심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핵심만 딱 들어버리면 의식주 등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만 들어버리면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세 끼, 네 끼 먹는 사람보다도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은 우선 그것을 분명히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순수한 생명체 위에서 거품 같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에 불과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사람뿐 아니라 물체 등 모든 것이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손·발 등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일 것인가. 이와 같이 소박하게 의심을 품습니다만, 저 나무나 숲이 어떻게 마음일 것인가. 그러나 나무나 사람 모양이나 하는 이런 것은 그림자 같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불교 믿는 분들은 재수財數를 위해서 기도도 드리고 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을 딱 치켜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재수나 운수運數는 거기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성경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 주어지리라. 사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면 그때는 사소한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법도 어려운 말로 하면 '약명요심若明了心 만법구비萬法具備라' 만약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만법이 다 갖추어 온다는 말입니다.

보시해라, 인심을 써라, 또는 자비심을 내라, 이런 말을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만 딱 알아버리면 그때는 자비심도 나오고 지혜도 나옵니다. 내 몸이나 상대의 몸이나 역시 마음이라는 순수한 것으로 구성되어, 내 몸도 그림자 또는 그대 몸도 그림자, 이런 그림자는 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소멸되고 맙니다. 세포로 구성되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단 일초

간도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진대사를 거듭하면 우리 몸은 순간 찰나 변해 갑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잡히면 그때야 몸이 변해 가는구나, 이와 같이 인간의 감각은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바로 생각할 때는 순간 찰나도 우리 몸은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를 않으니까 무상無常이라, 항상이 없다, 덧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신수가 좋고 복이 많은 사람은 우쭐해서 이 몸 항상 있겠지, 항시 내가 부자겠지, 항상 감투가 있겠지 하지만, 내 생명이 무상하거늘 하물며 나의 재산이나 따른 권속이나 명예 그 따위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후에 나라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몇십 년 후에는 모두 똑같이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무덤에 가든가 화장되든가 합니다. 화장하면 재만 남습니다. 무덤에 묻으면 버러지가 먹어서 흙이나 똥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미리 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현재만 봅니다. 좀 실패하면 거기에 집착해서 고뇌하고 병이 되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만사는 새옹지마塞翁之馬라. 지금 고생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고생 그것 때문에 반성도 하고 무상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그와 같은 보배가 또한 없습니다. 지금 잘 되어서 잘 풀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세상을 모르고 살면 그것 때문에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인생만사는 새옹지마입니다. 불행이 오히려 나중에 행복의 씨앗이 되고, 지금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불교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모르십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인구가 50억인데 굉장히 많은 수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 하필이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종교도 오죽 많습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인도에서는 힌두교내에도 종파가 시크교 등 무척 많습니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제쳐놓고 불교를 믿어 왔습니다. 제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아전인수我田引水로 스님이 믿으니까 불교 좋다고 할 것입니다만 불교는 아전인수를 않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느 법에 어느 문제에 집착을 않습니다. 불교는 모두를 공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만이 옳다는 견해는 좁은 견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대체로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문제를 풀이한 것은 불교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즈음 국민들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체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어떻게 훑어보아도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애써서 따라가다 마는 것이 사람 이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비원悲願은 기독교에서는 엿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알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게 보아집니다만 아무튼 세계종교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각각 10억 정도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종교라 하더라도 역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은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불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도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 실존實存을 확실히 말한 데가 없습니다.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 1813~1855),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 등 어느 누구나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 평생 동안에 연구해 왔지만 끝내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부처님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사람의 본질을 말하셨습니다. 사람의 본바탕은 곧 부처입니다. 비록 '나'라는 존재는 탐심도 내고 진심도 내며 못나고 옹졸합니다만, 이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참다운 나, 실상實相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바로 부처임을 느끼지 못하면 불교 신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의 본질이 부처임을 느끼고서 부처가 되는 노력 부처가 되고자 해서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불교인입

니다.

이와 같이 느껴버리고 이렇게 노력하면 운수나 재수 따위는 그냥 따라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말本末이 전도가 되어서 끄트머리만 구합니다. 재수만 구하고 운수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얻지 못하고 또한 핵심인 맛도 보지 못 한 채로 평생 끝나고 맙니다. 핵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냇물을 건너가는데 경망한 토끼는 펄쩍펄쩍 뛰면서 물위를 건넙니다. 말은 무겁고 덩치가 커서 반쯤 물에 잠기어 건너갑니다. 코끼리는 더 무겁고 덩치가 커서 뚜벅 뚜벅 바닥까지 발이 닿으면서 물을 건너갑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태도를 부처님 법문은 그와 같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마치 토끼가 물을 건너듯이 바닥은 못 보고서 겉만 수박 겉핥기로 보면서 건너갑니다.

그러한 신앙태도는 부처님 가르침의 참다운 핵심은 모르고서 이기적으로 자기 공리功利, 이익만 구합니다. 그런 신앙은 토끼가 물을 건너가는 것에 비유하고, 조금 더 깊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정말로 무상한 것인가 하고 부처님 법문을 좀 따지는 것은 말이 시냇물을 건너는 것에 비교할 수 있고, 내 본바탕이 내 본 생명이 부처거니 염불을 하거나 주문을 외거나 부처님께 천 번 만 번 절을 하거나 모두가 자기 성불을 위해서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불교를 믿는 그러한 태도는 코끼리가 물의 바닥을 밟으면서 터벅터벅 건너가는 것에 비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왕 믿으면 토끼 같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업장에 가리어서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바탕은 반드시 부처님입니다. 또는 어떠한 것도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바탕은 부처님입니다. 불성佛性, 즉 부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등이 됩니다. 부처님 불성의 공덕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어떻게 헤아린다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 몇 천만년 헤아린다 해도 부처님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 공덕은 한이 없이 많습니다. 즉 우리의 불성공덕은 그와 같이 많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사람으로서 그러한 불성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제대로 온전히 깨달은 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박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깨달아 버리면 박 아무개 부처님입니다. 불경 보면 부처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동방유리광여래불, 나무금륜치성광여래불 등 부처님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은 부처님 공덕이 그와 같이 한도 끝도 없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 공덕이 한없이 많으니까, 약으로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부처님 이름은 약사여래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자비심으로 구고구난救苦救難 이라,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건져주는 부처님 이름은 관세음보살이며, 지혜로써 중생의 무명을 깨뜨려주는 부처님 이름은 문수보살, 대세지보살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을 모두 모아서 총 대명사로써 부르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님 공덕은 원융무애하여 한이 없습니다.

역시 급하고 하더라도 생사를 초월하는 길.... 자기가 내쉰 숨 한번 거두어 못 들이면 그러면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몇 년 뒤에는 여러분 앞에 말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생명은 그와 같이 무상한 것입니다. 보살한테 문병할 때는 고苦・무상無常・공空・무아無我라, 인생은 모두 괴로운 것이고 인생은 모두 무상無常한 것이며, 또는 공空인 것이고 또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를 알아야만,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에 사무쳐야만, 참다운 상락아정常樂我淨 이라,

내가 없는 것을 중생은 있다 하고 괴로운 것을 중생은 낙樂이라 합니다. 대통령 되기도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괴로움뿐인데 좋다하여 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명감도 있겠습니다만, 인간 세상은 부자나 감투나 무엇이나 괴로움뿐입니다. 고苦요, 공空이요, 무상無常이요, 무아無我 입니다. 현상계는 모두가 고苦・공空・무상無

常・무아無我라,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 같은 선물보다도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를 바로 보아야만, 참다운 불성佛性을 보아서 불성의 공덕 즉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 영생하며 안락무위해서 영원히 행복한 것이고, 또한 신통자재하는 대아大我를 성취하는 것이며, 조금도 번뇌가 없이 청정한 것입니다.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성취해야 우리는 비로소 생사를 떠난 영원의 세계에서 행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우리가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돈오頓悟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돈오頓悟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나한테 막히고 너라는데 막혀있습니다. 그러한 폐쇄된 구속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본래 부처라, 천지 우주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마음뿐이라, 심성心性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물질이 되는 것이지 물질은 사실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병의 뿌리가 없듯이 사실은 물질의 뿌리도 없습니다. 다만 거품이 모아서 된 것이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취空聚라, 우리 몸은 텅 빈 공空 기운이 모여 있습니다. 다만 중생이 잘 못 보기 때문에 내 몸, 내 살, 내 손하며 거기에 집착한단 말입니다. 죽은 뒤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한 뒤에 무엇이 남습니까. 내 눈, 내 코, 내 예쁜 손도 그때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은 오직 마음입니다. 마음 단장에 힘써야지 몸은 결국 썩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흔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흔적도 없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것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은 뒤에는 내가 지은 업장만 남습니다. 내 불성 위에 더덕더덕 낀 업식業識만 남습니다. 그걸 따라서 욕심이 많으면 아귀로 가는 것이고, 남 미워하고 살생 많이 했으면 지옥 가는 것이며, 잘해야 사람으로 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서 우리의 주인공은 마음뿐이니까 불심에다 단장도 하고 장엄도 하고 해서 비록 금생에 성불은 못해서 증오證悟는 못한다 하더라도, 해오解悟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자성불自性佛, 자기 불성佛性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인간대사人間大事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상無上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 돈오頓悟를 하셔서 그렇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모두가 부처뿐이구나, 사실 물질은 허깨비이구나, 이와 같이 느끼셔야 합니다. 허깨비·거품·그림자·메아리 이런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오늘 법회에 모이신 공덕으로 정진대중은 모두 해오解悟를 하신 분들입니다. 오직 문제는 결국 증오證悟만 남았습니다. 증오證悟를 꼭 하셔서 명년 해제 때는 반드시 그야말로 구해탈俱解脫하는 선정해탈·지혜해탈 모두 해탈 하는 명실상부한 성문사문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재가불자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 오셔서 그때그때 공부하시기 바라고, 또는 집안에 계시더라도 염불念佛도 본체本體를 여의지 않으면 참선인 것입니다. 염불念佛이나 주문이나 본체 불심佛心을 여의지 않으면 모두가 참선인 것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불성에 가까워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만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2. 청정무량淸淨無量한 부처님의 생명뿐입니다

* 1987년 8월 12일 태안사에서 부산 신도분들께 하신 법문입니다.

이와 같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가지가지 그런 고생이 있는 사바세계에 있습니다. 허나 사바세계의 그런 고난을 떠나서 가장 좋은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각도인들이나 부처님은 증명證明도 하고 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좋은 세계가 내내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극락세계 아닙니까. 극락세계의 딴 이름을 청량지淸涼地라, 맑은 청[淸]자, 서늘한 량[涼]자, 청량지라, 그래서 우리 중생은 청량지라는 그런 극락세계를 맛을 못 봅니다.

허나 이렇게 아주 더운 때 시원한 냉수나 얼음이나 그런 걸 먹으면 소위 말하는 청량미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시원한 것을 느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苦란 욕심을 많이 내면 욕심 때문에 우리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고 합니다. 또는 불끈 성내면 성[嗔] 때문에 우리 몸도 뜨겁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달아올라서 병나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병이라고 하면 어떤 세균이나 외부로 해서 감염된 것만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욕심 때문에 욕심이라 하는 불순한, 즉 말하자면 오염된 분자가 우리 몸에서 확산되어서 병이 난단 말입니다. 성내면 성내는 뜨거운 분자가 우리 몸에서 확산되어서 병납니다. 이와 같이 욕심이나 또는 성[嗔]이나 또는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 마음이 본래면목은 그야말로 훤히 밝은 것인데 본래면목을 못 봐놓으면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그 마음보고서 불교말로 무명심無明心 그러지요. 무명심이라, 없을 무[無]자, 밝은 명[明]자, 밝지 않은 마음이라, 무명

심, 우리 마음이 훤하면 삿된 기운이 우리 몸에 붙을 수가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움 따라서 음습한 것을 따라서, 가령 곤충이나 세균도 음습하면 그때는 발생을 잘하지요, 태양 빛이 쨍쨍 비치면 그때는 세균도 다 죽어버리고 합니다마는 음습하면 그때는 거기에 따라서 습기와 온도에 따라서 세균이나 곤충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내내야 마음이 밝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야 청정합니다. 따라서 밝은 마음에는 그냥 어둠이 거기에서 배길 수 없단 말입니다. 헌데 남도 미워도 하고 욕심도 많이 내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암울한 마음, 어둡고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따라서 우리 몸도 병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몸과 마음이 둘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심신일체心身一體라, 부처님 법문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모양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서 나기 전에는 그것은 이런 사람 모양이 없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의식, 업식業識이라 하는 식識만 있습니다. 모양이 없는 업식이라는 식識만 그것이 인연 따라서 부모님한테 오기 위해서 어머님 배 안에 있다가 이와 같이 사람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본래는 그것은 마음뿐인 것인데 업식뿐인 것인데, 업식이 인연 따라서 결국은 각 물질이나 세포를 주워 모아서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는 마음뿐이라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닙니다.

겉으로 봐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몸인 것이고 알맹이는 결국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기분 나빠서 먹어보십시오. 그냥 음식에 체하고 맛도 별로 없단 말입니다. 헌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인생이 가장 좋아하는 극락세계, 즉 아주

시원하고 조금도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마음이 괴롭지도 않은 그런 청량지, 더울 때 시원한 물 마시고 약주를 마시고 청량음료를 마시는 그런 기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맑은 기분으로 사는 세계가 청량지淸涼地인데, 그와 같은 극락세계가 바로 청량지인데 청량지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두운 마음을 떠나서 밝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밝은 마음만 가지면 청량세계, 그런 맑은 기운, 시원한 기운은 항시 있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청량세계나 극락세계를 못 보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욕을 부리는 마음 또는 성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어두운 마음입니다. 사물을 바로 판단도 못 합니다. 우리 중생은 보통은 다 어두운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은 조그만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은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나그네와 똑같습니다. 다행히 부처님법 만나서 가까스로 우리가 참다운 밝은 길로 가는 길을 조금 알 뿐입니다. 조금 알 뿐인데, 우리가 부처님 지혜를 아는 정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아는 그런 지혜를 말입니다.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가는 길, 또는 괴로운 중생세간에서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나 청량지淸涼地 세계로 가는 길, 이런 가는 길의 지혜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참다운 지혜는 하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중생이 차근차근 업장을 녹이고 밝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는 문혜聞慧라, 들을 문[聞]자, 지혜 혜[慧]자. 겨우 컴컴한 중생 마음이 부처님 법문 들어서 안단 말입니다. 계행도 지키고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아, 그런 것이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들어서 안단 말입니다. 들어서 안다 하더라도 들어서 좀 아는 그걸로 해서는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냥 한번 들은 대로 해버리면 좀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버릇을 많이 붙여놓았기에 우리 중생의 버릇이란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법문 좀 들었다 하더라도 집안에 가서 자기 버릇

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귀로 좀 들어가지고서 아는 지혜는 이것은 천박합니다. 그래서 자고로 공부도 천박한 공부를 가리켜서 구이학口耳學이라, 입 구[口]자, 귀 이[耳]자, 겨우 귀로 들어서 할 정도의 지혜를 가리켜서 구이학이라, 입이나 귀에 따르는 저 가슴에 못 들어가고서 귀나 입에서 뱅뱅 도는 그런 지혜를 가리켜서 구이학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좀 들어서 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역시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할 뿐이지, 아, 그렇구나, 꼭 내가 지켜야겠구나, 그런 사무친 지혜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듣기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불경책도 많이 보고 염불도 해보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차근차근 가슴 쪽으로 그때는 아는 것이 깊어집니다.

그것보고 그때는 사혜思慧라, 생각 사[思]자, 지혜 혜[慧]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선 귀로만 들어서 입으로만 그냥 조금 옮길 둥 말둥 하는 그런 얇은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뙤약볕에 절까지 오시는 것은 모두가 다 사혜思慧라, 부처님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되시니까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혜에 해당하는 그런 깊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도는 부처님 말씀은 꼭 옳구나, 꼭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허나 그것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참말로 옮겨서 부처님 지혜를 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 지혜는 틀림이 없구나, 이같이 느끼고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못 봤으니까 참말 못 느낀단 말입니다. 따라서 참말로 느끼는 지혜가 수혜修慧라, 닦을 수[修]자, 지혜 혜[慧]자, 닦아서 참선·염불도 염불이나 참선이나 그때는 사무치게 해가지고서, 사무치게 해야 만이 우리에게 나쁜 버릇을 떼어서 없애버립니다. 우리 버릇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금생에 나와서 우리가 익힌 버릇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학교에서 이것저것 배운 그런 지식, 그런 버릇 말입니다. 이런 버릇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금생에 익힌 그런 버릇도 다 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좋은 버릇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은 다 부처님 법에 비추어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부정적인 버릇이 많습니다. 그런 나쁜 버릇 가운데서 성내는 버릇이나 남의 사정은 이해도 못하고 괜히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독선적인 버릇, 욕심부리는 버릇, 그런 버릇 같은 것은 이것은 굉장히 떼기 어려운 것입니다. 헌데, 금생에 익힌 버릇만도 떼기가 어려운데 버릇이란 것은 금생에 익힌 버릇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과 더불어서 금생에 나기 전에 익힌 버릇이 훨씬 큰 것입니다.

저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빙산이 있습니다. 얼음산이 있는데 얼음산은 해면에, 바다 위에 나온 것은 뾰쪽하니 별로 안 큽니다. 그러나 바다에 잠긴 물속에 잠긴 얼음덩이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 뾰쪽이 나온 세상에 나온 그런 빙산은 작다 하더라도 물에 잠겨있는 빙산은 산더미같이 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버릇도 금생의 버릇이, 금생에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한 버릇이, 마치 물 위에 나온 조그마한 빙산 같다고 하면 물에 잠긴 산더미 같은 버릇은 과거 전생에 익힌 버릇입니다.

금생에 나와서는 이십 년, 몇십 년 그와 같이 몇십 년에 해당한 버릇밖에 안 되지마는 과거 전생에는 무수 생 동안에 인간이란 것은 천만 생 윤회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어느 생에서는 우리가 돼지가 되어서 돼지 같은, 욕심만 부리는 돼지 같은 존재로 해서 거쳐 왔고 말입니다. 어느 생에서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아주 표독스럽고 그런 잔인한 버릇을 붙여왔습니다. 어떤 때는 아수라가 되어서 싸움만 하는 그런 버릇도 붙여왔고 그런 버릇들이 우리 잠재의식에 우리 식識의 근원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생 버릇, 금생 버릇을 떼려면 좀처럼 떼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법 몇 마디 듣는다고 해도 그걸로 해서는 못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들어 익혀서 들어서 얻는 그런 문혜聞慧라, 또는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부처님 법이 정말 옳구나, 만법을 다 겨루어본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만큼 그런 위대한 법은 없구나, 우리 중생이 꼭 그 법만은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혜思慧를 얻었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근본 번뇌나 근본 버릇은 못 뗀 단 말입니다.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는 사무치게 애쓰고 닦아야 합니다. 화두를 드는 사람은 화두로 해서 거기다가 생명을 딱 걸 정도로 해버려야 하는 것이고, 또는 염불을 배운 사람들은 염불로 해서 생명을 거기다 걸 정도로 해서 자기 공부를 일심一心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버릇이, 나쁜 버릇된 그런 마음들이 싹도 못 트게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신통한 마음을 좀 내다가도 그만 버릇 때문에 단 순간 동안에 갸륵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쁜 마음이 소생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 미워하는 마음, 욕심을 지나치게 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또는 사물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싹트지 못하게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염념상속念念相續이라 생각 염[念]자, 생각생각에 상속이라 서로 상[相]자, 계속할 속[續]자.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또는 화두를 드는 마음 또는 주문 외는 마음, 그 마음이 생각 생각에 이렇게 이어져서 딴생각이 거기에 못 끼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그때는 마음에 있는 버릇을 녹인다 말입니다.

버릇만 녹이면 우리 마음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우리 마음과 부처님 마음과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석가모니 마음과 예수님 마음과 공자님 마음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청정무비한, 광대무변한 마음인데 다만 그 과거 전생에 나쁘게 익힌, 지옥같이 익히고, 아귀로 익히고 또는 축생으로 익힌 마음, 금생에 나와서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또는 금생에 나쁜 생각하고 그와 같이 익힌 마음, 그런 악습들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청정무비한 본래 마음을 못 봅니다. 본래 마음을 본 분들은 성인인 것이고 부처님인 것이고, 본

래 마음을 못 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중생입니다.

중생이 할 것은, 먼저 부처님 법문을 잘 들어서 자꾸만 익혀서 생각 많이 하고 동시에 닦을 수[修]자, 지혜 혜[慧]자, 수혜修慧라, 닦아서 익히는 지혜, 닦아서 익히는 지혜는 우리가 좋다, 궂다 이렇게 섣불리 시비하는 그런 중생심을 자꾸만 부정해버려야 합니다. 시야비야是也非也, 콩이야 팥이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버릇만 더욱 증장되어서 그때는 우리 중생심만 커나가는 것이지, 본래 청정한 불심은 잘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분립이 되어서 과학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만 많이 나가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술만 옳다고 하고, 또한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나가고, 이와 같이 자기가 하는 방향 따라서 즉 말하자면 분업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전부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는 잘못 봅니다. 마치 코끼리를 뭇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다리가 기둥 같구나, 코끼리 배를 만진 봉사는 코끼리가 반구 같구나, 이와 같이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자기가 만지는 부위에 따라서 각기 말하듯이 우리 중생은 과학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예술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예술적으로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경經을 많이 본 사람은 경 그쪽으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화엄경華嚴經』 공부한 사람들은 화엄종 만들어서 『화엄경』이 옳다, 또는 『법화경法華經』 하는 사람들은 법화종 만들어서 『법화경』이 옳다, 이와 같이 자기가 공부한대로 같은 부처님 법내에도 자기가 공부한대로 옳다고 국집局執을 고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이와 같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버릇 가운데서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 이 버릇같이 굉장히 나쁜 버릇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싸우고 맙니다. 우리 불교도 지금 한국에 18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는 내가 믿는 불법이 최고로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성한 부처님 재산인 절인데도 같은 스님끼리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싸운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모순입니까, 그런 것은 사물의 본질을 못 본 소치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본다면 제 말씀 새겨서 잘 들으십시오. 사물의 본질을 본다면 우리 중생 마음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못 보는 것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본다고 하면 그때는 너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네 것 내 것의 구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보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다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시 외우시는 『반야심경般若心經』 이나 『금강경金剛經』 이나 그 뜻이 무엇인가, 『금강경』 · 『반야심경』 의 그런 뜻을 한 구절도 못 외운다 하더라도, 『반야심경』 이나 『금강경』 뜻은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또한 내 것이 없고 네 것이 없는 것이고, 사실은 천지 우주가 오직 청정한, 청정무변한 부처님의 생명뿐이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본뜻도 사실은 모두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타自他 시비를 떠나서 잘나나 못나나 또는 설사 금생에 나와서 겉으로는 조금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근본 실상, 근본 실상은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청정무비한 청정무량한 부처님의 생명뿐입니다. 죄를 짓고 또는 나쁘고 한 것은 겉에 뿐인 것이지 속 알맹이는 오염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 중생도 역시 비록 중생의 겉만 보니까 좋다 궂다 강가요 박가요 누구요 하는 것이지 그런 근본에서 보면 조금도 차이가 없는 청정무비淸淨無比한 부처님의 생명뿐이란 말입니다.

바다 위에서 바람 따라서 파도가 일어나고 또는 거품이 천 개 만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다 위의 거품만 보고 물결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결이 좀 크다, 거품이 좀 작다, 이와 같이 차별분별 내세우지만 사실은 물로 해서는 바닷물, 똑같은 물이란 말입니다. 바닷물 똑같은 물인데, 겉에 뜬 바람 따라서 일어나는 파도나 거품을 보아서

는 파도가 더 크다 높다 또는 거품이 더 크다 작다 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이나 모든 이런 중생도 그 알맹이는 똑같은 내용은 부처님과 더불어서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 그뿐인데, 겉만 보니까 바다에 뜬 물결이나 거품을 보듯이 겉만 보니까 작다 크다 잘났다 못났다 또는 좋다 궂다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인들은 그때는 시비是非가 없습니다. 성인들은 자타 시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인이든 자비든 그때는 동체대비同體大悲라, 한 가지 동[同]자, 몸 체[體]자, 큰 대[大]자, 자비로울 비[悲]자. 동체대비라, 천지 우주가 하나의 몸이라는 데서 우러나는 자비라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인정을 쓰고, 자비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항시 너와 나를 구분해서 좀 베풀어줄 정도 합니다. 저 사람 구차하니 베풀어준다. 이번엔 수해가 나서 베풀어준다. 이와 같이 남의 고난을 보고서 베풀어준 그런 베풂 이것은 상相이 있는 베풂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유주상보시有住相布施, 상相이 있는 보시란 말입니다. 허나 천지 우주가 하나의 생명임을 분명히 보고서 또 느끼면서 하는 보시 이것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 그때는 상相이 없는 보시란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서 하는 보시가 되어야 참다운 베풂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극락세계 또는 청량지淸涼地, 자기 마음이 조금도 어둠도 없고 항시 마음이 훤히 개어서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광대무변한 마음자리, 원래 본래 마음은 그와 같이 광대무변한 마음자리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쁜 뜻은 조금도 안 붙어옵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라놔서 광대무변한 청정한 마음에는 나쁜 병도 안 붙어옵니다. 그런 마음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처럼 부처님의 세 가지 지혜 가운데서 문혜聞慧라,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해서 아는 사혜思慧, 닦아서 아는 지혜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서 아는 지혜나 생각해서 아는 지혜는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허나 아직은 닦아서 그때는 증거證據해서, 천지에 두루해 있는 우리 생명의 본질인 불성을 보고서 아는 지혜

는 아직 모르십니다. 불성을 딱 보고서 참으로 불성과 나는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그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인데 닦는 것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와 같이 불성은 아직 증명은 못한다 말입니다.

불성佛性을 증명해야만 극락세계를 맛볼 수 있고, 청량세계를 항시 개운하고 시원한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남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은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도 미워하는 자기 마음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절에 다니면서 염불도 많이 하시고 그런 노老보살님들 보면 집안에 가서는 그냥 자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잔소리가 많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러는 분이 안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마는 부처님 법문을 외신다 하더라도 그런 수혜修慧, 즉 말하자면 닦아서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도리어 말만 많이 배워서 그 전보다도 말씀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 버리면 불법은 보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법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은, 인정이 적은 사람은 인정이 더 많아지고, 말수가 많은 사람이 말수가 적어지고, 시끄러운 사람은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부처님 쪽으로 좀 가까이 서 있어야만 부처님을 믿는 가치가 있습니다.

참선이나 염불이나 주문이나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느끼고 천지 우주가 본래 불성임을 딱 느껴버리면 즉 부처님을 저 밖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내 마음에서 구하고 또는 어디에서나 부처님을 구하고.... 천지 우주는 바로 보면 모두가 다 부처님입니다. 하나의 시냇물이나 돌이나 초목이나 모두가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다만 중생이 잘 못 봐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구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저 밖에서 저만치 계시다 이렇게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나무아미타불'을 우리가 외우고 '관세음보살님'을 외운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 아미타불을 저만큼 밖에서 구한다면 그때는 방편입니다. 그것은 방편 공

부입니다.

참다운 공부는 내 마음에서 부처님을 구하고 또는 천지 우주의 도처에서 시시각각 부처님을 구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우주에 가득차 있거니 또는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거니 어디에서도 부처님은 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처님을 구해야만 그때는 참다운 부처님을 구하는, 즉 말하자면 수혜修慧 하는, 부처님 지혜를 닦는 공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닦는다고 생각할 때는 염불을 하면 그때는 염불선念佛禪이고, 화두를 들면 그때는 화두선話頭禪이고, 주문하면 그때는 주문선呪文禪이고, 다 그때는 참선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순간 찰나도 부처님을 안 떠나면 그때는 참선인 것입니다.

꼭 무엇만 의심하고 화두만 들어야만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처님 자리에서 어려운 말로 하면 당처當處에서 안 떠나면 그때는 참선이란 말입니다. 염불하면 염불참선이고 주문 외우면 주문참선이고 화두 의심하면 화두참선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다운 공부,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참선공부로 해서 바른 지혜, 바른 실상 지혜, 바른 지혜를 얻어서 하루빨리 행복스러운, 영원히 죽음도 없고 윤회가 없는 그러한 행복스러운 일체 인생고를 다 떠나버린 그런 영원한 안락지安樂地인 그런 극락세계, 또는 청량지淸涼地 세계, 그런 데를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말씀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3. 영가靈駕 소참법문小參法門

* 1987년 3월 28일 태안사에서 하신 영가 소참법문입니다.

영가靈駕여, 세월이 흘러가는 강물 같아서 가신지가 49일이 지났습니다. 영가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시오. 중생은 모양이 있으면 살았다고 하고 모양이 없으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양이 있고 없고 간에 생명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이 없고 바로 영생하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어두워서 생명의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모양이 있으면 살았다고 하고 모양이 안 보이면 죽었다 합니다. 금유전무今有前無라, 지금은 있어도 앞에는 모양이 없었습니다. 박 아무개, 김 아무개라 하는 인간 존재가 지금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모양이 없었습니다. 모양이 없다가 인연 따라 부모 연 따라서 금생에 사람 몸 받아서 사람 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유후무今有後無라, 금생에는 모양이 있더라도 인연이 다해서 자기 몸이 사라지면 다시 죽은 다음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과거에 없던 모양이 금생에 있고 금생에 있던 모양이 미래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양이 있고 없고 간에 생명은 존재합니다. 영가시여! 생각해 보시오. 영가의 모양은 지금 못 보지만 영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바고해娑婆苦海는 언제나 탐욕심이나 또는 분노심 또는 사물을 바로 보지 못 하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바른 생활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갈래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자기 업장의 무게에 따라서 업장이 가장 무거우면 지옥으로 갔다가 조금 가벼우면 아귀로 갔다가 조금 더 가벼우면 축생으로 갔다가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육도六道 윤회라.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수라修羅・인간人間・천상天上 이와 같이 육도에 헤매는 것입니다. 이런 업

장의 무게가 다 끝나서 본래의 마음, 본래의 생명으로 돌아가면 삼계를 초월해서, 욕심을 주로 하는 욕계欲界나 또는 모양이 있는 색계色界나 또는 의식이 아직 존재하는 무색계無色界나, 이런 삼계三界를 초월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영가여, 깊이 생각하시오. 업장의 무게라는 것은 탐욕심이나 또는 분노심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지만, 또 역시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업장業障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몸이 있다가 사라질 때는 세 가지 무거운 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소에 쓰고 있는 몸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집착입니다. 몸이란 것은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가 각 원소가 모여서 각 원소가 또는 마음의 의식과 이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사대四大·오온五蘊 인데, 사대·오온이 잠시 연緣 따라서 모여서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몸이 인연이 다하면 그때는 각 원소는 원소대로 흩어지고 마는 것이고 다만 쓰던 마음씨 이 마음씨만 가지고 갑니다. 쓰던 마음씨 거기에 우리 업이 붙는 것입니다. 평소에 쓰던 그 마음씨가, 몸은 사라져도 생명은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씨에 집착심이 붙으면 그 집착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삼계를 빙빙 돌면서 해탈을 못하는 것입니다. 해탈을 못 하면 우리 생명의 본고향인 극락세계로 못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인간이 돌아갈 때의 집착심인가 하면은 우선 자기 몸에 대한 집착심, 내 얼굴·손발 이와 같은 자기 몸에 대한 집착심, 매장埋葬하면은 매장하는 거기까지 따라가면서 저 몸이 내 몸이라. 지금 땅에 묻히는 저 몸이 내 몸이다 해서 집착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화장하면 집착심은 죽어집니다만, 그러나 역시 집착하는 흔적 때문에 자기가 쓰던 몸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심을 떠나려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자식 남편 아내 동생 하는 권속 역시 금생에 나오면서 사귀던 권속에 대한 욕심은 못 떠납니다. 그런 미련을 못 떠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쓰던 세간살이, 땅·지위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심이나 집착심 때문에 우리 중생은 금생의 생명을 다해서 저승으로 가는 길에 바로 못 가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집착 자기 권속에 대한 미련, 자기가 쓰던 재물에 대한 집착심, 영가여! 이러한 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영가여, 깊이 생각해 보시오, 사람 몸은 앞에서 말한 대로 각 원소가 합해지고 또는 자기 의식, 자기 분별시비하는 그런 식이 합해져서 사람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흩어지면 몸은 간 곳이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텅 빈 광야에다 여러 가지 자재를 구해서 집을 만듭니다. 그러나 집이 필요 없어서 또는 인연이 다해서 허물어 버립니다. 허물어 버리면 그때는 텅 빈 광야만 남습니다. 그와 똑같이 사람 몸도 역시 허공 가운데 연 따라서 잠시간 사람 모양을 나타낼 뿐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모양은 없습니다. 몸을 구성한 산소는 산소대로 수소는 수소대로 탄소는 탄소대로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보면 이와 같이 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생은 바로 못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컴컴한 때에 지푸라기를 잘못 보고서 '저것이 뱀이다' 이와 같이 그릇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나 새끼토막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뱀이라고 느끼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地·수水·화火·풍風 4대가 합해진, 각 원소가 합해진 그 몸뚱이를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마치 컴컴할 때 새끼토막 즉 짚으로 꼬아진 새끼토막을 뱀이라고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정유리무情有理無라. 다만 우리 망상적 마음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없습니다.

'나'다 하는, 김 아무개, 강 아무개 하는 그것 역시 방금 말씀대로 컴컴할 때 새끼토막을 가리켜서 잘못 보고서 이것이 뱀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새끼토막에 불과한 것인데, 즉 바로 보면 새끼토막이고 정말로 바로 보면 지푸라기뿐입니다. 성자들은 그러한 그릇된 것에 집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새끼토막을 “저것은 뱀이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업을 짓습니다. 이 몸뚱이가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것인데 내 것이다 하는, 새끼토막을 뱀이라고 보는 그런 잘못된 견해 때문에 이 몸뚱이에 좋게 하면은 그때는 탐심을 내는 것이고 몸뚱이가 싫어지면 그때는 성내는 진심을 냅니다.

바른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몸뚱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지혜 이것은 어려운 법문입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법문 즉 말하자면 몸뚱이를 구성하는 내 몸이 본래 없다 하는, 마치 물에 비치는 달그림자같이 사실은 달이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한 아까 말씀대로 지옥이나 아귀나 축생이나 그런 윤회하는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것은 무엇인가. 새끼토막을 그릇 봐서 뱀이 된 것도 아니고 새끼토막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지푸라기듯이 우리 사람도 역시 본바탕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두워서 못 본단 말입니다. 원소로 구성되고 또는 각 의식이 모여서 하나의 인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다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이지 본바탕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으로 보는 이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그런 견해가 없는 한에는 우리 중생은 몇 만생 죽고 살면서 생을 되풀이하면서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지옥이나 축생이나 아귀나 수라・인간・천상 이런 경계를 빙빙 돌아서 윤회하는 것입니다.

영가여, 깊이 생각하시오. 우리 인간이 돌아갈 고향은 극락세계입니다. 어느 곳도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머무를 곳은 그때그때 무상한 일시에 불과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이것이 영구永久된다 하지만, 몇십 년이다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강물같이 그때그때 변하고 변해서 몇십 년이 지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머무른 흔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만 존재합니다. 헌데 마음도 역시 집착하는 마음, 욕심을 부리고 성을 내고 또는 자타를 구분하는 그런 마음은 참다운 생명을 묶어서 삼계를 윤회하는 저 지옥으로 뚝 떨어졌다가 좀

나아지면 귀신이 되었다가 또는 축생이 되었다가, 그렇게 헤매고 마는 것입니다.

영가여, 깊이 생각하시오. 우리 중생이 가는 우리 고향은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광명으로 이루어져서 극락세계의 나무나 숲이나 집이나 또는 환경 모두가 찬란한 광명으로 이루어진 빛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영생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에 가야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인생의 고苦를 떠나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떠나 또는 영원히 만나서 헤어지지 않는 무상無上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가여, 깊이 생각하시오. 우리 생명의 본바탕은 바로 부처이고 우리가 갈 고향은 극락세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이시여! 영가뿐 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역시 우리 참 모습, 참 생명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참 생명은 부처님이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극락세계입니다. 비록 우리 인연이 복잡해서 지금 바로 극락에 못 가고 내 참 생명인 부처님이 못 된다 하더라도 어느 땐가는 돼야 합니다. 못 가고 못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만치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또는 지옥이나 아귀나 축생이나 또는 수라나 그런데서 헤매고 헤매는 생로병사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가서 영생하는 길 외에는 모두가 다 살고 죽고 아프고 늙고 하는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가여, 깊이 생각하시오. 영가 가는 길은 오직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권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기가 쓰던 주변 세간살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부처님한테 가는 길, 부처님이 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되는 길이나 극락세계에 가는 길은 똑같은 길입니다. 부처님이 되어야 극락세계에 비로소 가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가야 참다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인간은 누구나 갈 수 있고 가야할 근본 생명의 고향인 것입니다.

영가여, 자세히 관찰하시오. 돌아갈 본 고향인 극락세계는 광명으로 빛나는 세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또는 관세음보살님 또는 대세지보

살님 무수한 보살님이 계시는 세계입니다. 영가여, 집착만 버리고 욕심이나 진심이나 또는 어리석은 마음이나 그러한 업장을 구성하는 마음만 버리면 눈을 들면 바로 극락세계의 찬란한 영원한 세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음보살이나 무수한 보살을 거느리고 영가 앞에 분명 영가가 타고 가실 찬란한 연화대가 놓이는 것입니다. 영가여 눈을 바로 들고서 보살님들이 내미는 금색 연화대蓮華臺에 오르셔서 조금도 미련이 없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이시여, 돌아가신 영가를 위하는 효심은 어떠한 것이 가장 지극한 효심인가 하면은, 오직 영가가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참다운 이름 또는 영원한 생명의 이름 또는 우주의 이름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일심一心으로 염하는 것입니다.

유족이시여, 다시 명심하시오. 돌아가신 영가를 위한 가장 큰 효심은 무엇인가? 영가를 위해서 무수한 재물을 쌓는 그것도 아무 필요 없고, 다만 영가를 위해서 바른 마음, 바른 생활을 하면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오직 인간 모두의 참 이름, 일체 중생의 참 생명 이름, 그러한 내 생명의 참 이름 우주 이름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외우면서 김00 영가가 극락세계에 하루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최선의 효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김00 영가나 우리 사부대중이나 모두가 다 한결로 자기 본 고향인 극락세계를 하루빨리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는 말씀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4. 참선參禪의 선결조건先決條件

* 1987년 6월 10일 태안사 소참법문입니다.

참선공부參禪工夫에는 세 가지 잘못된 참선參禪이 있습니다.
첫째, 두꺼비선, 하마선蝦蟆禪이라. 두꺼비는 미련해서 뛰는 재주밖에 없는데, 이 두꺼비처럼 두꺼비선이란 것은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아집我執은 물론 법집法執을 버리지 못한 선禪을 말합니다. 자성自性은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떠나서 그야말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하고 심수오묘深邃奧妙하여 말과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자성인데 얽매이고 착着하고 분별시비分別是非하면 자성과는 거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광대무변해서 거기에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자성自性, 불성광명佛性光明이 충만한 것인데 분별시비하면 벌써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어둡고 흐려져서 제한을 받는 것이니 따라서 두꺼비선은 피해야 합니다. 두꺼비가 뛰는 재주밖에 모르듯이 자기가 아는 그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지적 수준이 무지몽매無知蒙昧한 때에는 자기의 문중門中, 자기가 하는 방식方式만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선을 낳고 대중적으로 승단도 화합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일반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느낀 주장만이 옳다고 하니 남의 아는 것, 남의 살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고집하기 때문에 분별과 투쟁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마선(두꺼비선)은 피해야 합니다. 하마선은 곧 암증선暗證禪이니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님 말씀을 착着하면 병이지만,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바로 성불하기 위한 순로順路인 것이니 전혀 무시하면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기어 올라가려면 무엇인가 잡고 의지해야 하듯이 우리가 불조佛祖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조님의 말씀은 수행의 벼리[뼈대]가 됩니다. 불조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불립문자不立文字에 딱 얽매어 앉기만 좋아하여 암중暗中에 모색하는 것이 암증선인데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문자선文字禪이라. 문자文字만 좋아해서 문자나 언구言句를 익혀 자기 나름대로 이론 체계를 세워 나의 공부가 거의 되겠구나! 부처님이나 도인들의 경지가 겨우 이 정도 밖에 안 되구나! 이와 같이 헤아려 문자만으로 헤아리는 것이 문자선文字禪입니다. 이것도 피해야 합니다.

셋째, 야호선野狐禪이라. 약간 닦았으나 미처 법法의 한계를 몰라 다시 말해 불佛의 차서次序를 모르니까, 미오未悟를 오悟로 미증未證을 증證으로 착각하는 이것을 증상만이라 하는데 바로 이 증상만增上慢을 가리켜서 야호선野狐禪이라 합니다. 선은 모름지기 두꺼비선 같은 암증선을 피하고, 문자만 익혀서 한 소리 하는 문자선을 피하며, 법의 한계도 몰라서 미오를 오로 미증을 증으로 하는 야호선 바로 증상만 선禪을 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먼 길 가려면 노자가 필요하듯이 불법 역시 성불의 정상까지 가려면 단박에 되면 모르겠지만 단박에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금생 아니면 내생, 내생 아니면 저 내생 그와 같이 우리 수행자는 영겁수행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영겁수행永劫修行하겠다는 각오가 서야 합니다. 그러나 속효심速效心을 내서 조금 안 되면 조급한 마음을 내어 마음이 바쁘기만 하고 따라서 몸도 바쁘게 합니다. 우리가 금생今生에 성불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영겁수행의 각오가 필요한데 영겁수행은 장부지귀丈夫志貴라. 불교佛敎에서 장부丈夫라는 것은 한번 발심하면 성불까지 한시도 퇴전退轉이 없는 것이 장부丈夫입니다. 장부지관丈夫只管의 뜻을 세워 놓으면 따라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경經도 약간 봐야만 암중모색하지 않게 됩니다. 보조국사 「선어록」에는 수행

자는 선지식善知識을 만나서 '불변수연不變隨緣 체용성상體用性相'의 진리를 알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변수연이란 것은, 불변不變은 변치 않는 자리, 곧 영원永遠이요 자성自性이요 체體요 절대絶對를 말하고, 수연隨緣, 변치 않는 법성法性이 인연을 따라 변하는 자리, 곧 현상이요 용用이요 상대相對를 말합니다. 중생은 상대만 보고 절대를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가 보이지 않으니 심지어는 부인해 버립니다. 수행자는 절대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가 있으면 절대가 분명히 있어야 함은 이론적인 사실이요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를 정定해야 하는데 상대밖에 모르는 중생은 절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상대에서 절대를 정해서 절대와 상대가 둘이 아님을 증證하는 것이 공부工夫입니다. 불변수연 체용성상이라. 불변不變은 체體요 동시에 성性이요, 수연隨緣은 용用이요, 상相이라는 이치를 알고서, 현상밖에 모르는 우리는 참다운 실상實相을 알고자 닦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체계를 알고 닦으면 좋은데 그것을 모르면 신심信心도 떨어지고 헤매기 쉽습니다. 분명히 안 다음에는 상相에서 성性으로 현상現象에서 본체本體로 용用에서 체體로 수연에서 불변으로 가는 방법方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화두를 참구 한다든지 염불하고 주문을 왼다든지 하는데 우리 중생은 현상이 있고 체體를 미처 못 정한지라 자꾸 걸리게 마련입니다.

체體가 훤하니 보여 불변不變함을 알면 만상萬象이 천차만별이었다 하더라도 체성體性은 하나요 동체同體인지라 헤매지 않게 됩니다. 갑甲으로 보나 을乙로 보나 모두 체體에서 나온 것이니 체에서 나와서 임시로 인연 따라서 갑甲이요 을乙로 머무르기 때문에 체體와 더불어 조금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차만별로 무수한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본체本體에서 인연 쫓아 잠시간 상相만 보일 따름이어서 상相 그대로 체體입니다. 따라서 색즉공色卽空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을 우리는 공 가운데서 석공析空과 체공體

空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야심경』 풀이에서 즉공卽空 바로 체공體空을 말하지 못하면 『반야심경』의 공空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空은 상相이나 물질로 분석한 뒤에 공空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색色 그대로 당체즉공當體卽空이라. 어느 현상을 잡으나 마이크를 잡으나 몸을 딱 잡으나 뭘 잡으나 간에 당체가 공空일 때 그때 『반야심경』의 공空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란 것을 분석分析해 나가면 끝에 가서 공空이 되겠지 하는 것은 과학적인 분석 곧 석공析空이지, 당체즉공當體卽空 그 모양 그대로 공을 말하고 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색色 그대로 공空이기 때문에 공空 그대로 색色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용用은 체體를 떠나서 용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體를 전제로 해서 용用입니다. 공은 공空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알맹이가 색色입니다. 다만 중생衆生은 체體를 볼 수 있는 안목眼目이 없기 때문에 용用이나 색色만 보고 따지기 때문에 분별分別이 생기고 자타시비自他是非가 있습니다.

비록 나와 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체體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은 본성本性이기 때문에 김가 되나 박가 되나 본성은 변치 않습니다. 김가라 해서 김가 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가, 박가나 천차만별로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성은 변치 않습니다. 금으로 해서 본성에서 팔찌를 만드나 금시계를 만드나 금이란 자체는 변함이 없듯이 우리 본성이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어떤 상相이던 간에 성性이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바로 본 사람은 나를 너다 하고 너를 나라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본성 자리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림자 같은 모양만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 그것은 실존이 아닙니다. 실존實存은 오직 자성체自性體뿐입니다. 그러나 자성自性 가운데 신비불가사의한 일체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연이 만나면 그때에는 모양相을 나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당체즉공當體卽空을 알아 증證해야 합니다. 즉공卽空을 보다 더 원만히 풀이

하면 당체즉시當體卽是라. 개미 한 마리나 그야말로 원소 알맹이 하나라도 당체當體 그대로 즉시卽是요 즉시로 온 우주의 진리가 그대로 표현表現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나아갈 때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 평상심平常心은 누구를 미워하는 등 어떻게 생각하나 분별시비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성이 부처요 평상심입니다.

무색투명한 마니보주摩尼寶珠가 검정색에 가까이 하면 검게 나오고 붉은색에 가까이 하면 붉게 반영되듯이 자성이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우리 중생은 분별지를 내서 이것은 검다, 저것은 붉다고 나눈 것이지, 실제는 무색투명한 마니보주가 검게 붉게 나타남을 중생이 볼 때 다른 색으로 변화된 것이지 마니보주 그 자체가 변함이 없듯이 우리의 자성自性도 역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도 당체는 자성이고 좋아하는 그 마음도 당체는 불성佛性·자성自性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마음을 평상심平常心에 딱 두고 공부해야만 마음이 헐떡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도 헐떡이게 됩니다.

서울 수선회에서 온 분들의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니 요즘 호흡법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혜명경慧命經』 등을 조계사 등에서 강의해서 관심이 있고, 강의하신 분들이 『혜명경』에서 말하는 호흡법이 육조 스님까지 흘러 내려오는 부처님 것의 법맥法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조단경』은 물론 달마 『관심론』에 호흡법에 관한 출처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엄경華嚴經』·『법화경法華經』·『능엄경楞嚴經』·『금강경金剛經』·『열반경涅槃經』에도 그 흔적이 없습니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 같은 부처님 말씀 경전에 호흡법에 관한 경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 까지나 방편상 보조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야 성불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혜명경』 같은 호흡법이 정혜쌍수定慧雙修의 길이라고 너무 지나친 강변强辯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이것은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 마음 이것이 바로 자성체自性體이기 때문에 마음 다스리면 몸과 호흡은 자연

히 따라오는 것인데 마음이 거칠면 호흡이 거칠고 역逆으로 마음과 둘이 아닌지라 호흡을 다스리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다스려지나 마음과 호흡은 주종主從 관계이니 마음은 주인主人이요 호흡은 종從인데 종인 호흡을 주인主人으로 모시면 근원적으로 자성과 계합契合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주住하고 말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보조해 주는 정도로 호흡법(요가수트라나 혜명경)이 필요하기는 하나 정심단좌正心端坐하면 기식조화氣息調和라, 단정히 앉아 바른 마음 품고서 화두나 염불 등 공부하면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니 구태여 호흡에 대해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참 호흡은 요가수트라 호흡법에서 입식入息과 출식出息을 제除해 버린 것입니다. 공부가 미숙未熟할 때에는 입식과 출식이 있다가 공부가 익으면 들숨 날숨이 차차 사라집니다. 통신호흡通身呼吸이라, 그때는 몸 자체가 호흡이 되어 버립니다. 법계호흡法界呼吸이라, 법계法界 리듬과 나의 리듬이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에는 호흡법이 성립될 길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참선 탈취한 가운데 들숨 날숨 하는 호흡 이것은 하나의 재환災患, 곧 하나의 방해 마장魔障이란 것입니다. 입정入定하면 그때는 호흡은 없습니다. 몸이 있으니 호흡이 없을 수 없으나 호흡에 역점을 두지 말고 호흡은 마음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란 것을 알 때 정당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외도外道라는 것은 마음을 종從으로 하고 모양을 주主로 하는 것이니 호흡법을 주로 하고 마음 다스리는 것을 종으로 하면 그것은 바로 외도外道인 것입니다.

정도正道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는 몸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심一心 가운데 진소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요, 심불중생心佛衆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중생이나 부처나 마음 모두가 차별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부처라 할 것도 없지요. 이름 지어서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이 오직 하나 그것이 일미평등一味平等한 하나의 진리眞理 그 무엇, 「시심마是甚麽」 화두는 그 무엇을 참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 온갖 일체 지혜·공덕을 갖춘 그 무엇이 내 마음이요 부처요 자

성입니다.

안심입명安心立命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지어갈 때 마음으로 헐떡거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환경도 삼천대천세계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거니 육조 혜능께서 말씀하신 본래무일물입니다. 그때는 색色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의 흔적도 없습니다. 본래 우주宇宙가 텅 비어서 그야말로 오직 당체當體가 모두 불성뿐입니다. 불성佛性에서 인연 따라서 잠시간 거품 모양, 그림자 모양으로 결국 물질이나 산하대지를 나투어서 현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하처야진애何處惹塵埃라, 본래무일물인데 죄요 악이요 선이요 병이요 하는 눈앞에 티로 말미암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결핵 균도 불성이요 원자탄 핵도 체류탄의 알갱이도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 자성自性·불성佛性 아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천지 우주가 그야말로 변조광명遍照光明이라. 이와 같이 안심입명安心立命을 딱 한 다음 공부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若波羅蜜

5. 우리의 주인공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 1987년 6월 14일 태안사 법문입니다.

요즘 항간에는 선禪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더러는 단전법이라 해서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서 하는 단전법으로 교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화두로 의심만을 주로 하는 교수법도 있고, 화두도 없이 묵조默照 하는 묵조법도 있고, 각기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우수하다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책을 많이 보신 분은 어느 것을 쫓아야 하는 것인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선禪 이것은 따지고 보면 가장 쉬운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고 몸도 마음도 상쾌한 것입니다.

신身 안락, 심心 안락, 몸도 마음도 안락한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번뇌 망상하면 괴로운 것이고, 일체만유를 자비심으로 포용하는 그런 생각은 마음이 개운하고 편한 것입니다. 남을 미워해야 원수가 생기고 뭐가 생겨서 괴로운 것이지 우주 모두를 수용하고 천지 우주에 자기 적이 하나도 없단 생각할 적에 마음이 개운하단 말입니다.

또한 더 들어가서 천지와 우주와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다. 이 생각같이 마음이 편한 생각은 없습니다. 악마가 있고 사탄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자기와 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괴로운 것인데, 아무것도 없고 더불어서 둘이 아니라는 그 생각같이 마음이 편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참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참선을 많이 하고 의심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마음자세가 나와 더불어서 둘이고 셋이고 자꾸 갈라지고 분열되면 참선이 못 됩니다.

또한 어째서 우리 몸이 안락한 것인가. 우리 몸 자세가 나쁘면 괴로

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리를 배워서 알겠지만 이렇게 몸을 구부릴 경우에는 척추가 구부려지므로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붙는단 말입니다. 척추를 쭉 펴서 단정히 머리로는 하늘을 찌르는 기분으로 해서 앉고 턱은 약간 이렇게 당기고 어깨를 펴고서 긴장을 푸는 동시에 단정한 모습, 그 단정한 자세와 같이 몸이 편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거북하지요. 그러나 형색을 고치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원래 둘이 아니라서 몸이 단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마음도 단정해지는 것입니다. 단정한 사람치고 몸자세를 아무렇게나 앉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좌선은 이 참선도 신身 안락, 심心 안락이란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가장 안락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위대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별로 없어, 신통자재한 분이 없어, 참선하면 내내야 좋다가 말겠지 그 정도로만 느끼는 것이지, 참선으로 해서 얻는 무량 공덕은 우리가 별로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원효元曉스님이나 서산西山대사나 그분들은 기기묘묘奇奇妙妙한 것을 많이 했지마는 그때 과장해서 퍼트린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지,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께서 미간에서 광명이 나와서 천지 우주를 몇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것이 다 상징적인 묘사에 불과하겠지 하고 과소평가합니다.

허나 그런 기기묘묘한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묘기神通妙奇는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오직 참선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참선의 고요한 가운데서 우리의 번뇌가 딱 녹아진다 말입니다. 참선을 통해서 번뇌가 다 녹아지면 정작 그런 신통묘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나 그 뒤의 위대한 도인들은 이와 같이 번뇌가 다 녹았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다 가지고 있는 신통묘기를 발휘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참선한 분들은 비록 눈앞에 그런 신통묘기를 부리는 분도 안 보이고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져서 불교를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별것도 아니게 되고 말입니다. 이

런 때는 우리의 본성에 들어있는 무한의 공덕은 믿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자주 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컴퓨터 보십시오. 입력만 시켜 놓으면 이상한 힘을 발휘하고 말입니다. 불성佛性, 우리 인간성의 본성이 불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불교를 상당히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만은 주로 모르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우주의 본성本性 이것이 불성佛性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산천초목이나 우주 일체만유의 본성이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 위에서 일체만유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순수에너지, 일체만유를 구성하는 가장 순수한 생명 에너지 이것이 불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불성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참선 행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교가 많습니다마는, 기교를 익히기 전에 그와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비록 개발을 못 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나 우주의 본성은 일체공덕을 갖춘 불성이다. 그러면 공덕은 어떤 것인가. 공덕은 다는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도 공덕이 많으니까 경전에서 보면 도인이 되어서 신통묘기를 낸 분들이 몇 천 명 모여서 몇 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갖추고 있는 공덕을 다 헤아린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기도 하고 재주도 있고 글씨도 쓰고 자비도 베풀고 등 기기묘묘한 모든 그런 기술들 또는 기능들,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이 끝도 없고 갓도 없고 원만히 불성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공덕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것은 그때그때의 인연에 따라 생기고 소멸된다 하더라도 불성만은 영원히 존재 한단 말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항시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존재한단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낙樂이라 불성 가운데는 일체 안락스러운, 고통도 없고 고통은 상대유한적인 고통이지 절대

무한적인 영원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안락한 행복, 고통이 없는 좋은 것도 또 불성에는 충만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복스런 즐거움이 충만되어 있는 것이 낙樂에 해당됩니다. 아我는 우리와 같은 작은 아我가 아닙니다. 김 아무개, 박 아무개 하는 그런 아我가 아닙니다. 천지 우주를 나로 하는 대아大我 우주가 내가 되는 동시에 대아 가운데는 일체의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기능이나 재주나 뭣이나 다 갖추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두를 다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컴퓨터 같은 것도, 대아大我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레이더를 보십시오. 이상한 힘을 내는 것 말입니다. 전깃불을 보십시오. 전기가 얼마나 빛나는가? 전기가 어디서 오는가, 물론 전자의 흐름에서 오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자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의 근본 생명이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 가운데 아我는 광명이나 재주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정淨이라, 조금도 흐림이 없이 청정하고 행복스러운 영롱한 것만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영생하고 동시에 모든 행복과 안락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모두를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청정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상常과 낙樂과 아我와 정淨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불성입니다. 우리 불교는 무엇을 믿는가. 경전 읽고서 외고서 알듯 말듯 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성 가운데 있는, 인간성의 본질이요 우주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상常・락樂・아我・정淨 영원히 완전무결한 행복 동시에 완전무결한 모든 지혜와 공덕, 완전한 청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성의 본래면목,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 없지요.

계발은 미처 못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인간의 의식을 불교의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이와 같은 육식六識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잠재된 의식은 보다 훨씬 깊은 식識이 많습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나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이나 심층심리학을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현재는 육식이지만 그 밑의 제7식 말라식末那識, 그보다 깊은 제8식 아뢰야식阿賴耶識, 제9식 암마라식菴摩羅識, 제10식 그때는 불식佛識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파 들어가고 가면 가장 저변에는 역시 부처인 것입니다. 일반 자연학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물원소에 들어가 보면 끝에는 불성인 것입니다. 부처 가운데 들어있는 공덕은 아까 말씀한 상락아정이란 말입니다. 생을 몇 번 되풀이 하여도 불성佛性은 멸滅하지 않고 영생하고 말입니다.

우주가 다 파괴가 되더라도 불성은 멸하지 않는다. 불성은 영생한단 말입니다. 또한 일체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허나 예술가도 역시 위대한 걸작을 내려면 입신의 몸과 영원적인 영감을 내야 위대한 작품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위대한 걸작을 내려면 영원적인 생명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의 작품을 보면 영원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문학작품치고 영원성이 빛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 자기 생명을 발굴해서 영원 쪽에다 뿌리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락아정을 딱 믿어야 불교신자인 것이고 또 참선은 특히 현대는 이와 같이 옹졸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못돼먹었지마는 내내야 우리 마음 본성은 불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석가모니나 원효나 서산대사나 예수나 그런 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단지 계발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것을 딱 믿고 들어앉아야 참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그와 같은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항시 선禪인 것입니다. 참선 가운데는 화두라 해서 선지식이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의식하는 선이 있는데 우리 문제의식 가운데는 똥 마른 막대기라 똥 마른 막대기는 지금 문명사회에

는 없습니다만, 옛날 중국에는 뒤를 보고 휴지 대용으로 막대기를 썼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운문(雲門, 864~947)스님이라, 운문스님은 중국 당나라 때 위대한 스님인데 그분 아래서 공부하던 어떤 분이 그 스님 앞에 가서 "여하시불잇고?" 어떤 것이 부처인가? 성불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부처가 무엇인지 물어야 되겠죠. 물론 그 사람은 부처를 갖다가 응당 부처는 무한한 공덕이 있고 찬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예상하고서 부처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까, 스님은 천만 뜻밖에 똥 막대기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더럽고 추잡한게 똥인데 가장 지상至上·지존至尊의 부처를 물었는데 똥 막대기라, 하필이면 제일 더러운 것을 빗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 마음의 본래면목이 부처님이다. 마음이 자꾸 분산되어서 힘을 못 내는 것이지 하나로 모아지면 그때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응집하는 그런 힘, 마음이 모이고 모이면 그때는 위대한 힘을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이 연구를 할 때 계란과 자기 시계를 구분 못하고서 시계를 물에 삶은 것 보십시오. 그와 같이 텅 비면 딴 것은 별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일념一念이 되면 위대한 것이 나옵니다. 원래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하시불잇고' 물으니까 똥 마른 막대기라, 마음이 하나로 뭉치고 뭉치면 우주가 훤히 보이고 틔어 보인단 말입니다. 기쁠 때 달을 보면 방긋 미소 짓고, 슬퍼서 보면 울음 짖듯 보이고, 모두가 다 자기 주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뭉치고 뭉쳐 딱 열려버려 열린 마음으로 보면 우주가 조금도 변함없는 찬란한 부처로 보인단 말입니다. 법당에 모신 저런 부처만이 부처가 아니고, 몇 천 년 전 가신 석가모니불만 부처가 아닌 것입니다. 각 도인만이 부처가 아니고 본질을 바로 보면 전부 다 부처란 말입니

다. 똥 묻은 막대기까지도 그때는 부처입니다. 이와 같이 광대무변한 마음 가지고 덤벼들어야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선한 사람은 아는 것이 오직 천지 우주가 부처뿐이다. 마음을 잡고 참선을 해야 참선이 되는 것이지 나요 너요 미운 사람, 고운사람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는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선禪하고 거리가 멉니다.

선오후수先悟後修라, 바른 정견이 돼야 선禪이 나오는 것이지 바른 정견이 못 되면 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선을 하는 모양은 하겠으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른 정견이란 똥 마른 막대기나 구더기나 피라미나 모든 것을 바로 보면 부처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현대적인 과학적인 지식만 배운 사람들은 머리가 굳어버려서 나는 나, 너는 너, 자꾸 분열만 합니다. 이런 머리로 해서는 잘 안 되니까 마음을 모으고 모아서 모이면 차근차근 열려서 그때는 아! 그럴 법도 하구나, 하고 확 열리면 가장 온전한 마음 부처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가짜 마음입니다. 중생이 온전한 마음이 못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몇 만 생을 되풀이 합니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여겨 죽이면 분명히 지옥에 갑니다. 지옥 그것은 거짓말로 방편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아귀가 되는 것이고 식을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이는 개나 소 같은 짐승이 됩니다.

온전한 부처와 같은 마음, 천지 우주가 하나되는 온전한 마음이 못 되면 생명은 몇 만 생을 윤회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공부만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부인해 버린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는가? 개념적인 지식만을 배우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믿기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마만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고운, 순수한 정신을 무한의 공덕이 있는 영원 속에다 무한히 전개되는 무한의 지혜가 있는 자비가 있는 무한의 세계에다 해방을 시켜야 합니다. 이 마음의 무한경계, 무한의 공덕을 갖춘 부처의 경계에 해방시키는 것이 참선인 것입니다.

내 힘은 이것뿐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 내 마음에다 무한의 힘을 이와 같이 당당히 느끼고 사는 그때는 천 냥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꼴등이라 해도 힘은 분명 무한대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무한의 힘, 천재의 힘을 딱 믿고서 덤벼야 하나의 선禪이고 참선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자세를 가지고 참선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몸자세, 몸자세는 이렇게 단정히 앉는 자세가 참선하는 자세 아닙니까. 물론 서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서서하고 누워서 하든 걸어가면서 하더라도 우리 마음만 부처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다 선인 것입니다.

허나 그런 가운데 이런 좌선은 가장 능률이 오르는 본 모습입니다. 인간의 자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앉은 정삼각형의 모습같이 안정된 모습이 없습니다. 도형에서 정삼각형이 가장 안정된 모습이 아닙니까. 소위 가부좌가 가장 안정된 모습입니다. 또한 동시에 불교에서 보면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이라, 여래지인, 지智는 지혜라, 인은 도장 인[印]자입니다. 일체 부처님의 상징이 도형으로는 정삼각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모난 모습, 원같은 모습이 많이 있으나 일체 여래의 지혜인 부처님의 지혜는 삼각형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성의 본 바탕인 불성이 가장 발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천재가 발동하기 가장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책상에 앉을 때 구부려 앉으신 것과 단정한 모습으로 앉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단 책 읽는 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정히 앉아야 만이 우리 피가 막힘이 없이 상하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돈오頓悟를 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막히고 너에게 막혀있습니다. 그런 구속된 폐쇄된 마음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본래 부처라, 천지 우주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마음뿐이다, 그

런 심성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물질이 된 것이지 본래 물질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병의 뿌리가 없듯이 물질의 뿌리도 없습니다. 다만 거품이 모여서 된 것이 우리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취空聚라, 즉 공空이 모여서 된 것이다. 우리 몸은 텅 빈 공 기운이 모였습니다. 다만 중생이 잘못 보기 때문에 내 몸, 내 살 하면서 거기에 착着합니다.

우리가 한번 죽은 뒤에를 생각해 봅시다.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도 내 코도 내 예쁜 손도 죽은 뒤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위해 너무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영생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마음을 단장해야지 몸은 결국 썩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흔적도 없단 말입니다. 흔적도 없는 것에다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최소한의 것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은 뒤에는 우리가 지은 업장만 남습니다. 불성에 더덕더덕 낀 업식業識만 남습니다. 업식業識을 가지고서 업식業識 따라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아귀로 가는 것이고 또는 남을 미워하고 살생 많이 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잘해야 사람으로 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오직 마음뿐인 것입니다. 불심에다가 단장도 하고 장엄도 하고, 비록 금생에 성불을 못해서 훤하지 못해 증오證悟를 못한다 하더라도 훤한 가운데서 걸음걸음 가는 증오는, 자기 자성불自性佛, 자기 불성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대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상대도無上大道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서 돈오를 하셔서 그렇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모두가 부처뿐이로구나, 물질 이것은 허깨비로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허깨비·거품·그림자·메아리 이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오늘 법회에 모인 공덕으로 우리 대중은 해오解悟를 하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오직 증오證悟만 남았습니다. 증오를 꼭 하셔서 명년明年 우리 해제 때는 반드시 구해탈俱解脫하는 선정해탈禪定解脫·지혜해탈智慧解脫,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이 되리라 믿습니다. 재가불자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고 집에 계실 때도 염불하시고 염불도 본체를 안 잊으면 참선인 것입니다. 본체 불성을 안 잊으면 주문을 하나 염불을 하나 참선인 것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여서 한걸음 한걸음 불성에 가깝게 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6. 육화경六和敬과 입중오사入衆五事

* 1987년 10월 10일 태안사 3년 결사 중 하신 소참법문입니다.

믿는 바 수행 따라서 정진 중에는 괜히 이 말 저 말 횡설수설하고 그러는 것이 모두가 한담희론閑談戱論이 되어서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수록 말씀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몇 말씀하겠습니다.

자고로 삼종선三種禪이라, 우리가 바로 못 나가는 삼종선을 가리켜서 말씀한 법문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문자선文字禪이라, 문자만 주로 헤아리고 문자만 따지고 참다운 실수실참實修實參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좀 나가서 보다 나은 소리를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의 문자선文字禪에 불과하고 참다운 깨달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자는 아주 완전히 배제하고서 그때는 암증선暗證禪이라 그냥 한계도 모르고서 부딪혀서만 닦는다 말입니다. 범성凡聖과 미오迷悟의 차이가 본래에서 보면 둘이 아니지만, 역시 아직은 범부凡夫라 닦은 사람 분상에서는 분명히 범부凡夫와 성인聖人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미迷와 오悟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걸 바르다고 해석한단 말입니다.

자기 공부가 어디만큼 갔는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바로 나가는지 그것도 미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점검을 아무런 기초상식 없이 하는 것이 어둘 암[暗]자, 증명할 증[證]자, 암중모색하는 암증선暗證禪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호선野狐禪이라, 들 야[野]자, 여우 호[狐]자, 여우란 놈은 위세를 많이 부리고 꾀를 많이 부립니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고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하는 그런 행태를 많이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증未證을 증證으로 하고 미처 못 증證한 것을 증證했다 하고서, 미오迷悟를 오悟로 한다, 미처 못 깨닫고서 깨달았다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야호선입니다. 이름하여 증상만增上慢이 그런 선이란 말입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느끼고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못하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것을 범하기 쉽단 말입니다. 문자만 많이 외워서 지견만 늘어가지고 깨달았다고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다분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는 암증선暗證禪이라, 이것도 역시 법의 한계를 모르고서, 사실은 문자나 뭣이나 모두가 다 원래 둘이 아닌 것이고 원래 하나의 진여眞如 가운데는 문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서 문자를 배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법의 한계를 모르고 닦는다 말입니다. 그런 암증선도 우리가 배제排除하고 떠나야 하겠고, 더욱이 야호선野狐禪, 야호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증證하고 증했다 하면 그것은 증상만增上慢이 되어서 계행 가운데 망언 가운데도 대망언大妄言이라, 대망언을 범하면 그때는 우리 법의法衣를 빼앗기고서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것은 큰 허물인 것입니다. 도인道人이 아니고서 도인이라 하고 못 깨닫고서 깨달았다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인지라 우리 마음은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하면 이른바 천고마비란 말과 마찬가지로 역시 가을 되면 우리 마음은 살쪄옵니다. 특히 우리 수행자 마음은 바쁘기도 하고 살쪄옵니다. 모든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자기 뿌리로 돌아가는 그런 때라 놔서 우리 개개인이 생각할 때 가을 되면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 거두어서 우리 불심으로 가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기에 가을이 되면 향수를 느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마는, 그래서 우리 공부도 우리가 사철 다 하는 것이지만 특히 삼동결제三冬結制, 삼동三冬공부만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때입니다.

따라서 특히 한국에서는 자고로 증오證悟했다는 분들 보면 보통은 다

겨울에 했습니다. 여름에 하면 더위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분산이 되지만 겨울에는 마음이 함장函藏 되어서 공부가 잘 나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때도 물론 힘을 가다듬어서 해야 되겠지만 이 가을에 만반 준비해 가지고 겨울에는 그야말로 참 가행정진, 용맹정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스님들께서 벼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마따나 초발납자初發衲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 입승立繩스님께서도 노파심에서 하마 규율에 어긋나고 각자 공부에 손해가 되고 불화합不和合 될까 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승가의 화합의 기조는 「육화경六和敬」과 「입중오사入衆五事」란 말입니다. 「육화경六和敬」과 「입중오사入衆五事」 가운데 우리 출세간 수행자의 화합규칙 기준이 있습니다. 입중오사는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오부율五部律. 율장律藏은 『사분율四分律』·『오분율五分律』·『십송율十誦律』·『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그런 율장이 있습니다마는 실은 옛날의 선객들은 다 율장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들은 자칫하면 이렇게 계戒를 막 받아 와 가지고 강원講院도 안 거치고 나온 분도 있고 강원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 근래에는 율장을 따로 안 배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 행실에 관해서 아주 모호한 일이 많단 말입니다. 임제臨濟 스님이나 그런 분들도 어떤 때는 선기禪機 발동해서 업어치기도 했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율장律藏·논장論藏·경장經藏 다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상에서 선기 발랄해서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장도 안 배우고 마음의 지견도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본을 내서는 큰 탈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공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입중오사入衆五事 이것은 일—에 하심下心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자심慈心이라, 우리가 일체중생이 평등하거니 마땅히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권위의식

을 부릴 것입니까, 좀 구참이라고 부릴 것입니까, 사미가 먼저 깨달아 버릴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쇼카왕 때도 십 칠세 되는 사미沙彌가 삼명육통三明六通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심慈心이라, 역시 나이 많고 구참 스님들은 자심慈心으로 아래 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경恭敬이라, 역시 늦게 오신 분들이라든가 나이 젊으신 분들은 비록 승가의 차서次序로 법랍은 있다 하더라도 역시 한 살만도 더 먹었다면 응당 거기에 상응된 공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지차제知次第라, 알 지[知]자, 차례 차[次]자, 차례 제[第]자, 자기 차서次序를 안단 말입니다. 내가 이 회중會中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차서次序를 모르면 그마만치 자기 법도를 넘어 버린단 말입니다. 법도를 넘으면 그마만치 남의 빈축을 삽니다. 그다음에는 불설여사不說餘事라, 아니 불[不]자, 말씀 설[說]자, 남을 여[餘]자, 일 사[事]자, 공부하는 것 이외에 딴말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자꾸만 딴말을 하면 자기도 공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라는 것은 내내야 우리는 상수上首 수좌首座니까 산심散心을 거두고 정심正心에 들어가야 합니다. 산란스런 마음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꾸만 개념 활동을 많이 하고 남의 말만 하면 그마만치 공부는 안 됩니다.

일심지一心支라, 한 일[一]자, 마음 심[心]자, 지탱할 지[支]자, 일심지에 들어가야 삼매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무간수無間修라, 없을 무[無]자, 사이 간[間]자, 닦을 수[修]자, 사이 없이 닦아나가야 삼매에 든단 말입니다. 삼매에 못 들면 그때는 법을 못 증證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인 기준 되어서 일언지하一言之下에 철저하게 깨달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마는 보통은 다 오랫동안 닦아서 구구순숙久久純熟이라, 오랫동안 닦아서 삼매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습기를 녹이고 증證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될수록 공부하는 말, 우리 살림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될수록 말이 적어야만 산심散心을 거둡니다.

산심散心을 거두고 정심定心에 들어가서 법의 진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수좌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관타좌只管打坐·신심탈락身心脫落이란 말입니다. 덮어놓고 앉아라, 지관타좌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앉다 보면 그때는 신심탈락이라, 그때는 몸과 마음이 쑥 빠집니다. 이 몸뚱이, 사대四大·오온五蘊 분별시비하는 마음, 응심凝心이 간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버려야 지견智見도 그때는 바른 지견이 나옵니다.

사대·오온이 텅 빈 것을 못 맞닿아 놓으면 내내야 거기서 맴돌아 버리는 것이지 바른 지견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사대·오온을 훤히 뚫어서 마치 밑이 없는 독같이 딱 빠져버려서 나라는 관념이 이렇게 사라져버려야 비로소 바른 지견이 나오는 것이니,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처럼 지관타좌只管打坐라, 오로지 앉아야 하거든요. 따지고 분별하면 그렇게 못 되는 것입니다. 앉다 보면 마치 흐린 물을 가만두면 앙금이 가라앉아서 바닥이 보이듯이 앉다 보면 차근차근 사대·오온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조주趙州스님께서도 십 년 이십 년 닦아서 못 통하면 내 목을 베어가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육화경六和敬」, 아까 말씀드린 「입중오사入衆五事」는 일一에 하심下心하고, 이二에 자심慈心으로 해서 자비심 부리고, 삼三에 공경심을 내고, 사四에 자기 차서次序를 알고, 오五에 필요 없는, 공부에 유익되는 말 아닌 그런 실언失言 같은 걸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경經 말씀도 실언인 것입니다. 실언을 자꾸만 하면 자기도 공부 손해되고 남도 방해를 치는 것입니다.

「육화경」은 대체로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마는 신화동주身和同住라, 자기 몸은 역시 대중과 더불어서 자기가 자는 처소가 특별히 좋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혼자 저쪽 조선당祖禪堂에 있으니까 항시 가책을 받습니다만 억지로 맡겨주어서 그냥 있습니다마는 항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구화무쟁口和無諍이라, 자기 입으로는 항시 청정한 말, 우리 공부에 유익한 말, 또는 상相을 떠난 체體에 입각한 말, 그런 말만하고서 부질없는 말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피차 옥신각신

서로 다툼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의화동사意和同事라, 자기 뜻은 같은 일을 생각한다 말입니다. 같이 한집에 살면서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버리면 그때는 화합이 못됩니다. 그다음에는 계화동준戒和同遵이라 ,경계할 계[戒]자. 계를 같이 지켜야지 한 편은 지키고 한 편은 안 지키면 또 화합이 안 됩니다. 한 편은 애쓰고 안간힘을 쓰고, 한 편은 치고 갔다 왔다 하면 그때는 화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견화동해見和同解라, 볼 견[見]자. 우리 견해가 같이 정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세간에서 배운 습기나 있어 따지고 그런 것이나 말하면 그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처님께서, 불조佛祖가 말씀하신 청정행법淸淨行法 외에는 말 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손해 안 보고 분위기도 그마만치 혼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견화동해라 우리가 불법에 대한 견해를 같이 똑바로 같이 정당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화동균利和同均이라, 우리가 승가에서 수입이 있으면 같이 똑같이 써야지 어느 한 사람은 더 많이 쓰고 한 사람은 못 쓰고 또 못 먹고 못 먹는다거나 그러면 또 불화가 생깁니다. 이상 든 바와 같이 「입증오사」나 또는 「육화경」을 잘 지킨다면 그때는 화합이 안 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간에도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같아야 한다고 하지만 또 역시 삼십 년, 몇 십 년 그렇게 연령의 층하가 있어 놓으면 우리 견해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부모지간에도 차이가 있거니 하물며 남남끼리 모여 있는 우리 승가僧伽에서는 그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같이 나이가 육십이 되어놓으면 사실은 옛날에는 계첩戒牒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째서 바치는가 하면 그때는 계행戒行을 잘못 지킨다 말입니다. 마음은 지키려고 하지만 몸은 거기에 못 따라 줍니다.

보조국사普照國師 같은 분도 쉰네 살에 안 가셨습니까, 그런다고 생각할 적에 나이 육십쯤 먹으면 그때는 거의 덤으로 사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삼 년 결사해서 벌써 이년 이상 지금 지났는데 이년 이상 동안이나 산문도 안 나겠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 이것을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지금 젊은이들, 특히 지금 결사를 주도하고 같이 동참해있는 거룩하고 그야말로 참 고귀한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하고, 또 젊은이들 역시 우리는 지금 잘하려고 애쓰지만 아까 말씀처럼 역시 노인, 파거불행破車不行 노인, 노인불수老人不修라, 역시 오랫동안 되어놓으면 몸이 그때는 허물어집니다. 한번 감기 들면 회복되기가 훨씬 더딘 것이고 피로가 오더라도 회복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피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중오사」라든가 「육화경」을 염두에 두고 지낸다고 하더라도 역시 각기 그들 세대의 차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그때그때 거북한 일이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말씀 부언附言 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태안사같이 시설도 미비하고 수용도 적은데도 좋은 스님들이 오셔서 참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선방禪房이 좀 좁아서 더욱더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중오사入衆五事」, 율본에 있는 대중에 들어올 때 화합하는 그런 기본 「육화경六和敬」에 있는 우리 불조佛祖의 간절한, 우리한테 드리운 그런 규칙을 염두에 두셔서, 오는 삼동三冬, 그야말로 참 가행정진과 용맹정진을 위해서 대사를 마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無摩訶般若波羅蜜!

菩提方便門

心此充佛河衆면 量의 (法)隨(법)라。
的고 가 那山情하 無如陀心니
空하 水舍宿有觀彼一(報)을 지
虛念淨虛星의 로 시 相彌行할
한 을 의 여 月靈 滾다 性(化)諸察
邊佛垢하 日舍中고 空阿常觀
無那無달 로 動海하 을 여 無惟
大遠한 인 外蠢인 念生하 의 思
廣虛로 帶身과 至涌을 衆달 生로
한 毘을 報生 乃自佛相인 衆으
無여 明滿衆畜 波尼滾 佛數相
이하 光圓色人金牟모와 一無行
影달 色서 無파 風迦가海身인 大
隻척인 金면 의 生無釋性三相一
雲身의 하 滅衆海여 滿서 滅의
片法月觀念情性하 淨면 生陀
새 淨日을 起無을 달와하 外彌
할 清超海念의 生인 界觀內여
等들서 에 性로 衆衆身心通고 하
과면 界的內萬切化空로 하 달
空하 心衆고 羅라一億淸으 念인
虛觀的海하 森의 百의 相常轉
은을 空한 念地과 千邊合을 境
心界虛滿을 大生서 無一佛萬

보리[진리]를 깨닫는 방편문

마음은 허공과 같을 새,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淸淨法身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색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보신圓滿報身인 노사나불盧舍那佛을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無色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뜻이 없는無情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有情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바다에 바람 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인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空)과 성품(性)과 현상(相)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의 삼신三身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불을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 청화선사淸華禪師 번역 —

무주선원 법공양 안내

금강심론金剛心論 시리즈

Ⅰ. 영인본影印本 금강심론金剛心論

청화淸華 큰스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금타金陀 대화상의 유고遺稿를 영인본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동양대학도서관에 있는 1941년 출판한 일본어 「신설新說 우주의宇宙の본질과本質と형량形量」을 스캔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을호乙號, 병호丙號 「증보增補 정음正音 관음문자觀音文字[一人轉에 一人度]」”를 수록하였습니다.

Ⅱ. 운문암본雲門庵本 금강심론金剛心論

영인본 『금강심론』을 그대로 워드 작업하여 편집하였으며 부록으로 금타金陀대화상께서 거사님께 보낸 엽서 글과 오대산 월정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증보增補 정음正音 관음문자觀音文字[一人轉에 一人度]” 속에 있는 지은이 미상의 권유문勸誘文을 넣었습니다.

Ⅲ. 태안사泰安寺 금강심론金剛心論

1992년 태안사에서 청화 큰스님께서 편집 출판한 『금강심론』을 운문암본 『금강심론』과 1979년 상견성암에서 출판한 『금강심론』과 비교해가며 오자誤字와 누락漏落된 부분을 바로잡고 주註와 색인索引을 추가하였습니다.

Ⅳ. 원통불법圓通佛法의 요체要諦

1992년 3월 해제 중 태안사 금강선원金剛禪院에서 7일간의 특별법회 법문 내용을 녹취하여 “원통불법의 요체”라 상재上梓하였으나 많은 부분은 『금강심론』의 내용을 짚어가면서 법문하셨습니다. 1992년 출판한 『원통불법의 요체』를 녹취와 확인하며 약간의 오자誤字와 시대에 맞는 맞춤법으로 교정보았습니다.

Ⅴ. 금강심론金剛心論 읽기

본연本然 스님 책임 편집으로 태안사본 『금강심론』을 번역하였으며 여러 교정하시는 분들이 숙독熟讀해 가며 문장을 다듬고 어려운 용어는 주註와 색인索引을 넣어 2020년에 출간하였습니다.

역서譯書, 법어집法語集

1.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은 1979년 청화淸華 큰스님께서 영암 월출산 상견성암上見性庵에서 3년 묵언默言 정진하시면서 처음으로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그 후 태안사에 오셔서도 출판은 이어졌는데 1992년 곡성 태안사泰安寺에서 출판한 것을 모본母本으로 하여 당시 세로쓰기 편집을 가로쓰기로 편집하였으며 현대에 맞는 맞춤법으로 약간의 교정을 보았습니다.

2. 아미타불이 여러분의 참 이름입니다

다음 카페 무주선원에 올리였던 청화淸華 큰스님께서 고구정녕苦口叮嚀 일러주신 주옥같은 염불 법문을 편집하여 법공양으로 출판하였습니다.

3. 염불선念佛禪

2013년 청화淸華 큰스님의 염불선 법문만 모아서 편집 출판한 『실상實相 염불선念佛禪』 법어집을 『염불선念佛禪』 표제를 수정하여 약간의 교정을 보고 출판하였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실상염불實相念佛, 염불선念佛禪에 대하여 이해理解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4. 정통선正統禪의 향훈香薰

청화淸華 큰스님의 법어집 『정통선正統禪의 향훈香薰』은 1993년 12월 교정 출판한 것을 이번 무주선원에서 다시 글씨를 키우고 시대에 맞는 맞춤법으로 약간의 교정을 보아 편집하였습니다. 주 법문 내용은 1984년 겨울, 안성 칠장사七長寺에서 용맹정진 기간 중 법문하신 것과 각 언론사 인터뷰 기사로 편집하였습니다.

마음의 고향 시리즈

청화淸華 큰스님 법어집 『마음의 고향』 시리즈는 청화淸華 큰스님께서 대중 법문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1984년 남원南原 백장암百丈庵부터 2003년 11월 옥과 성륜사聖輪寺 열반전까지의 중요법문을 모두 실었습니다.

1. 마음의 고향 순선안심純禪安心 법문

1995년 1월 미국 카멜 삼보사三寶寺에서 동안거冬安居 중에 사부대중四部大衆을 대상으로한 "순선안심탁마법회" 법문과 2000년 동안거 제주도 서귀포시 공천포 토굴에 머무시면서 가까이 있는 상좌, 신도분들께 하신 『육조단경六祖壇經』에 대한 소참 법문으로 편집하였습니다.

2. 마음의 고향 수행자修行者 법문

태안사 시절 정기법회 법문과 청화淸華 큰스님께서 남원 백장암百丈庵에서 1984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 동안거 용맹정진 중 하신 법문으로 편집하였습니다.

3. 마음의 고향 진여실상眞如實相 법문

태안사, 성륜사 정기법회 법문과 청화淸華 큰스님께서 번역하신 「법성게法性偈」를 수록收錄 편집하였습니다.

4. 마음의 고향 무아無我, 무소유無所有 법문

일반 정기법회 법문과 불교 교리의 기본이 되는 삼보三寶,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십이인연十二因緣, 『반야심경般若心經』 법문과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의 독해讀解」로 편집하였습니다.

5. 마음의 고향 보리방편문菩堤方便門 법문

일반 정기법회 법문과「보리방편문菩堤方便門」 법문 그리고 2003년 곡성 성륜사 조선당에서 열반 당시(11월 12일 오후 10시 30분), "무주당無住堂 청화淸華 대종사大宗師 영결식永訣式", 청화 대종사 연보年譜 등으로 편집하였습니다.

6. 마음의 고향 화장세계華藏世界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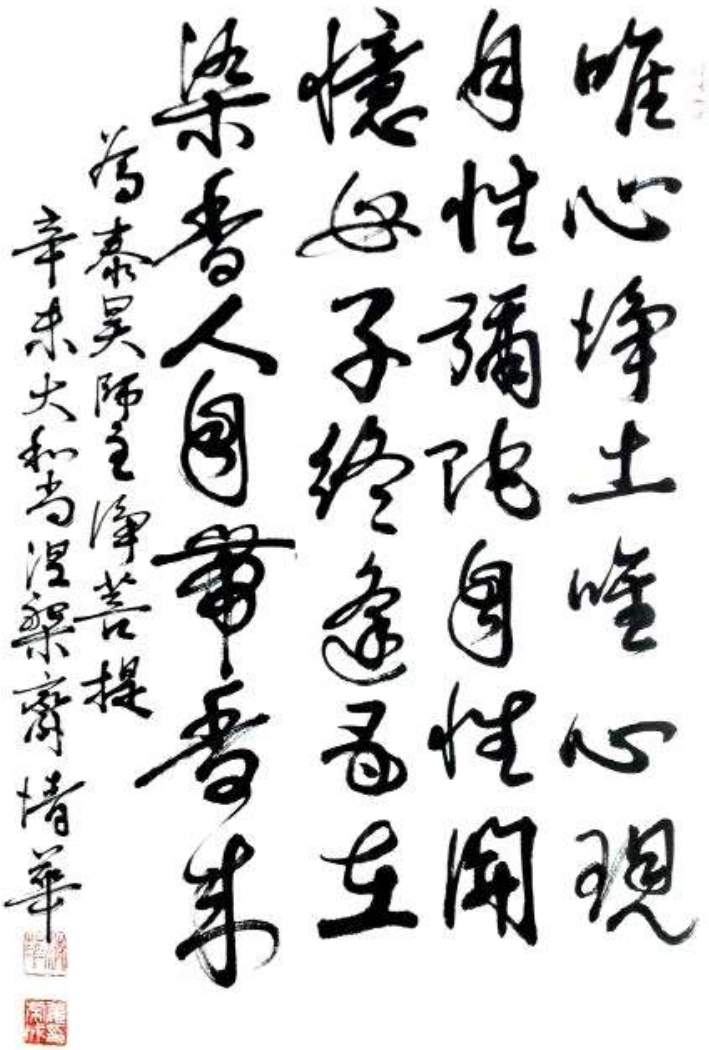
원적圓寂하신 태호泰昊스님께서 곡성 태안사泰安寺 3년 결사 시절(1985~1988) 청화淸華 큰스님의 법문을 노트에 녹취하신 것을 정리하여 출판한 것입니다. 주 법문은 태안사 시절 정기법회, 소참小參 법문이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법문입니다.

7. 마음의 고향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법문

청화 큰스님께서 미국에서 귀국 후(1998년 4월) 법문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당신께서 2003년 11월 열반涅槃 들기 전까지의 중생들에게 고구정녕苦口叮嚀 일러주신 주옥같은 핵심 법문으로 모아 편집하였으며 당신의 마지막 대중 법문(광륜사, 2003년 6월 15일)과 청화 큰스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육조단경六祖壇經』의 머리말, 해제解題로 편집하였습니다.

* 청화淸華 큰스님의 법문은 스마트 폰 스토어에서 앱 「청화」를 다운받아 들으실 수가 있고 다음카페 무주선원과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 법공양 신청하실 분은 원하는 책 이름, 우편물 받으실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문자문의 010-9266-5361 본연本然스님



爲泰昊師主위태호사주 淨菩提정보리

辛未신미(1991년) 大和尙대화상 涅槃齋열반재 청화淸華

唯心淨土唯心現 유심정토유심현하니,

오직 마음이 본래 정토거니 우리 마음을 닦음으로 해서
비로소 스스로 정토를 이룩하고,

自性佛陀自性開 자성불타자성개로다.

우리 자성이 우리 본래면목이 본래 부처거니
우리 스스로 부처를 성취할 수밖에는 없다.

憶母子終逢自在 억모자종봉자재하니,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부처님을 흠모하고 동경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유자재로 부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染香人自帶香來 염향인자대향래로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향을 지니고 있으면 향내가 스스로 풍기듯이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만큼 부처님 기운이 빛나 온다는
것입니다.

– 1995년 미국 삼보사에서 청화 큰스님 법문 –